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三農 Forum

East Asia Provincial Government Agriculture Forum 2015

農業·農村·農民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

2015.9.14(월) - 9.16(수)

충남도청 문예회관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20091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三農 Forum

East Asia Provincial Government Agriculture Forum 2015

農業·農村·農民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





2015.9.14(월) - 9.16(수)

충남도청 문예회관

개 회 사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포럼 참가를 위해 우리 충청남도를 방문해 주신 국내외 지도자 여러분과 각계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처럼 뜻 깊은 행사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1세기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동아시아 3국이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역내 지방정부간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이번 포럼이 지방정부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미래와 아시아평화, 그리고 지방정부 간 교류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세계는 지금 경제위기, 저출산 고령화, 평화과제, 식량안보, 환경 및 자원 문제 등 함께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전환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은 21세기 전 세계적인 화두이자 최대 도전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계적인 공동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포럼이 개최된 배경이며 오늘 우리가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인 것입니다.

농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업은 우리 인류의 뿌리입니다. 2천년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바로 농업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활동과 문화활동 등 모든 활동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도 농업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자연, 생태, 문화, 교육의 가치를 아우르는 농업은 21세기 우리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식량주권, 식품안전, 도농격차,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3국 지방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노하우와 해결방안에 대한 지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모색합시다. 그리고 공동번영의 토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포럼이 우리 아시아에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농업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유익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이 우리 농업과 지속가능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의 미래와 3국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힘써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21세기 지속가능한 농업과 우리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멀리서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각별한 우정과 존경의 인사를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15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환 영 사



한 · 중 · 일 **지방정부**가 신생벤처 "**농업**" 을 설계하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풍성한 계절 가을의 어귀에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이 열리게 되어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농민은 생명지기'라는 소신으로 일류 농업을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님 **[김호]** 3농혁신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사 참여를 위해 멀리 해외에서 우리 道를 방문해주신 지방정부 대표자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님,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님, **[가와카츠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님을 비롯하여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은 인류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농업은 인류 탄생과 맥을 함께 한 가장 오랜 된 산업으로 농민은 세계사를 창조하는 생명 장인(匠人)의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식량·물·에너지·자원 등 인류가 풀어야할 이슈의 중심에는 농업이 있으며, 생명산업은 신의학·신소재·신환경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 첨단산업이자, 신생 벤처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폭넓은 글로벌 이슈와 함께 농업이 나아갈 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공유하여 자치농정의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욱이 동아시아 전문가들의 고견은 깨어있는 농민· 도전하는 농촌 · 함께 하는 농업의 화수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누구나 살고 싶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젊은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이번 포럼의 가장 큰 결실은 농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동아시아 지방정부간의 맘 따뜻한 이해와 속 시원한 소통일 것입니다. 거듭 『2015 한·중·일 지방정부 3농포럼』을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15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 기 영**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프로그램

날 짜	시 간	내 용	장소
9.14(월)	14:00~17:00	■ 학술심포지엄 ○ 한·중·일 기후변화 연구와 대응방안 ○ 3농문제와 지방정부의 역할	농업기술원 충남연구원
9.15(화)	08:50~09:00	■ 공연	문예회관
	09:00~09:30	■ 개회식 ○ 개회선언 ○ 환영사 ○ 축 사	
	09:30~11:30	■ 동아시아 지방정부 대표로부터 듣는다 ○ 동아시아 3농문제와 발전을 위한 제언	
	11:50~13:00	■ 오 찬	
	13:00~13:10	■ 공연	문예회관
	13:10~18:00	■ 주제발표 ○ 일본 농업 과제와 나라현 농업(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 중국의 3농정책 현황(치우저치 베이징대학 교수) ■ 3농정책 포럼 ○ [1세션] : 지속가능한 농업 좌장 : 양 병 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중·일 경험과 사례) ○ [2세션] :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좌장 : 황 수 철 한국식품유통학회장 (한·중·일 경험과 사례) ○ [3세션] : 농민중심 농정 거버넌스 좌장 : 김 동 환 한국농업경제학회장 (한·중·일 경험과 사례) ○ [종합토론] 좌장 : 김 호 3농혁신위원장	문예회관
9.16(수)	09:30~12:00	■ 정책현장 견학 〈초청인사〉 ○ 1코스 : 홍성 문당마을, 갓골마을 ○ 2코스 : 아산 외암민속마을 ○ 3코스 : 백제역사유적지구	농촌현장 및 문화탐방

목차 Contents

❖ 기조 연설

▶글로벌화 시대의 일본 농업의 과제와 나라현 농업의 추진

나라현 아라이 쇼고 지사

❖ 주제 발표

▶중국의 3농 : 핵심이슈 그리고 현재와 미래

베이징 대학교 치우저치 교수

<1세션 :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혁신 전략 3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연구원

지방정부의 현대화 농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례 분석 23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彭建强(펑젠창) 부원장

비닐온실 보급 모델 37

칭다오농업대학 李宗洙(리종쭈) 교수

나라현의 농업 정책 53

나라현 농림부 후쿠타니 타케오 부장

지하수와 토질을 개선하는 농업의 추진 61

구마모토현 농림수산부 소노다 마고토 국장

네덜란드형 최첨단 시설 도입 69

야마나시 명야채원 유한회사 아그리마인드 후지마키 신지 대표

목차 Contents

<2세션 :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충남마을 만들기 83
충남연구원 구자인 연구원

농촌촌급 공공서비스센터 건설사례 101
상하이시 莫云华(모윈화) 처장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산촌의 활성화 사례 117
군마현 타테노 에이이치 님(농업인/전 현의원)

음식의 도시, 차의 도시, 꽃의 도시를 이끌어 갈 영농지도자의 육성 125
시즈오카현 기획홍보부 시라이 미츠루 부장

시가현의 농림수산업 133
시가현 미나 미시로 님(전 시가현 농정수산부 국장)

<3세션 : 농민중심 농정 거버넌스>

농업회의소와 협치농정의 필요성 161
국민농업포럼 정명채 정책위원장

농업글로벌화를 통한 농업현대화 추진 173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刘小宁(류샤오닝) 부소장

농촌자원을 도시의 수요와 연결하면 10조엔 산업, 100만명 고용이 가능 185
야마나시 소네하라 히사시 대표

소자녀 고령화의 제일선 아키타현 고조메마치의 대처 211
아키타현 사토 요시히코 고조메마치 의회 의원

일본의 지방 정책 현황과 과제 223
동경도 후루사토회귀센터 가사미 카즈오 사무국장

참고자료 1. 동아시아 지방정부 대표로부터 듣는다 249

참고자료 2. 참여 지방정부 농정 사례 261

기조 연설

2015 동아시아 지방 정부3농 포럼
기조 강연 자료

2015년 9월 15일

글로벌화 시대의 일본 농업의 과제와 나라현 농업의 추진



나라현 지사
아라이 쇼고

오늘의 강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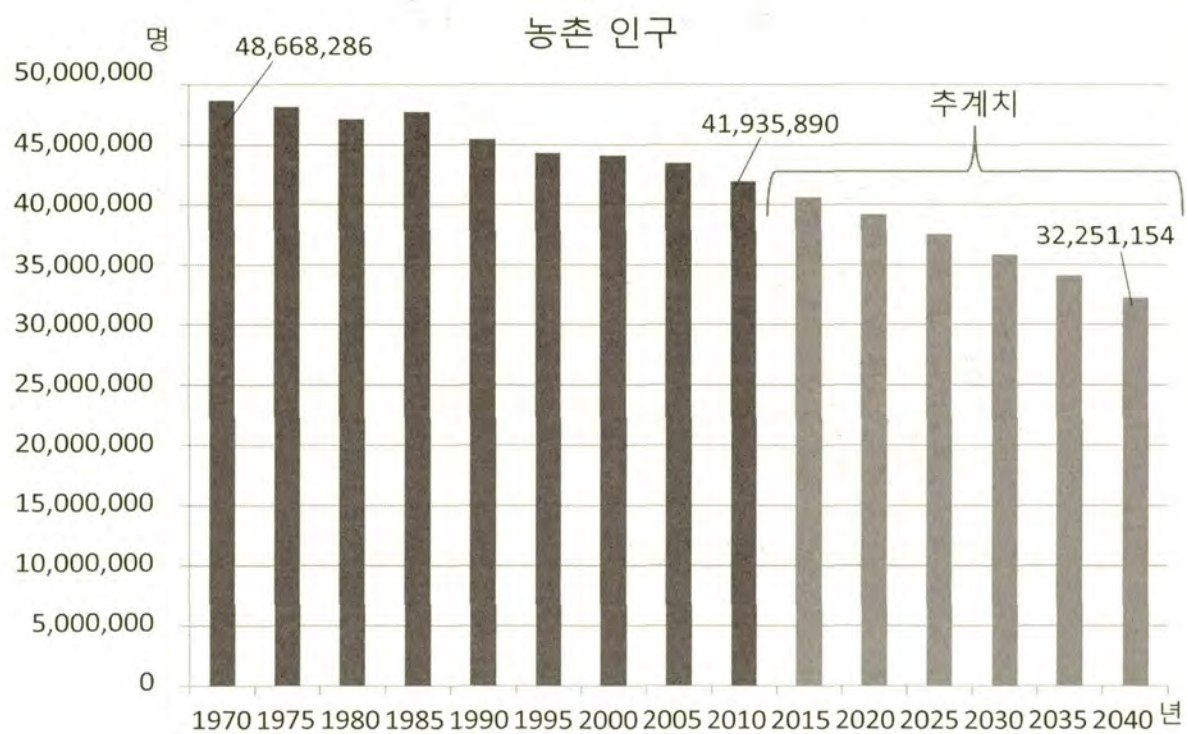
1. 일본 및 나라현 농업을 덮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2. 일본, 나라현, 한국의 농업 상황
   (1) 농가
   (2) 경지 면적
   (3) 농업 산출액과 품목
   (4) 야생동물 피해

3. 나라현의 농업 진흥 대책

1. 일본 및 나라현 농업을 덮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1) 일본에서는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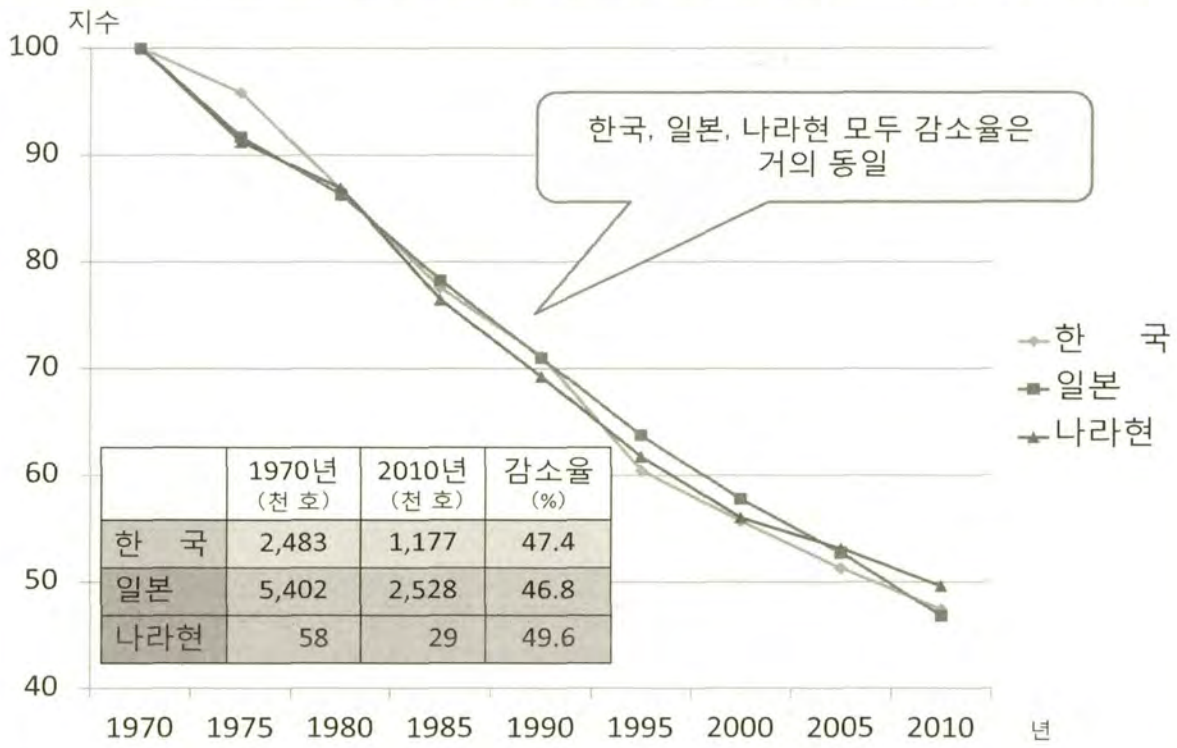


(2) 일본에서는 농촌의 고령화가 향후 계속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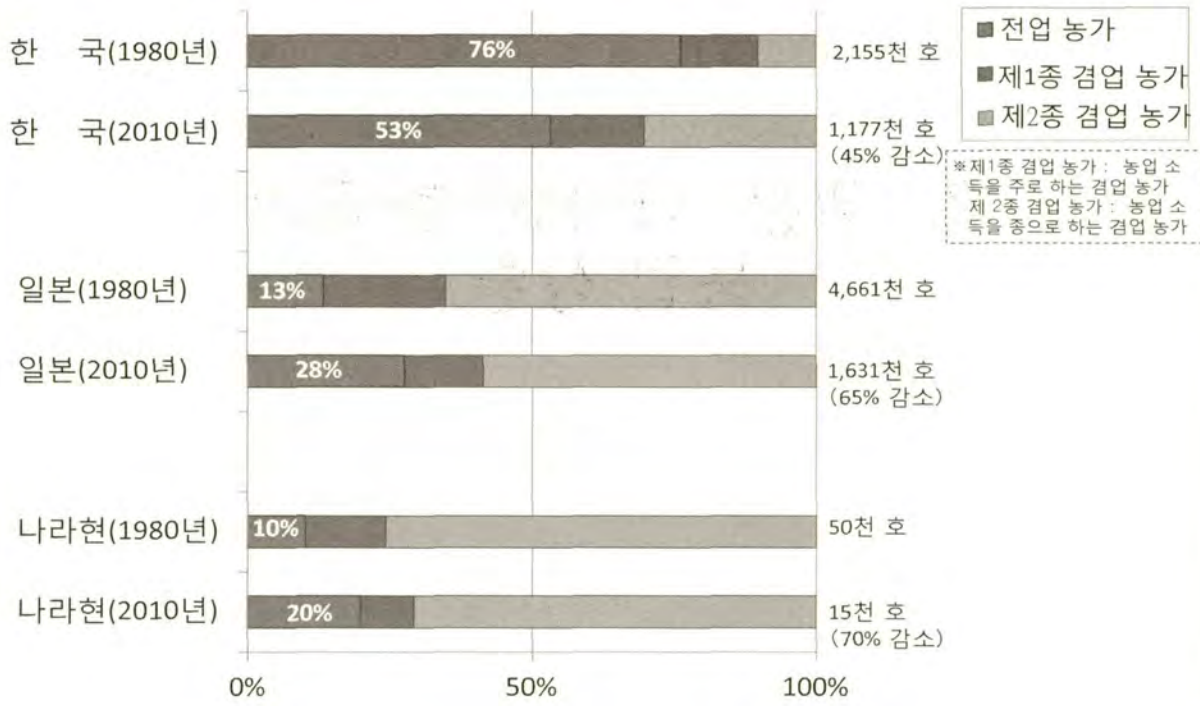
2. 일본, 나라현, 한국의 농업 상황

(1) 일본, 한국 모두 총 농가 수는 과거 40년 동안 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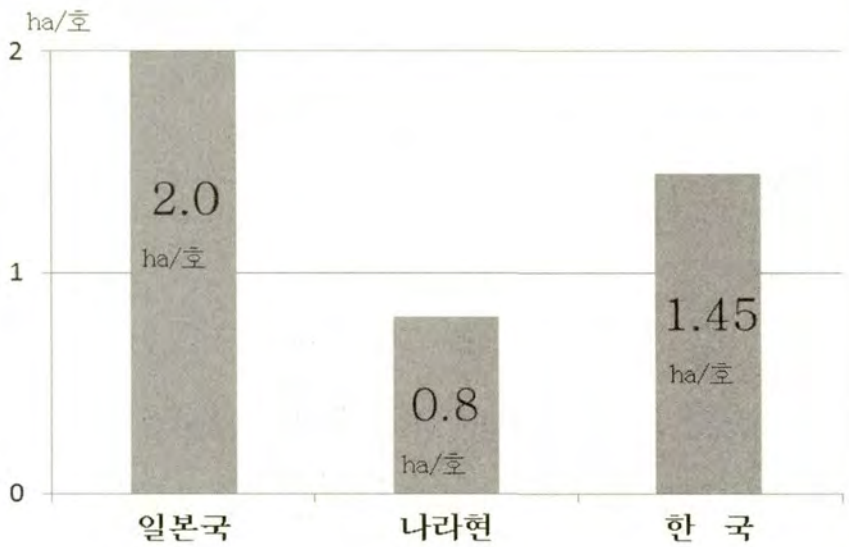
	1970년 (천 호)	2010년 (천 호)	감소율 (%)
한 국	2,483	1,177	47.4
일본	5,402	2,528	46.8
나라현	58	29	49.6

(2) 일본, 나라현, 한국의 전업·겸업 농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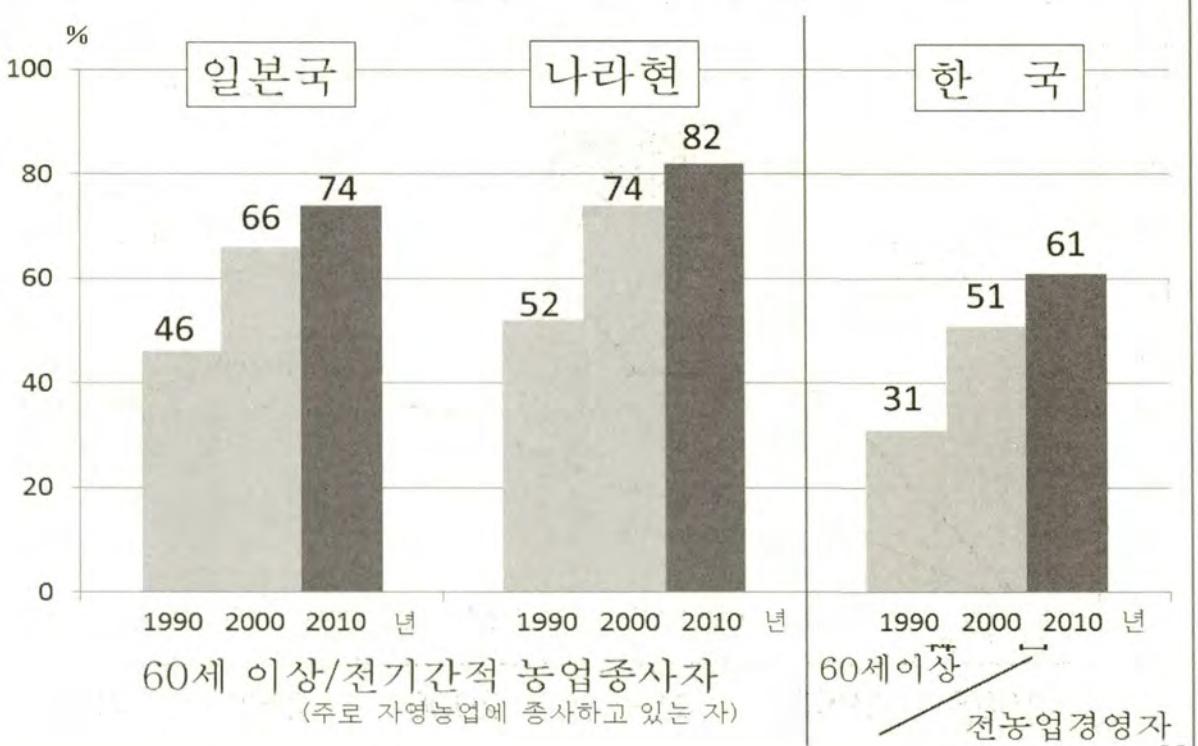
(3) - 1 나라현 농가의 경영 면적은 크지 않다.

[2010년]
판매농가1호당
경영경지면적
(ha/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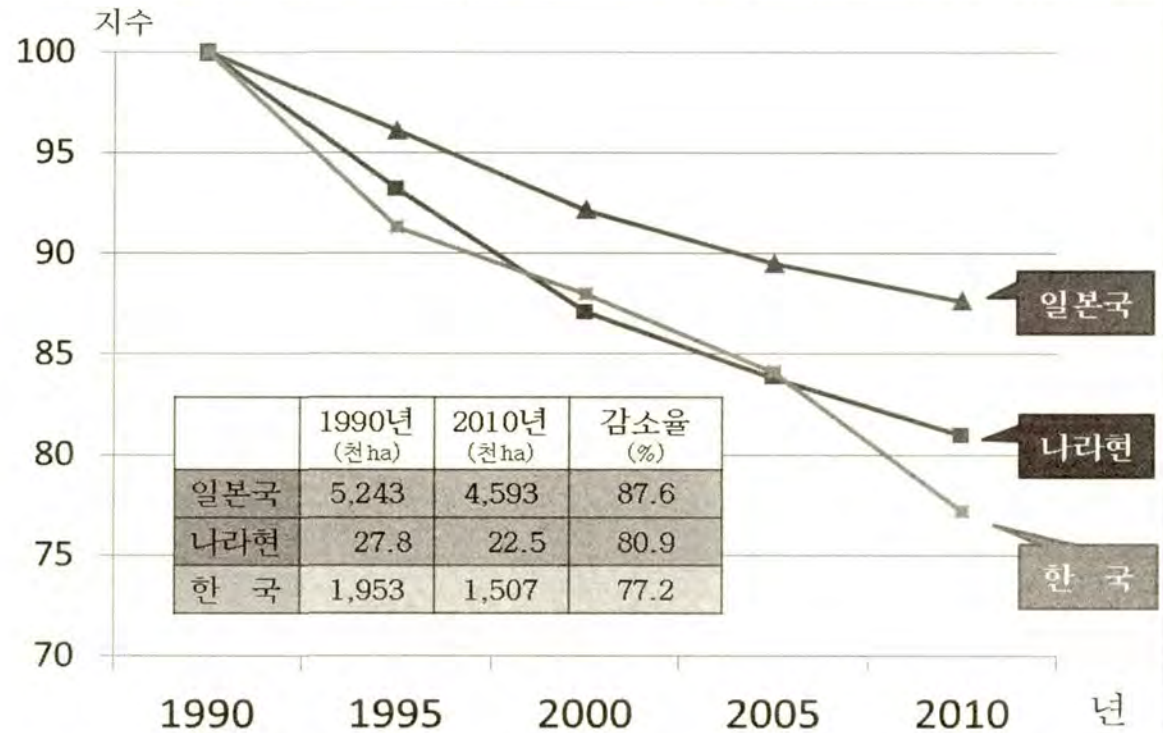
9

(3) - 2 나라현 농가(담당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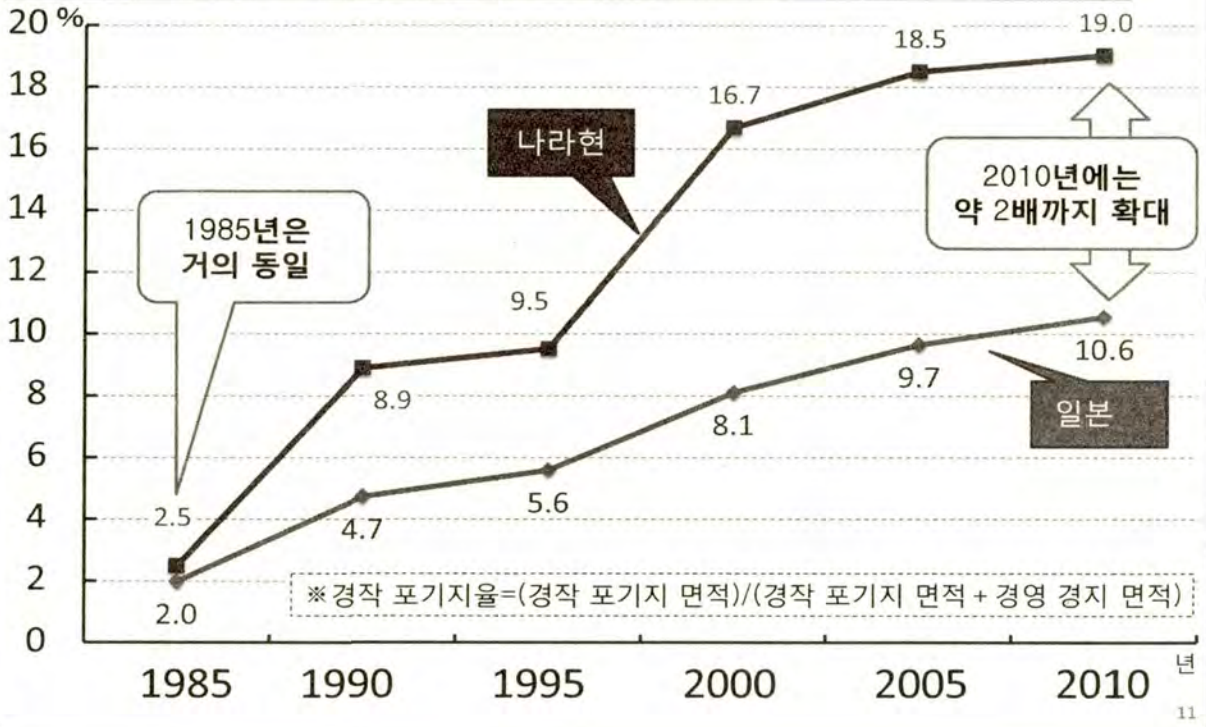
9-2

(4)나라현과 한국 모두 경지 면적은 과거 30년간 20%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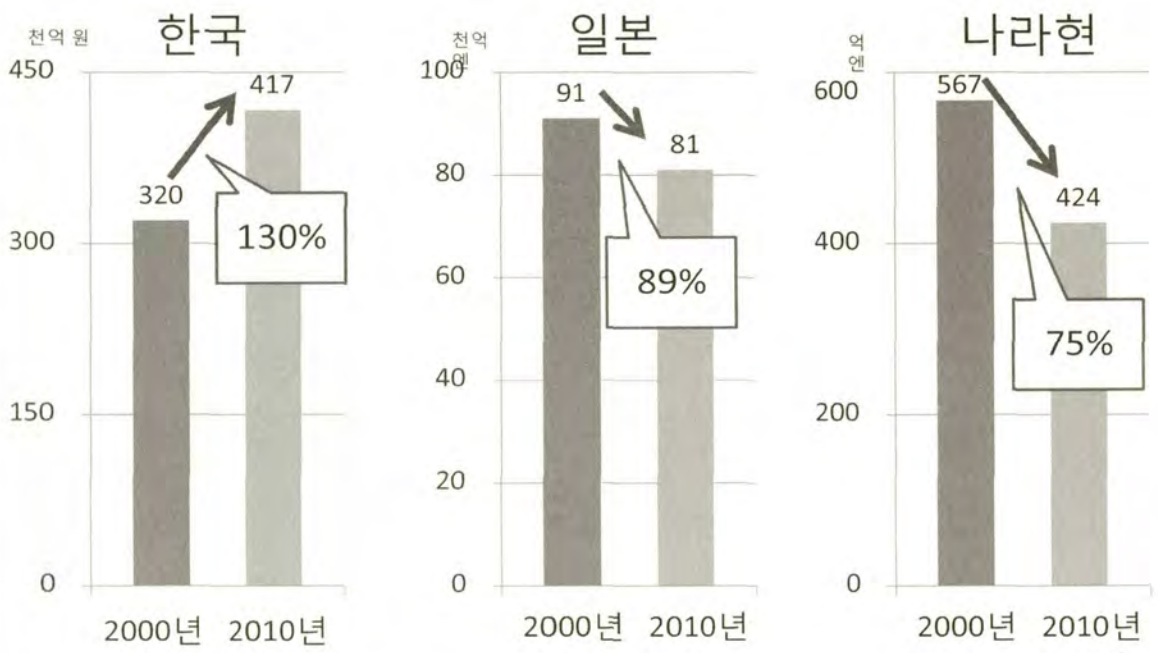


	1990년 (천ha)	2010년 (천ha)	감소율 (%)
일본국	5,243	4,593	87.6
나라현	27.8	22.5	80.9
한 국	1,953	1,507	77.2

(5)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경작 포기지율(※)이 증가. 나라현의 경작 포기지율은 전국의 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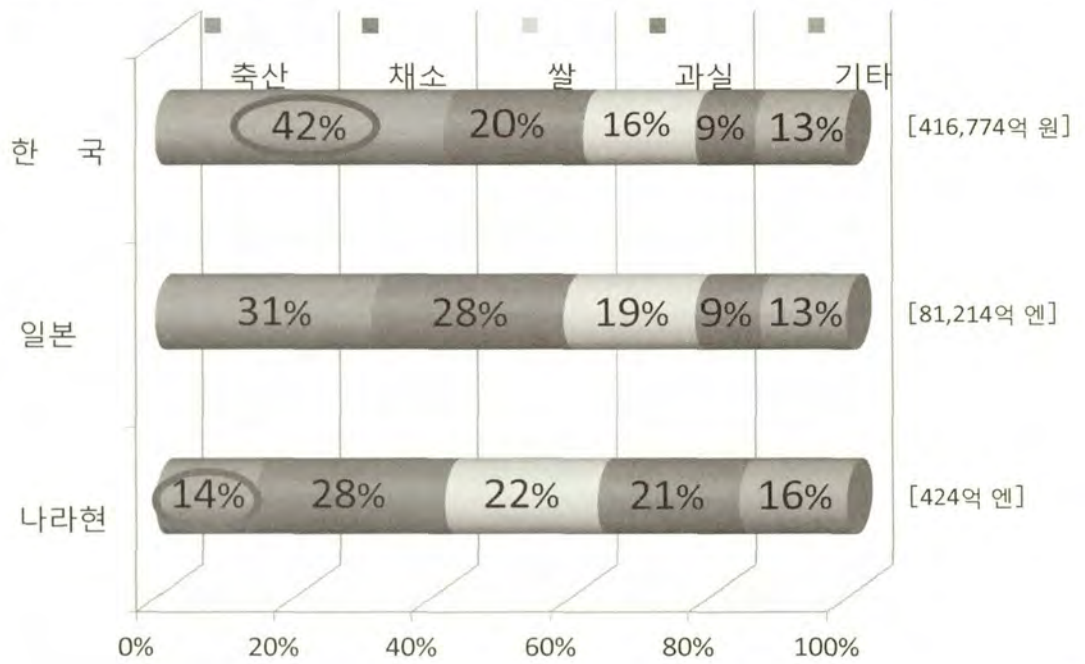


(6) 농업 산출액은 과거 10년 동안
한국은 30% 증가, 일본은 10% 감소, 나라현은 25% 감소.



12

(7) 품목별 농업 산출액(2010년)에서는 축산 비율이
한국은 40%, 일본은 30%, 나라현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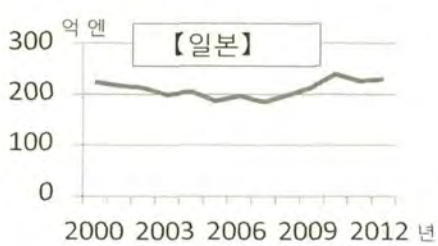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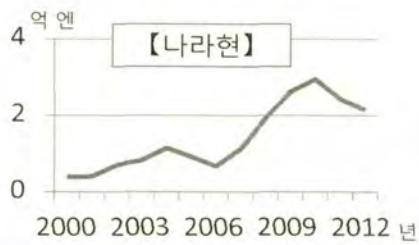
(8) 과거 30년 동안 나라현에서는 과실, 차가 성장하고 채소, 쌀, 축산은 침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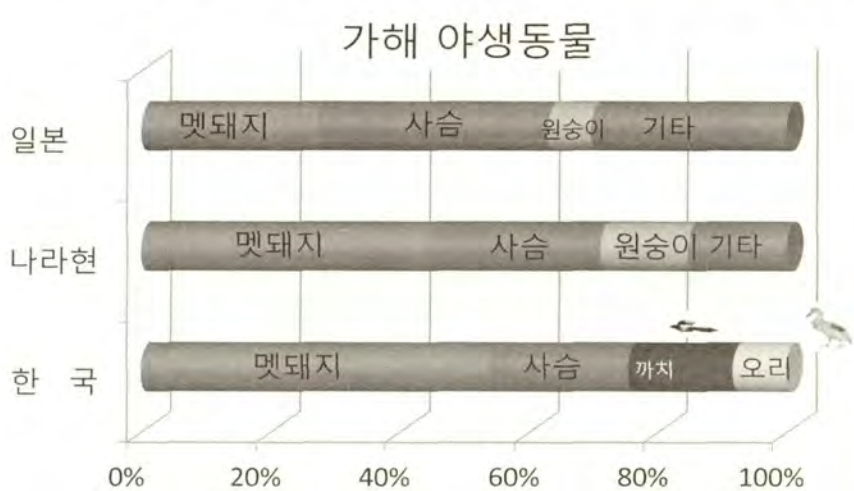
14

(9) 한국, 일본, 나라현 모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크다.










멧돼지에 의한 피해(논)


사슴에 의한 피해(배추)


원숭이에 의한 피해(호박)


너구리에 의한 피해(수박)

3. 나라현의 농업 진흥 대책

(1) 논을 밭으로 만들어 논 재배에서 채소·축산으로의 전환을 도모.



(2) 나라현 농산물(가공품 포함)의 브랜드를 강화한다.
~품질 인증 제도의 구축~

고품질, 특선품을 인증한다

- 나라현산 농산물의 품질과 이미지 향상
- 농산물의 판매 단가 향상
- 고품질 생산에 대한 생산자의 의욕 향상

◆비파괴 분석에 의한 품질 인증

딸기 (당도)

근적외 분광법에 의해 비파괴 당도 측정



장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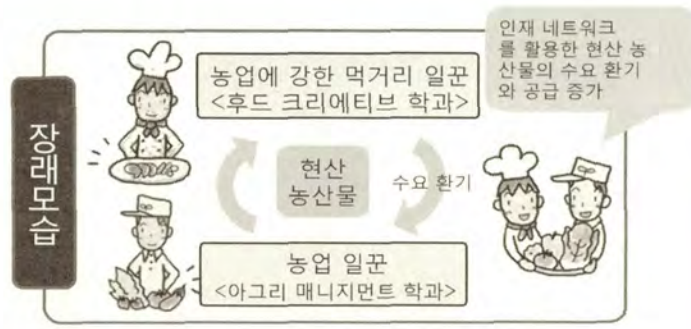
야마토 소 (올레산)



(3) 먹거리와 농업의 연계에 의한 농업의 6차 산업화

'나라 먹거리와 농업의 매력 창조 국제 대학교(NAFIC)'의 개교와 주변 활성화

후드 크리에이티브 학과를 창설, 농업·농작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먹거리 일꾼(세프)'를 육성



후드 크리에이티브 학과의 개요

◆개교 시기 : 2016년 4월
◆재학 기간 : 2년
◆정원 : 20명/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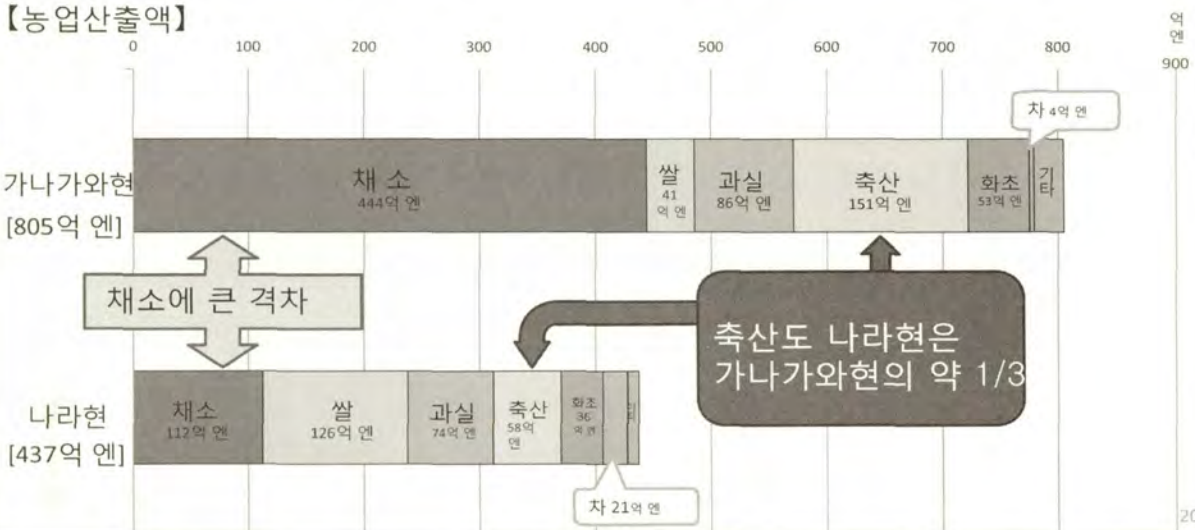


실천 오베르주동 '오베르주 드 사쿠라이' 메인 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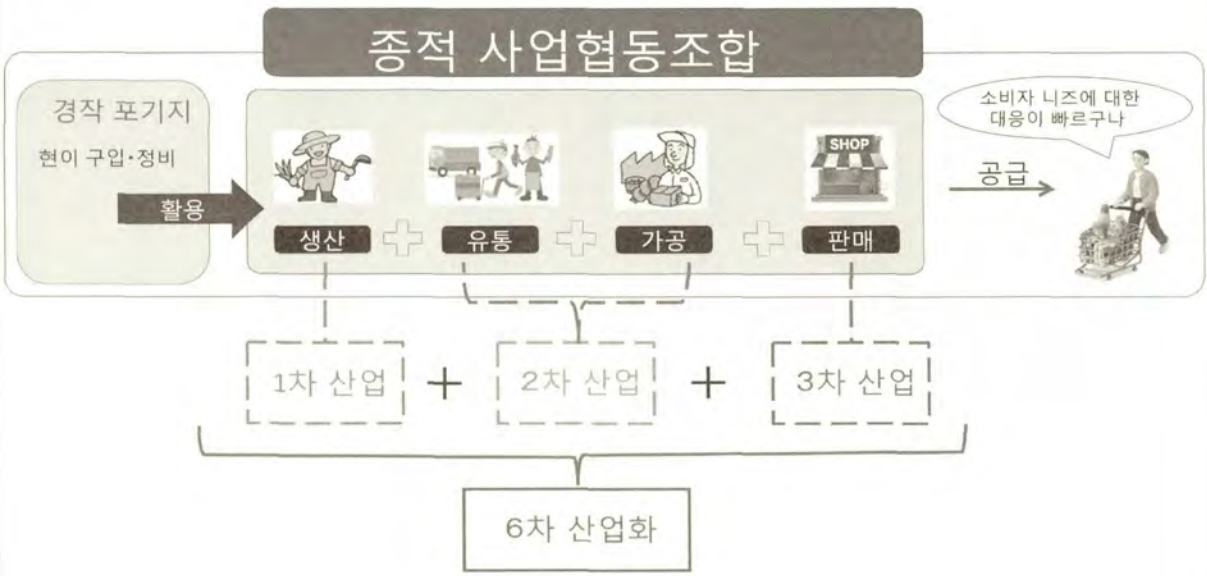
(4) 가나가와현의 농업자 수나 경지 면적은 나라현과 거의 비슷한데 농업 산출액이 2배 정도 다르다.
→가나가와현을 벤치마크현으로서 학습

2012년	농업 경영체 수	경영 경지 면적	농업산출액
가나가와현	15, 612 건	14, 631 ha	805 억 엔
나라현	15, 276 건	15, 288 ha	437 억 엔

【농업산출액】



(5) 생산뿐 아니라 유통, 가공, 판매를 포함한 사업협동조합을 육성, 소비 직결형 6차 산업화를 추진.



(6) 의욕적인 일꾼의 농업 참가 추진

현 외·현 내 기업의 농업 참가를 위한 연구

현 외·현 내 기업과 농업 참가 의견교환 (현이 주체가 되어 농업 참가를 지지) → 벤치마크가 되는 대책의 연구 (27 부현) → 농업에의 참가 희망 기업과 농업 전개에 대해 장래 비전을 검토 → 기업·시읍면 등과 개별 제휴 협정 체결

농업·농촌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육성

의욕적인 젊은 여성의 농업 참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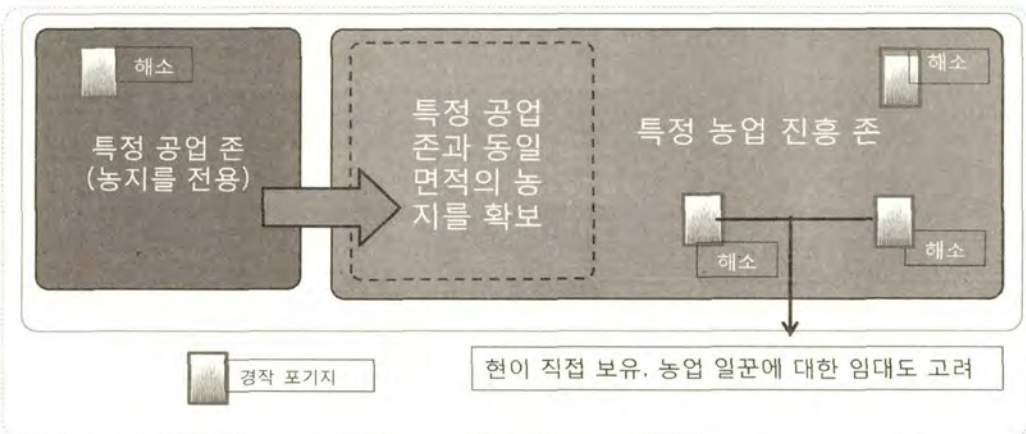
○주말 농업 창업 세미나의 개최
○농업 창업 학원의 개최
○6차 산업화 등 실천 농가에서의 장기 연수

의욕적인 여성 농업인의 육성

여성의 우수 분야인 가공품 개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 경영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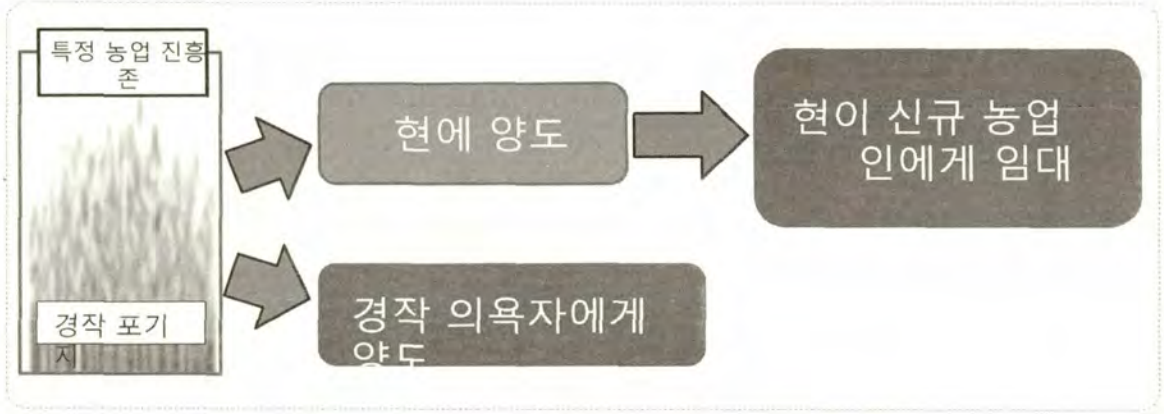
(7) 현 내 농지 총량 확보를 위한 농지 매니지먼트의 추진

① 현 역에서 농지 총량을 확보하는 목표를 설정
② 기업 입지를 추진하는 공업 존을 설정, 농지의 공업용지로의 전용을 허가
③ 해당 존 내의 농지는 해당 시읍면역을 벗어난 현 내외 지역에서 동일 면적의 농지를 확보
④ 새로운 농지에서의 농업 생산을 현 주도로 실행



(8) 경작 포기지의 공유화·경작 의욕자에 대한 양도 촉진

·나라현은 경작 포기지율 19%로, 긴키 지방에서 최하위 레벨
·특정 농업 진흥 존에서의 경작 포기지를 해소하기 위해
현이 보유, 신규 농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농지의 유효 활용을 추진



(9) 4가지 축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을 지역 전체에서 추진



멧돼지용 전기 울타리 설치 예

(10)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 발신.

○농촌에서 놀기

경작 포기지를 레크리에이션 장으로 활용



진흙 축제



꽃밭에 의한 경관 조성

○농촌에서 먹기・쇼핑하기

지역 식재를 활용하여 요리 교실, 판매



지역 식재 요리 교실



마르세 개최

○농촌 체험하기

농지를 체험장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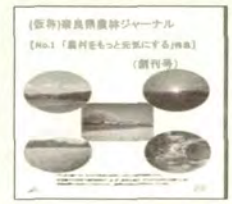
모내기 체험



감나무 오너 제도

○농촌 지역 조성을 정보 발신

나라현 농림 저널



나라 그린 투어리즘 홈페이지





(나라현 청사 본관)

주제 발표

중국의 '3농' : 핵심이슈 그리고 현재와 미래

치우저치(邱澤奇)
베이징 대학교 중국사회·발전연구센터

왕샤오방(王小幇)의 스토리




약 8,000 위안을 빌려 농촌에서 북극여우 농장을
시작했으나, 성공은 커녕 엄청난 빚을 지게 됨.



산에 가까우면 산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물에 가까우면 물에 의지하여 생활한다는 속담처럼,
농촌에서는 '농업자원'에 기대어 살아야 함.





교육 수준이 낮음

계획경제에 대한 경험이 없음

농업생산을 원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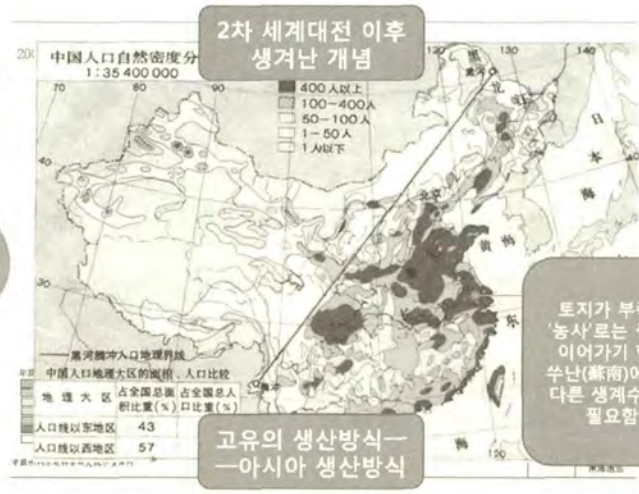
도시 정착이 어려움

3
농



여러 요소가 중첩된 '발전'

3농 발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개념

고유의 생산방식—
—아시아 생산방식

토지가 부족해 '농사'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쑤난(蘇南)에서는 다른 생계수단이 필요함.



《강촌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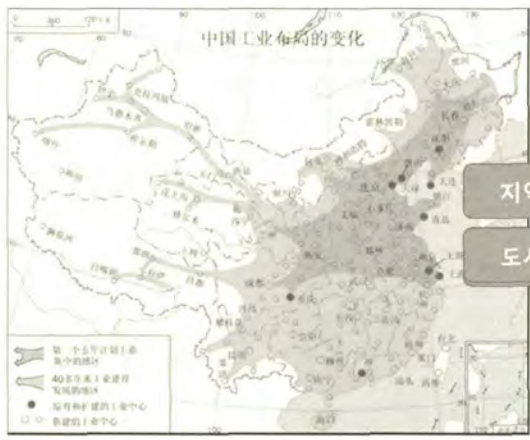
사람>토지

사람<토지

사람=토지

'3농'발전의 결정적 요소는 바로 '인구수와 농업자원의 관계'

'3농'의 핵심 이슈:
부분적, 폐쇄적
이었던 인구수와 농업자원의 관계가
다양한 요소의 관계로 변모.
예) 노동력의 양과 질, 농업과 상공업 자원, 운용자원의 모델



지역간 발전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모순

19세기 중엽부터, 중국 동남 연해지역에서 상공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고, 동시에 상술한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3농'

계획경제 → 인민공사 人民公社 →  → 

개혁개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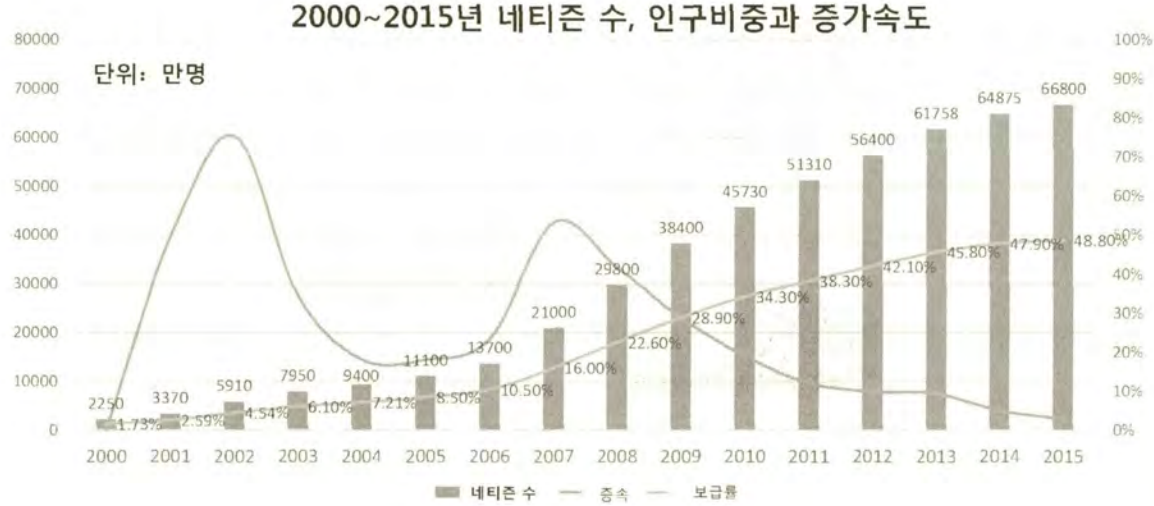
중국의 '3농'을 논하려면, 상황설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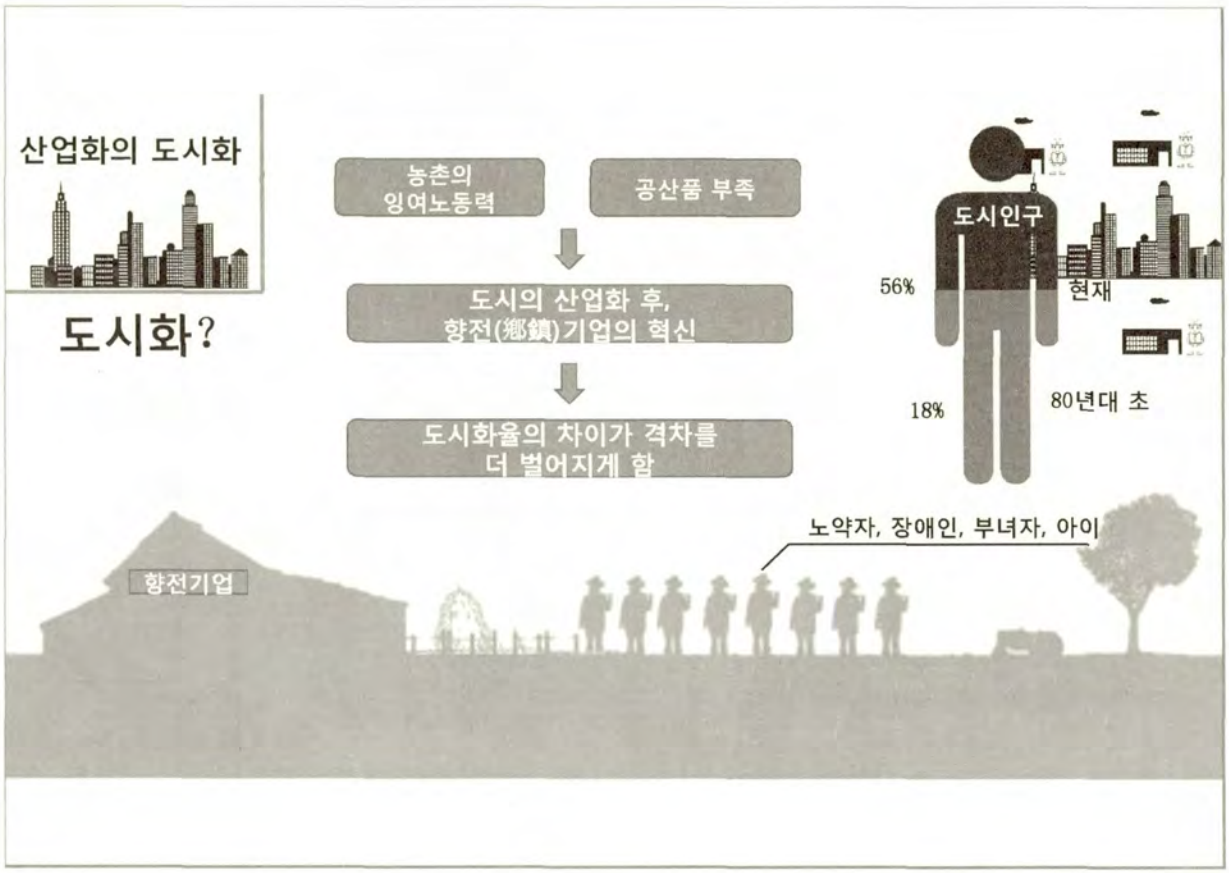
과거 동질성을 지녔던 '3농'은 이미 이질성, 변천성을 갖게 됨

가치의 격차 문제

2000~2015년 네티즌 수, 인구비중과 증가속도






산업화의 도시화
도시화?
농촌의
잉여노동력
공산품 부족
도시의 산업화 후,
향전(鄕鎭)기업의 혁신
도시화율의 차이가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함
도시인구
56%
현재
18%
80년대 초
노약자, 장애인, 부녀자, 아이
향전기업


제도화의 도시화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
토지가치의 상승
상주농업의 소실
3농
농업의 직업화
산업화의 도시화
도시화의 영향
농민의 지속적
감소
농촌의 지속적
감소
농민과 농촌의
괴리
가치의 격차 여전히 존재
두 요소가 가치 격차에
정면도전 하지 않음
80년대 400만개 였던 촌락
이 최근 10년 매일 100개씩
사라짐
농촌의 실질거주자
80년대: 총 인구의 80%
현재: 총 인구의 40%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적인 사회이지, 이상적인 '3농'이 아님

'3농'의 개념이 과거 삶의 터전에서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으로 변화함

생계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함



감사합니다!

1 세션 :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혁신 전략

전북발전연구원 황 영 모 연구원

지속가능한 '지역과 농업' 혁신체계 전략-전북사례



jthink 황 영 모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1. 문제의식
2. 지역농업 대응 전략
3. 산지유통 전략 사례
4. 로컬푸드 전략 사례
5. 정리 및 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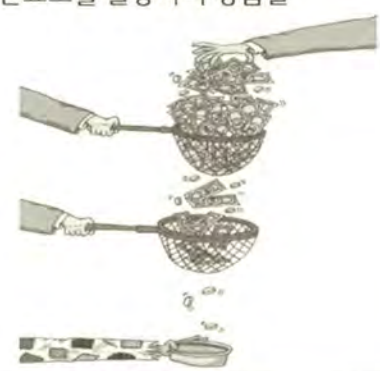
1

문제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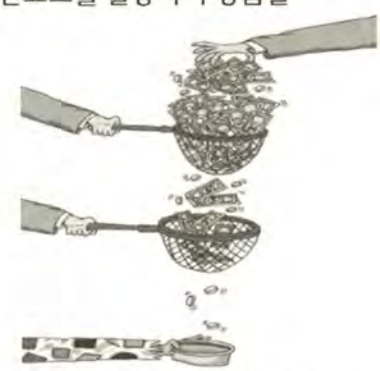
1. 문제의식

- **지역발전에 대한 물음, 발전 없는 성장 ?**
  지역이 주도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재분배되는 지역순환적 경제활동 구조가 지역내부에 구축되어 있는가
- **상류(농업)로부터의 계열화 vs 하류(2차·3차)로부터의 계열화**
  혁신이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가, 그 주체가 어떻게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가, 발생하는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 **지역발전의 주도권**
  - 농외자본 및 지역 외 자본을 농업·농촌부문의 협력자로 끌어들이는 주도권 갖기
  - 지역의 제 주체가 함께 연계하고 연대하여 계열화되고 하청화되지 않는 지역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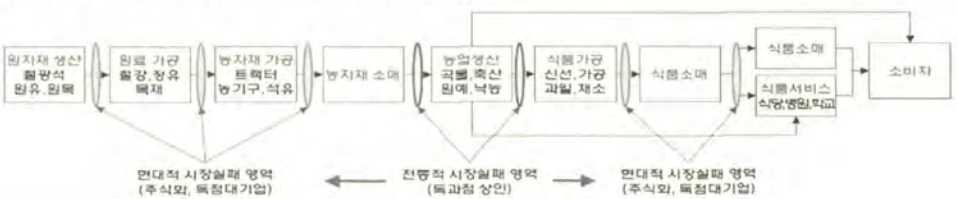
1. 문제의식

- **지역발전에 대한 물음, 발전 없는 성장 ?**
  지역이 주도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재분배되는 지역순환적 경제활동 구조가 지역내부에 구축되어 있는가
- **상류(농업)로부터의 계열화 vs 하류(2차·3차)로부터의 계열화**
  혁신이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가, 그 주체가 어떻게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가, 발생하는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 **지역발전의 주도권**
  - 농외자본 및 지역 외 자본을 농업·농촌부문의 협력자로 끌어들이는 주도권 갖기
  - 지역의 제 주체가 함께 연계하고 연대하여 계열화되고 하청화되지 않는 지역 만들기



1. 지역농업 조직화, 주체적 전략

- 농업생산 과정이 농가, 작목반, 농업법인, 지역농협 등이 농산물 생산 이후 출하라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파악을 지양해야 함
- 농업생산자조직 또는 산지조직이 시장에 대응해 얼마나 부가가치의 몫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체적/지역적 관점이 필요**



* 자료 : 이인우, 6차산업화 워크숍 발표자료, 전북발전연구원, 2012.

(참고)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개념과 전략의 본질적 의미
일본에서 타 부문이 전취하는 생산 이후 단계의 부가가치를 생산자 몫으로 되찾는 실천수단으로 제시
(㈜ 도쿄대학 이마무라 교수)

2. 시장대응, 전국/지역시장 동시 고려

- **전통적 산지유통 사업영역, 전국시장 (경쟁시장)**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수준 상품화가 절대과제 (상품성, 품질, 가격)
- **새로운 산지유통 사업영역, 지역시장 (관계시장)**
  →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동체 지원농업 등 대안적 유통방식 (지역성, 관계성,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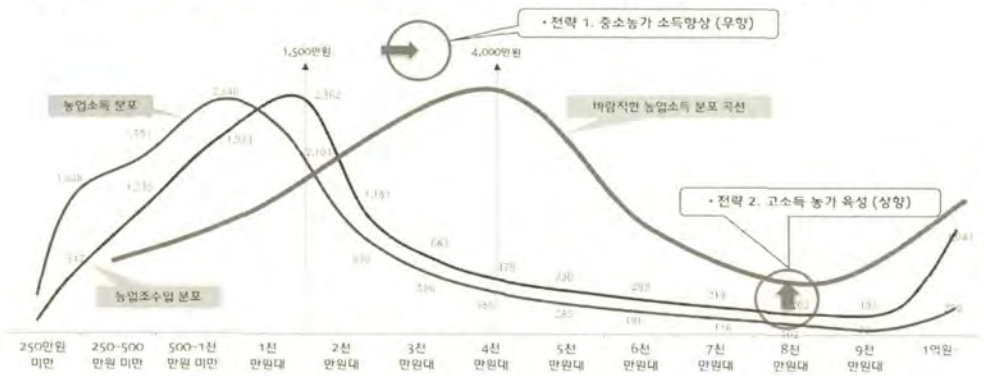


- 시장가격, 생산경제, 주식회사, 생산소비 분리
- 적정가격, 생활경제, 협동조합, 생산소비 결합

* 자료 : 박영범, '먹한, 전환, 지역과 더불어' ,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농업연구회 발표자료, 2013

3. 조직화 목적, 농가소득 향상 전략

- 농가 양극화의 확대에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
  -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농업 생산액의 확대가 지역농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음
  - 10%의 전업농가(조수입 1억원 이상)가 지역농업 생산액의 53.3% 담당
  - 35%의 영세농가(조수입 1천만원 미만)가 지역농업 생산액의 18.9%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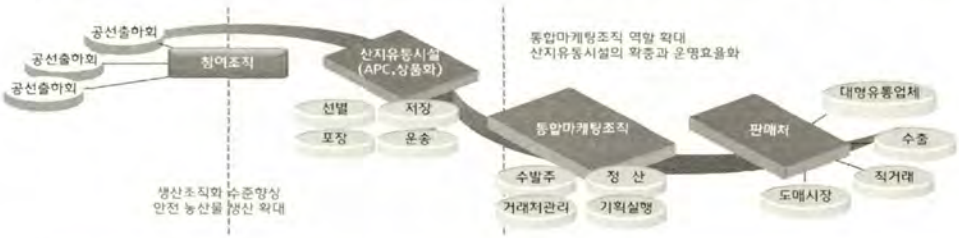


* 자료 : '남원시 주민소득지원시스템(HADIS) 개별농가 경영현황 자료 분석결과' , 전북발전연구원, 2013

4. 전라북도 대응전략, 2가지 전략사례

▪ 전략 1. 시군연합 강화를 토대로 광역연합으로 확대 추진

- **시군단위 통합마케팅 시스템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함 → 강화 시군연합**
  - 분산된 주체,시설,자금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산지유통 성공의 관건
- **시군연합 성과확대와 한계극복 위한 광역단위 전략으로 확장 →확대 광역연합**
  - 광역단위 지역연합(범위/규모)과 품목연합(전문화) 현실적 사업시스템 검토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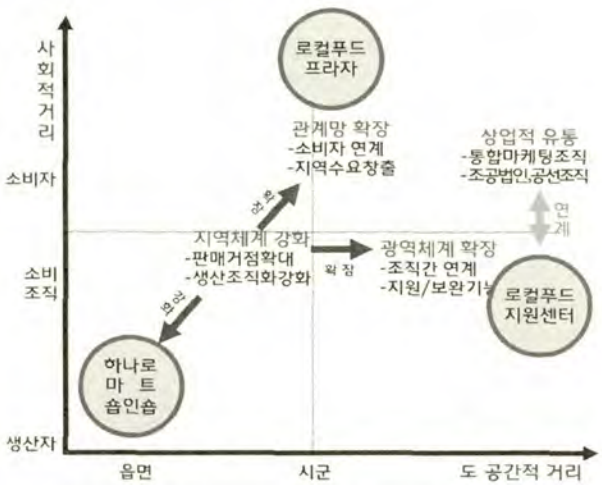


공선출하회 확대/강화	공동선별출하 생산기반 확대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유통시설 전문화 및 확충	통합마케팅 조직 역량강화

* 자료 : 지역농업네트워크, 2012

▪ 전략 2. 로컬푸드의 지역체계 강화와 관계망 확장

- **지역농업 조직화의 실효적 범위(광역,시군,읍면)에서 효과적 로컬푸드 대응전략**
  - 시장성, 도구성, 배태성 고려 안정적 사업/활동 체계 구상
- **공간적 범위 확장과 내실화**
  - 읍면단위 생산-판매거점과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관계망 확장과 구축**
  - 생산자-소비자 간의 직접적 사회적 관계망 거점 마련
- 글로벌푸드 체계에 실효적인 대응 범위로 로컬푸드를 파악



*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협동조합 로컬푸드 생산-유통-소비시스템 구축전략,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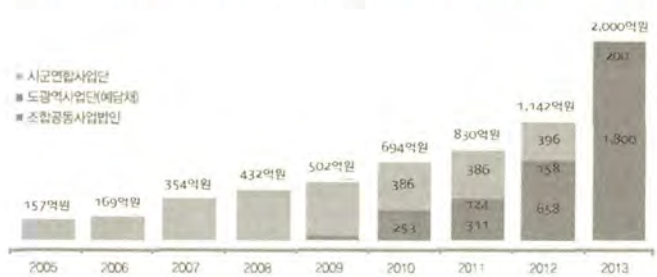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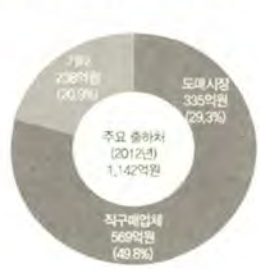
산지유통 전략사례



1. 시군 통합마케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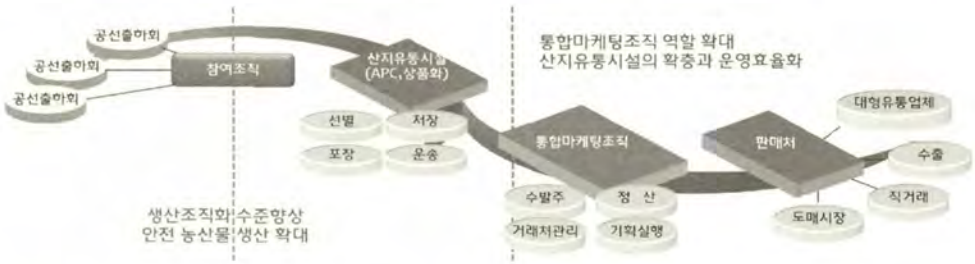
- 원예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위한 **시군단위 통합마케팅 주체를 정책적으로 육성**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2012.4)와 생산자조직화에 주력
- 통합 마케팅 조직육성과 현장 노력으로 13개 시군에 조공법인 설립되어 운영 중
  11년(고창,장수), 12년(임실,부안,익산), 13년(진안,무주,완주,남원), 14년(김제,정읍,순창,전주)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기능, 개별 시장대응위험 최소화**
  - 113개 공산출하조직 참여, 1,368억원 공동계산 실적(5,626 유실적 농가회원)-14년





2. 시군연합의 강화와 내실화

- 시군 통합 마케팅 조직의 조직화 수준 향상, 안전 농산물 확대, 시설 효율화 등을 위한 **생산조직, 생산시설, 통합주체 기반 강화가 과제**
  - 생산조직화 향상 → 공선출하회강화 → 유통시설 전문화 → 통마조직 역량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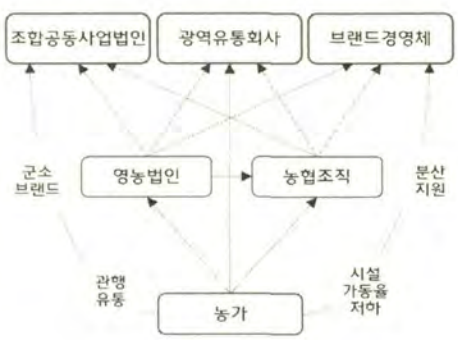
공선출하회 확대/강화	공동선별출하 생산기반 확대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유통시설 전문화 및 확충	통합마케팅 조직 역량강화

- 기 구축된 **시군단위 통합 마케팅 범위 내 주체, 시설, 자금 등을 단일체계로 강화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관건
  - 시군 통합 마케팅 시스템 강화 위한 5대 통합과제(정책,인력,시설, 마케팅, 협의체) 설정

[통합 마케팅 시스템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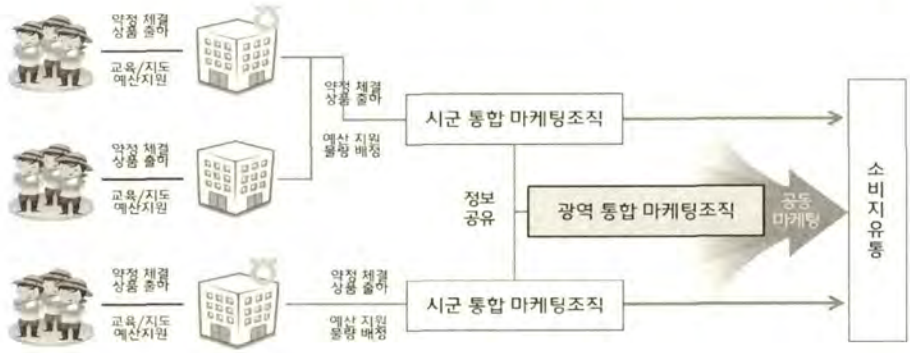
(1) 생산/유통정책 통합	통합 마케팅 조직 중심으로 정책의 통합 지원
(2) 유통조직전문인력 통합	분산된 마케팅 역량의 일원화 전문화
(3) 산지유통시설 통합	주체별 유통시설 간 역할 및 업무 분담 → 전문화
(4) 브랜드및 마케팅 통합	조례기반 생산/품질관리확립 유통경로별 마케팅 통합화
(5) 통합마케팅협의체강화	시군단위 통합마케팅 협의체 안정적 운영

[시군 단위 마케팅주체 통합화]



3. 광역단위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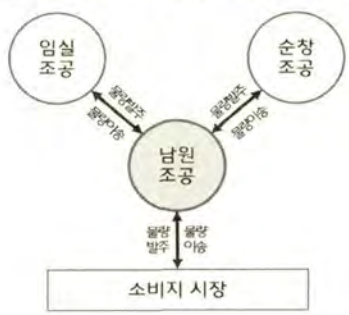
- 통합 수발주 통한 연중 출하체계 구축,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시장개척 등 **시군 단위 통합 마케팅 조직의 보완과 지원을 위한 광역체계** 구축이 핵심
  - 이를 위해 전북 원예산업에 적합한 광역연합 및 시군연합 연계형 마케팅 모델 설정



▪ 단계 1. 인근 통합 마케팅 조직 연계 사업

- 시군단위 조직화 효과가 적은 품목을 우선하여 인근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 사전단계
- 소량분산 품목 규모화(2개 이상 시군을 연결한 거점품목 육성) 통한 품목연합 사업

[인근 시군 연합사업 시스템, 사례]



- 남원: 1월까지 생산량 대비 시장요구가커 자체조달한계
- 임실/순창: 생산량이 적어 도매시장외 출하처 확보한계

구 분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토마토	○	○	○		○				○	○		
딸 기		○	○	○		○				○	○	
수 박		○	○			○	○					○
감 자				○	○					○		○
고 추			○				○			○	○	
복숭아	○			○				○		○		
사 과			○				○	○	○			
포 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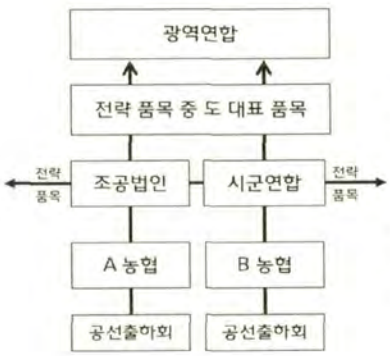
전략품목중 선정되지않은품목 | 시군전략품목외육성품목

개별 시군 통합 마케팅 조직이 연중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거점 시군 통마 조직의 개념으로 추진

▪ 단계 2. 광역연합 사업 시스템 구축

- 시군 전략품목의 광역단위 차별화 마케팅(릴레이 마케팅, 광역단위 규모화 등)을 통한 광역 연합사업 (전북농협 예담채 광역브랜드를 중심으로 추진)
- 군소 작목 또는 등외 품의 상품화 등을 위한 광역단위 복합 상품화 시설의 구축도 추진

[광역연합 사업 시스템]





특색상품 구성

품목간 릴레이 마케팅

4

로컬푸드 전략사례



1. 로컬푸드 시스템, 통합적 접근

- 지역 내 다양한 활성화 사례 창출을 넘어 로컬푸드 사업과 활동 안정도모 필요
- 로컬푸드는 사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관계)시장 특성상 불안정한 사업구조로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내에서 유기적 체계구축이 핵심**

과제 1

읍면 로컬푸드 거점마련

- 로컬푸드 활성화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 찾기
- 농촌지역 로컬푸드 작동 시스템 구축(판매거점)
- 농가 조직화, 다품목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과제 2

전북 로컬푸드 지원센터

- 활동범위의 유연한 확대
- 따로-같이-확장의 컨셉
- 시군 안정화와 보완기능 중층적 사업구조 마련
- 로컬푸드 실천영역 확대 급식/꾸러미, 가공/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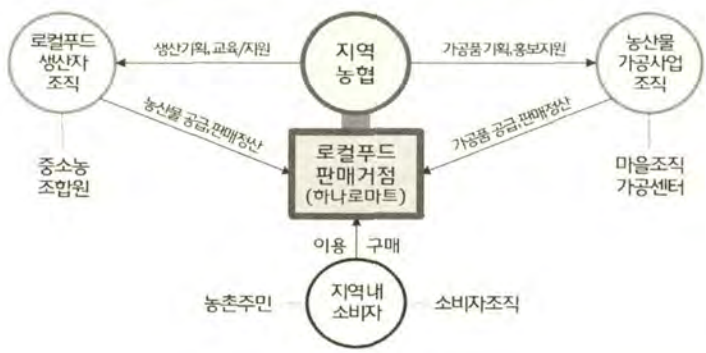
과제 3

커뮤니티 푸드센터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거점 구축
- 생산자-소비자간의 교류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
- 식(食)과 농(農) 결합을 통한 교육적/사회적 효과 극대화

2. 읍면 로컬푸드 판매 거점화 방안

- 지역농협이 농협계통 조달하여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하는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
  -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 위해 지역농협 중소농가 조합원을 로컬푸드 작목반으로 조직
  - 로컬푸드 농산물 출하구조를 지역농협 현실에 맞게 구축하고 하나로마트 내에 판매



[로컬푸드 판매장 유형]

전문 판매장형-대형
- 도시 소비지 인접지역 - 농식품부 정책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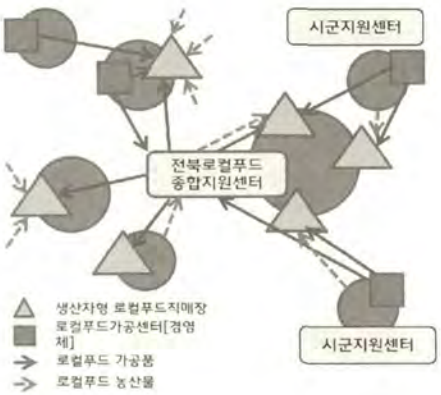
Shop in Shop형 -소형
- 읍면 소재지 농촌지역 - 전라북도 정책 신설

3. 광역단위 로컬푸드 지원체계 구축

- 중소고령농/지역자원 활용 전제로 시군 수준 로컬푸드 확산 우선, 저변확대에 대응한 광역 지원체제 확립하는 전략적 수순이 필요
- **시군 로컬푸드 시스템 + 도 단위 보완 시스템의 중층적(重層的) 사업 모델 설정**
- 지역기반 발현과 광역 보완 시스템 위에 광역 독자사업(단체급식,식품가공 등) 확충

[광역지원체계의 구성요소]

- 기 획 : 발전의 초기단계 고려 도와 시군 기획의 통합적, 전략적 구상
- 인프라 : 시군 인프라를 보완하는 통합적 거점 물류·가공 시설로서 구상
- 운영체 : 시군 사업조직과 광역 지원조직 간의 협의체 등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기능]

(1) 시군 로컬푸드를 보완하는 광역보완/제휴 물류/상품화
- 농산물은 시군 로컬푸드 수준에서 상당부분 완결되는 구조로 광역단위는 가공품, 공예품 및 수산물, 축산물 등 보완 공급을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

(2) 학교·단체급식, 친환경농축산물의 도 단위 유통 거점
- 전라북도 전역의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할 센터 기능 확보, 이를 위한 집배송 시설, 저장시설, 선별/포장 시설을 확보, 관련 기능 수행

(3) 전북 로컬푸드 체제의 기획과 실천 모니터링, 시군 지원
- 시군 로컬푸드 간 교류, 연계체계 등 전북 로컬푸드 전체의 전략 방향을 기획 종합

단계별 전 략	단 계	주 요 특 징	주 요 내 용
	1단계	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로컬푸드 생산조직 구축 및 생산자 조직화 -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센터 확대, 사업체 발굴
	2단계	범위 확대 광역 거점 네트워크	- 광역 거점센터 마련, 시군보완 물류 및 광역 신뢰체계 - 소비자 인식제고, 조직화 및 수요처 확대
	3단계	광역 로컬푸드 시스템 확장·발전	- 전북 푸드플랜 작동과 지역 식료 생산-소비의 균형적 성장 - 식료기반 복지, 공동체 활동 등 로컬푸드 기반 확장된 활동

4. 로컬푸드 교류거점 구축

- 로컬푸드는 **생산자·소비자 대면(對面), 일상적 교류와 신뢰 확인의 틀 (결절점)**
- 로컬푸드 장점은 미래세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식교육과 직결 특성
- 얼굴 있는 거래관계는 교류와 체험활동 등을 통한 상호인식과 공감확보가 전제

[커뮤니티 푸드센터의 주요기능]

- 로컬푸드 정보 발신과 홍보
- 생산자-소비자 교류, 체험 프로그램
- 장터 등 계절/테마형 로컬푸드 촉진
- 지역별 로컬푸드 신상품의 안테나숍
-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푸드센터

[커뮤니티 푸드센터란]

- 로컬푸드의 사회적 연대와 운동적 특성을 반영
-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의 식료 문제 해결과 연결된 공동체 활동과 연계

(예) 식생활교육, 고령자/저소득층 공동 식당 등







[로컬푸드 커뮤니티 푸드센터의 기본구상]

- 기능 1 : 지역주민 로컬푸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교류

  지역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텃밭 가꾸기 교육과 식생활 교육

  지역주민 로컬푸드 이용교육 : 로컬푸드의 의미, 장점에 대한 일반 교육, 영양 교육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농교류 : 생산자 초청 강연 및 체험, 농촌 현장 방문 프로그램

- 기능 2 : 로컬푸드 이용과 체험, 도시농업 활성화

  지역 텃밭 프로그램 : 거뮤니티 푸드 센터 내 텃밭 이용 학생 체험 활동 및 주민 텃밭 재배

  도시농업 프로그램 : 소규모 재배상자 보급, 재배기술 교육, 생산물 기부 프로그램 등

- 기능 3 : 로컬푸드 직판장

  중소규모 로컬푸드 판매장, 로컬푸드 가공상품 중심 방문객 구매, 신상품 안테나숍 기능, 채소류 등 일상 상품의 경우 프라자 운영주체 책임 운영

- 기능 4 : 로컬푸드 레스토랑 = 커뮤니티 키친

  저소득층 학생 쿠폰급식, 지역 고령노인 공동식사, 식료 사각지대 도시락 배달 사업 등 로컬푸드의 지역기여 프로그램

5

정리 및 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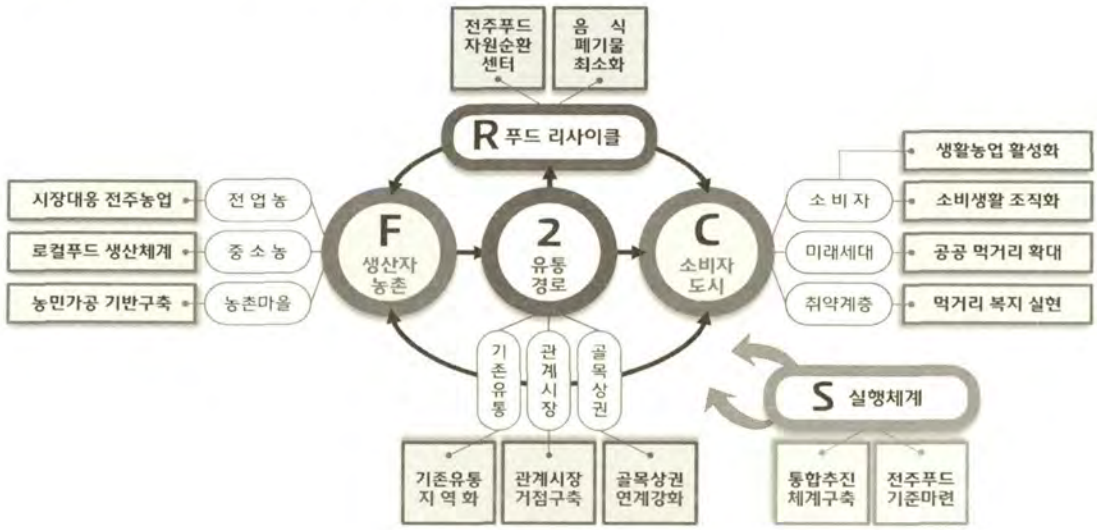
결국, 지역단위 푸드플랜

- 도시-농촌, 산업-농업, 소비자-생산자가 어우러진 도농복합 지역의 발전전략
- 도시-농촌 공생, 산업-농업 결합, 소비자-생산자 연대 작동하는 지역발전 전략
- 지역 내 생산, 지역유통, 지역소비의 불균형의 미스매치 해소가 중요



- **로컬생산** : 지역농업생산,도시민생활농업
- **식품가공** : 지역 내 1차가공,2차식품가공
- **지역유통** :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망
- **지역소비** : 가정,급식,공공,복지 등 먹거리
- **순환이용** : 음식 폐기물 감축, 재활용 순환
- **접 근 성** : 먹거리접근성(시장,거점,관계망)
- **사회인식** : 연대,미래세대·환경배려,규범
- **영양·관리** : 식품영양 및 먹거리안전 관리
- **실행주체** : 소비자,생산자,사업체,시민단체, 교육,코디네이터,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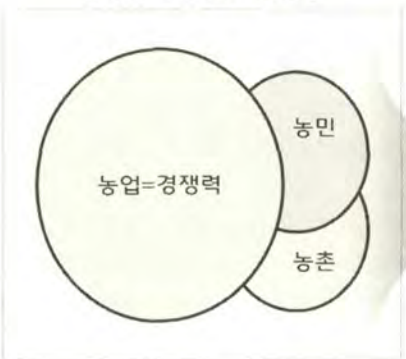
전주푸드 F2C 실행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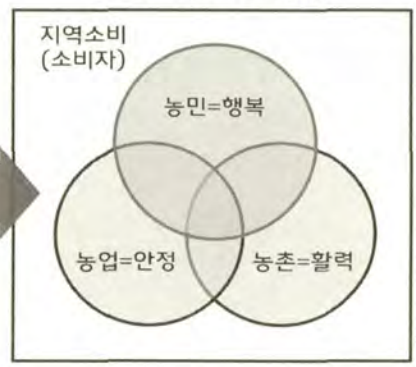
보론, 전라북도 삼락농정

- 지역농정은 국가의 보편적 농정과 달리 지역농업의 여건과 특성에 기반해야 함
- 경쟁력 중심의 '규모의 경제'와 산지 조직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의 조화가 필요
- 생산자 농민을 중심으로 지역소비와 농촌지역까지 아우르는 농정의 역할이 요청

[경쟁력 중심의 농정]



[지속 가능한 지역농정]



정책방향,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민입니다 (상품→사람)

- 삼농문제, '도시-농촌, 공업-농업, 도시민-농민'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핵심
- 규모확대·경쟁력 강화 농업구조개선정책만으로는 삼농문제 해결이 어려움
- 생산자 실익을 높이는 농민본위(사람중심)로 정책전환이 삼락농정의 가치

삼농문제의 본질, 농민·농업·농촌의 구조적 불균형과 격차의 심화

국가경제 성장과 공업화의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도시민과 농민의 구조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화된 문제를 총칭

정약용의 삼농주의(三農主義), 사람중심(農民本位)의 정책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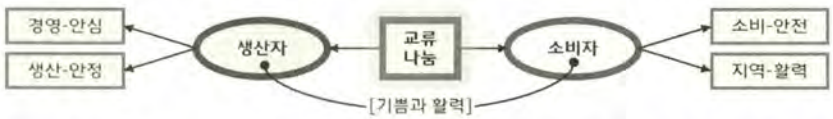
다산(茶山)의 삼농주의는 생산자 농민의 실익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정책 필요성을 강조

·후 농 (厚農) : 농사란 장사보다 이익이 적으니 수지가 맞는 농사가 되어야 함
·편 농 (便農) : 농사짓기가 불편하니 농민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해야 함
·상 농 (上農) : 농민의 지위와 대접이 낮으니 농민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함

※ 자료 : 정약용,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농책편(農策編)

정책목표,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쁨입니다 (성과→기쁨)

- 양적 성과중심 정책은 성장은 있되 발전없어 지역·농업의 지속에 한계노정
- 안전먹거리 생산·소비로 사람이 안심하는 농업·농촌유지가 주요 농정과제
- 과도한 양적 성과를 지양, 생산자·소비자 기쁨을 찾는 것이 삼락농정 목표



작동방식, 사람-사람/현재-미래/지역-농촌 혁신네트워크

- 농정전환, 현재 성과 바탕으로 미래가치로 확장하는 혁신 네트워크에 있음
- 사람(생산자-소비자), 농업(경쟁력-지속가능성), 농촌(개발-삶의 질)을 잇고 업그레이드하는 실천전략이 필요



정책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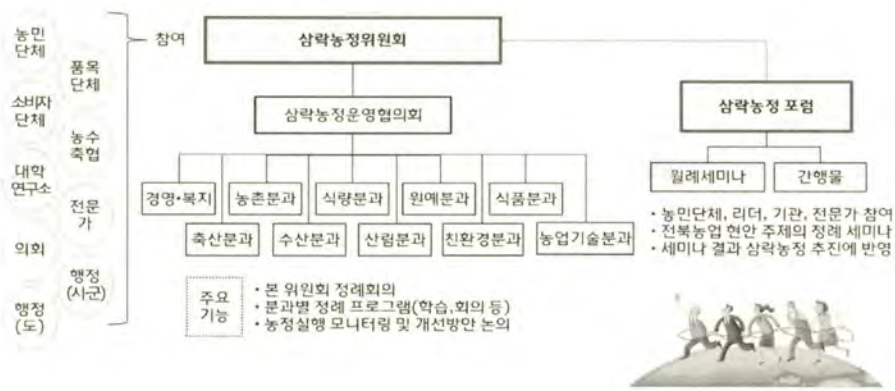
"농민의 실익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복한 사람중심 농정"

'사람과 사람, 현재와 미래, 지역과 농촌'을 이어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전북농업 미래창조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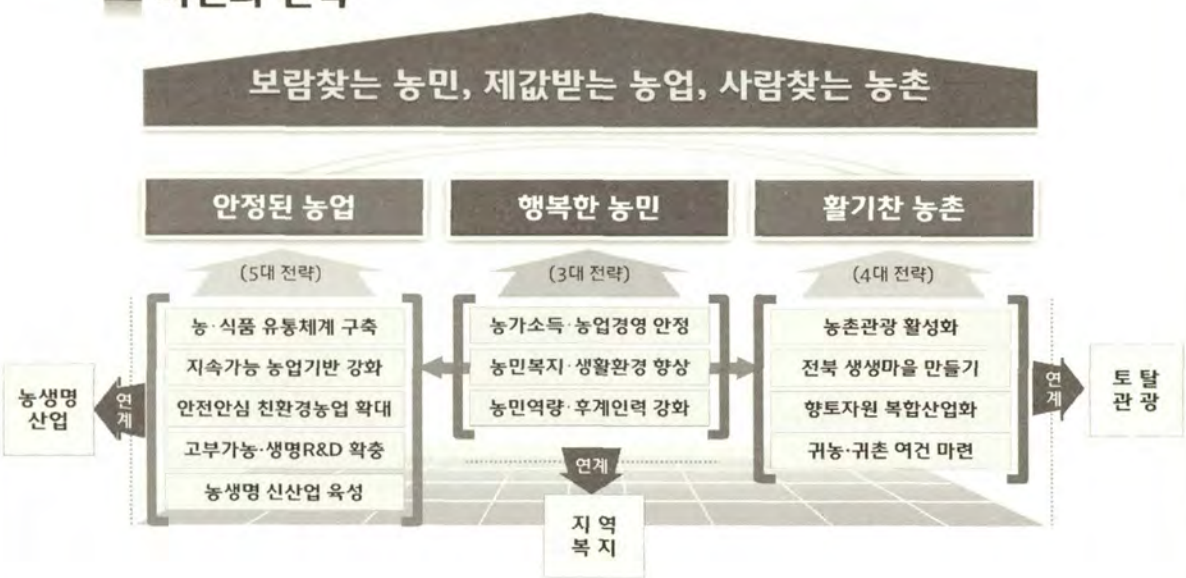
현실 진단	농민중심 농업문제 (삼농)	작동 방식	혁신 네트워크	정책 목표	농민실익 기쁨과 활력
• 생산 : 시장변화에 취약 구조		생산자(사람) ↔ 소비자(사람)		경영-안심 / 생산-안정	
• 유통 : 시장대응 한계와 경쟁		경쟁력(현재) ↔ 지속성(미래)		생산자 ↔ 소비자 (교류와 연대)	기쁨 활력
• 경영 : 농업경영 불안정 심화		개 발(지역) ↔ 삶의질(농촌)		소비-안전 / 지역-활력	
• 농촌 : 생활여건/삶의질 취약					
• 소비 : 지역소비 구조의 한계					

농민이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 운영

- 농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삼락농정 추진체계, 포럼운영으로 실천동력 마련
- 사람중심 농정에 맞는 실질적 농정 거버넌스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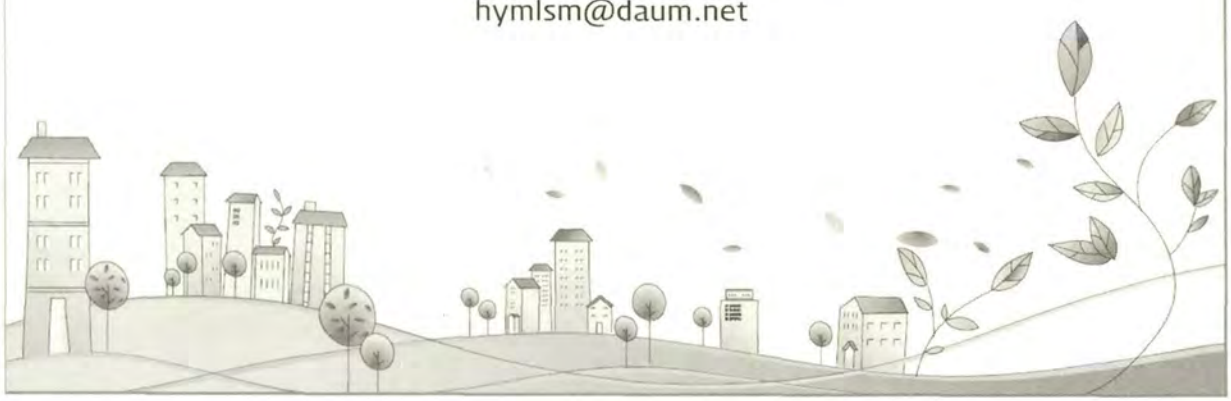


비전과 전략



감사합니다

hymlsm@daum.net



지방정부의 현대화 농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례 분석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彭 建 强(펑 젠 창) 부원장

지방정부의 현대화 농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례 분석

——허베이성 웨이현의 현대 농업단지 발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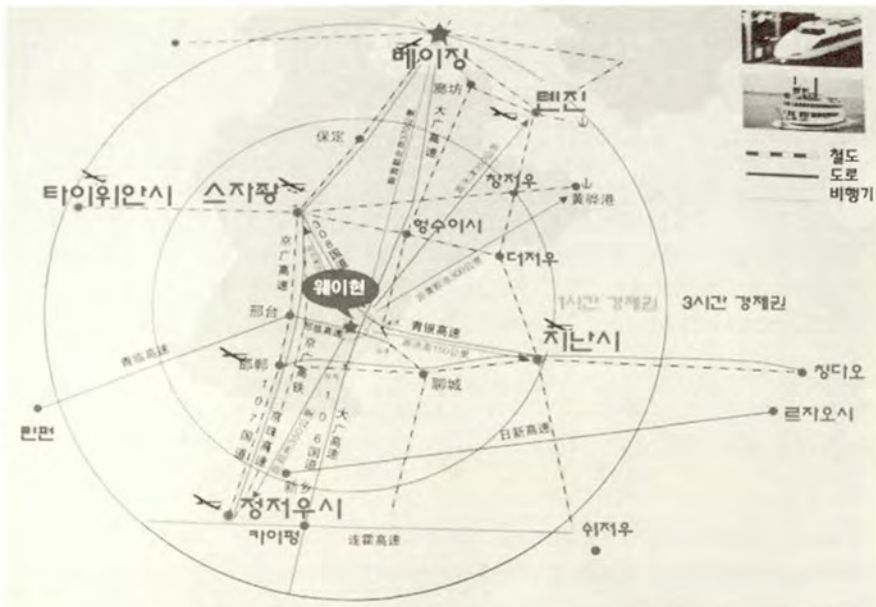
허베이성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 펑젠치앙(彭建強)

2015년 9월

웨이현(威縣)은 허베이성(河北省) 동남부, 싱타이시(邢臺市)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은 1,012 제곱킬로미터(㎢)이다. 웨이현 행정구획은 7개 진(鎮), 9개 향(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급(省級) 경제개발구 1곳이 소재하고 있다. 522개 행정촌(行政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구는 60만 명으로 이 가운데 48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작지 면적은 7억 6천 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2012년 이후, 웨이현은 공업 발전 방식으로 농업의 발전을 이끌고자 했다. 그 중 특히 현대 농업단지 조성에 주력해왔고,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목 차

1.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건설 배경 및 발전 현황

2.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발전에 관한 정책 조치

3.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발전의 주요 성과

4. 평가 및 전망



1.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건설 배경 및 발전 현황

(1) 배경

웨이현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이다. 2013년 웨이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에 달했고, 이는 성(省) 전체 평균보다 28.7%p 높다. 이처럼 웨이현 경제에서 농업 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웨이현은 면화 재배를 위주로 한 단순한 농업 구조 탓에 농업 발전이 장기간 더디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농민 소득은 생활이 힘들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구조 조정 및 발전 방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표1. 2013년 웨이현 경제 발전 상황 및 전체 성 현 구역 순위

현(시)	지역GDP (억 위안)	1인당 지역 GDP (억 위안/인)	지방 공공 재정 예산 수익 (억 위안)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만 위안)	농촌 주민 1인당 순소득 (만 위안)	사회소비재 총 매출액 (만 위안)	면화 총 생산 (만 톤)
웨 이 현	54.7	0.9	2.8	1.6	0.6	29.5	6.8
현 구역 평균	143.7	3.2	6.3	2.0	0.8	49.2	0.6
현 구역 순위	116	135	99	123	108	92	1

출처: 【허베이성 경제연감】

표2. 2013년 웨이현 산업 구조 및 전체 성 현 구역 비교

	1차 산업 부가가치		2차 산업 부가가치		3차 산업 부가가치		공업 부가가치	
	총액 (억 위안)	점유율 (%)	총액 (억 위안)	점유율 (%)	총액 (억 위안)	점유율 (%)	총액 (억 위안)	점유율 (%)
웨이현	224,796	41.1	134,147	24.5	188,216	34.4	124,274	22.7
현 구역 평균	224,766	15.6	757,342	52.7	455,285	31.7	688,639	47.9

출처: 【허베이성 경제연감】



1.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건설 배경 및 발전 현황

(2) 농업단지 현황

농업단지 면적은 3천 만 제곱미터(㎡)로 양 면은 도로와 맞닿아 있고 한 면은 강과 인접해 있다. 아래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농업단지 구조는 '일심쌍축삼판괴(一心雙軸三板塊)'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일심'이란 관리교육 센터를 의미하고 '쌍축'은 단지의 종적•횡적으로 뻗어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종적•횡적인 발전 주축을 뜻한다. '삼판괴'는 '현대화 농업 지대', '농산품 생산 가공 물류 지대', '농업 과학기술 지대'를 의미한다.





2.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발전에 관한 정책 조치

(1) 농업단지 관리 위원회 발족, 단지 내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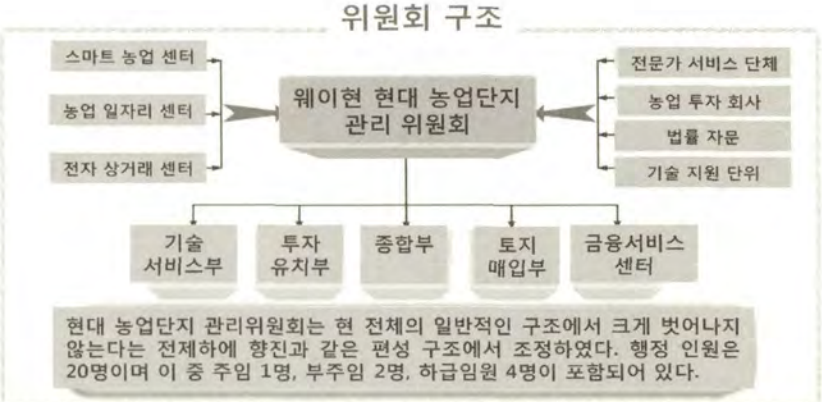
◆ 농업단지 관리 위원회는 농업 투자유치 주체 및 서비스 관리 기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함

◆ 관리 위원회를 현(縣)위원회 및 현(縣)정부의 정과급(正科級, 중국 공무원 직무 등급) 지부로 삼음

◆ 관리 위원회와 향•진•촌의 원만한 관계 구축



위원회 구조



현대 농업단지 관리위원회는 현 전체의 일반적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향진과 같은 편성 구조에서 조정하였다. 행정 인원은 20명이며 이 중 주임 1명, 부주임 2명, 하급임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2.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발전에 관한 정책 조치

(2) 체계 및 제도 혁신으로 단지 발전의 문제점 해결

① 프로젝트의 통합 투자유치 체계 혁신, 분산되고 무질서한 투자유치 문제 해결

- ◆ 프로젝트 연계 총괄
- ◆ 프로젝트 계획 총괄
- ◆ 프로젝트 평가 총괄



2.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발전에 관한 정책 조치

(2) 체계 및 제도 혁신으로 단지 발전의 문제점 해결

② 토지 통합 물류 체계 혁신, 원활한 토지 회전 촉진

- ◆ 토지 수용 통일
- ◆ 회전 가격 통일
- ◆ 수익 모델 통일
- ◆ 일자리 지원 통일



2.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발전에 관한 정책 조치

(2) 체계 및 제도 혁신으로 단지 발전의 문제점 해결

③ 자금 통합 체계 혁신, 농업단지 건설 및 발전 시 자금난 해결

- ◆ 자금 사용의 집약도 향상
- ◆ 자금 사용 효율의 최적화
- ◆ 융자 플랫폼 혁신



2.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발전에 관한 정책 조치

(2) 체계 및 제도 혁신으로 단지 발전의 문제점 해결

④ 스마트 통합 체계 도입 혁신, 단지 내 과학기술 및 혁신 수준 업그레이드

- ◆ 관리위원회, 전문가 초빙
- ◆ 관리위원회, 적극적인 제휴 노력



2.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발전에 관한 정책 조치

(3) 우대•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 농업단지 빠른 발전 촉진

① 투자유치 촉진 정책

② 농업 선두기업 발전 지원 정책

③ 토지 회전 촉진 정책

④ 인재 채용, 혁신 촉진 정책



3.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 발전의 주요 성과

(1) 농업생산 기술수준 대폭 향상

(2) 다양한 농업 생산 주체 간 연계 및 협력 실현

(3) 산업망 통합 발전구조 형성

(4) 현대 표준화 생산 방식 확립

◆ '건설계획 통일', '브랜드 표시기준 통일', '기술 서비스 통일', '방역 및 비료 사용기준 통일', '시장판매 통일' 및 '분산 경영'을 골자로 하는 표준화•현대화 생산방식이 공업단지 내 주류가 되고 있다.

(5) 집약적 생산방식 효율 향상

◆ 2014년 말까지 웨이현 현대 농업단지에 기업 19곳이 들어섰고, 토지 회전 규모는 800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투자 유치 규모는 8억 7,500만 위안에 달한다. 농업단지 내 수자원 및 전기 관련 인프라 시설이 점차 개선되면서 규모화, 집약화 경영이 가속화되고 있다.





종자재배 시범농지



위왕채소재배회사(威旺蔬菜種植公司)의
자동화 육묘 공장



3차 산업 통합 현대 농업 업그레이드



계획 설계 전문 기관을 초빙하여 전체 현 구역을 범위로, 농업단지를 핵심으로 한 단지 내 휴양 관광, 관광 농업 및 행복 농촌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농업 체험 및 휴양 기능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관광 뿐만 아니라 대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것으로 1차 산업을 3차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6월 20일 농업단지가 주최한 '제1회 웨이현 포도따기 페스벌'이 청시농업회사(晟熙農業公司)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페스티벌을 통해 베이징, 스자좡, 헝수이시, 한단 등지에서 300명이 넘는 관광객이 포도따기 체험에 참여했다. 당일 포도 판매량이 2만 kg에 이른다.









농업단지 도로 시설 건설



농업단지 도로는 주요 간선도로와 지역 간선도로, 농지 간 생산도로 등 3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주요 간선도로 20km, 지역 간선도로 15km를 건설하기 위해 3천 만 위안이 투입되었다. 농지 간 생산도로의 경우 지난 3년 간 시행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농지 시범사업, 농촌간 교통사업을 통해 50km에 달하는 아스팔트와 20km의 자갈길이 건설되었다. 이로써 주요 간선도로를 축으로 지역 간선도로를 골격으로, 농지 간 생산도로는 그물 모양의 교통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향후 농업 생산물 유통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4. 평가 및 전망

(1) 결론 및 평가

① 주요 의의

◆ 현대화 농업 단지 발전을 위한 성숙한 관리 및 운영 체계 구축

◆ 1가구를 생산 단위로 삼아 공업화 발전 방식으로 농업 현대화 발전 및 고효율을 이끌 수 있는 방법 모색

◆ '일분토지쟁삼분전(一份土地掙三份錢, 적은 땅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는 방식)' 모델로 농민 소득 증가의 새로운 활로를 찾음



4. 평가 및 전망

(1) 결론 및 평가

② 문제점

- ◆ 농업단지 관리 위원회는 정부가 발족한 기관으로 현대 농업단지 조성과 시장화 경영 촉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모순 되는 문제가 있음
- ◆ 자질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농업단지 전문 경영인' 부족
- ◆ 토지 회전에서 통일된 수용과 가격 모델로 다양한 농가 및 지역의 이익관계에 따른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4. 평가 및 전망

(2) 향후 전망

- ◆ 현대 농업단지는 농업 생산 구조를 조정하고, 생산 방식의 전환을 이끈 중요한 시범 사업이자 주축이 되었다.
- ◆ 2015년 7월 허베이성 정부는「현대 농업단지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현대 농업단지 조성을 농업생산에 중요한 일환으로 삼아 지원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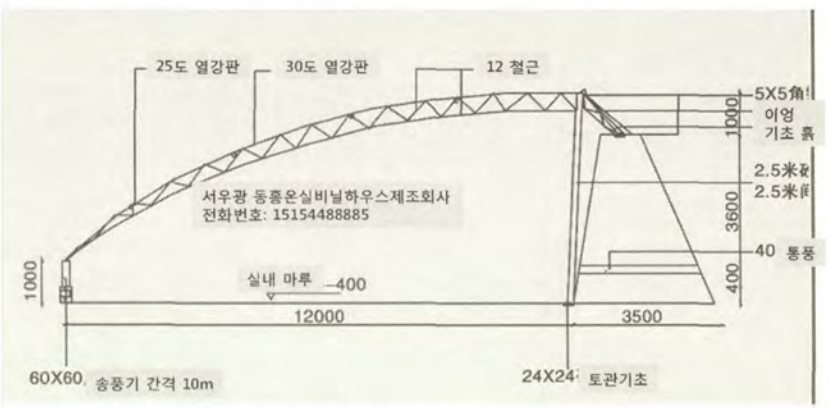


비닐온실 보급 모델

칭다오농업대학 李宗洙(리 종 쭈) 교수

중국 서우광시(壽光市) 동난(冬暖) 비닐하우스 보급모델

중국청도농업대학(中國青島農業大學)
리쭝주(李宗洙)



서우광시 동난 비닐하우스 기본 구조



서우광시 동난 비닐하우스 외관(1)



서우광시 동난 비밀하우스 외관(2)



서우광시 동난 비닐하우스 외관(3)



서우광시 동난 비닐하우스 내부(1)



서우광시 동난 비닐하우스 내부(2)



목 차

1. 배경
2. 서우광시 비닐하우스 채소의 산업 발전 현황
3. 서우광시 비닐하우스 채소 기술 보급의 대표적 모델 및 사례
4. 서우광시 비닐하우스 채소 산업 발전의 문제
5. 서우광시 채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과 대안

1. 배경

서우광시(壽光市) 는 중국의 '동난 채소 비닐하우스' 의 본고장이자 최대 규모의 채소 생산 및 거래 지역이다. 이 채소 비닐하우스 시설은 농업 현대화의 중요한 모델로 수자원 절약, 고효율 생산, 안정적인 사용 등 장점이 있으며 현재 중국의 농촌경제 발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현지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와 농업 산업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서우광시 정부는 동난 채소 비닐하우스를 농업의 산업구조 조정의 중요한 방침이자 전략으로 삼았다. '정부가 지원하고, 농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사회 기관의 협조 ' 를 원칙으로 사회 각계 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하여 서우광시 농촌 경제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현재 서우광시는 '중국 채소의 고향' 이 되었다.

2. 서우광시 비닐하우스 채소의 산업 발전 현황

➢서우광시는 채소 산업 전반의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서 중국의 유명한 '채소의 고향 ' 이 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도로 채소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농가 소득 증대, 농촌 사회 조화•안정, 지속가능한 농업경제 및 사회적 효과 창출에 크게 이바지 했다.

➢현재 채소 재배면적은 약 5억 7천 만㎡로 연평균 생산량이 450만 톤, 48억 위안이며, 현지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표1> 1979~2012년 서우광시 식량 작물 및 경제 작물 구조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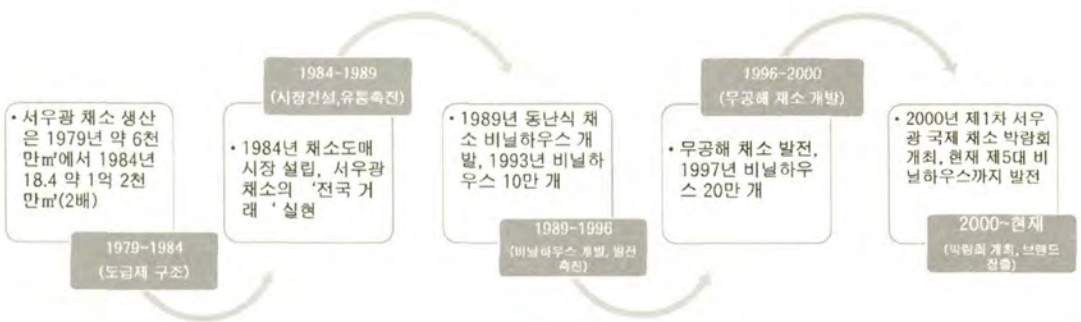
단위: 만 무(萬畝, 1무에 약 660㎡)

연도	1997	1984	1989	1997	2000	2012
식량 작물 면적(A)	111.6	89.1	81.6	69.3	63.2	69.3
경제 작물 면적(B)	40.5	62.0	76.9	81.3	83.3	85.5
A/B	73.27	59.41	52.48	46.54	43.57	45.55

〈표2〉 서우광시 각 지역 비닐하우스 채소 주요 재배 품종

진(鎭) (대로) 명칭	주요 채소 품종	진 (대로) 명칭	주요 채소 품종
쑨자지대로(孫家集街道)	오이	다오티엔진(稻田鎭)	부추
구청대로(古城街道)	토마토	뤄청대로(洛城街道)	미나리
화룽진(化龍鎭)	당근	지타이진(紀臺鎭)	파프리카
원자대로(文家街道)	가지	기타 진(대로)	종합 재배

(1) 서우광시 비닐하우스 채소 산업 발전 연혁



(2) 서우광시 정부 채소산업 발전계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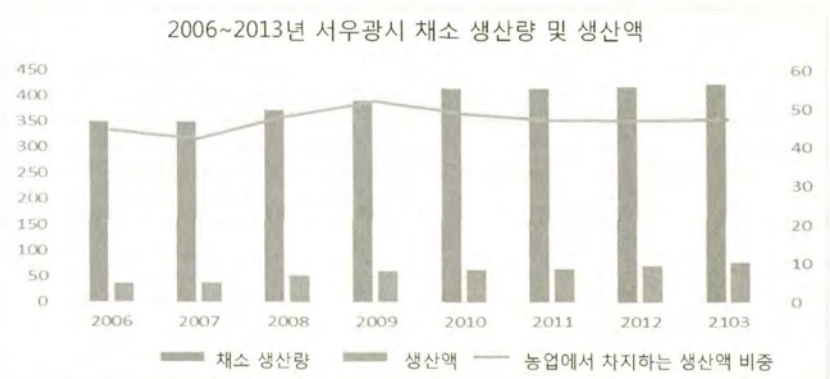
- 1991년, 서우광시 정부는 채소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과 농가 소득 증대의 주요 대안로 최종 확정한다.
- 1984년, 서우광시 도매시장은 연간 200개가 넘는 품종이 시장에서 거래되었으며 전국 20여 개 성시(省市) 및 자치구(自治區)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등 10여 개 국가로 수출되며 서우광시에서 채소가 '전국적으로 거래 ' 된다.
- 1988년, 중국 농업부는 '부식물 생산•공급 계획(菜籃子工程)' 을 시행하였고, 서우광시 채소 재배면적이 2억㎡에, 생산량은 10억kg에 달했다.

- 1989년, 왕러이(王樂義) 현 서우광시 싼위안주춘(三元朱村) 서기가 서우광시에 특색에 맞는 '동난식 채소 비닐하우스 ' 를 도입한다. 시정부는 싼위안주춘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우광시 전체로 보급한다.
- 2000년 북부지역 알칼리성 토지에서 비닐하우스 정지법(靜止法) 수경재배 기술이 성공을 거두면서 북부지역 전체로 확대됐다.
- 2000년, 제1차 중국(서우광시) 국제 채소 과학기술 박람회가 열렸다. 2015년 16회째를 맞이했고, 현재는 5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박람회는 '3농 서비스' 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서우광시와 중국 국•내외의 새로운 품종, 기술, 아이디어,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로 서우광시 시설 농업의 발전 수준을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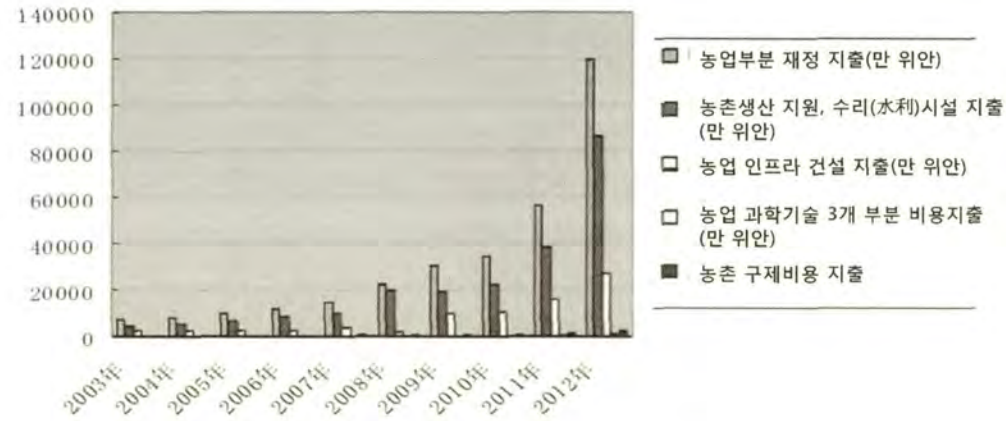
〈표3〉 2009~2013년 서우광시 채소 박람회 과학연구 성과 및 무역 현황

연도	회차	참가자 수 (만 명)	과학연구 성과(개)	계약체결 건수 (건)	계약규모 (억 위안)	무역액 (억 위안)	개최일자
2009	10	171	100	65	106	161	4.20-5.20
2010	11	186	100	41	144.7	160	4.20-5.20
2011	12	201	100	35	259.2	158.2	4.20-5.20
2012	13	212	100	41	381	161	4.20-5.20
2013	14	216	100	44	372	162	4.20-5.20

(3) 서우광시 채소 산업 발전 및 정부 지원



<그림1> 2006~2013년 서우광시 채소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



<그림2> 2003~2012년 서우광시 농업부분 재정 지출 현황

(4) 서우광시 농업발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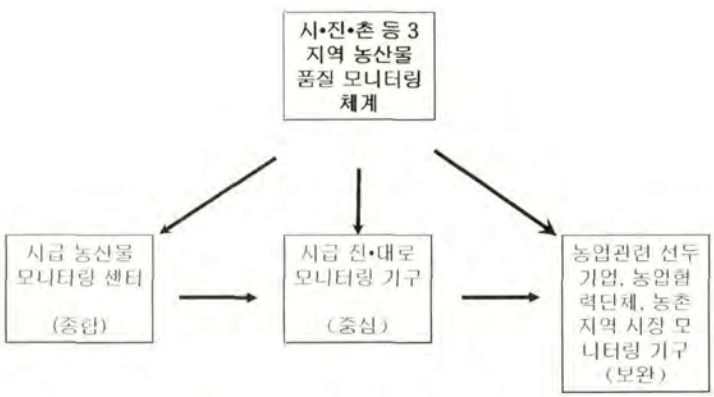
1) 표준화: 농산물 품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3천만 위안을 투입하여 농산물 품질 검사 센터 실험실을 설립했다. 서우광시 15곳의 최첨단 검사설비 및 이동 검사차량과 농촌 지역 검사인력 942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통해 시•진•촌 등 3지역 농산물 품질 검사 시스템을 마련했다.

2) 기지화: 중남부에 채소 과학기술 시범단지, 5대 채소 비닐하우스 무공해 채소 산업 기지, 12km규모의 현대화 농업 시범산업단지를 설립하여 중국 최대 규모의, 세계를 선도하는 집중연구개발, 종자재배 등 사업 위주의 신흥 농업시범단지와 생태계 농업관광단지를 탄생시켰다.

3) 브랜드화: 친환경 식품, 유기 식품, 무공해 식품 등 '3개 식품기지 승인, 제품 승인, 상표 등록, 브랜드 획득' 을 목표로 서우광시 비닐하우스의 채소 단품 브랜드와 전체 브랜드(기지면적 4억 7천 만㎡, 농산물 상표 128종, '러이(樂義), '칠색농원(七彩莊園)' 등 중국 유명 상표 등)를 창출했다.

4) 종묘화: 농업 첨단시장을 선점하여 비닐하우스 채소의 우량품종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중국 채소 종자산업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중국 국•내외 연구소 및 유명 종자 R&D기업을 유치하여 서우광시에 확장기지(종묘기업 100여 곳, 중국산 시범 생산 품종 100여 가지, 새로운 품종 41가지 감정, 서우광시 연간 종자번식 규모 14억 포기)를 건설했다.

5) 첨단화: 중국 국•내외 성공 노하우를 흡수하여 비닐하우스의 친환경, 유기 농산품 재배를 발전시켰다. 이로써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농가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계하미나리(桂河芹菜)', '독근홍미나리(獨根紅韭菜)', '서우광대파(壽光大蔥)', '부교무(浮橋蘿蔔)' 등 6가지 채소가 중국 국가 지리 표준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그림3> 서우광 시•진•촌 등 3지역 농산물 품질 모니터링 체계

3. 서우광시 비닐하우스 채소 기술 보급의 대표적 모델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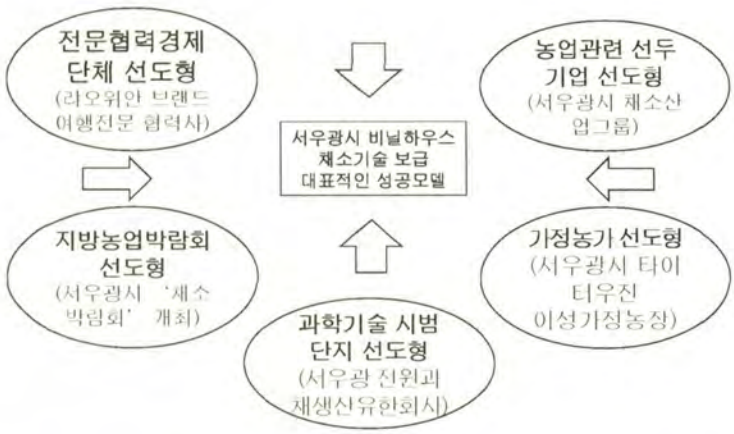
(1) **전문협력경제단체+농가선도형:** 2000년 서우광 전원과채생산유한회사(田苑果菜生產有限公司)를 주체로 집중생산, 가공, 판매가 일체화되고 농가가 주주가 되는 농민 전문협력경제단체를 설립했다. 회원 317명에 동난식 비닐하우스 기지 약 66만 ㎡ 규모를 자랑하며, '협력사+기지+농가' 모델로 채소 비닐하우스 기술을 보급한다.

(2) **농업관련 선두기업+농가선도형:** 서우광시 채소산업그룹은 2005년부터 비닐하우스 채소 기지를 지체 건설했다. 2009년부터 농가에 분산하여 '1촌1품' 채소 산업의 분포 특징을 결합하여 농촌 1곳을 단위로 생산기지 설립을 계획했다. '농업관계 선도기업+기지+농가' 모델을 도입하여 약 3진 개 동난 비닐하우스를 핵심으로 주변 1만 개 비닐하우스를 반 밀착형 비닐하우스 채소생산 기지로 심았다. 협력 농가에 생산자료 및 제품수매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3) **가정농가 경영모델:** 서우광시 북부지역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어 토지를 규모화 전화하기가 비교적 쉽다. 타이터우진(臺頭鎭)은 이성가정농장(以誠家庭農場) 약 26만 ㎡를 생태순환농업 및 관광휴양농업을 주력 사업으로 삼아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집중, 순환농업 등 종합 농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과일수확구역 약 6만 6천 ㎡, 녹색 묘목구역 약 6만 6진 ㎡, 축산구역 약 2만 6천 ㎡, 벚꽃•해당화농원 약 2만 ㎡, 낚시터 6진 ㎡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40개(8만 ㎡)의 동난 비닐하우스가 있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농장+회원' 모델을 도입하였고, 소비자에게 농촌 체험 및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과학기술시범구+농가선도형:** 서우광시 전원과채생산유한회사는 공장단지를 약 65만 ㎡를 보유하고 있다. 농가와 협력하여 500개 동난 비닐하우스를 확대하여 유기•친환경•무공해 상품을 공동 생산하고 있다. '단지+기지+농가'를 운영모델로 삼아 주변 약 660만 ㎡ 규모로 동난 비닐하우스를 확장했고, '재배+채취가공+물류배송+시장판매+안신추적'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도시 31곳, 전국 206곳에 '랴오위안(燎原)' 채소 브랜드 직판장이 있다.

(5) **지방농업박람회 선도형:** 농업박람회를 통해 현지 유방과기학원(濰坊科技學院) 등 대학과 과학연구원이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과 품종을 선보였다. 이로써 대규모 현대회 농업 과학기술연구의 성과가 상용화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으며,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림4> 서우광시 비닐하우스 채소기술보급의 대표적인 성공모델

4. 서우광시 비닐하우스 채소 산업 발전의 문제

(1) 정부 추진 주도, 민간 참여도 낮음

(2) 보급예산부족, 비효율적 기구설치

(3) 자체 연구개발 능력 부족, 국산화 우량품종 부족

(4) 비닐하우스 생산 방식 낙후, 시장화 서비스 수준 낮음

(5) 농업관련 선두기업 규모 작음, 신기술 개발능력 부족

5. 서우광시 채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과 대안

(1) 정부의 거시적 조절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적 지원 강화

(2) 통합관리를 시행하여 '3농서비스' 효과를 높임

(3) 전문화 수준을 끌어올려 우수 브랜드 개발

(4) 재래식 생산방식을 개선하여 상용화 수준 향상

(5) 선두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기술 선도 역량 향상

나라현의 농업 정책

나라현 농림부 후쿠타니 타케오 부장

2015 동아시아 지방 정부 3농 정책 세미나
[제1 세션] : 일한중 농업 정책의 미래를 찾는다

2015년 9월 15일



나라현의 농업 정책

나라현 농림부
부장
후쿠다니 다케오

1

나라현의 과제와 추진 대책 예

분야	과 제	주요 추진 대책 예
농업	농업산출액의 향상	·논 벼 재배에서 원예 작목, 축산 진흥으로 전환 ·나라현 농산물(가공품 포함)의 브랜드 파워 강화 ~브랜드 품질 인증제도(나라판 품질 라벨 제도)의 구축~
	먹거리와 농업의 연접에 의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신규 판로 개척	·나라 먹거리와 농업의 매력 창조 국제 대학교(NAFIC)의 개교와 주변 활성화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농업'을 활용한 숙박시설(구릇도 오베르주)의 정비 등 ·종적 사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업과 식품 산업의 제휴 ·나라현 농산물(가공품 포함) 신규 판로 개척 ~나라현 농산물의 수출 촉진~
농 지·일꾼	농지의 총량 확보	·농지 매니지먼트의 추진
	경작 포기지의 해소	·경작 포기지의 공유화·경작 의욕자에 양도 촉진
	야생동물 피해의 방지	·종합적인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의 추진
	여성 농업인을 비롯해 의욕적인 농업인 등의 육성·확보	·의욕 있는 담당자·기업의 농업 참가 추진 ·농업·농촌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육성
농 촌	농촌 활성화	·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 조성 ·농촌 주유 자전거 도로의 정비 ·논답이 보유한 다면적 기능의 유효 활용
	저수지의 유효 활용	·저수지의 치수, 친수 이용

2

논 벼 재배에서 원예 작목, 축산 진흥으로의 전환

필요한 농지 총량과 현 농업산출액의 목표 (2013년→2023년)

	농업산출액	채 소	논 벼	과 수	축산	화초류	기타	차
2013년	합계 432억 엔 경작 면적 16, 900ha	119억 엔 2, 640ha	110억 엔 9, 190ha	84억 엔 2, 670ha	57억 엔	41억 엔 356ha	5억 엔 1, 274ha	15억 엔 770ha

논을 밭으로 (채소·축산의 진흥)

	농업산출액	채 소	논 벼	과 수	축산	화초류	기타	차
2023년	계440억 엔 경작 면적 15, 720ha	149억 엔 3, 630ha	74억 엔 7, 400ha	92억 엔 2, 660ha	62억 엔	42억 엔 350ha	5억 엔 1, 270ha	16억 엔 410ha

3

나라현 농산물(가공품 포함)의 브랜드 파워 강화 ~품질 인증 제도의 구축~

◆ 브랜드 인증의 개념

·소비 대상은 부유층
·고품질, 특선품을 인증한다
·자신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것
·초 프리미어품, PR이 메인

⇒

·나라현산 농산물의 수준과 이미지 향상
·농산물 판매 단가 향상
·고품질 생산에 대한 생산자의 의욕 향상

⇒ 농업산출액 증가

◆브랜드 인증 제도 확립까지의 공정

협의회 설치 ⇒ '인증 기준'의 조사·연구 ⇒ '인증 기준'의 설정 ⇒ 브랜드 인증 제도의 시험적 운용 ⇒ 브랜드 인증제도의 운용 개시 / '인증 기준'의 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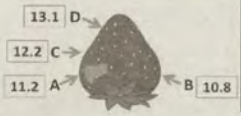
◆비파괴 분석에 의한 품질 보증

딸기 (당도)





근적외분광법



◇ 측정 대상에 근적외선을 조사, 흡수된 정도(흡광도)의 변화로 성분을 산출
◇ 과실 본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비파괴·비접촉 측정이 가능
◇ 간접 측정이며, 사전에 검량선이라 불리는 성분치와 흡광도를 연계한 계산식을 작성

야마토소 (올레산※)







※올레산이란

·쇠고기 지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
·융점이 낮고(16℃), 함유량이 풍부할수록 쇠고기의 '부드러움'과 '풍미'가 좋아진다고 한다
·혈액 속의 악성 콜레스테롤을 없애 동맥 경화나 심장병, 고혈압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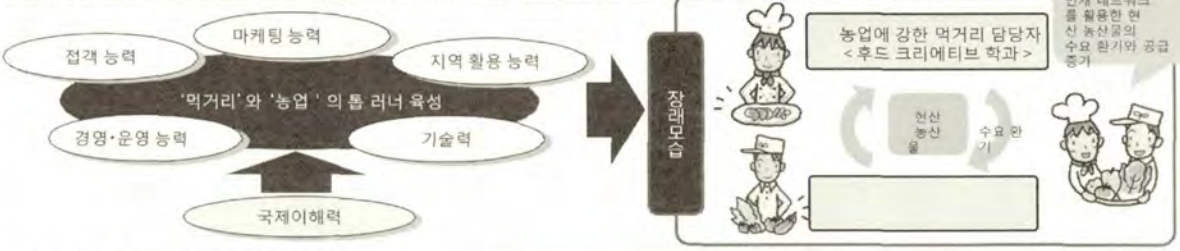
4

먹거리와 농업의 연계를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의 대책

'나라 먹거리와 농업의 매력 창조 국제 대학교(NAFIC)」의 개교와 주변 활성화

후드 크리에티브 학과를 창설, 농업·농작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먹거리 일꾼(세프)'를 육성

나라 먹거리와 농업의 매력 창조 국제 대학교의 인재육성 컨셉



후드 크리에티브 학과의 개요

◆**개교 시기** : 2016년 4월

◆설치 장소 : 사쿠라이시 고카(아베 지구)
◆재학 기간 : 2년 ◆정원 : 20명/학년
※특징 : 학교 부지 내에 일반객이 여유롭게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오베르주(숙박시설을 갖춘 레스토랑)를 설치, 수업의 일환으로서 레스토랑 주방에서의 조리나 접객 서비스 등의 실천 연수를 실시한다.



실천 오베르주동 '오베르주 드 사쿠라이' 내부(이미지)



전체 조감(이미지)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농업 ' 을 활용한 숙박 시설(구룻토 오베르주)의 정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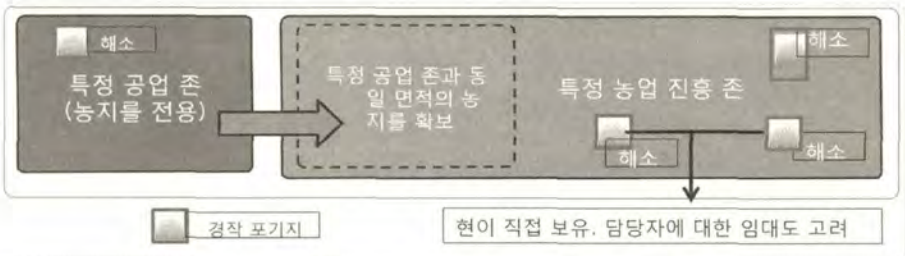
· '나라 먹거리와 농업의 매력 창조 국제 대학교(NAFIC)」를 거점으로,
지역의 '먹거리'와 '농업' 을 활용한 숙박 시설 등의 정비와 해당 시설의 네트워크화(구룻토 오베르주)를 검토 중.

5

현내 농지 총량 확보를 위한 농지 매니지먼트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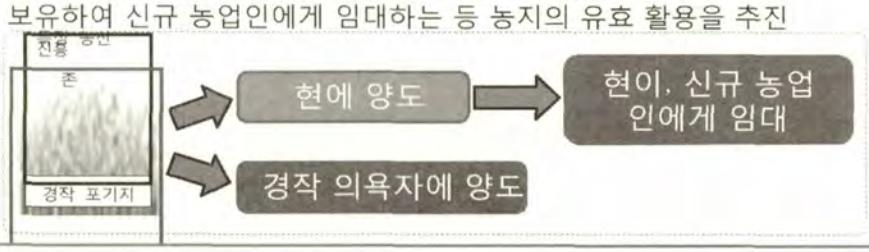


(1) 현 지역에서 농지 총량을 확보하는 목표를 설정
(2) 기업 입지를 추진하는 공업 존을 설정, 농지의 공업용지 전용을 허가
(3) 해당 존 내의 농지는 해당 시읍면 지역을 벗어난 현 내 타 지역에서 같은 면적의 농지를 확보
(4) 새로운 농지에서의 농업 생산을 현 주도로 실행



경작 포기지의 공유화·경작 의욕자에 대한 양도의 촉진

·나라현은 경작 포기지율 19%로, 긴키 지방에서 최하위 수준
·특정 농업 진흥 존에서의 경작 포기지를 해소하기 위해
현이 보유하여 신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등 농지의 유효 활용을 추진



6

의욕적인 일꾼의 농업 참가 추진

현 내외에서 채소와 축산 등에 의욕이 있는 일꾼의 농업 참가를 모집 (6월 오사카, 향후 도쿄에서도 모집)

→ 지도 농업사회 등과 제휴, 선진 농가에서 기술이나 경영을 습득

→ ·농지 확보·판로 확보
·농업 기계·시설의 도입
(농가로부터의 계승을 포함)

→ 차년도를 목표로 농업 경영을 개시

농업에의 기업 참가 추진 ~현외·현내 기업의 농업 참가를 위한 연구~

현외·현내 기업과 농업 참가 의견 교환

현내 기업(모델적으로 쇼와공업 단지내의 기업)
·쇼와공업 단지 협의회와의 의견 교환
향후, 협의회 회원으로 농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차례로 개별 면담(현이 주체가 되어 농업 참가를 지지)

→ 벤치마크가 되는 대책의 연구(27 부현)

·기업과 농가의 6차 산업화 컨업을 지원
(아키타현, 미야자키현, 에히메현)
·기업에 의한 경작 포기지의 해소와 원예 등의 도입 지원 (구마모토현, 후쿠이현, 이시카와현)
·기업 세미나의 개최 지원(기나가와현) 등

→ 농업에의 참가 희망 기업과 농업 전개에 대해 장래 비전을 검토

【농업 전개의 방향성】
①생산 관계에 의한 농업 경영형
②지역 주민과의 도시 농촌 교류형
③지역 활성화를 향한 사회공헌형

→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 지원 실시

현내에서의 기업 참가

로토제약(주)(우다시)…당귀, 유기 채소, 그린 투어리즘 등【농업 경영형】【도시 농촌 교류형】
(주)다이기(시모이치초)…감, 넝쿠 등【농업 경영형】 (주)히라이에(덴리시, 시모이치초, 고세시)…감잎【농업 경영형】
(주)케이유(야마토고리야마시)…마스커의 경작 포기지에 굴 식수, 장애자 복지 시설과 제휴 【사회공헌형】

향후의 기업 참가의 싹

·(주) 미나미다(야오시에서 볼트, 너트 등의 제조업)
코로조에서 딸기 등 경영 희망【농업 경영형】 현재, 경영 비전을 검토 중
·오릭스 농업 참가를 위해 현내 농가 등의 파트너를 검토 중(6/3, 의견 교환)

농업·농촌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육성

지도 농업사회, 첫 여성 회장 취임을 배경으로 여성의 농업 참가나 여성이 중심이 되는 경영을 지원

금년도 대책

의욕 있는 젊은 여성의 농업 참가 추진

○농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을 공모
(젊은 여성 농업인이나 대학생 등 폭넓게 모집)

·입문편(7월~4회)…주말 농업 창업 세미나의 개최
(여성의 시점을 살린 기업화의 연수)

·응용 편(9월~6회)…농업 창업 학원의 개최
(마케팅 전략 등 창업 스킬 향상 연수)

·실천 편…6차 산업화 등 실천 농가에서의 장기 연수
(여성 지도 농업사 등과 제휴)

의욕 있는 여성 농업인의 육성

젊은 농업 여성인의 6차 산업화 등 지원
·젊은 농업 여성인과의 의견교환회
·네트워크의 구축
·네트워크와 현에 의한 협동 사업의 검토

가공이나 판매를 실시하는 여성의 새로운 상품 개발 지원
·여성 농업인, 여행업자 등과 제휴한
음식 '먹거리' 투어의 개발
지역에 전승된 '먹거리'의 PR과 새로운 가공품 개발

지향 상

여성 경영인에 의한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의 전개
(예)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가 레스토랑이나 오베로우 등의 경영)

여성의 우수 분야인 가공품 개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 경영의 전개

여성의 활약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근린 농지에서 여성이 만든 농산물 등의 원재료를 제공

→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공장 등 기업을 유치

→ 여성의 우수 분야인 6차 산업화의 기술을 갖춰 기업에 취업

7

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만들기

(농촌 자원을 활용, 지역 특성과 아이디어를 통한 활기의 창출)

다하라모토초

○벼농사 체험에 의한 '아스마로상 쌀' 브랜드화
○논의 생물 체험 투어로 자연 환경을 만끽



야마조에무라 가미즈댐

○가미즈 댐 시설의 가족 견학회
○수력 발전 견학회



사쿠라이시

○메밀·유채꽃에 의한 유휴지의 재생과 농촌 경관 창생



아름다운 농촌 경관 만들기

(일본에서 가장 오랜 된 '야마노베 길'주변)
~'농업'이 시작되면서 계승되어 온 사계절의 풍치를 즐길 수 있는 농촌을 활용~

·강가에 있는 경작 포기지를 살려 농촌 경관을 재생
·농촌 만들기 조직을 활용, 역사와 경관, 아름다운 농촌을 PR


화원 명소


휴식 명소

가시하라시

○논의 생물 조사에서 자연 환경을 학습





도시 농촌 교류 인구

2,230명【2012년】
3,412명【2013년】
4,728명【2014년】

현이 실시한 농촌 지역 만들기의 교류 수



야마노베노 길(덴리시·사쿠라이시)

○감나무 오너에 의한 유휴화한 시읭의 관광 농원회
○감잎 소밥용 잎의 생산을 통한 새로운 수요 개척
○감자, 참깨, 고구마 수확 체험 등
'농업'을 활용한 새로운 매력·거점 만들기
○떫기 등을 활용한 요리 교실을 통해 지역 식재의 활용
○감잎 조립 등의 요리 교실을 통한 전통 요리의 계승





가쓰라기시

○가쓰라기산 기슭 걷기로 지역 특산이나 경관을 PR(산록 지역)



오요도초

○배 생산 단지의 PR



다카토리초

○단포(논..의 진흙 축제에서 경관과 지역 특산을 PR
○익사이팅 농업 체험으로 벼 농사 체험





시모이치초

○허브를 활용, 신 특산을 PR



정보 발신

○쇼핑 몰에서의 농촌 만들기 이벤트 개최



○농촌 문화 포럼 개최
(발표 교류회)



○단포 수족관 개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농촌 경관 100선 사진 콩쿠르 입선 작품 '만추의 산 속 마을'(나라현 우다시)

지하수와 토질을 개선하는 농업의 추진

구마모토현 농림수산부 소노다 마고토 국장

지하수와 토질을 개선하는 농업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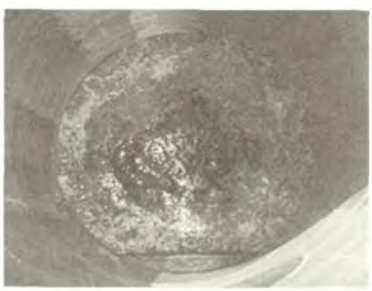
2015년 9월

구마모토현　농림수산부

Ⅰ　구마모토현의 지하수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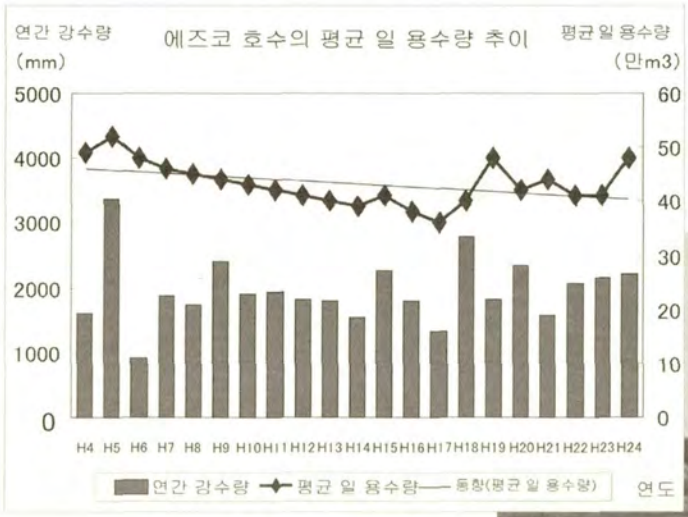
(1)구마모토현 상수도의 지하수 이용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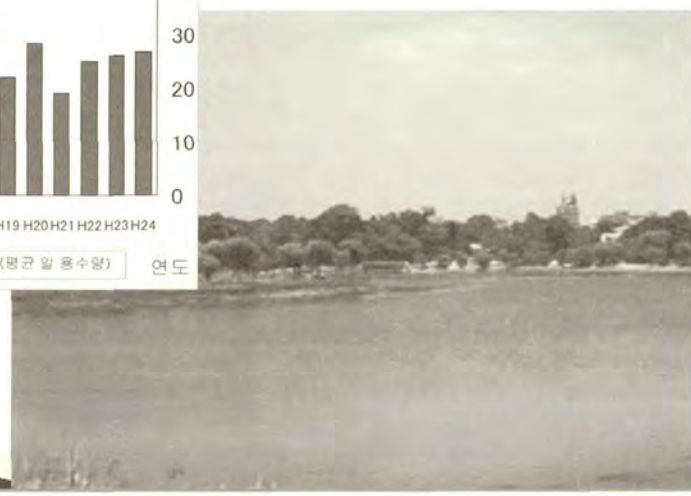
구마모토현　면적 : 7,404k㎡
인구 : 179만 명
상수도의 지하수 이용률 : 약 83%
(참고 : 전국 약20%)
구마모토시(구마모토현 현청 소재지)
인구:73만 명
상수도의 지하수 사용률 : 100%
지하수 사용량 8,04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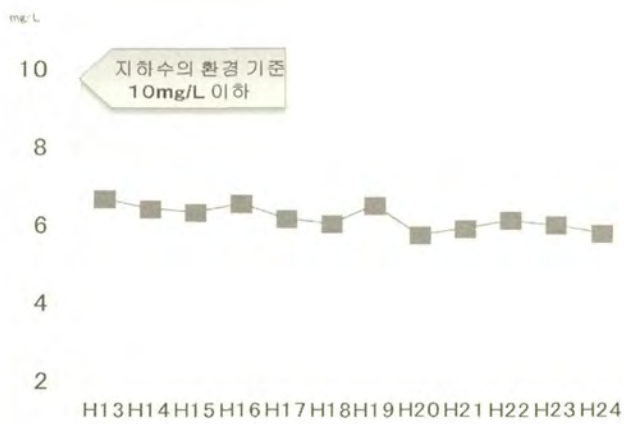
(2)구마모토현의 강수량과 용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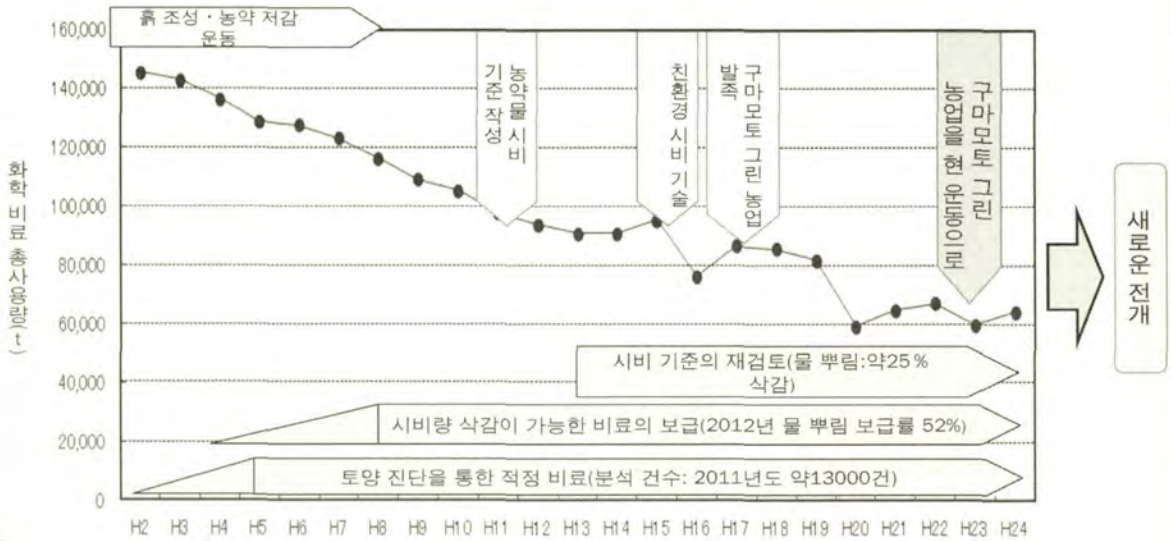


(3)구마모토 지역에서 조사한 우물의 초산성 질소 농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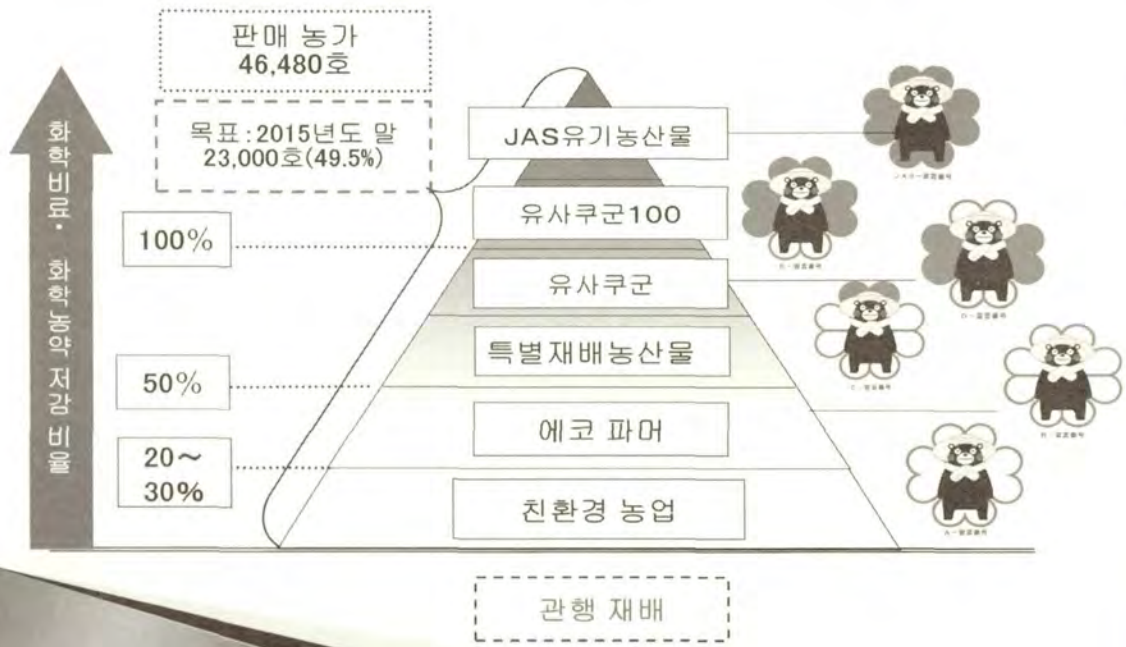
(4) 현 내의 화학비료 순사용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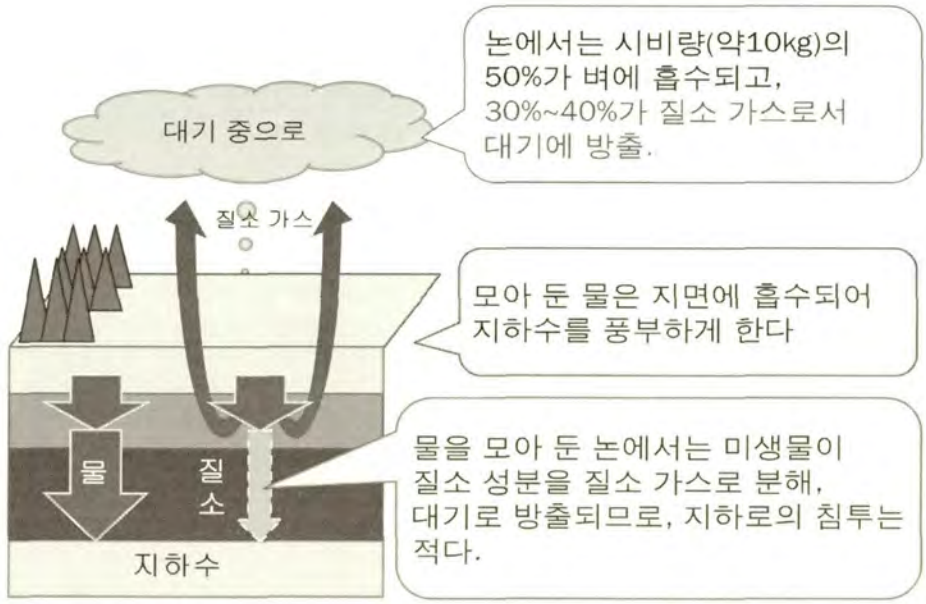
(5) 구마모토 그린 농업의 추진

○구마모토 그린 농업의 추진 레벨(이미지)

토질 개선을 기본으로 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저감하는 친환경 농업



(6) 논의 기능



II 지하수와 토질을 개선하는 농업 추진 조례

(1) 지하수와 토질을 개선하는 농업의 정의와 기본 시책

지하수와 토질을 개선하는 농업의 정의

(지하수와 토질을 개선하는 농업이란 다음을 추진하는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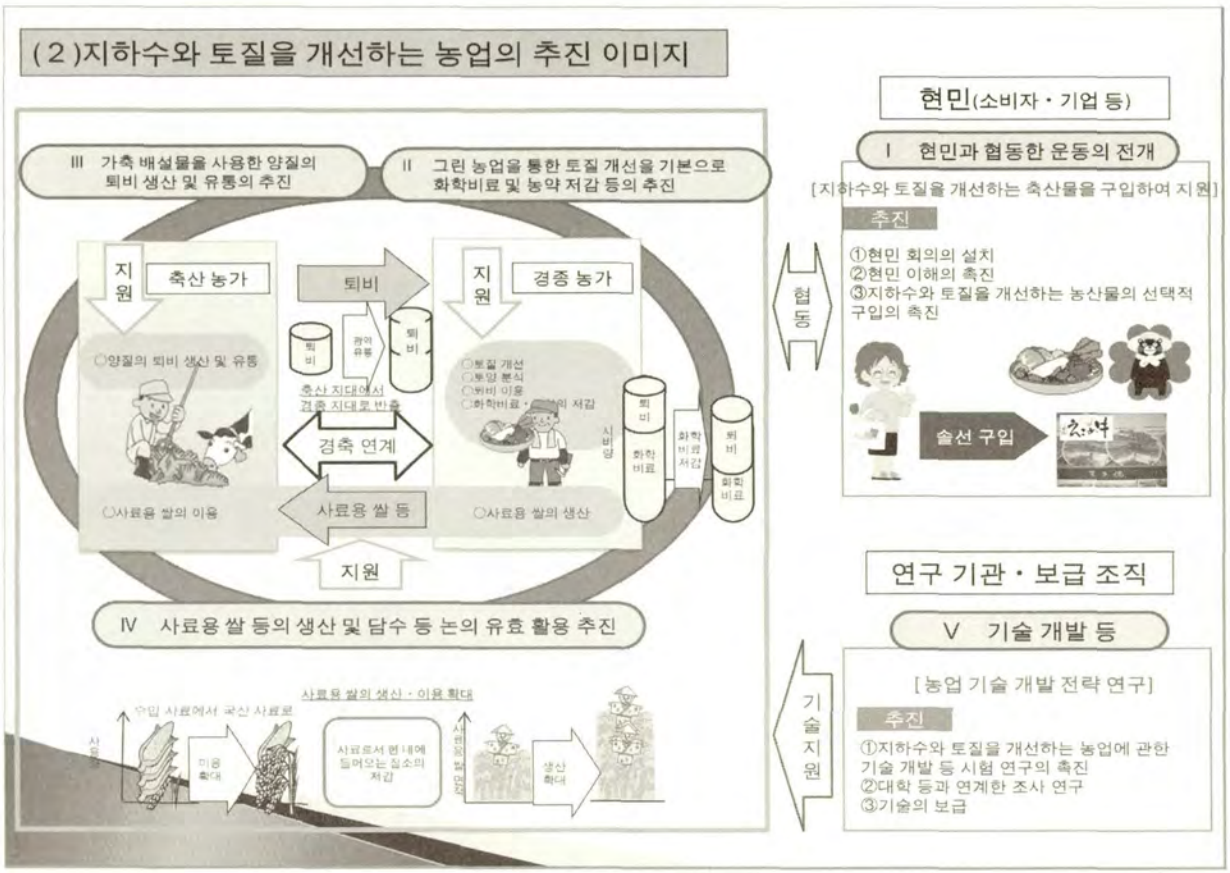
- 토질 개선을 기본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삭감 등을 추진
- 가축 배설물을 사용한 양질의 퇴비 생산 및 유통을 추진
- 사료용 쌀 등의 생산 및 담수 등 논의 유효한 기여를 추진

기본 시책

○ 지하수와 토질을 개선하는 농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개 시책의 실시를 규정

1 현민과 협동한 현민 운동의 전개
2 그린 농업을 통한 토질 개선을 기본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삭감을 추진
3 가축 배설물을 사용한 양질의 퇴비 생산 및 광역 유통의 추진
4 사료용 쌀 등 경작의 확대와 담수 등 논의 유효 활용을 추진
5 지하수와 토질을 개선하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시험 연구 및 기술의 보급

(2)지하수와 토질을 개선하는 농업의 추진 이미지





감사합니다



네덜란드형 최첨단 시설 도입

야마나시 명야채원 유한회사 아그리마인드 후지마키 신지 대표

네델란드형 최첨단 시설 도입!

(일본 최고의 일조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 최고의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가?)

농업생산법인(유) 아그리마인드
藤巻眞史

아그리마인드의 농업 경위

- 2006년 유한회사 야사이겐키무라 설립
- 2007년 유한회사 아그리마인드로 사명 변경
  아스파라거스, 대두, 보리 생산
- 2009년 도와리 두부 제조 판매(6차 산업)
  대두를 통째로 이용하여 두부, 된장 두부 제조
- 2014년 토마토 재배 시설 건설
- 2015년 토마토 생산 판매 개시
- 2015년 단위 수확량 일본 최고 달성?

후요 농장 아스파라거스 대두 밀 보리 등






6차 산업화 도와리 두부 제조 판매




대두 재배(유기 농업)

↓

두부 제조(' 비지' 가 나오지 않음)

↓

판 매(유통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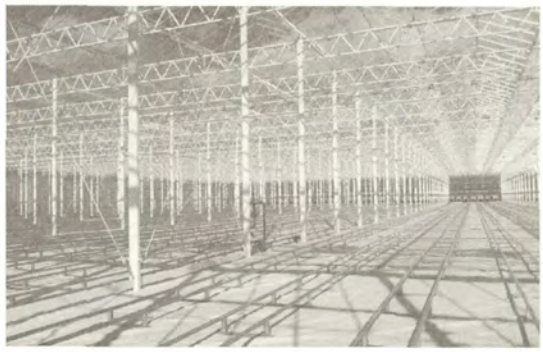
↓

소 비 자(안전, 안심, 진품, 기능성)



아케노 농장 토마토 시설 건설 개시 (공사 기간 2014년 8월~12월





시설 전경 (앞쪽 : 아그리마인드, 왼쪽 뒤 : 규슈야, 오른쪽 뒤 : 무라카미 농원)





연동형 온실(현행형과 반밀폐형)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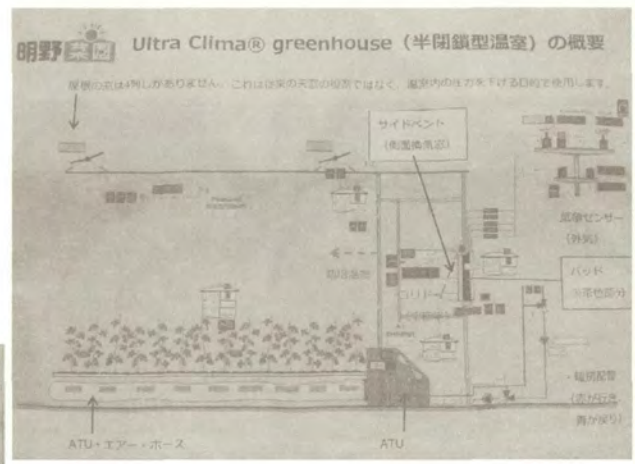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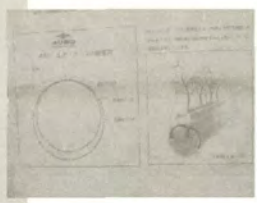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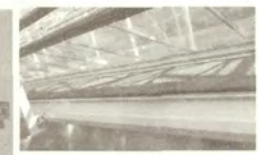




온실 내 모든 환경을 조정하는 코리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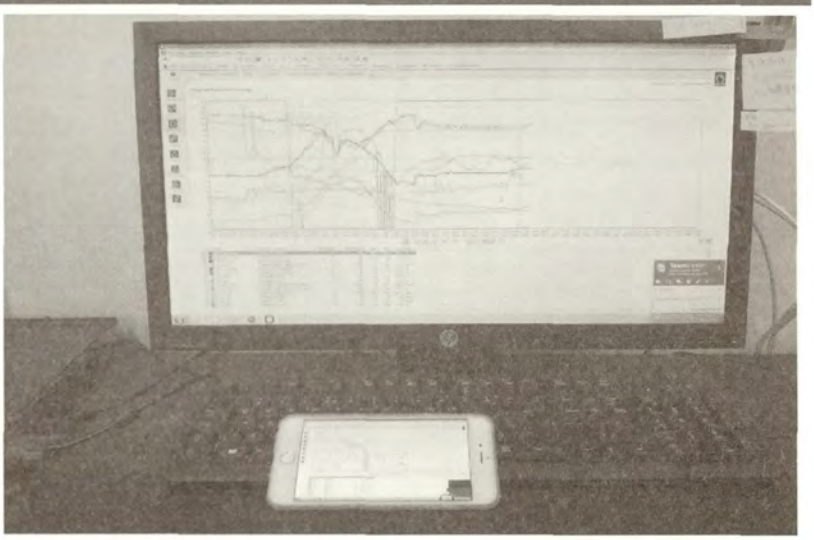


송풍 튜브와 심은 후의 상황





ITC 관리 (약900 조건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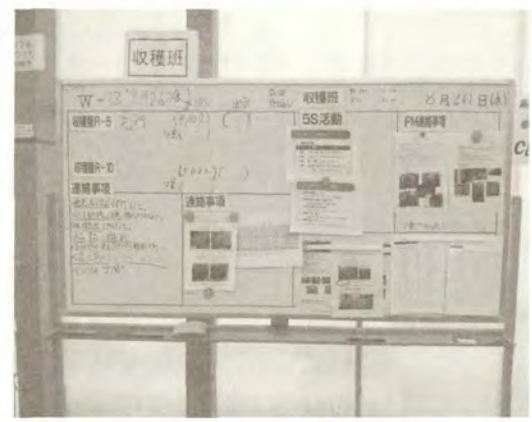
온실 내부(통로 측 86열 145m×깊이 130m)





매일의 작업 내용 협의(잎따기 옮겨심기 유인 적과 수확)





관리 작업(잎따기, 순따기, 옮겨심기, 수확)



착과 상황(중간 크기)



고성능 선과기와 포장 작업






수확 목표

- 보급형 온실 시설(일반적)
- 수확 단 수:30단
- 수확량:20~30t/10a

- '아케노 화원' 반밀폐형 온실 시설
- 수확 단 수:40~45단
- 수확량:70~80 t/10a

친환경 (무배출 화원을 목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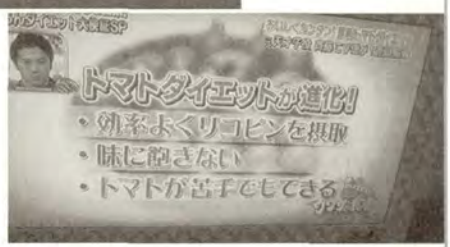
- 연료:LPG 클린 에너지
- CO_2가스: 연소 CO_2 재이용
  액화 CO_2 공업 부산물 재이용
- 용수: 빗물 재이용 (360t 비축 탱크)
- 비료: 잔양액 재이용(폐기 제로)
- 농약: 엄격한 입실 규제, 천적을 이용한 무농약 재배 재이용
- 잔사: 잎, 줄기, 슬래브 전체 리사이클(퇴비)

(검토 중)

- 태양광·열 이용 재이용 리사이클
- 바이오매스, 열 이용 리사이클
- 잔사: 잎, 줄기 리사이클(사료)

토마토의 건강 효과 (후지TV 방송 2015.9.1)

·의사가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식품 1위는 토마토
·가열하면 리코핀 흡수율이 2~3배 높아진다
·토마토 주스 캔 1병에 1끼 분의 리코핀 15mg를 섭취할 수 있다
·리코핀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항산화 작용, 피부 노화 억제 작용이 있다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토마토 주스의 식감의 차이는 식이섬유
·구연산이 고기나 물고기의 냄새를 없애준다
·구연산은 피로 효과가 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돕는 호르몬, 숙면을 취하게 한다
·케첩은 생 토마토보다 리코핀 함량이 풍부(완숙 토마토를 사용하기 때문)





2 세션 :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충남마을 만들기

충남연구원 구 자 인 연구원

동아시아 3농포럼
세션2_농촌

충남의 마을만들기 사례와 지원 정책

- 충남도와 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

2015. 9. 15(화)

구자인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gujain@hotmail.com

목차

Ⅰ. 문제의식 : 한국 농촌의 역사적 현실에 기반한 구조적 접근

Ⅱ. 사례1 : 홍성군의 마을만들기 -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1. 문당리의 마을 활동 : 마을 커뮤니티의 복원
2. 홍동면의 주민 활동 : 면 단위로 협동조합적 전개
3. 홍성군의 홍성통 : 민관 거버넌스의 시도

Ⅲ. 사례2 : 충남도의 마을만들기 - 민관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Ⅳ. 검토과제 : 성과와 과제, 향후 방향

2

Ⅰ. 문제의식1 : 한국 농촌의 역사적 현실 → 구조적 인식과 단계적 접근

20세기 한국 농촌 역사

1) 일제 식민지(1910-1945) → 공동체 활동조차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
2) 남북분단과 한국전쟁(1950), 기나긴 독재 → 레드 컴플렉스, 감옥행
3) 급속한 도시화와 국토개발 → 농촌은 저임금 노동력과 식량 공급기지
4) 때늦은 지방자치(1992,1995) → 그것조차 농촌에는 '주어진' 성과

한국 농촌지역개발의 출발 상황

► "마을 일에 나서면 다친다"
► "열심히 해도 좋은 소리 못듣는다"
► "공부 열심히 해서 도시 나가 성공해라"

► 내부 인재는 미약하고 공동활동 취약
► 한국적 이론서, 사례연구집도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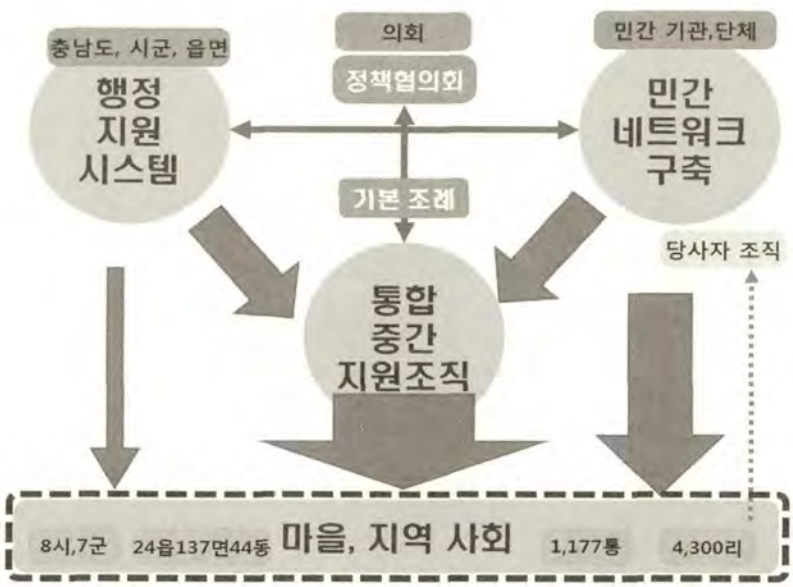
어렵고 힘든 조건

누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 한국 농촌의 20세기 역사는 일제 식민지와 남북분단, 한국전쟁, 장기독재,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농촌 주민들의 자치 활동은 철저하게 탄압을 받아왔다. 지역의 인재는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농민운동 등을 통해 총살당하거나 감옥이 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1990년대에 때늦게 시작된 지방자치도 '주어진' 성과의 성격이 강하였다.
- 이런 어렵고 힘든 역사적 현실 조건에서 출발하여 "누가, 어떻게 농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농촌은 이런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출발점이 다른 상황인 셈이다.

Ⅰ. 문제의식2 :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 미흡 → 상호학습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

상호학습의 과정을 강화하여
거버넌스의 균형을 잡아가도록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고 진보적인 시장, 군수가 선출되어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또 지방의원들도 새로운 선진적 조례 입법 활동들도 이루어져 왔다. 지역 생활 현장에 밀착한 풀뿌리 민간단체들도 많아졌다.
- 하지만 여전히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는 '위원회' 방식에 머무르고 있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와 의사결정구조(정책협의회) 및 상근 조직(중간지원조직)은 발전되지 못했다.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실험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3농혁신은 이러한 시도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Ⅰ. 문제의식3 : 풀뿌리 마을 주민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적 유도' 기능 강화



풀뿌리 주민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86만세대
2백만명

사회적경제
귀농귀촌 평생학습
지역자활 창업공동체
지역복지 자원봉사 주민자치회

마 을 도시재생

약 5,500개
마을공동체

8시, 7군	24읍, 137면, 46동	123동, 1,970리 (법정동리)	1,177통, 4,300리 (행정통리)

- 충남에는 15개 시·군, 207개 읍·면·동, 약 5500개의 통·리가 있다. 농촌 마을은 약 4천3백개가 있다. 이런 풀뿌리 마을의 주민자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 "풀뿌리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는 관점에서 주민자치 활동이 자발적으로 발생하여 확대되고, 최근에는 행정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Ⅱ. 사례1 : 홍성군의 마을만들기
→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한국의 행정구역>
도-군-면-리 (道-郡-面-里)

홍성군의 지역 개요

행정 구역	• 2개 읍, 9개 면, 336개 행정리, 141개 법정리
면적	• 443.97㎢
인구	• 총인구 92,826명 ('15. 07. 31 기준)
특산물	• 홍성 한우, 광천 김과 토굴새우젓, 남당 대하와 새조개 등
역사·문화	• 성삼문, 최영, 한용운, 김좌진, 김복헌, 이응노 등
농업·농촌	•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 지정('14. 10) • 농업인구 28,274명(31%)

홍동면의 지역 개요

행정 구역	• 33개 행정리, 14개 법정리 • 자연마을 96개
면적	• 38.01㎢
인구	• 총인구 4,826명. 세대수 1,586호
농업·농촌	• 한국의 오리농법 발상지 • 유기농업 특구 중심지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II-1 : 문당리의 마을 활동 : 마을 커뮤니티의 복원

홍성환경농업마을 - 생각하는 농민, 준비하는 마을 -









-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는 약 80가구, 200여 주민이 4개의 자연 마을로 흩어져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 1970년대에 유기농업을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반부터 오리농법을 도입하여, 이제는 우리나라 농촌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 마을로 알려져 있다. 2000년에는 마을의 100년 발전계획을 세우고 행정 사업비를 활용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친환경마을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문당마을의 지도자

주형로

- 1959년생 / 홍성 풀무학교 졸업
- 홍성문당환경농업마을 前대표 / 슬하에 1남1녀
- 안희정 충남도지사 특별정책보좌관
- 오리농법의 선구자. 환경농업의 대표 주자
- 故노무현 대통령에게 오리농법을 전수해 봉하마을에서 오리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문당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촌생활유물관', '자연정화 시스템', '환경농업교육관', '오리쌀 이야기 축제' 등을 추진





문당리의 마을만들기 사업

- 2003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지정
- 2005~2010. 5개 마을 권역 사업 추진(총액 73억원 지원)
- 2010 농촌마을종합개발평가우수(3위)로 면단위 민간조직 마을활력소 설립
- 2013 제3회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 권역부문 장관상 수상
- 2013.2.4. 농어촌인성학교 선정(11호)
- 2014년 기준, 연간 방문인원 4만5천명, 49명 주민고용 창출, 연매출 9억원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9

문당마을의 공동체 시설



【환경농업교육관】
마을정보화센터, 환경농업교육장, 체험학습장, 마을 잔치 등 마을소통과 도농교류의 장으로 사용. 1층은 유기농식당으로 체험객들에게 건강한 식사 제공 (2000년 12월 준공)



【농촌생활유물관】
홍동면에서 수집한 농촌 생활용품과 농기구 등을 전시하여 어린이와 체험객들에게 옛것을 소중히 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알아보며 보전할 가치를 느끼게 하는 공간 (2002년도 준공)



【황토건강체험실】
마을주민 스스로 찍은 황토벽돌과 서까래를 이용하여 지은 황토방. 농한기에 마을사랑방 역할을 하며 체험객들도 사용함
(2003년도 녹색농촌마을사업으로 건립)



【전통가옥체험장】
옛날 전통 한옥의 모습을 재현하여 건립한 숙박시설로 전통체험과 숙박공간으로 사용중
(2007년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



【환경농업역사관】
홍동지역의 친환경농업 현황과 관련 민간단체 활동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
(2007년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

10

친환경농업교육과 도농교류체험











자료 제공 : 홍성군청 (2015.08)

II-2 : 洪東面의 주민 활동 : 면 단위의 협동조합적 전개



- 홍성군 홍동면은 문당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마을 활동과 협동조합적인 활동이 서로 만나 새로운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서 출발된 활동이 2010년 이후에는 농가공과 교육, 문화, 복지, 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 여기에는 농업계 대안 고등학교인 풀무학교의 창업생(졸업생)과 젊은 귀농귀촌인이 협력하는 노력이 있었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 교육목표 : 성서 위에 더불어 사는 평민교육
  성서 위에 학교 / 기본층의 평민
  머리와 가슴, 손의 조화 / 작은 학교
  무두무미(無頭無尾) / 더불어 사는 지역과 학교
- 일본 자매학교 : 愛農學校, 獨立學園, 愛眞學園 등
- 1958년 풀무농업기술학교 개원
- 1975년 일본 애농회 한국 방문으로 유기농업시작
- 1979년 화란 ICCO 후원으로 농장, 본관 건립
- 1983년 고등학교 학력 인증
- 2001년 2년제 풀무전공과정 개교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풀무학교 전공부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풀무 학교 생활협동조합

건강하게 농사지은 통밀로 빵을 굽고 마을의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을 파는 갓골작은가게 운영
('77년 풀무식가공조합, '93년 풀무학교생활협동조합)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갓골목공실

지역 농민의 집수리, 목공교실 등 사랑방 역할
('07년 시작, '08년 햇살배움터 목공교실 운영)





작업 공간은 아이들에겐 배움터가 된다.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풀무 생활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찾아 실천하면 조합도 발전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실천하는 풀무신협. 앞을 완독 네 번째가 주철배 이사장, 세 번째가 정규재 전무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홍성여성농업인센터와 갓골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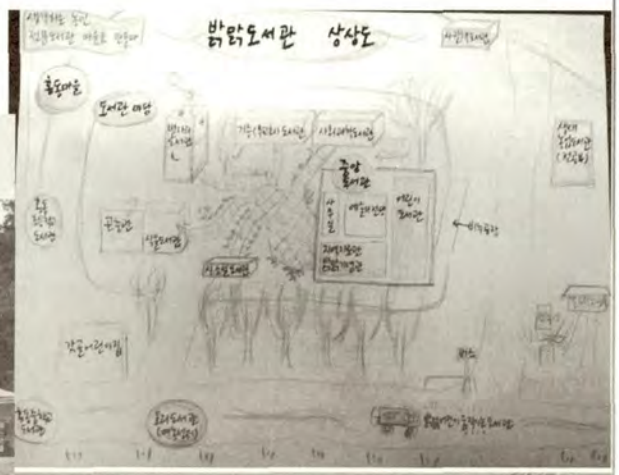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밝맑도서관

'학교와 지역은 하나다' 생각을 실천,
학교와 지역이 같이 쓰는 도서관 설립('11년 개관)





마을활력소

나눔과 연대, 협동의 정신에 기초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익적인 주민활동을 지원
('11년 법인 출범, 지역센터 완공)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및 인테넷 사이트

동네 마실방 '뜰'

회원과 지역민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술집,
서로 소통하고,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를 나눔
('11년 3월 운영 시작)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및 인테넷 사이트



끊임없이 새로운 활동 ….

홍동면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활동과 실험이 기획되고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고 있다.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및 인테넷 사이트

II -3 : 홍성군의 홍성통 : 민관 거버넌스의 모색

홍성군의 마을만들기 역사

- 태동기(~2009) → 마을 활동이 점에서 선, 면으로 확산
  - 홍동면 문당리 마을만들기 백년계획 수립
  - 권역사업, 정보화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정부사업을 활용 마을만들기 시작
- 확산기(2010~2013)
  -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출범('11.10), 내발적발전 정책방향 설정
  -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도입, 예비마을 역량강화 사업 시작 ('12)
- 네트워크 구축기(2014~)
  - 홍성통 거버넌스 운영('13), 지역 내 다양한 민간단체와 행정부서의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모색
  -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 조례 제정 등 행정시스템 정비중(('15)



홍성군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2015)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 홍성군은 홍동면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활동 경험이 지역 전체로 조금씩 확단되어 왔다. 2015년 현재 전체 336개 마을 중에서 79개 마을이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23.5%).
-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행정에는 '농정기획단'이 출범(2011.10)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으로 '홍성통'이 발족(2013.3)하였다. 올해는 지원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해 학습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마을별로 독특한 활동이 전개되고 네트워크 형성중

홍동면을 중심으로 시작된 마을 활동이 이제는 홍성군 전체로 확산되고 전체가 함께 하는 연대 행사도 많아지고 있다.


[사진 : 홍성통 '15년 6월 회의 모습]


[사진 : 홍성군 희망마을 한마당 축제]


반교마을 할매화가 교육


반교마을 할매 문패 만들기


천태마을 목공단체 수작과 회의


천태마을 마을공원 조성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희망마을 리더 교육


지역민 희망마을 활동가 과정



지역대학생 청년예비활동가 과정

산양마을 생태조사


상담마을 현장포럼


마을발전계획 발표대회



희망마을 한마당 축제


제1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유치



홍성통 페이스북페이지
('14년 88명 > '15년 현재 1315명)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42회 대화모임 개최
(2015.04.10~11, 홍동·장곡면 일대, 전국 115명 참가)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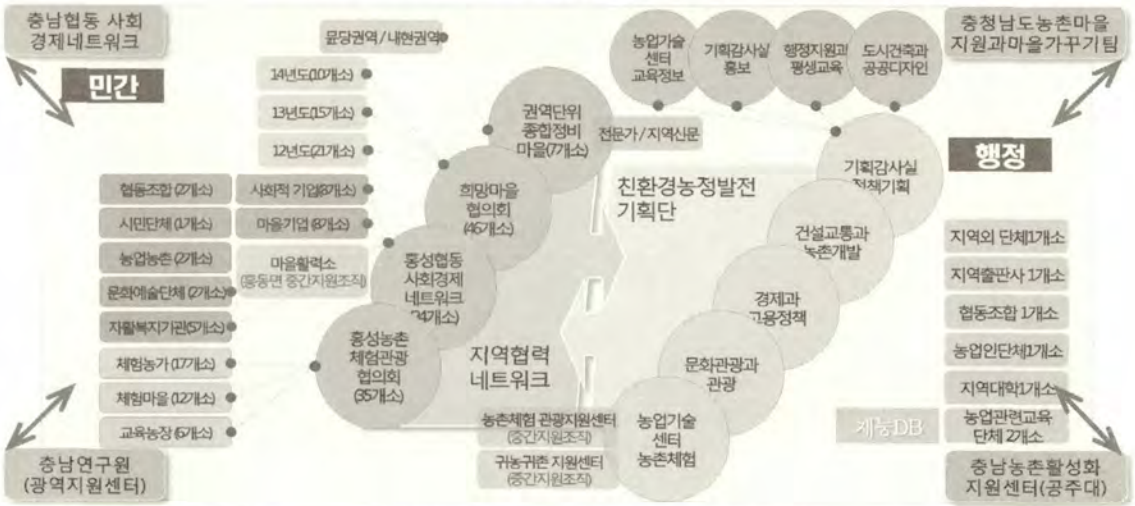
홍성통_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행정과 민간단체가 한 자리에 앉아 정보를 공유하고
농촌 발전과 지역경제를 고민하며
상호관심사를 토론하는 '홍성통'이 2013년 3월에 출범하였다.





행정 10개 부서, 113개 마을과 단체, 재능기부 7개 단체 참여



거버넌스 설명회 개최 및 동의 ('12.12, 110명) ▶ 준비위원회 운영 ('12.12~) ▶ [가칭]거버넌스 운영위원회 발족 ('13. 03, 5개 부서, 83개 단체) ▶ '홍성통'으로 개칭 ('13.8 ~)지속 운영 중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25

홍성군의 마을만들기 은하계

홍성군은 다양한 민간조직과 마을, 행정이 협력하는 형태로 네트워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 모습은 마치 우주의 은하계와 같다.
하나하나의 개인, 마을, 조직이 모두 제 색깔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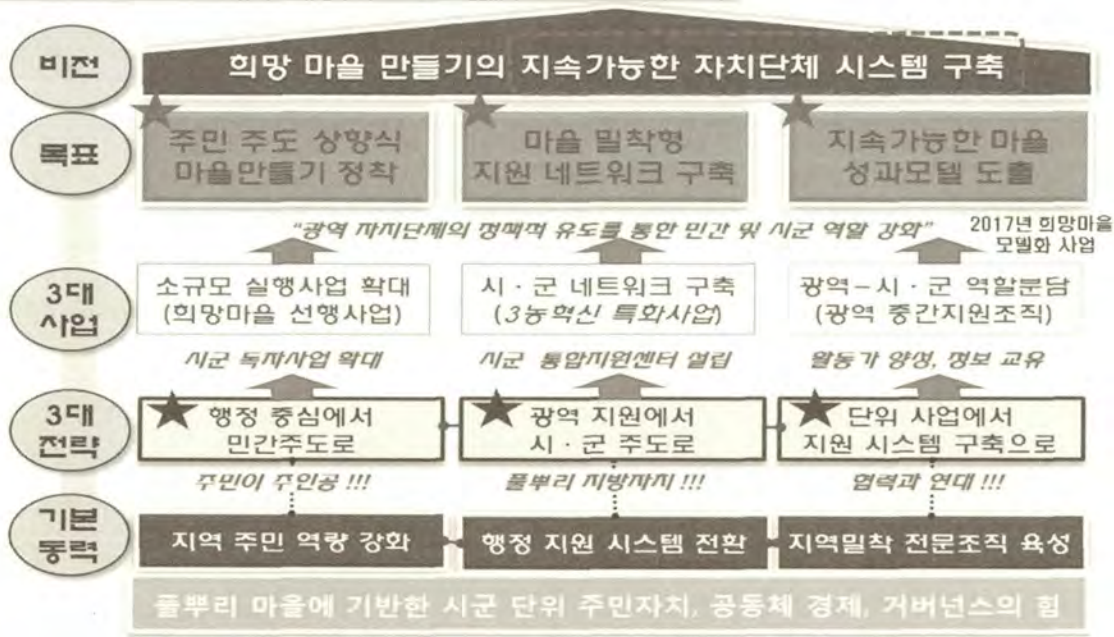


자료 제공 : 홍성군청(2015.08)

26

Ⅲ. 사례2 : 충남도의 마을만들기 →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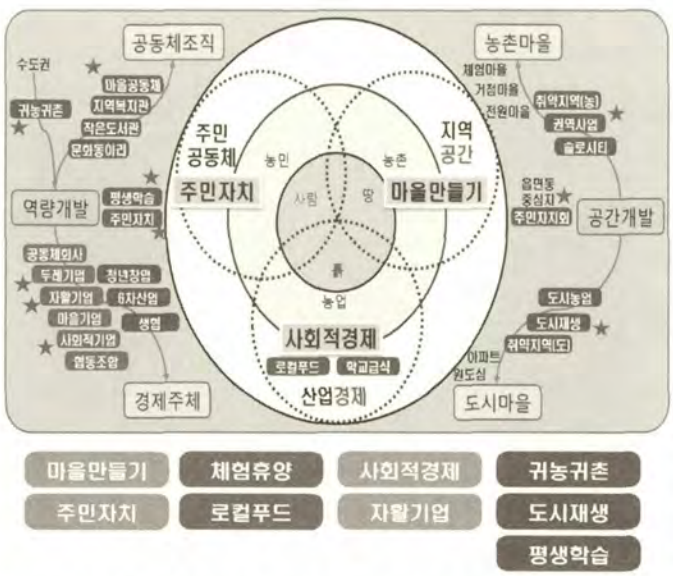
道道市市
道道郡郡



- 민선5기 희망마을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고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2단계 추진체계를 2014년말에 정리하였다. 기본적으로 '행정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광역 지원에서 시·군 주도로', '단위 사업에서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세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행정사업의 집행방식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도입하였다.
- 민선6기의 4년간에 시·군 단위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자치단체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잡고 있다.

Ⅲ-1. 광역 행정의 융복합(협업) 시스템 구축 → '칸막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협업회의

상호연계성과 순환적 관계



행복충남공동체 거버넌스 위원 연락처

구 분	직 위	성 명	손 전 화	이 메 일	비 고
계		19명			
위원장	정무부지사	허 승 욱			
외부위원(9명)	단국대학교 교수	김 호	010-7323-3612	hokim@dankook.ac.kr	
	목원대학교 교수	장 수 찬	010-5433-3531	jangsooc@mokwon.ac.kr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 홍 주	010-7282-3531	jskim@csi.re.kr	
	충남사회적경제협동조합연합회장	김 세 선	010-3403-8176	peoplepure@gmail.com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지원센터장	박 상 우	010-3480-6529	chamingyu@empal.com	
	충남관악자활센터장	노 명 갑	010-9611-0615	gabeeya@hanmail.net	
	충남사회적경제협동조합연합회 실무담당자	김 지 훈	010-3633-7856	tsion69@hanmail.net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구 자 인	010-3119-2888	gujam@hotmail.com	
	지전생태도원 대표	복 관 심	010-9823-2646	dilettante@hanmail.net	
내부위원(9명)	고위법무담당관	안 길 선	010-4074-4000	dlsun@korea.kr	평생학습
	경제정책과장	김 현 철	010-8819-3318	khs3318@korea.kr	사회적기업
	자치행정과장	유 병 훈	010-5438-3363	yubhun@korea.kr	주민자치
	농업정책과장	반 선 영	010-3448-1961	sybangs@korea.kr	협동조합 두레기업
	농산물유통과장	주 목	010-4110-9300	hopecnuuk@korea.kr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촌마을지원과장	남 상 희	010-6284-5418	csh9000@korea.kr	체험마을
	사회복지과장	김 현 욱	010-8803-1266	hy1366@korea.kr	자활기업
	건축도시과장				도시재생
	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장	한 익 수	010-3409-0701	hanis@korea.kr	귀농귀촌
간 사	자치분권팀장	김 윤 호	010-3042-8886	doweond@korea.kr	

- 민선6기에서 마을만들기 영역은 농촌마을지원과(마을가꾸기팀)이 주도하여 독자 사업의 성과모델 도출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사업의 연관성이 아주 높은 사회적경제 영역과 주민자치 영역과 강력한 협업관계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정무부지사 주재로 협업회의를 개최하면서 9개 과장과 민간이 참여하여 상호학습의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협업 역량이 강화되면 2016년 사업부터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Ⅲ-2.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의 체계 정리 : 역량단계별 마을 사업 지원

[참고] 우리 마을에 맞는 사업은? 역량단계별 마을 사업 예시 |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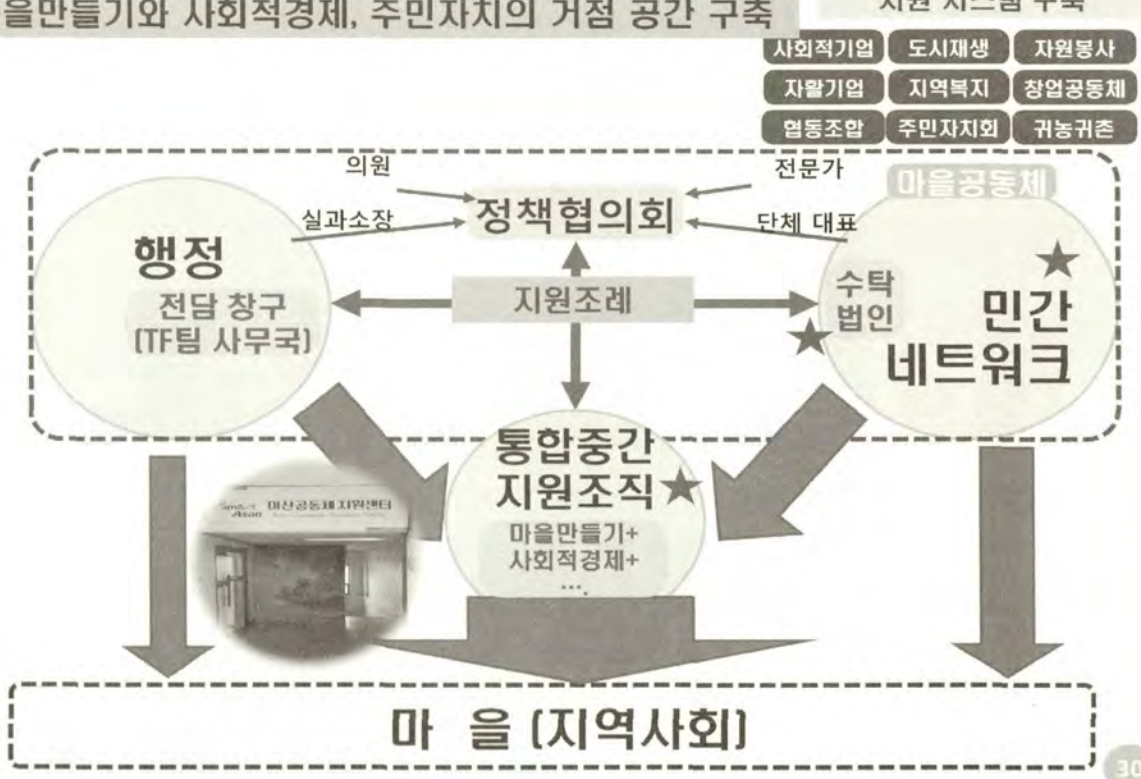
실과별 행정사업 목록 현황

구분		도청 담당부서		사업명	비고
역량단계	사업번호	실국	실과		
1단계	1-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농촌 문화포럼	1
1단계	1-2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세자치주민자치 역량강화	2
1단계	1-3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3
1단계	1-4	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우리마을 주치의제	4
1단계	1-5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정책과	즉.기능모 공동생활체 운영	5
1단계	1-6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고령자 장애인 주 이동편의성 사업	6
1단계	1-7	소방본부	재해대책과	농어촌마을안전사각지대 소방안전실 구축	7
1.5단계	1.5-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꿈꾸기를 선행사업	8
1.5단계	1.5-2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9
1.5단계	1.5-3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10
1.5단계	1.5-4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도청앞마가 공원	11
1.5단계	1.5-5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정책과	행복경로당 조성운영	12
1.5단계	1.5-6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힐링조경 방글로브 사업	13
2단계	2-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청소부 마을보듬이(관광-생활)	14
2단계	2-2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청소부 마을보듬이(도소득 제한)	15
2단계	2-3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청소부 마을보듬이(공동 처리)	16
2단계	2-4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청소부 마을보듬이(나눔마을조성)	17
2단계	2-5	해양수산국	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8
2단계	2-6	경제통상실국	경제정책과	농어촌 행복공동체 만들기 조성	19
2단계	2-7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	20
2단계	2-8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21
2단계	2-9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사업	22
2단계	2-10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농어촌마을 공동이용 보급지원	23
2단계	2-1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24
2단계	2-12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25
2단계	2-13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26
3단계	3-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청소부 마을보듬이(마을종합개발)	27
3단계	3-2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주간사업 조성사업	28
3단계	3-3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청소부 마을보듬이(교육마을개발)	29
3단계	3-4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30
3단계	3-5	해양수산국	수산과	어촌종합개발 사업	31
3단계	3-6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농촌 생활복지 장비사업	32
3단계	3-7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농어촌 휴게시설 생활여건 개선 사업	33
3단계	3-8	농정국	농업정책과	도농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34
3단계	3-9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35
4단계	4-1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농촌융복합 통합마을사업	36

- 마을에 지원하는 행정사업은 다양한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들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주민들의 역량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있다.
- 2015년 7월에는 자료집으로 처음 작성하여 인터넷 밴드 '충남 마을넷'에도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2회 갱신하고, 연말과 연초에는 공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 사업의 '칸막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Ⅲ-3. 시 · 군 단위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 :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주민자치의 거점 공간 구축

시 · 군 현장밀착형 지원 시스템 구축



충남도 광역과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거점 공간 만들기



- 15개 시·군마다 농촌지역개발의 거점 공간(중간지원조직)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5년에 5개소, 2016년에 4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또 2016 년에는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 거점 공간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농촌지역개발의 강력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고, 마을 단위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형성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Ⅳ. 성과와 과제, 향후 방향

1. 성과 :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1)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의 다양한 전개 → 선, 면으로 확대 중
2) 귀향귀농귀촌(U·I턴)인의 증가 → '돌아오는 농촌'의 희망 확인
3) 민간과 행정의 거버넌스 시스템 시도 → 지속적으로 확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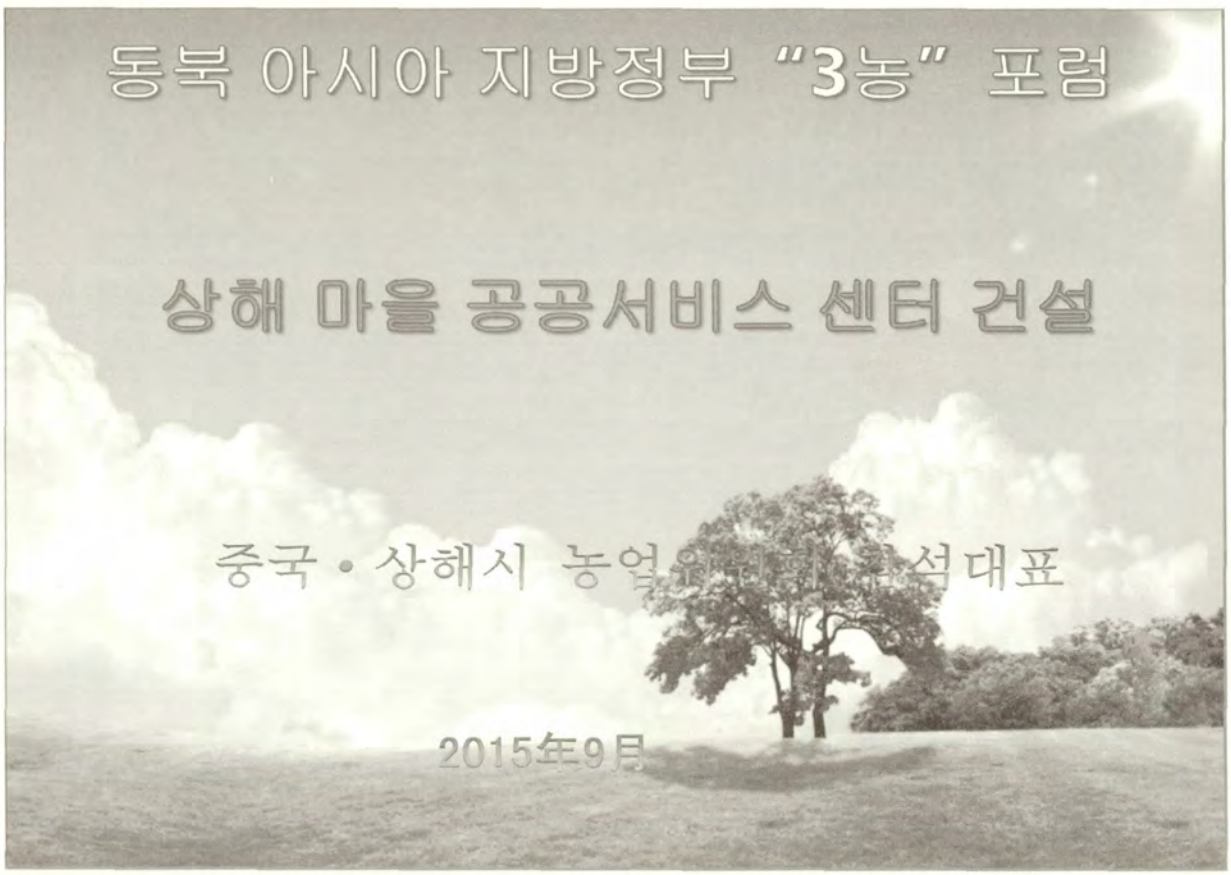
2. 향후 과제 :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길" 지속적으로 추진

1) 현장 밀착 활동가 양성, 거점 공간(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안정화
   → 광역과 기초가 협력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외부 유치
2) 시·군 자치단체 단위로 강력한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
3) 3농(농업, 농촌, 농업)과 주변 영역과의 협업 체계 구축('칸막이' 극복)
   → 농촌정책에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연계

감사합니다 32

농촌촌급 공공서비스센터 건설사례

상하이시 莫云华(모윈화) 처장


동북 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
상해 마을 공공서비스 센터 건설
중국 • 상해시 농업
2015年9月


一、건설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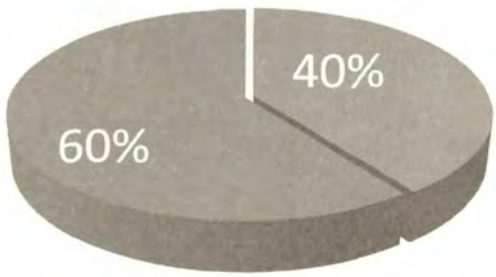
1、마을 구역 범위의 외래인구 신속 증가



외래인구（인）	마을수（개）
6000	200
13000	23
50000	1

상해시1600여개 마을

2、노령화 정도가 심화되어 노인 서비스 수요가 부각 된다.





마을 범위 원거주 농민의 노령화가
상해시 평균 수준보다 10% 넘게 높다.

3、가정의 일상 유지보수 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상해시 농촌 평균 매 농민 가정 보유량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화	온수기	컴퓨터	전자레인지	환풍기	스쿠터
1.9	1	1	1.5	1.9	0.9	0.6	0.8	0.7	0.5





4、인구의 다원화가 서비스의 다양화 수요를 형성한다.





二、건설 목표

2009년에서 2013년 까지 기본적으로 3실, 1 센터, 1 점을 건설한다.

- **3 실**
  - 업무 대행실
  - 표준 보건실
  - 문화 활동실
- **1 센터**
  - 농업 종합 서비스 센터
- **1 점**
  - 편의 직판점











三、주요 내용

1、지역 사회 업무 대행실







2、표준화된 보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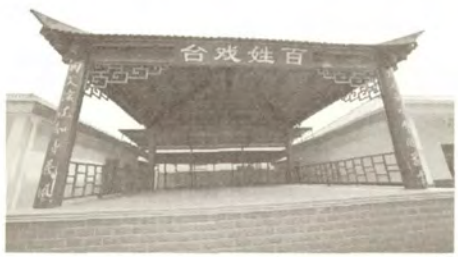








3、종합 문화 활동실









4、농업 종합 서비스 센터











5、편의 직판점











四、추진 과정

1、의식을 명확히 지도하여, “4개 지속 항목”을 달성한다.

첫째, 농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고, 정부주도를 지속한다.

둘째, 첨단화、시장화된 서비스 지역과 구분하여, 기본보호를 지속한다.

셋째, 기능개선에 더욱 중점을 두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시 건설을 지속한다.

넷째, 농업 비중이 비교적 큰 곳에서는 생산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농업 비중이 비교적 작은 곳에서는 생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분류지도를 지속한다.

2、조사 연구를 선행하고, 시험 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3、현재 있는 자원을 통합하고, 업무 직책을 명확히 한다。









2、서비스 기능은 현대 농촌주민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킨다.

첫째

- 향과 진의 서비스 노선이 마을 단위로 연장 되었다





둘째

- 마을 단위로 각종 공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五、단계적 효과



1、마을 단위 기본 공공 서비스시설을 전면적으로 탈바꿈하다.

현재**1603**개 마을에서 이미 종합 문화 활동실、업무대행실、표준 보건실、농민편의점 등을 기본적으로 건설 하였다。










4、지방 사회 서비스 조직은 현재 조용히 시작되었다.





3、서비스 내용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원교외 농업지구는 노년 주민 서비스를 위주로 한다.







근교 혹은 도시화 지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양식이 형성된다.





4、지방 사회 서비스 조직은 현재 조용히 시작되었다.








고맙습니다.
Thank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산촌의 활성화 사례

군마현 타테노 에이이치 님(농업인/전 현의원)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산촌의 활성화 사례

군마현 가와바무라의 추진 활동



군마현

인구 1,970,985명
면적 6,363㎢



- 도쿄에서 북서로 100km
- 아름다운 자연(2,000 m급의 산들, 오제습원 등)
- 국내 유수의 온천(구사쓰, 이카호, 미나카미 등)
- 세계 유산 '도미오카제사장과 비단 산업 유산군'







군마현의 농업

군마현은 경지가 표고 10~1,400m 사이에 분포하며 풍부한 수자원과 긴 일조 시간 등 천혜의 조건을 활용한 다채롭고 다양한 농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농업 산출액은 2,303억 엔(2013년)으로, 채소와 축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채소

쓰마고이 고원 양배추(나쓰아키 양배추 생산량 국내 1위)
오이, 시금치, 양상추, 레터스, 배추, 청경채 등

■ 축산

돼지, 생우유, 계란, 소






가와바무라의 개요

가와바무라는 군마현 북부에 위치한 자연이 풍부한 농산촌입니다.

농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전원 이상향'을 목표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구 3,658명
- 면적 85.29 ㎢(그 중 88%가 산림)
- 연평균 기온 11.0℃
  (산악부의 적설은 많을 때 2~3m)



<주요 농산물>

쌀, 곤약, 생우유, 사과,
블루베리, 포도 등




특히 브랜드미 '유키호타카'는 유명

가와바무라의 '도시와 농촌의 교류 사업' ①

- '농업 + 관광'을 추진하는 가와바무라, '제2의 고향'을 찾는 도쿄도 세타가야구 양 지자체의 구상이 일치
- 1981년 11월, '구민 건강 마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결연 협정)을 체결
- 주민 간 마음의 교류를 도모하면서 오래도록 서로 돕는 지자체의 결연을 기조로 교류를 개시

<사례>렌타애플

- 구민이 1년 동안 마을 사과 나무의 주인이 되어 농가의 지도로 적화 작업(봄)과 수확 작업(가을) 체험을 즐긴다.
- 농가 민박도 가능하므로, 친밀한 교류가 가능하여 친척 간 교류로 발전하기도 함.
- 렌타애플은 나중에 구민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에게도 확대되어 현재 시장에 출하되는 가와바무라의 사과는 별로 없다.



가와바무라의 '도시와 농촌의 교류 사업 ' ②

- 구와 마을의 초등학교가 자매 결연을 맺고 단기 홈스테이, 산촌 유학, 스키 교실, 농업 체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실시
- 1992년에는 '우호의 숲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 구민에 의한 삼림 정비 활동도 활발
- 150km 떨어진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35년째를 맞이한다


건강 마을(숙박 시설) 내의 빌리지







미치노에키 가와바 전원 플라자

「미치노에키」 휴식과 만남의 거점



- 안전하고 쾌적한 드라이브 환경의 제공
- 이용자와 지역을 연결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

✓24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 화장실 등의 '휴게 기능'
✓도로 정보, 관광 정보, 긴급 의료 정보 등의 '정보 제공 기능'
✓문화 교양 시설, 관광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지역 진흥에 의한 교류 촉진을 꾀하는 '지역 제휴 기능'
✓지역의 방재 거점이 되는 '방재 기능'







가와바 전원 플라자의 개요 ①



1992년 개업
1996년 '미치노에키' 지정
1998년 그랜드 오픈
2004년 ~2008년
'간토 인기 미치노에키 5년 연속 1위'
2015년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 선정

①파머즈 마켓
②목공예 체험
③도예 체험
④물산 센터
⑤방문객 센터·마을의 꽃 공방
⑥음식점
⑦메밀국수집
⑧맥주 공방·빵 공방·레스토랑
⑨미트 공방
⑩밀크 공방
⑪피자 공방

가와바 전원 플라자의 개요 ②

정비 사업비(1992~1997년)

총사업비	3,141백만 엔
정부보조금	710백만 엔
현보조금	235백만 엔
지방채	2,009백만 엔
촌재원	187백만 엔

정부보조금, 현보조금 : 청년 정착 촉진 긴급 프로젝트, 산간 지역 농촌 활성화 종합 정비 사업, 농업 구조 개선 사업 등

지방채 : 과소채, 지방채 등

- 파머즈 마켓(317㎡)
- 밀크 공방(274㎡)
- 맥주 공방·레스토랑·빵 공방(853㎡)
- 메밀국수집 '고쿠조'(177㎡)
- 플라자 센터(602㎡)
  휴게 홀, 연수실, 가공·체험 교실, 키친 공방, 사무소
- 생활 쓰레기 퇴비 시설, 주차장, 제품 창고
- 만남의 다리(전원 플라자~SL연락교)
- 부지 면적 5 ha(매수·임대)

가와바 전원 플라자에서 판매하는 주요 특산품



마시는 요구르트



햄·소시지



무첨가 사과 주스 외



지역 맥주



지역 술



식빵
(쌀가루와 참마)



수타 메밀국수
(산지 메밀 사용)



크레이프
(산지 과일)



유키호타카 주먹밥
(일반 제품의 2배 가격)



사과 파이



산적구이

가와바 전원 플라자의 성과

1. 고용 창출(주민 80명의 취업의 장을 확보)
2. 마을 홍보와 지방 특산품의 소비 확대
3. 새로운 특산품의 개발과 판매 촉진
4. 경작 포기지의 발생 방지(마을 내 농가의 93%가 출하 등록)
5. 내방객(2013년 114만 명)과 주민의 교류

연간 판매 금액
12억 엔(2013년도)

'농업 + 관광'의 실현 →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농산촌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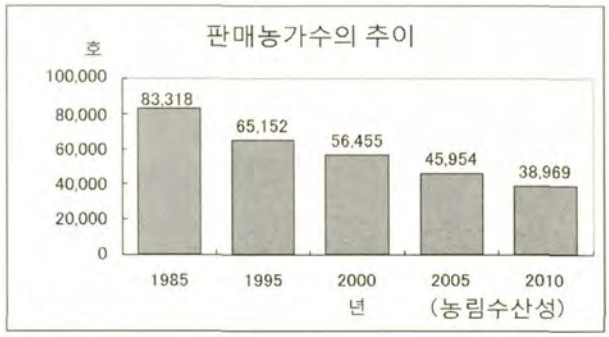
음식의 도시, 차의 도시, 꽃의 도시를 이끌어 갈 영농지도자의 육성

시즈오카현 기획홍보부 시라이 미츠루 부장



시즈오카현의 농업 현황

- ○판매농가수 25년 새 50% 이하로 감소
- ○경지면적 30% 감소
- ○농산물 매출액 40% 감소







고품질의 다양한 농산물 생산

○식재료는 339개 품목, 화훼는 704개 품목으로 전국 최다!

○맛깔스런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먹거리의 고장, 녹차의 고장, 화훼의 고장을 대표하는 농산물

향후 시즈오카현의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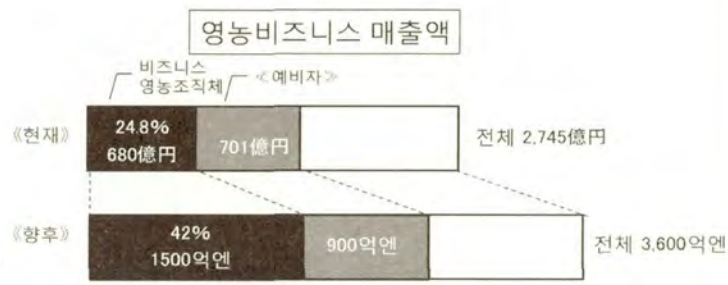
영농조직체수 2%의 비즈니스 영농조직체가 42%의 매출액을 창출

○비즈니스 영농조직체의 매출액은 평균 1.9억엔

○비즈니스 영농조직체의 평균 종업원수는 13명







비즈니스 영농조직체의 지원사업



농지 알선



신기술 개발

노무상담

경영강좌



자금 대출

경영상담

법인화 지원



농지 집적

비즈니스 경영조직체

육성지원

마케팅지원



판로개척(상담회 개최)



상품개발(6차 산업화)



비즈니스 스쿨

도약하는 비즈니스 영농조직체

6차 산업화

상품개발 및 농장카페로
부가가치화
~딸기농가에서 잼과
파르페를 개발하여 제공~



녹차 수출

녹차 수출로 판매 확대
~녹차농가의 미,유럽 및
아시아지역 수출확대~



도약하는 비즈니스 경영조직체 ②

대규모 노지를 활용한 야채재배

햄버거체인 및 시즌계약거래
~야채농가가 전략적
마케팅으로 판로 개척~





차세대형 원예단지

고당도의 토마토생산
~ICT 및 신 에너지를
이용한 차세대 원예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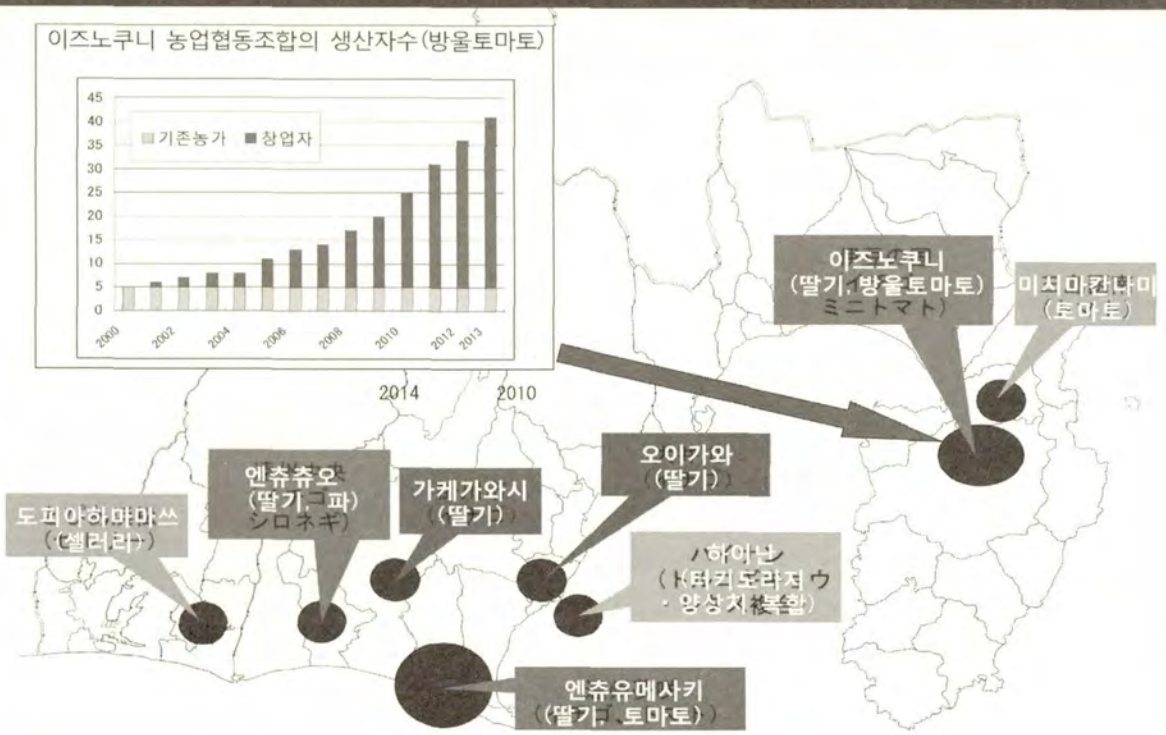
새로운 영농지도자의 확보

○증가추세에 있는 신규 농업종사자

○영농후계자, 창업, 법인취직, 타 산업에서의 참여



신규 농업종사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산지 확대



활기 넘치는 신규 창업자

창업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토마토 산지





딸기 재배로 창업한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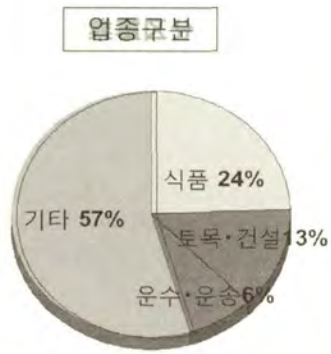


기업의 영농 참여

○농지법 개정으로 식품, 토목 분야에서의 신규 참여 가속

○참여 건수 국내 최다





지역에 뿌리내리는 참여기업

반찬사업에서 참여
경작 포기 밭 해결



조경업자가 고구마를 브랜드화하여 가공품으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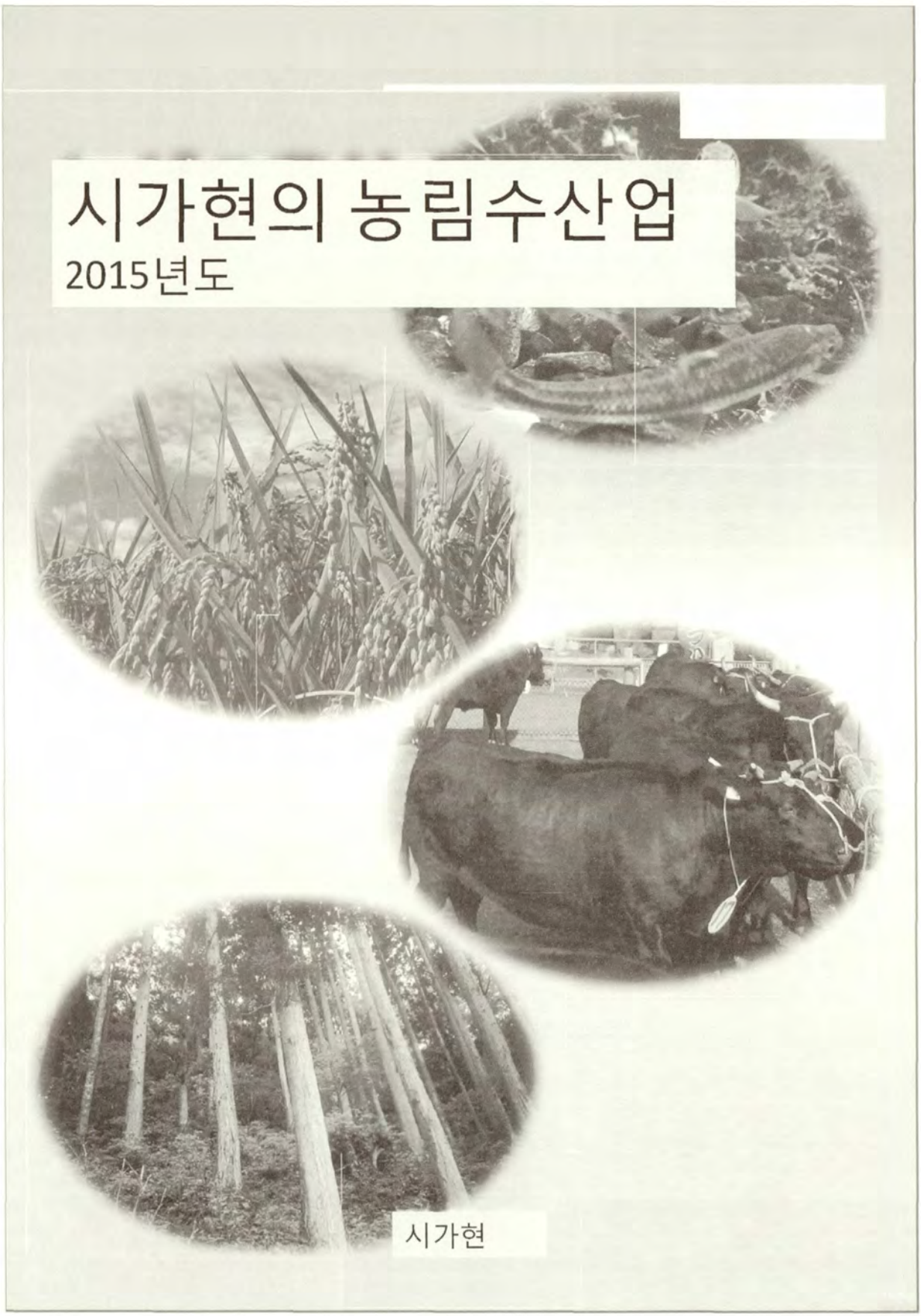


인재파견회사가 참여
산지판매로 6차산업화



시가현의 농림수산업

시가현 미나 미시로 님(전 시가현 농정수산부 국장)


시가현의 농림수산업
2015년도
시가현

시가현의 개요

시가현은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비와코 호수를 비롯한 천혜의 자연이 풍부합니다.

시가현의 중앙에는 현 토지 총면적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코가 있습니다. 주위에는 이부키, 스즈카, 히예, 히라 등의 신들이 있고 크고 작은 약60개의 하천이 비와코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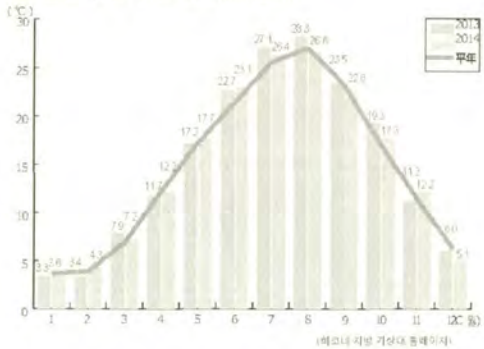


■ 현의 토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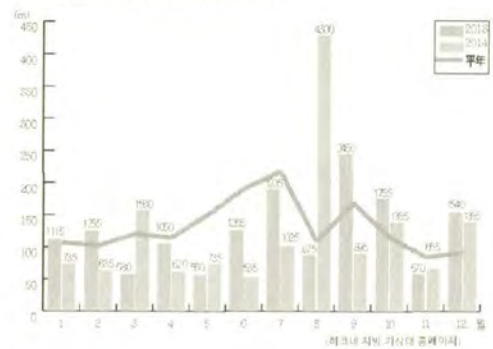


(※国土交通省「国土数値情報」)
(시가현 비와코 환경부 「시가현 삼림·임업 통계 요람」)

■ 월별 평균 기온 추이(히코네)



■ 월별 강수량 추이(히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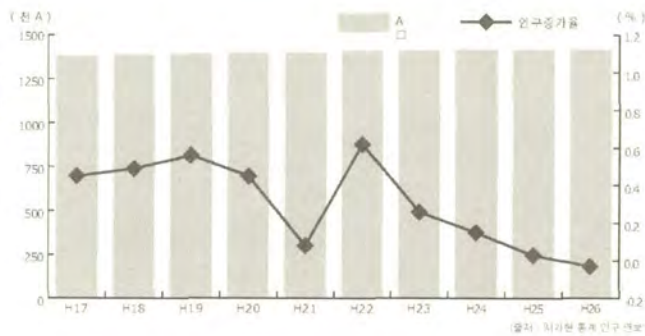


기온은 평야부가 높고 산간부가 낮으며, 연간 평균 강수량은 1,571mm정도(히코네 지방 기상대 평년치)입니다. 북부는 동절기의 강설량이 많아 일본해형 기후입니다.

■ 시가현의 인구와 인구증가율

2014년 10월 1일 현재 현의 추계 인구는 1,416,500명으로, 48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그레프는 매년 10월 1일 현재의 인구와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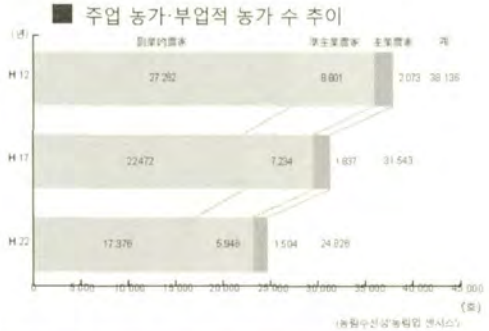
(출처 : 시가현 통계 인구 연보)

농 업

풍부한 자연의 혜택으로 오우미 쌀을 비롯해 다채로운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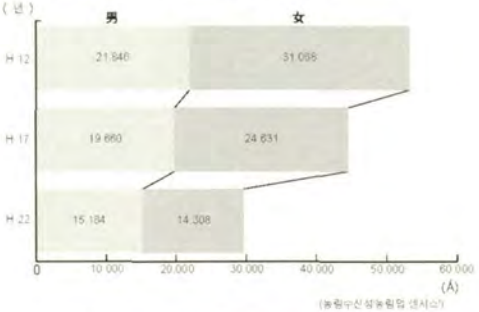
농가 수·농업 취업 인구

■ 주업 농가·부업적 농가 수 추이



(농림수산성농림업 센서스)

■ 농업 취업 인구(판매 농가)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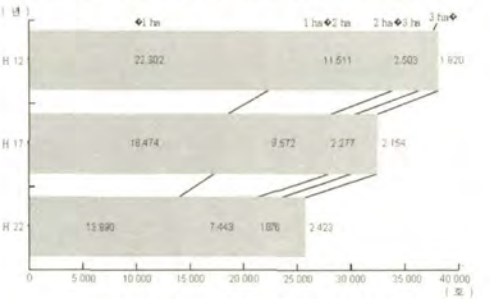


(농림수산성농림업 센서스)

주업 농가 농업 소득이 중심. 조사 기일 전 1년간 자영 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 세대원이 있는 농가.
준주업 농가 농 외 소득이 중심. 조사 기일 전 1년간 자영 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 세대원이 있는 농가.
부업적 농가 조사 기일 전 1년간 자영 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 세대원이 없는 농가.

농업 취업 인구 자영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원 중 조사 기일 전 1년간 자영 농업에만 종사한 자 또는 농업과 기타 일 양쪽 모두에 종사한 사람 중 자영 농업이 중심인 자.

■ 경영 경지 면적 규모별 경영체(판매 농가) 수 추이



주) 2012, 1997는 경영체 수, 2002는 판매 농가 수입니다. (농림 수산성 「농림업 센서스(census)」)

경지 면적

■ 경지 면적 추이



(농림수산성「경지면적조사」)

주) 윤수 처리에 의해 합계치와 내역 합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농업 산출액

■ 2013년 농업 산출액의 품목별 구성



(농림 수산성「생산 농업 소득 통계」 제1보(2014년 12월 16일 공표)를 토대로 작성)

■ 농업 산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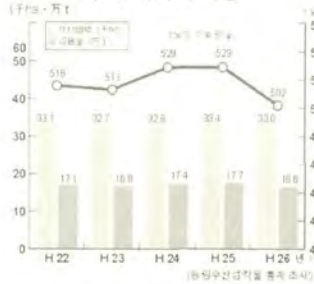


(농림 수산성「생산 농업 소득 통계」 제1보(2014년 12월 16일 공표)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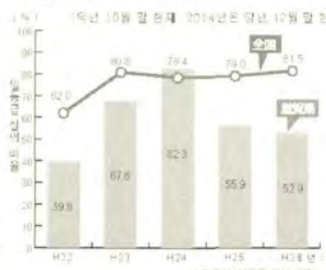
쌀

지형이나 기후가 벼농사에 적절하여 쌀은 시가현 농산물의 대표입니다.
'고시히카리'나 '기누히카리' 외에 신품종인 '미즈카가미'나 '아키노우타', '시가히네니주모치' 등 현의 육성 품종이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줄이는 등 비와코의 환경을 배려하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 논 작부 면적과 수확량



■ 검사 성적(논 현미)



■ 논 주요 품종의 작부 면적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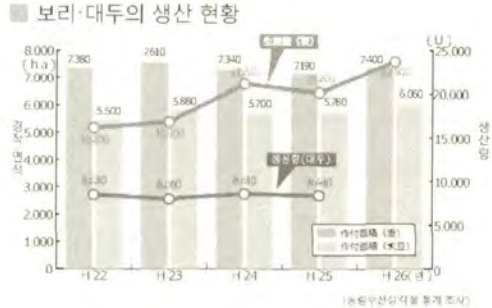


보리 · 대두

보리는 논 벼를 잇는 중심 작물로, 고품질, 안정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두는 국산의 수요가 높아 시가현에서는 대부분 보리를 거둔 후 밭에서 경작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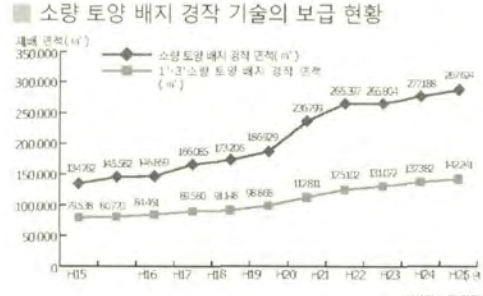
■ 보리·대두의 생산 현황



채 소

밭에서는 양배추, 배추, 순무 등이 재배되며 비닐 하우스 등의 시설에서는 시금치나 딸기, 토마토, 멜론 등이 재배되어 과채류에서는 '소량 토양 배지 경작'에 의한 재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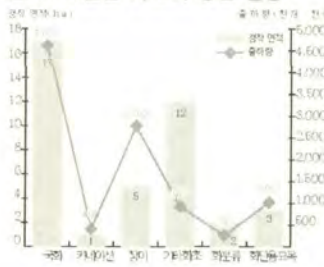
■ 소량 토양 배지 경작 기술의 보급 현황



화초

장미, 국화, 극락조화, 서양란 등의 시설 재배나 밭의 소국 등이 재배되며, 최근에는 소국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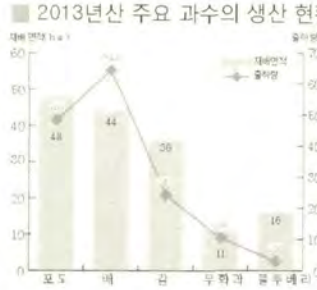
■ 2013년산 화초의 생산 현황



과수

배나 포도 등이 재배되고 있고 근래에는 무화과나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지 직매나 관광 과수원 등 지역의 입지 조건을 살린 특색 있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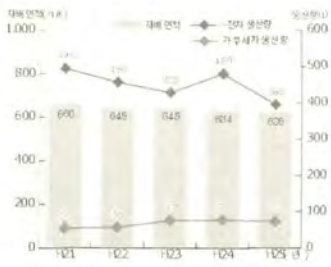
■ 2013년산 주요 과수의 생산 현황



차

고가시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전차, 가부세차는 고품질의 차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부세차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차의 생산 현황



축산업

오우미 소의 생산을 비롯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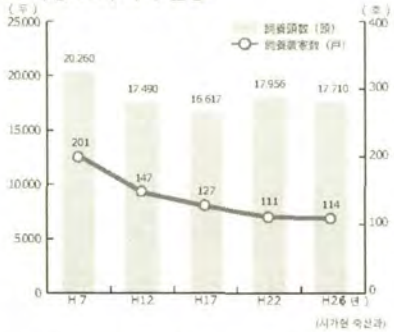
육용 소

비육 경영을 중심으로, 헤마다 대규모화가 진행되어 한 가구당 사육 인원 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본 현의 특산품인 '오우미 소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수자원 덕분에 시가현에서 가장 오래 사육된 흑모 일본종 ' 으로 지정해져 있고, 안전·안심, 고품질인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육용 소의 사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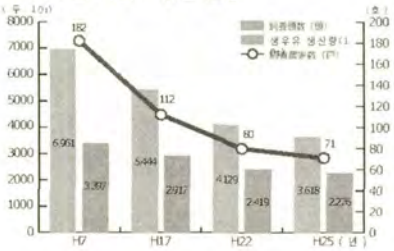
(시가현 축산과)

젖소

대소비지인 게힌신의 도시 근교형 생우유 생산 지역으로서 신선하고 양질인 생우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 젖소의 사육 · 생산 현황



(시가현 축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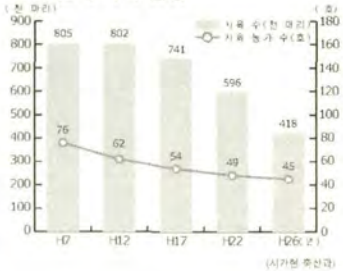
양 계

생산된 계란·닭고기는 주로 현 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본 현의 특산 닭인 '오우미샤모'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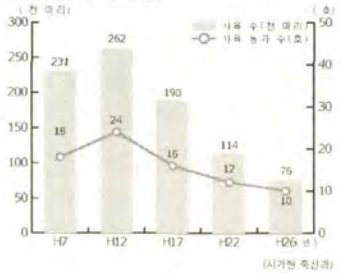


■ 채란계 사육 현황



(시가현 축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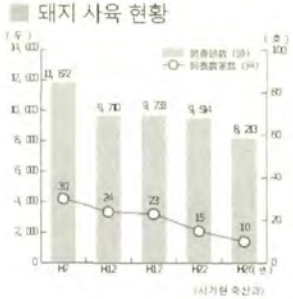
■ 육계 사육 현황



(시가현 축산과)

양 돈

■ 돼지 사육 현황



(시가현 축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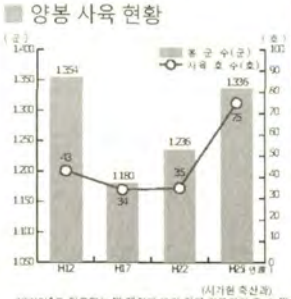


동 오우미 지역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균질인 돈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번식에서 사육까지 실시하는 일관 경영이 대부분입니다.

양 봉

■ 양봉 사육 현황



(시가현 축산과)

※2012년도 이후에는 법 개정에 따라 취여 감봉가의 호 수 및 근



서양 꿀벌을 중심으로, 벌꿀 생산 외에 원예 작물의 꽃가루받이 교배용으로 현 내 전역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수산업

시가현의 어업은 비와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고유 어패류의 어획과 독특한 어법으로 유명합니다.

비와코 어업의 특징

놀라운 크기와 400 만년 전에 탄생했다는 비와코의 오랜 역사는 다양한 생물을 키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독특한 기법을 이용하는 비와코 어업이 발전하여 현대에 계승해져 왔습니다. 사시사철 이루어지는 어업은 계절의 풍물입니다.



소형 정치망(에리)
화살표 모양으로 그물을 치고 유영하는 물고기를 단지라 불리는 부분으로 유도해서 잡는 어법입니다.



은어 신대잡이
비와코 호면에서 미키라 불리는 은어 무리를 신대로 잡아 올리는 어법입니다.



통발잡이
배를 닻으로 고정하고 그물을 끌어 들여 물고기를 잡는 저인망의 일종입니다.



속대잡이
까미귀 날개를 붙인 장대로 기슭 부근에 있는 은어 무리를 그물 안으로 몰아넣어 잡는 어법입니다.

어업 생산 추이

비와코에는 15종 고유 어류와 29종의 고유 조개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비와코 어업은 이들 고유종의 어획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외래어나 민물가마우지의 이상 번식이나 환경 변화 등의 원인으로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어획량・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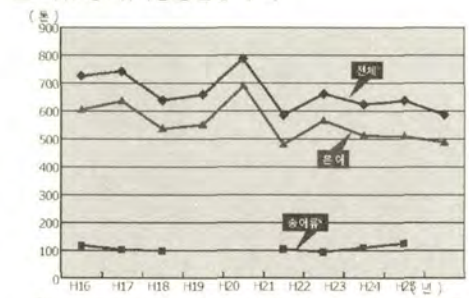
(간키 농정국 「시가 농림 수산 통계 연보」, 농림 수산성 「내수면 어업 생산 통계조사」를 토대로 작성. 외래어 포함)

■ 2013 어패류별 어획 현황(비와코 어업)



(농림수산성 「내수면 어업 생산 통계 조사」를 토대로 작성, 외래어 포함)

■ 어류 양식(식용생산량 추이



(2007, 2008, 2013년은 송어류의 조사 갈고가 없어 수치가 불명이므로 그래프에 없습니다. 농림 수산성 「내수면 어업 생산 통계 조사」를 토대로 작성.)

삼림·임업

삼림 자원의 순환 이용과 함께 비와코와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한 삼림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림 형태

삼림은 목재 등의 임산물 공급뿐 아니라 수원 함양, 국토 보전, 자연 환경의 보전,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다면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면서 건전하고 다양한 삼림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림에서 바라보는 비와코

■ 삼림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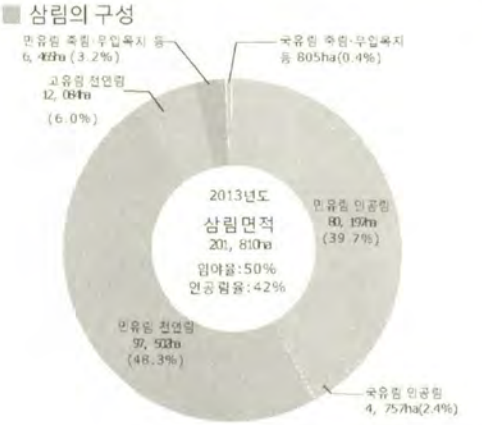
(제9,7회 자연 환경 보전 기초 조사 데이터, 시가현 삼림 GIS 데이터(2014년)를 토대로 작성)

■ 수종별 소재 생산량



(농림수산성 '목재 수급 보고서')

■ 삼림의 구성



(시가현 비와코 환경부 '시가현 삼림·임업 통계 요람')

■ 삼림의 수종별 면적(민유림 2013년도)



(시가현 비와코 환경부 '시가현 삼림·임업 통계 요람')

시책1 농업의 안정 경영을 지원합니다.

인정 농업인과 취락 영농 조직 등의 농업 일꾼이 본 현 농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목표로서, 그 확보·육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담당자와 지역이 협조하여 농업 일꾼에 대한 농지 집적을 진행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된 경영의 확립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가 제휴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농업 일꾼의 확보·육성 및 경영 체질 강화

● '사람'과 '지역'이 만들어내는 시가의 농업·농촌 활력 창조 프로젝트

지역 농업 전략 지침*을 활용, 취락이 지역 실정에 대응하여 향후의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 관계자가 함께 대책을 전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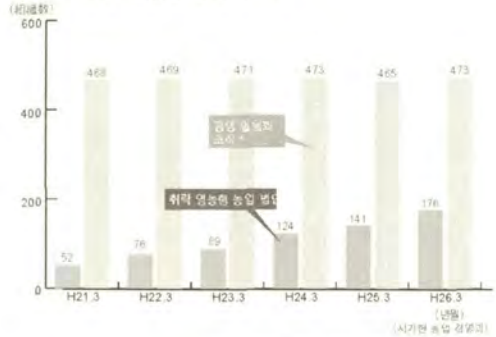
※지역 농업 전략 지침…취락 스스로가 향후 지역의 농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의 바탕이 되는 것

● 시가의 농업 일꾼 체질 강화 종합 지원 사업

농업 일꾼(인정 농업인이나 취락 영농 조직 등)의 확보·육성과 그 법인화, 경영의 다각화·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이 조직하는 협의회나 농업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취락 별로 농업의 올바른 형태를 정한 인재·농지 플랜의 작성과 그 중심 경영체의 농업기계 등의 도입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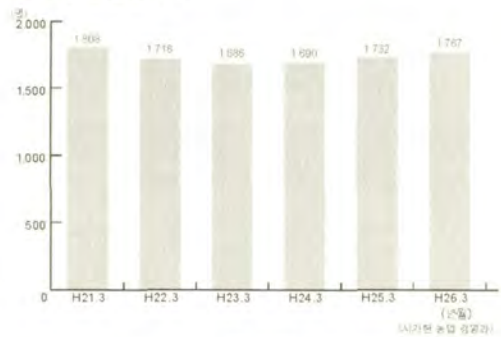
[사람·농지 플랜 책정 취락 수 784 취락(2014년 12월 시점)]

■ 취락 영농형 농업 법인 추이



※해당 조직으로부터 법인화하는 사례가 없다.

■ 인정 농업인 추이



※취락 영농형 법인의 인정 농업인은 제외.

신규 취농자의 확보

● 오감으로 느끼는 시가의 농업 체험 사업

젊은 세대에게 전문 농가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직업 선택 시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 청년 농업인 등 육성 확보 추진 사업

취농 희망자에 대한 취농 상담이나 취농 준비 강좌 등을 실시하는 청년 농업인 등 육성 센터(시가현 농림 어업 일꾼 육성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 취농자의 원활한 취농을 위해 농업 기술의 습득이나 경영 능력의 향상을 지원합니다.


농업 체험

● 신규 취농자 확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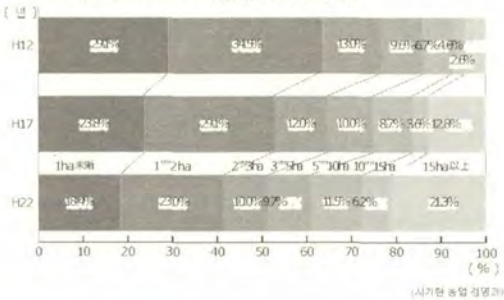
청년의 취농 의욕 환기와 취농 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취농 전의 연수 기간 및 경영이 불안정한 취농 직후에 급부금을 지급하여 신규 취농자의 확보를 진행합니다.

농지의 이용 집적

● 농지 유동화 촉진 대책 사업

담당자의 규모 확대와 면적 집적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의 중간 수용 조직인 '농지 중간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 집적에 협력하는 농업인이나 취락 등에 조성을 실시합니다.

■ 규모별 면적 집적 비율(농업 경영체)



(시기원 농업 경영과)

6차 산업화의 추진과 여성의 활약

● 6차 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사업

농림 어업자나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수회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 6차 산업화에의 새로운 대책을 촉진합니다.

또한 농림 어업자를 대상으로 상담 창구를 설치, 6차 산업화 플래너*의 파견을 통한 개별 상담 등의 지원 활동을 합니다.

*6차 산업화 플래너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농림 어업자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입니다.



6차 산업화 상품 예
(자가 생산 채소를 사용한 드레싱, 푸딩)

● 여성을 위한 아그리 비즈니스·서포트 사업

농업이나 먹거리에 흥미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아그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강좌 등을 개최, 여성의 감성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 등 지역 자원의 매력을 끌어내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여성의 창출을 도모합니다.



상품 시작 검토회

보급 사업의 추진

● 농업 개량 보급 사업

농업 기술 직원(보급 지도원·농업 혁신 지원 전문원)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신규 취농자의 확보·육성이나 농업 일꾼의 효율적·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대학교에서는 본 현 농업을 담당하는 차세대 인재의 양성 및 취농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 직원에 의한 기술 지원

시책2 농업 수리 시설의 보전과 농촌 진흥을 도모합니다.

시가의 농업과 농촌의 기반을 지지하는 농업 수리 시설이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비와코 등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차세대에게 계승되도록 다양한 주체의 협동과 제휴를 통해 효율적·계획적인 보전 갱신을 진행합니다.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농업·농촌의 안전 안심을 확보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농업 수리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농촌의 지역 자원이 지역 주민과 도시 주민의 이해와 참가 하에 유지되도록 시가다운 농촌 지역력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농업 수리 시설의 자산 매니지먼트와 방재·감재 대책의 추진

농업용 용배수로는 기간부터 말단까지 13,000㎞에 이르며 그 대부분이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업 생산에 불가결한 사회자본인 농업 수리 시설을 자산으로서 파악하여 보전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현에서는 관계자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유지 관리 아래 효율적·계획적인 보전·갱신을 실시하는 '시가현 농업 수리 시설 자산 매니지먼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선적인 수로 연장과 표준적인 내용 연수가 도래하는 연장의 추이(현 전역)
(시가현 경제과)



양수기의 기능 진단·평가

● 효율적·계획적인 보전 갱신 대책의 추진

기간부터 말단에 이르는 시설 정보와 진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 일원 관리합니다.

관계자가 일체가 되어 현 전체 및 지역 단위의 협의회나 검토회에서 논의를 거듭하여 비와코 등의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절수형·순환형 대책과 생물 다양성 등을 배려한 보전·갱신 대책을 계획적으로 실시합니다.



절수를 고려한 수관리 시스템의 도입

● 지역 전체의 유지 관리 체제의 정비·강화

농업 수리 시설이 보유한 방화 용수나 경관 형성 등의 다면적인 기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NPO 등 다양한 주체와 제휴하여 토지 개량구 등의 관리 체제 정비·강화를 도모합니다.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재·감재 대책의 추진

기간적인 농업 수리 시설이나 저수지, 농도다리 등의 내진 대책, 집중호우 등에 의한 농촌 지역의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실시합니다.



저수지의 둑을 개수하여 내진성을 확보

시가다운 농촌 지역력의 향상

● 세대를 잇는 농촌 전체의 보전 사업(다면적 기능 지급 교부금)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지지하는 지역 활동이나 농지·농업용수 등의 자원과 풍부한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1)농지 유지 지급

농업인 조직 또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추진하는 수로의 개선과 농도 노면에의 자갈 보충 등 지역 자원의 기초 보전 활동과 농촌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관리 체제의 확충·강화 등 다면적 기능을 지탱하는 공동 활동을 지원합니다.



수로의 진흙 퍼내기

(2)자원 향상 지급

농업인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추진하는 수로, 농도 등의 경미한 보수, 재배에 의한 경관 형성 등 농촌 환경의 양호한 보전과 같은 공동 활동 및 시설의 장기 수명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모두 함께 꽃 심기

● 중산간 지역 등 직접 지급 교부금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해 취락 협정 등에 의거하여 경작 포기지의 발생을 방지, 기계·농 작업의 공동화 등을 통해 농업 생산 활동을 5년 이상 계속하는 농업인에 대해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 유지를 도모합니다.

● 농촌 지역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 정비 사업

소수력과 태양광 등 농촌 지역의 친밀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 시설 도입을 진행, 농업 수리 시설의 유지 관리비 경감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도시 농촌 교류 대책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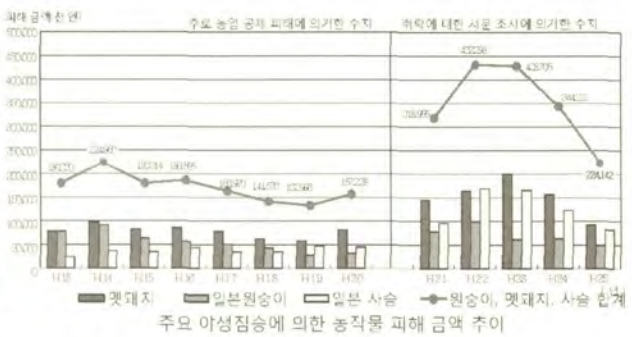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여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활동의 정보 발신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향상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수해 대책 추진 프로젝트 사업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정확한 대책을 실천·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취락민 전원에 의한 정확한 대책 추진을 진행합니다.



취락 환경 점검 활동



주요 야생짐승에 의한 농작물 피해 금액 추이

시책3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활동을 추진합니다.

현신 농축수산물이 자발적으로 소비되고 본 현의 풍부한 지역 자원과 식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생신 지역 소비의 식육을 추진합니다. 또한 안전·안심, 고품질의 오우미 쌀, 오우미 소, 오우미 치, 생선, 오우미의 채소 등이 지역 브랜드로서 뿌리 내리도록 효과적인 PR를 도모하면서 농축수산물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지역 생산 지역 소비 등 소비를 확대 대책의 촉진

● 더 많이 먹자 '오우미 쌀'! 현민 운동 추진 사업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폭넓게 제휴하여 오우미 쌀의 소비 확대를 위한 현민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중식이나 외식에서의 오우미 쌀의 이용 촉진 등을 추진하여 소비 감소를 막고 오우미 쌀의 핵심 팬 확보를 도모합니다.

自然がおいしい、心がうれしい。
おいしが うれしが
やっぱり地のもんがええなあ

'맛있는 시가 기쁜 시가' 캠페인 로고 마크

● '맛있는 시가 기쁜 시가' 캠페인의 추진

현지 식재를 먹고 '맛있다!'고 하면 제공한 가게와 생산자도 '기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식재의 '발견'과 '감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 생산 지역 소비를 진행합니다.

식품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캠페인 추진점은 해마다 증가, 현신 식재를 적극적으로 PR·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시가 기쁜 시가' 캠페인의 추진

● 시가 농축수산물 마케팅 전략의 추진

현신 농축수신물에 대한 '시가'의 지역 브랜드 파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종합적인 PR과 시가현만이 가능한 농축수신물의 육성을 도모합니다.

● 농업·수산업을 통한 아이들에 대한 식육의 추진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채소의 생신 현장에서 식육이나 농업·수산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재의 활용 등을 통해 아이들의 풍부한 인간성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육성합니다.



식육 풍경

현산 농축수산물에 의한 시가 지역 브랜드 파워의 향상

● '시가의 식재' 대도시에서 매력 알리기 사업

시가를 대표하는 식재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이나 게한신에서 오우미 쌀, 오우미 소, 오우미 차, 비와코 생선, 오우미 채소 등 시가를 대표하는 식재를 홍보합니다. 또한 도쿄, 오사카에서의 전시 상담회를 통해 시가 식재의 매력을 알립니다.


오우미 쌀


오우미 소


오우미 차


비와코 생선


오우미 채소

● 오우미의 채소 '채소 절임'으로 매력 알리기 사업

전통 채소나 지역 특신 채소를 중심으로 오우미 채소의 진흥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이들 채소의 역사와 식생활 문화 등의 스토리를 짙게 빈영하는 채소 절임을 통해 식재나 식생활 문화의 매력을 알립니다.



오우미의 채소를 사용한 채소 절임

● 오우미 쌀의 소비 유통 대책

'아키노우타' 등 현 육성 품종을 중심으로 오우미 쌀 브랜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점과의 협동,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합니다.

온난화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맛있는 신품종 '미즈카가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윈활힌 유통 판매를 진행합니다.



'미즈카가미' 패키지 디자인

● 현산 농축수산물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시가현산 농축수산물의 수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수출 전략을 구축, 향후의 지원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 맛있는 '먹거리'의 정보 발신 종합 사업

현신 식재의 정보를 포털 사이드 '시가의 맛있는 컬렉션'※으로 현 내외에 널리 알립니다.

(※URL http://shigaquo.jp)



'시가의 맛있는 컬렉션' 로고 마크

먹거리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

● 농업 생산 공정 관리(GAP) 수법 보급 촉진 사업

농신물의 안전성·품질 향상, 비와코 등의 환경 보전, 노동 안전의 확보 등을 목표로 GAP의 보급 계발과 지도자 육성 등을 실시하여 GAP 추진 신지의 확대·정착을 도모합니다.

시책4 수요에 대응한 농축산물 생산을 진행합니다.

고품질의 안전 안심, 맛있는 오우미 쌀과 수요자 니즈에 대응하는 보리·대두의 생산 진흥을 도모하는 동시에, 논의 유효 활용을 통한 신규 수요 쌀의 생산 확대, 경축 제휴를 통한 식료 자급률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한 논을 활용한 원예 품목이나 특색 있는 품목의 생산 확대를 추진합니다.

나아가 축산업에서는 번식·비육 일관 경영의 이행 등 다양한 경영 대책을 추진하여 오우미 소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합니다.

논의 유효 활용

● 경영 소득 안정 대책 추진 사업

수요 동향에 맞는 주식용 쌀의 계획 생산을 진행하는 동시에, 생산 조정 논에서는 보리, 대두, 사료 작물 등 주식용 쌀 외의 작물을 경작하여 논의 이용률 향상과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보리나 대두의 경작이 적합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사료용 쌀, 벼 WCS(벼 발효 사료, 논의 자실과 경엽을 동시에 수확하여 발효해서 사료로 만든 것), 쌀가루용 쌀 등 신규 수요 쌀을 중심으로 경작을 추진합니다.



보리 대두의 재배에 부적합한 논에서의 벼 WCS 생산



수확 전의 보리밭

오우미 쌀 등의 생산 진흥

●'미즈카가미' 산지화 개시 사업

오우미 쌀의 품질을 개선하여 브랜드 파워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더위에 강하고 외관 품질이 뛰어나고 맛이 좋은 '미즈카가미'의 가속적인 경작 확대, 좋은 맛을 내는 생산 기술의 보급, 유통 판매를 촉진합니다.

● 시가의 쌀·보리 · 대두 생산 대책 사업

쌀, 보리, 대두의 재배 기술 확립과 단백 등의 품질 분석을 실시하는 동시에, 쌀, 보리, 대두를 중심으로 논의 유효 활용을 촉진하여 소비자와 실수요자의 시점에서 생산과 유통으로 연결하는 산지 강화 대책을 지원합니다.

소비자나 실수요자의 기본적인 요구인 먹거리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쌀, 보리, 대두의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분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수확 전의 논 '미즈카가미'



대두 생산장

원예 작물 등의 생산 진흥

● 시가의 수전 채소 생산 확대 추진 사업

채소의 현 내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서, 채소를 논 농업의 전략 작물로서 평가, 양배추나 양파, 브로콜리 등 채소의 생산 확대 대책을 지원합니다.

● 신기술로 결실을 맺는 '시가의 원예' 육성 사업

농업기술진흥센터에서 개발·확립한 기술 등의 도입을 가속화하여 현내 원예 생산의 면적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논 농업 경영의 복합화·다각화를 진행합니다.



정식기에 의한 양파 모심기 작업



흠 유스용 화초 재배(소량 토양 배양지경 재배)



무화과나무의 포트 재배



고품질 오우미 차의 생산(가부세차)

오우미 소 등의 생산 진흥

● 세 가지 이점의 '오우미 소' 브랜드 파워 강화 추진 사업

송아지의 안정 확보를 위해 현 내에서 번식에서부터 비육까지를 일관 생산하는 체제 구축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육질이나 육량 등의 능력이 좋은 번식 소를 갖추어 고품질 오우미 소의 생산을 추진합니다.

오우미 소의 사육 정보나 판매 동향, 등급 결정과 쇠고기 지방의 질(올레산)등을 수집 해석하여 오우미 소의 브랜드 판매 전략을 구축하는 동시에 현 외 소비지를 대상으로 PR을 추진, 오우미 소 브랜드의 전국 확대를 도모합니다.



긴키 도카이 호쿠리쿠 연합 육우 공진회의 현 내 집합 심사



시가 식육 센터에서의 오우미 소 경매 풍경

● 자급 사료 생산 종합 진흥 대책 사업

사료용 벼(벼WCS·사료용 쌀)나 벼 짚 등 경숙 제휴를 통해 논을 활용한 자급 사료의 이용 확대를 촉진합니다. 나아가 안전·안심의 현내산 사료를 급여한 축산물에 대한 이해 양성을 도모하여 현산 축산물의 브랜드 파워 향상을 추진합니다.



사료용 쌀을 육용소에 급여

시책5 친환경 농업과 온난화 대책을 진행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비와코나 주변 환경에 대한 부하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농약이나 화학 합성 비료의 사용량을 통상의 절반 이하로 삭감하는 등 환경을 배려한 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 촉진과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양호한 수 환경을 확립하는 대책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회복하는 대책 등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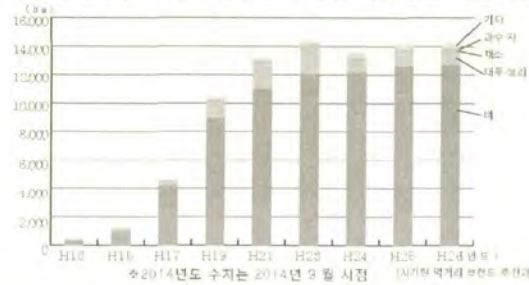
●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 지급 교부금'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읍·농업 협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추진 확대를 도모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토대로 특산물의 육성 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촉진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

■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면적 추이(생산 계획 승인 시점 기준의 면적)



※2014년도 수치는 2014년 9월 시점



친환경 농산물의 PR 포스터

● 친환경 농산물 '유역 전체' 소비 확대 사업

'먹거리로 비와코를 지킨다'를 표어로 민간단체 등과 협동하여 추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활동이나 미디어를 통한 PR 활동을 통해 친환경 농업에의 이해를 넓힙니다. 또한 계발 대상을 비와코·요도가와 유역의 소비자에게도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도모합니다.

● 양질 퇴비의 유효 이용을 통한 건전한 토양 개선의 추진

가축 배설물 퇴비 등의 지역 자원을 토양 개선에 유효 이용하여 친환경 자원 순환형 농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의 제휴를 통한 양질의 가축 배설물 퇴비의 생산·이용 체제를 정비합니다.


축산 농가에서의 퇴비 싣기


경종 농가에서의 퇴비 살포

● 탁수 방지 활동의 추진

농업 배수(농업 탁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성을 고려하면서 농업인과 농업단체, 시읍이 일체가 되어 세심한 계발과 논 써레질 기계에 의한 '얕은 물 써레질', 논두렁에서의 누락을 막는 '논둑 바르기' 등의 기술 보급을 추진합니다.


써레질 기계에 의한 얕은 물 써레 기술

● 비와코 유역 전원 물 순환 추진 사업

[유역 전원 물 순환 지원 사업]
농업 배수를 재이용하는 순환이나 관개 대책에 대해 쓰레기 처리나 펌프의 점검 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논 반복 이용 시설 사업]
농업 배수의 반복 이용이나 농업용수의 절수 등 시설을 정비하여 비와코에 대한 농업 배수 부하의 삭감을 실시합니다.


농업 배수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

● 수질 보전 대책 사업

논에서 수로로 흘러나오는 배수를 억제하는 '발생원 대책', 배수를 다시 용수로 이용하는 '재이용 대책'과 갈대 등이 갖고 있는 자연 정화 기능을 활용하는 '정화 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합니다.

아울러 지역에 의한 수질 보전 활동을 위한 체제 정비를 지원합니다.

● 풍요로운 생물을 키우는 논 정비 추진 사업(마더 레이크 시가 응원 기금 활용 사업)

비와코의 자연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물고기의 요람인 논 등 '풍부한 생물을 키우는 논 정비' 대책을 보급·확대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활동이 되도록 활동 조직간 네트워크의 구축과 현 내외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PR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물고기의 요람 논 쌀'


'물고기의 요람 논'에서의 관찰회


둑을 올린 배수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

농업·수산업으로부터의 온난화 대책

농업·수산업 분야에서 온난화 완화책, 온난화 적응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합니다.

온난화 완화책의 보급·정착

- 농업·수산업에서의 온난화 대책 추진을 위한 연수회 등의 개최
- 자급 사료 생산 종합 진흥(재게)
- 농촌 지역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의 추진(재게)

온난화에 적응한 농업·수산업의 추진

- '동할미'와 '도열병'에 강한 본 현 독자 논벼 품종 육성 기술의 개발
- 수온 상승이 비와코의 수산 생물에 미치는 영향의 해명


온난화 대응 품종(논벼)의 육성


온난화 영향 조사
문절망둑의 산란 현황 조사

시책6 수산업의 재생에 노력합니다.

비와코 연안에 갈대 유역과 모래 바닥을 조성하여 자연 생산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니고로부나와 혼모로코, 바지락 등 재래 어패류의 효율적·효과적인 종묘 생산 방류를 실시, 수산자원의 증대를 지향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외래어나 민물가마우지의 적극적인 구제를 진행하는 동시에, 작은 니고로부나나 바지락 등은 어획 하지 않는 등 자원 관리형 어업을 진행하여 수산자원의 안정 유지를 도모합니다.
아울러 현산 수산물이 더욱 친밀한 식재가 되도록 신전 보급하여 소비 확대에 노력합니다.

어장과 산란 번식장의 정비·보전을 통한 자연 생산력의 향상

● 수산 기반 정비 사업

니고로부나나 바지락 등의 자원 회복에 필요한 산란 번식과 성육 장소를 회복하기 위해 갈대 지역과 모래땅을 조성합니다.



조성 갈대 지역 기타야마타공구(2008년도 조성 구역)

● 되찾자! 호수 남쪽의 혼모로코 부활 프로젝트

혼모로코의 주요 산란 번식장이었던 호수 남쪽에서 북쪽 호수까지 연속하여 수초 베기와 종묘 방류를 실시함으로써, 혼모로코의 번성한 서식을 회복시킵니다.

● 아카노이만의 재래어 부활 사업

재래어의 우량 번식장이었던 아카노이만에서 외래어의 집중 구제와 니고로부나나 혼모로코의 종묘 방류를 실시, 재래어의 부활을 추진합니다.



호수 남쪽의 혼모로코 부활 사업

수산자원의 증산

● 재래 어패류의 종묘 방류

은어, 니고로부나, 혼모로코, 비와송어, 바지락 등 어패류의 치어나 치패를 대량 생산하여 방류합니다. 특히 니고로부나와 혼모로코는 경작 논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생산합니다.



먹이가 풍부한 논에서 자라는 니고로부나 치어



니고로부나 12㎝ 치어의 방류

● 특산 송어의 양식에 관한 조사·연구

산란기에도 육질이 열화하지 않는 전자삼배체 식출 기술의 안정화와 고품질화를 목표로서, 양식 비와송어의 생산·유통을 도모합니다.



산란기 육질의 비교
삼배체 비와송어(왼쪽)는 육질이 열화하지 않지만 통상의 비와송어(오른쪽)는 몸이 하얗게 되어 성숙에 따른 열화를 볼 수 있다.

수산 유해 생물 구제에 의한 어장의 보전

● 유해 외래어 제로 작전 사업

외래어의 포획 구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특히 어식성이 강한 큰입배스를 대상으로 포획 사업을 진행합니다.

● 민물가마우지 어업 피해 방지 대책 사업

민물가마우지에 의한 수산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어장에서의 방조실(防鳥糸)에 의한 피해 방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둥지에서의 민물가마우지 구제를 진행합니다.


구제된 외래어


전기 충격 보트


공기총에 의한 민물가마우지의 구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 자원 관리형 어업 추진 종합 대책 사업

니고로부나와 바지락 및 혼모로코의 자원 관리형 어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추진에 필요한 자원량의 파악 기술을 개발합니다.

● 유통 대책 사업

['시가의 수산물' 유통 확대 대책 사업]
현산 수산물의 이미지 향상 활동과 직매회 등 생산자 단체가 실시하는 대책을 지원합니다.
['비와코 8진' 브랜드화 사업]
2013년에 시가현립 아즈치성 고고 박물관에서 제안한 '비와코 8진'*을 관광 자원으로 평가, 브랜드화를 위해 움직점, 여관 등 사업자에 의한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PR 합니다.
*비와코 8진…비와송어, 은어, 니고로부나, 히스, 혼모로코, 문절망둑, 비와요시노보리, 줄새우



자원 관리 계발 포스터

● 수산업 개량 보급 사업

[어부와 함께 비와코의 은혜를 먹자 프로젝트 사업]
체험 어업과 조리 실습, 레시피 책의 배포 등을 통해 청년 어업자 등의 일꾼 자신의 정보 발신력과 판매 기술 향상을 도모합니다.


체험 어업


조리 실습

● 수산 다면적 기능 발휘 대책 사업

비와코 연안이나 안쪽 호수, 하천 하구부, 하천 상류부 등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는 어업자 조직을 지원합니다.

● 매력 있는 하천 어업 추진 사업

낚시 객의 니즈에 부합한 하천 어업 진흥책을 검토하는 동시에, 낚시 교실이나 물고기 체험 학습, 낚시 가이드의 배치 등 낚시 객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지원합니다.


낚시 교실(은어 낚시)

삼림 입업 비와코와 사람들의 생활을 지지하는 삼림 조성을 진행합니다.

비와코 삼림 조성 기본 계획을 토대로 비와코와 삼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삼림의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에 중점을 둔 삼림 조성과 현민 전체가 함께 하는 삼림 조성을 추진합니다.

환경에 배려한 삼림 조성의 추진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삼림 흡수원 대책의 추진

삼림이 CO_2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간벌 대책을 실시합니다. 간벌재의 반출을 적극적으로 실시, 간벌재의 활용 촉진에 노력합니다.

● 삼림의 생태계나 환경에 배려한 정비의 추진

환경 숲과 장벌기 숲으로의 유도, 마을 산의 정비 추진과 함께, 산지 재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등 효과적인 삼림 보전을 추진합니다. 또한 삼림을 건전한 모습으로 보전하고 석성한 갱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제휴하여 일본 사슴 등의 피해 대책 등을 강구합니다.



적정하게 정비된 인공림

현민 협동에 의한 삼림 정비의 추진

●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구조를 통한 삼림 정비의 추진

삼림의 가치와 삼림 정비의 필요성을 보급 계발하는 동시에, 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삼림 정비를 추진합니다.



기업의 숲 만들기
(사진 제공 : 생활협동조합 코프 시가)

삼림 자원의 순환 이용 촉진

● 현산 목재의 이용 촉진

생산의 저비용화, 가공 기술의 향상, 유통의 효율화를 통해 현산 목재의 안정 공급 체제를 정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건축물 등에 대한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삼림 자원의 유효 이용을 도모합니다.



시가현 삼림 조합 연합회 목재 유통 센터

차세대의 삼림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 삼림을 키우는 일꾼 육성

지역 특성과 환경에 배려하면서 삼림을 키우는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 삼림 경영·도로망 정비를 제안하는 삼림 시업 플래너와 고성능 임업 기계 오퍼레이터의 육성 등을 추진합니다.

● 삼림 환경 학습의 충실

삼림과 비와코를 잇는 삼림 환경 학습 '신 아이들' 사업의 착실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나 지역 실태에 대응한 학습 프로그램의 충실 등을 도모합니다.



삼림 환경 학습 '산 아이들' 사업

연구 보급

농림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진흥센터

농업 분야의 연구 거점으로서 친환경 농업 관련 기술 개발을 비롯해 고온에 강한 새로운 논벼 품종의 육성과 농산물의 고품질화 관련 연구 등 폭넓은 분야의 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

○논벼 등의 품종 개량 및 재배 시험
○포도, 배 신품종의 안성 재배 기술 개발
○안성 생산이 도모되는 다원 관리 기술의 개발

본고장 : 오우미하치만시
꽃·과수 연구부 : 릿토시
다업 지도소 : 고가시



'미즈카가미' 재배장



비와코 환경 과학 연구 센터(오쓰시)

종합 해석 부문 삼림 환경 담당

다양한 삼림 조성과 임업의 진흥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 삼림·임업 보급 지도 담당 부서와 제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

○비와코를 키우는 삼림의 적절한 관리 방책에 관한 연구
○인공림 벌채지의 갱신에 관한 연구



인공림 벌채지의 갱신에 관한 시험

수산 시험장(히코네시)

수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 그 성과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선 비와코마루에 의한 은어 자원 조사

【주요 연구 내용】

○비와코신 중요 어패류의 증식 기술 개발
○수산자원에 관한 조사 연구
○어징 환경 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어병의 예방·치료 기술 개발

축산 기술 진흥 센터(히노초)

가축 등의 개량과 생산 현장에 직결하는 실용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발 기술 보급·지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육용소에 대한 쌀겨의 급여 시험

【주요 연구 내용】

○논벼 유래 자급 사료 자원의 이용을 통한 육용소 사료 조제 및 급여 기술의 개발
○벼 WCS와 사료용 쌀을 병용한 젖소 사료 급여 체계의 개발
○쌀겨 사일리지 조제 기술의 확립

20

통계표

전국적 위치에서 시가 농림 수산업의 특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가현 농림 수산업의 전국적 위치

구 분	단위	시가현		전국	최상위 도도부현		최하위 도도부현		자료명
		실수	전국순위	평균치	도도부현명	실수	도도부현명	실수	
1 농 업	경영체	25,732	29	35,725	후쿠시마	71,954	도 쿄	7,455	2010 년 농림업 센서스
1 농업 경영체수									
2 농가수									
(1) 총농가수	호	36,017	33	55,786	나가노	117,216	도 쿄	13,099	〃
(2)판매농가수	호	24,836	31	34,707	이바라키	70,884	도 쿄	6,812	〃
(3)주업농가율(판매농가)	%	8.1	45	22.1	홋카이도	72.1	도야마	5.7	〃
(4)준주업농가율(판매농가)	%	24.0	17	25.8	니가타	55.1	홋카이도	7.0	〃
(5)부업적농가율(판매농가)	%	70.0	3	54.1	기후	71.6	홋카이도	20.9	〃
3 농가인구(판매농가)									
(1)농가 세대원 수	명	103,245	25	128,286	후쿠시마	310,611	도 쿄	27,224	2010년 농림업 센서스
(2)농업 취업 인구	명	29,492	38	55,441	이바라키	113,287	도 쿄	12,965	〃
(3)기간적 농업 종사자	명	10,209	47	43,648	홋카이도	191,210	시가	10,297	〃
4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 상황 (인정 농업인 수)	경영체	1,822	35	4,966	홋카이도	31,410	나라	1,019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 상황 (2013.3 말일 현재)
5 취락영농수	취락영농	856	2	513	이야기	882	도 쿄	-	취락영농실태조사(2014.2.1)
6 수입 감소 완화 대책 가입 신청 상황	경영체	1,408	11	1,502	홋카이도	18,858	도 쿄	-	2014년산 수입감소영향 완화 대책 가입 신청 상황
7 농업용 기계 보급 대수 (농업경영체 100 경영체당)									
(1)트랙터	대	100.3	14	99.9	홋카이도	288.4	오키나와	52.7	2010년 농림업 센서스
(2)동력田식기	대	80.1	1	61.1	시가	80.1	오키나와	3.5	〃
(3)콤바인	대	79.0	1	47.6	시가	79.0	오키나와	2.2	〃
8 경지 면적									
(1)경지 면적	ha	52,800	29	96,128	홋카이도	1,148,000	도 쿄	7,290	2014년 경지 면적 조사
논	ha	48,700	18	52,298	홋카이도	223,400	도 쿄	284	〃
밭	ha	4,130	44	45,859	홋카이도	924,700	도야마	2,490	〃
(2)1농업경영체당 경지 면적 (자지적 농가 포함)	ha	1.43	20	1.77	홋카이도	21.47	오사카	0.51	2010년 농림업 센서스 2014년 경지 면적 조사
(3)수전율	%	92.2	2	54.4	도야마	95.8	오키나와	2.2	2014년 경지 면적 조사
9 논비(자실용)									
(1)경작 면적	ha	33,000	18	33,468	니가타	120,100	도 쿄	159	2014년 작물 통계 조사 비 조사
(2)10 a당 수확량	kg	502	22	506	야마가타	625	오키나와	261	〃
(3)수확량	t	165,700	18	179,488	니가타	655,900	도 쿄	661	〃
(4)1농업경영체당 경작 면적 (자지적 농가 포함)	a	89	11	91	홋카이도	208	도 쿄	1	2010년 농림업 센서스 2014년 작물 통계 조사 비 조사
(5)10a 당 노동 시간	시간	21.73	…	25.56	…	…	…	…	2013년산 벼 생산비 통계
(6)10a당 자본 이자·지대 금액 산입생산비	엔	131,643	…	134,041	…	…	…	…	〃
10 小 보리				4,472	홋카이도	122,000	와카야마	5	2013년 작물 통계 조사 보리류 조사
(1)경작 면적	ha	6,600	4						
(2)10 a당 수확량	kg	277	18	386	홋카이도	436	아키타	108	〃
(3)수확량	t	18,300	7	17,279	홋카이도	551,900	와카야마	6	〃
11 대두				2,740	홋카이도	26,800	도 쿄	2	2013년 작물 통계 조사 대두 조사
(1)경작 면적	ha	5,780	6						
(2)10 a당 수확량	kg	146	12	155	홋카이도	259	오키나와	39	〃
(3)수확량	t	8,440	5	4,253	홋카이도	61,400	오키나와	1	〃

구 분	단위	시 가 현		전 국	최상위 도도부현		최하위 도도부현		자 료 명
		실 수	전국 순위	평균치	도도부 현명	실 수	도도부 현명	실 수	
I 2 가축의 사육 두 수	두	3,440	41	29,581	홋카이도	795,400	와카야마	649	2014년 축산 통계 조사(2014.2.1)
(1)젖소									
사육 농가 1가구당 두 수	두	50.6	25	75.9	미에	117.5	가나가와	27.8	〃
(2)육용소	두	17,200	33	54,617	홋카이도	599,899	오사카	700	〃
사육 농가 1가구당 두 수	두	170.3	2	44.6	홋카이도	190.2	이와테	16.2	〃
(3)돼지	천 마리	463	44	5,697	이바라키	12,848	오사카	79	〃
사육 농가 1가구당 성계 수	천 마리	13.5	43	53.2	미 야 자 키	189.4	오사카	4.2	〃
I 3 농업생산액									
(1)농업산출액	억 엔	813	41	1,824	홋카이도	10,706	도 쿄	293	2013년 생산 농업 소득 통계
경종	억 엔	508	37	1,218	홋카이도	5,690	도 쿄	273	〃
쌀	억 엔	377	38	580	니가타	1,499	도 쿄	1	〃
보리 류	억 엔	6	30	9	홋 카 이 도	226	17 도부현	0	〃
표 류	억 엔	11	31	14	홋 카 이 도	559	5 도부현	0	〃
채소	억 엔	88	45	479	홋카이도	1,999	도야마	52	〃
축 산	억 엔	107	38	595	홋카이도	3,616	도 쿄	20	〃
(2)생산농업소득	억 엔	305	33	651	홋카이도	3,765	도 쿄	78	〃
I 4 농업 경영 (개별 경영체 1 경영체당)									
(1)농업조수익	천 엔	2,370	…	4,972	…	…	…	…	2013년 농업 경영 통계 조사 경영 형태별 경영 통계
(2)농업경영비	천 엔	1,665	…	3,651	…	…	…	…	〃
(3)농업소득	천 엔	705	…	1,321	…	…	…	…	〃
(4)농외소득	천 엔	951	…	1,531	…	…	…	…	〃
(5)연금 등의 수입	천 엔	3,287	…	1,866	…	…	…	…	〃
(6)총소득	천 엔	4,943	…	4,727	…	…	…	…	〃
(7)농업의존도	%	42.6	…	46.2	…	…	…	…	〃
(8)농업소득율	%	29.7	…	25.6	…	…	…	…	〃
(9)농업 경영 관여자 1명당 농업소득	천 엔	347	…	655	…	…	…	…	〃
(10)농업 경영 관여자 1명당 총소득	천 엔	2,435	…	2,275	…	…	…	…	〃
(11)경영경지 면적 10a당 농업소득	천 엔	57	…	55	…	…	…	…	〃
II 임 업									
1 임업 경영체 수	경영체	1,803	33	2,982	홋카이도	19,686	오키나와	12	2010년 농림업 센서스
2 소재 생산량	m^3	62	41	418	홋카이도	2,251	오키나와	5	2013년 목재 통계 조사
III 수산업(내수면 어업)									
1 어업 경영체(바지락 어업 센서스)	경영체	530	…	…	…	…	…	…	2013년 어업 센서스
2 어획량(바지락 어업)	t	1,021	…	…	…	…	…	…	2013년 내수면 어업 생산 통계 조사
IV 기타 식료 자급율)									
1 식료 자급율(칼로리 기준)	%	50	20	39	홋카이도	200	도 쿄	1	2012년 식료 수급표 등(개수치)
2 식료 자급율(생산액 기준)	%	40	33	68	미야자키	248	도 쿄	4	2012년 식료 수급표 등(개수치)

이용 상의 주의

1 전국 평균치는 전국 47도도부현의 평균이다. 단, 쌀 생산비는 도쿄, 오키나와를 제외한 도부현 평균이다.
2 시가현의 전국 순위는 전국 47 도도부현의 순위이다. 아울러 도도부현별 데이터가 미발표 조치(x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을 제외한 순위이다.
3 최상위 및 최하위 도도부현에 대해 도도부현별 데이터가 미발표 조치(x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을 제외했다.
4 1 농업 경영체 당 경지 면적(자급적 농가를 포함) 경지 면적=(농업 경영체 + 자급적 농가)-(가족 경영체-판매 농가) + 1 세대 복수 경영)
5 1 농업 경영체 당 경작 면적(자급적 농가를 포함) 경작 면적=(농업 경영체 + 자급적 농가)-(가족 경영체-판매 농가) + 1 세대 복수 경영)
6 9 논벼(자실용)의 (5)와 (6) 및 14 농업 경영(개별 경영체 1 경영체 당)의 (1)부터(11)의 시가현 수치는 집계 경영체 수가 적기 때문에 사례로 이용되기를 바란다.
7 식량자급율은 식량 수급표에 의한다. 아울러 도도부현 별에 대해서는 '식량 수급표', '작물 통계', '생산 농업 소득 통계' 등을 토대로 농림수산성에서 시산한 것이다.

3 세션 : 농민중심 농정 거버넌스

농업회의소와 협치농정의 필요성

국민농업포럼 정명채 정책위원장

농어업회의소와 협치농정의 필요성

2015. 9.

정 명 채
(사)국민농업포럼 이사·정책위원장
대한발효식품문화포럼 회장
한국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

순 서

Ⅰ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추진경과
Ⅱ 국내외 협치농정 사례-농어업회의소 중심으로
Ⅲ 시범사업을 통한 당면과제
Ⅳ 향후 개선방향

1.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추진경과 1) 농업회의소의 추진목적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을 갖춘 농어업인 대의기구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 지위향상 방안을 종합 조정, 정책에 반영

-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여
- 농어업정책 수립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 한정된 자원을 농어업·농어촌에 가장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 반민반관 형태의 농어업인 자조조직

→ **농어업 발전**

→ **농어업인 지위향상**

1.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추진경과 2) 농업회의소의 위상

기존의 단순 협의 조직 또는
형식적 운영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함

단순협의 조직-형식적 운영	농민대표조직-정책참여
정부 및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 임시적으로 운영	제도적 근거에 따라 정기, 부정기 참여 농어업인 리더가 골고루 참여
정책에 참조하는 수준, 의무나 벌칙 없음	정책제안 내용검토 및 수정 기간내 검토 의무와 벌칙

근 거	헌법 제123조 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과 제	농어업인 대의기구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고 공식적인 정책협의를 수행하고 공적 서비스 기능의 위탁 수행

1.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추진경과 3) 농업회의소의 필요성

개방농정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에 한계
농어업의 위기감 증대에 따른 농업계의 통일된 목소리 표출에 대한 요구 증가

① WTO/FTA 등 농산물 수입확산

- WTO/FTA 등 지속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 개방농정 심화와 농산업의 위축
-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위상 약화

② 농어업의 양적, 질적 위축과 위기감 증대

- 농어업인구, 취업자, 부가가치비중, 농업소득 등 주요지표의 지속적 악화
-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 확산

③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 진전

- 지방자치 역사 20년 경과
- 지방 농정과 사업 증가, 중앙농정 변화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④ 농업인 권익실현을 위한 통일된 목소리 표출

- 다수 농어업인단체의 통일된 목소리 부족
- 농업인단체의 대표성과 권익대변 한계
- 다양한 농민단체의 협의기구, 법적 조직 필요

- 5 -

1.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추진경과 4) 농업회의소 추진경과

1998년 법제화 추진 무산 후 관련 연구용역만 일부 수행

1998. 02.
- 범농업인 21C 농업개혁위원회에서 농업회의소 설립 주장
- 설립 준비위원회 출범(35개 단체 참여)

1998. 10.
- 법제화 추진 실패 후 무산

중앙 주도 하향식 방식
거버넌스의 목적과 수단 불일치

이해관계자간 토론과 합의 부족
사회적 공감대 확보 미흡

→ 농어업회의소 법안 마련

→ 국회심의과정에서
농업농촌기본법 관련 조항 누락

- 6 -

1.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추진경과 4) 농업회의소 추진경과

2009. 6.	• 농어업선진화위 거버넌스분과, 농정협의체 기본방향 협의
2009.-2010.	• 국민농업포럼, 관련 토론회 다수 개최 시범사업 건의
2009. 12.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업무계획에 포함
2010. 10.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정
2010.12.	• 시군단위 시범사업 대상 선정(평창, 진안, 나주) 및 설립추진
2011.8.	• 시군단위 시범사업 대상 선정(고창, 봉화, 거창) 및 설립추진
2012. 9.	• 시군단위 시범사업 대상 선정(남해, 영주) 및 설립추진
2013. 6.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농업인 소통협력 과제로 선정
2013. 10.	•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입법화 결정
2013. 12.	• 박민수 의원 등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2014. 4.	•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용역(14.4-12월)
2015. 4.	• 신성범 의원 등, 농어업회의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5. 8.	• 농식품부, 광역 및 시군 농어업회의소 공모

2. 국내외 협치농정 사례 1) 7개 시군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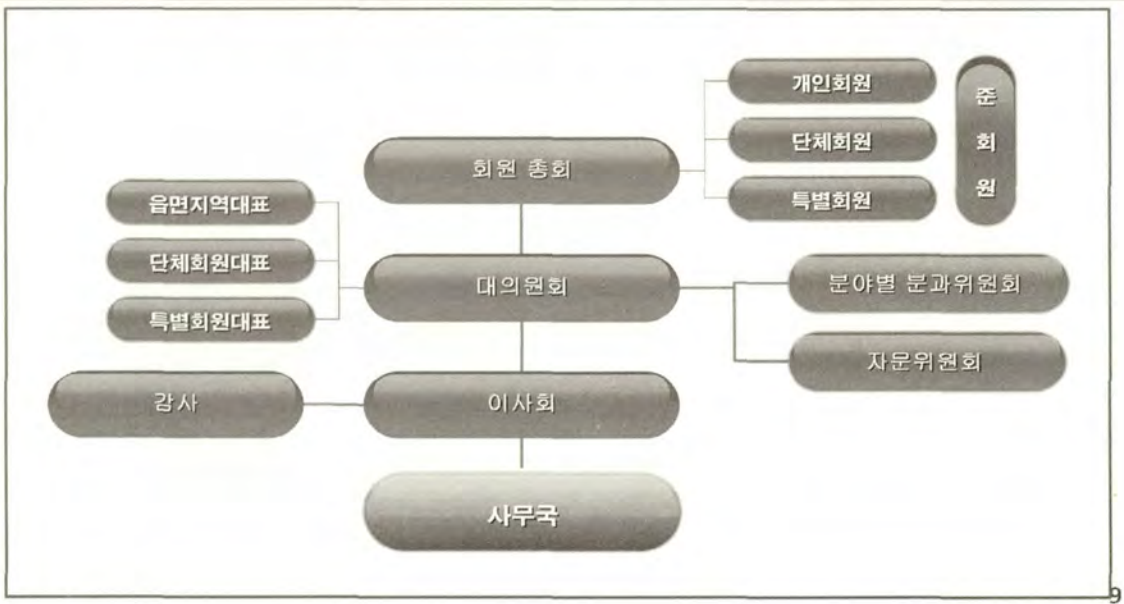
현재 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주체간 협의 정도, 추진의지 등 시군별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설 립 일	개인+단체+특별회원수 /농가수(+어가수)	지자체 지원금	사무국
평 창 군	2012. 3. 14.	550+20+9/4,711	70(14)>70(15)	2명
진 안 군	2011. 9. 20.	950+15+8/4,630	100(14)>60(15)	2명
나 주 시	2012. 2. 8.	1,294+40+16/11,790	120(14)>20(15)	3명
고 창 군	2012. 11. 5.	826+23+0/10,471	30(14)>20(15)	1명
봉 화 군	2012. 7. 18.	1,240+27+10/6,560	50(14)>50(15)	2명
거 창 군	2012. 4. 30.	755+19+9/9,543	54(14)>54(15)	3명
남 해 군	2013. 6. 27.	1,162+23+8/9,935	40(14)>40(15)	2명

2. 국내외 협치농정 사례

2) 농어업회의소 운영체계

개인, 단체, 특별(농협) 회원의 구성 및 민주적 대의체계 구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조직체계 설정



- 9 -

2. 국내외 협치농정 사례

3) 국외 농어업회의소 현황

농업 선진국, 특히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를 가진 나라는
각국의 역사,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 농업회의소가 활발하게 활동

프랑스	• 농업계 전체의 대의기구(농관련 업체 포함) • 정부와는 자문 등 농정협의체 기능 중심
독 일	• 프랑스에 비해 교육, 지도기능이 강함 • 정부와는 농정업무 수위탁 기능 중심 관계(전략적 역할분담)
오스트리아	• 자치조직이자 정당별 투표에 의한 대의기구 • 농정 집행업무 수위탁, 농정집행(정책자금 등) 부분 대행
일 본	• 시정촌 농지위원회의 전국조직. 농지관리 및 정책자문 • 자문 및 수위탁사업 수행

- 10 -

2. 국내 · 외 협치농정 사례

4) 국가별 농어업회의소 특징

구분	유럽형 농업회의소		일본의 농업회의소
	독일	프랑스	
위상 성격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상공회의소에 대응 •농민총연맹의 농업행정적 형태	•농업인 자치조직 •상공회의소에 대응 •최상위 농업기구는 농업위원회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상공회의소에 대응 •독일의 농업회의소를 모델로 함
조직	•3단계 조직(군-주-전국) •주회의소가 핵심 •전국 농업회의소 연합회는 대의제	•도-지역-중앙 3단계 계통조직 •도 조직을 기초로 전국조직 구성	•3단계 조직 -시정촌 농업위원회(2,351) -도도부현 농업회의(47) -전국농업회의소(1)
사업	•고유업무: 지도상담, 농업교육 •수탁업무: 일반 농정업무	•고유업무: 지도상담, 직업교육, 농촌관광, 정보사업 •수탁업무: 없음	•고유업무: 경영지도, 농정활동 •수탁업무: 농지행정 대행
재정	•농민회의(25%) •주정부 보조금(50%) •서비스 수수료(25%)	•국고지원(농업회의소세) (50%) •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개발기금 •지도사업 등 자체 수익금	•국고보조와 현, 시정촌 일반회계 (1998년 전국농업회의소 국가 보조금비율 82.5%)
농정참여 방식	•농정집행의 민영화 •지방농정청과 업무 분담	•파트너쉽 참여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농정참여에 중점)	•국가업무(농지업무) 대행 •건의, 답신 형태로 농업인 의견 국가시책에 반영
설치 근거	•주 차원의 설치법 제정 (주 정부의 선택사항)	•1924년 중앙정부에서 설치법 제정	•1951년 농업위원회등에관한법률 -농업위원회,농업회의,전국농업회의소 규정
정부와의 관계	•농정업무 수위탁	•농정자문기구	•농정업무 수위탁, 농정자문

- 11 -

3. 시범사업을 통한 당면과제

1) 대표성 확보의 한계

-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과 관련기관의 인식과 이해 수준이 높지 않음
- 농어업회의소 회원가입율이 8~21% 수준으로 높지 않음
- 자율가입 형태로 농어업인, 농어업단체, 농협 등의 참여 미흡
- 농어업회의소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효과 체감도가 아직 낮음

2) 전문인력 확보 등 역량 제고 필요

- 민간부문 역량과 지자체의 의지 등에 따라 지역 간에 성과에 차이 발생
- 민간 역량 확보 지역은 농어업회의소 강점을 살린 다양한 활동 전개
- 민간 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농어업회의소 역할이 미흡
- 회원 회비와 행정 지원 예산만으로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 12 -

3. 시범사업을 통한 당면과제

3)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문제

- 농어업회의소에 따라 연간 1-2억원의 운영비 소요(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회의소 운영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의 회비와 지자체 예산지원에 의존
- 일부 회의소는 지자체 위탁사업과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확보
- 인건비 등 운영비 이외 사업 예산 부족,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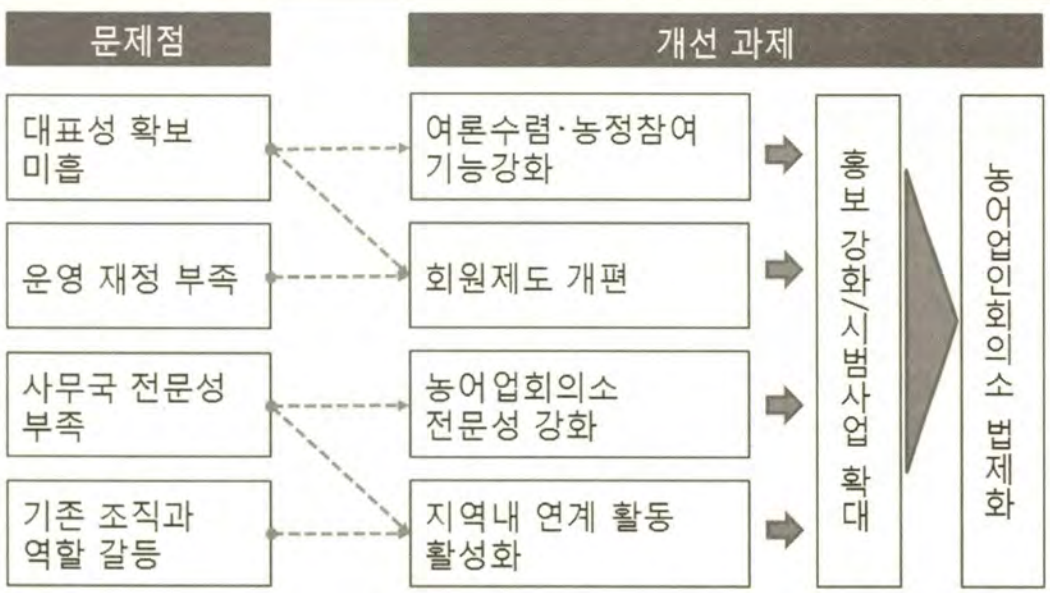
4) 기존 관련 조직 단체들 간의 갈등요소 내재

- 지역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관련 주체들 간에 갈등요소 내재
-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등 기존 조직의 사업영역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지자체의 농어업인단체와 농어업회의소 담당부서가 이원화
- 농어업인단체는 자신들의 영향력 축소에 대해 우려

- 13 -

4. 향후 개선방향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모색 필요



- 14 -

4. 향후 개선방향

1) 농정 여론 수렴 및 농정 참여 기능 강화

- 농어업인 의견의 균형되고 대표성 있는 민의의 반영이 중요
- 상향적 농정 민의의 반영체계를 모형화하고 확산해야 함
- 젊은층, 여성농업인, 영세고령농, 어업인 등 소수 집단 반영체계 마련
- 지방자치와 기존 농정 관련법에 보장된 참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2) 농어업회의소 회원제도 개편

- 여론 수렴 기능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회원제도 개편 필요
- 외국의 농어업회의소와 상공회의소는 의무가입제도 실시
- 농업경영체 등록시 농어업회의소 가입 홍보, 회비는 영농규모와 품목에 따라 차등화
- 의무가입제도는 초기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와 안정적 재정 확보에 중요

- 15 -

4. 향후 개선방향

3)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

-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
- 경험 있는 현장 활동가, 전문 연구인력, 공무원 파견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사무국 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지원
- 면단위 이하 조직화, 지역농대와 연계한 지역인재 확보,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

4) 지역내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

-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물적, 인적 자원이 제한적
- 농어업인단체, 의회, 농업기술센터, 농축수협 등과 연계 협력 강화 필요
- 농어업인단체 간의 의견 조율 및 협력 체계 강화
- 의회, 농업기술센터, 농축수협 등과 우호적 관계 형성

- 16 -

4. 향후 개선방향

5) 교육 홍보 강화 및 시범사업 확대 추진

-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낮은 상황
-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지자체장, 농정담당 공무원, 관련기관 구성원, 일반국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
-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전국화 필요

6)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한 농어업인의 인식은 매우 높음(필요 86.2%)
-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유럽 선진국처럼 전국단위의 통일화된 법제화가 필요함. 지자체 참여와 확대에 중요
- 농어업회의소의 고유업무, 회원제도, 운영체계 등 체계화 필요

감 사 합 니 다

농업글로벌화를 통한 농업현대화 추진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刘小宁(류샤오닝) 부소장

농업 글로벌화를 통한 농업 현대화 추진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黑龍江省 社會科學院)
류샤오닝(劉小寧)



농업글로벌화는 경제글로벌화의 일환으로 각국이 자국의 상대적 우위를 이용하여 국제 분업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내 농업 자원 배분 시스템의 조정 · 개편을 통해 한 국가의 농업자원과 농업상품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적절히 분배되고 국내 농업 자원 및 상품 시장이 국제 시장과 상호 연계된다. 농업글로벌화는 한 국가의 농업 발전 단계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관문이며 농업 현대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1. 헤이룽장성 농업 발전 현황

——주요 농작물

중국의 주요 농업 생산 기지인 헤이룽장성의 농경지 면적은 총 1,330억㎡ 이상으로 중국 전체 농경지 면적의 약 9%를 차지한다. 2014년 헤이룽장성 총 농업생산량은 중국 총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인 6천만 톤이다. 전체 농경지 중 옥수수 경작지가 2분의 1, 벼 경작지가 ¼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작지에서는 콩, 밀, 채소 등을 경작하고 있다. 현재 헤이룽장성 농업 기계화 수준은 90%를 넘어서 파종, 경작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계화 수준이 중국 내 최고이다.

——식품생산기지

헤이룽장성은 중국 최대의 친환경식품, 유기농 식품 및 특색 식품 생산기지로서 2014년 기준 헤이룽장성의 친환경(유기농)식품 인증면적은 약 408억㎡, 상품 생산량은 3,650만 톤, 친환경식품 가공기업이 520개에 달하며 무공해 식품인증 수, 생산규모, 생산량 모두 다년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농업협력

지난 몇 년간, 헤이룽장성은 농업분야에서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다른 농업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비약적인 농업 글로벌화 발전을 실현해왔다. 2014년 기준 헤이룽장성 해외 농업개발면적은 약 53억 3천 만㎡에 달하며 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분포해있다. 농업 수출상품 생산면적은 21억 3천 만㎡에 달하며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 세계 90여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농산물 무역규모 41.2억 달러 가운데 수출액은 16억 달러에 달한다.

——농업 생산 조직 형태

헤이룽장성의 농경지 기계화 수준은 92.6%에 달해 경작, 파종을 포함한 종합 기계화 수준이 전국 최고를 자랑한다. 성 내 농기계협동조합은 69,000개, 가계 농업 가구수는 105,000가구에 달한다. 대규모 경영 농지 면적은 약 398억 7천 만㎡ 로 성 전체 경작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개혁

헤이룽장농업현대화종합개혁은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현대화발전을 위해 내놓은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서 농업생산경영시스템 혁신, 토지관리제도 개혁, 농촌 금융서비스 혁신, 농업과학기술혁신 및 서비스 시스템 개선, 농산물 유통방식과 유통업태 개혁, 농업용수 가격개혁, 농산물 주요 생산지역 보상제도 개선, 도시화와 신농촌건설 병행을 위한 균형적 발전 모델 모색 등 8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며 농업의 발전 방식 전환, 농업의 종합적 생산능력 향상, 농산물의 품질 향상, 농가 수입 제고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4년 제1회 중러박람회-헤이룽장(국제)농업협력프로그램 매칭회의가 하얼빈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농업 국제화 발전을 위한 회의로서 러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등 많은 국가 및 지역의 농업기업이 참석하였다. 2015년 중러박람회에서는 중러농업협력 원탁회의, 중-EU투자 상담회, 헤이룽장 · 홍콩 · 마카오 · 타이완 대러시아협력상담회, 중한통상교류회 등 60여 차례의 포럼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2. 헤이룽장성 농업 글로벌화 과정

——러시아와의 농업투자협력

헤이룽장성은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 국경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투자협력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풍부한 노동력 및 선진적 재배 및 양식 기술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토지자원, 발달된 농업기계화 수준, 저렴한 생산원료 비용 등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여, 러시아 내에 토지를 개간 혹은 임대하는 방식으로 옥수수, 벼, 콩, 야채, 과일 등 농작물을 대규모 재배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에 설립한 농부산품 가공기업은 상당한 규모를 갖춘 상태이다.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은 2,8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이러한 독특한 지리적 조건은 헤이룽장성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나아가 농업협력에 큰 기회를 제공해왔다.

——러시아와의 농업투자협력

헤이룽장성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와 농업협력을 시작하여 20여 년간 협력관계를 지속해왔다. 2005년 헤이룽장성 정부가 대러시아 통상과학기술협력 전략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각 지방정부와 농업 관련 부서에서 기업 및 농가의 해외진출, 농기계 및 노동력의 해외진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해외농업투자협력발전과 농산물 생산기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러시아 내 헤이룽장성 대러시아 해외농업개발 협력지역은 국경 및 항구 근접 지역에서 극동지역 중심부 및 주변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협력분야는 과거의 야채 재배에서 콩, 옥수수, 벼, 밀 등의 주요 농작물 재배로, 농산물 재배위주에서 돼지, 소, 조류 동물 등의 축산, 식품 및 사료 가공, 저장, 물류, 운송,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의 농업통상협력

한국은 헤이룽장성의 농산물 무역에서 중요한 협력파트너이다. 2014년, 헤이룽장성의 농산물 무역규모가 4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농산물 수출대상국이 130여 국가로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 중 한국과의 무역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과의 무역규모는 2002년의 3,00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달러 가까이 성장했고 연간 12.78%씩 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 미국에 이어 헤이룽장성의 제3의 무역파트너이다.

헤이룽장성과 한국 간의 농업통상 교류와 협력은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생 협력 플랫폼이 조성되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헤이룽장성은 5차례나 한국의 대규모 농산물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약 200개 농산물수출기업이 한국에서 투자유치 상담을 추진해 다수의 통상협력협상을 체결하였다.

최근, 헤이룽장성은 한국과 농산물 식품안전, 신농촌건설, 농업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농업전문가 시찰단을 대상으로 농업기술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은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3. 헤이룽장성과 충청남도 농업협력 강화 제의

헤이룽장성과 한국은 자연환경이나 경제발전 상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농업협력 분야에서는 상호보완성과 큰 협력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헤이룽장성과 충청남도는 올해 1월 정식으로 우호도시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앞으로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벼 재배기술에 관한 협력 추진

충청남도는 전통적인 벼 생산지역으로 선진화된 벼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모종이식, 관개, 화학비료 사용, 병충해 방지, 가공포장 등 벼 재배 관련 기술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할 수 있길 희망한다.

——협력 교육 프로그램 실시

한국 특히 충청남도 농업전문가분들을 헤이룽장성으로 초청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의 선진적인 농민 서비스관리 시스템과 경험을 배우고 한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민협력조직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 또 식품안전, 신농촌건설, 식품가공포장 등에 관한 교류를 추진한다.

——시설 농업분야 협력 추진

최근 헤이룽장성의 수출용 야채 생산 면적이 계속 늘어나면서 생산 기준 및 기술 프로세스의 체계화가 시급하게 되었다. 충청남도의 시설농업 관련 과학기술은 최고 수준이므로 한국의 시설농업 발전 경험을 배워 헤이룽장성의 수출용 야채생산기지의 발전을 추진한다.

—— 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의 상호방문 및 교류

충청남도 관련 연구기관과의 비정기적 상호방문제도를 만들어 양측의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자들이 농업기술, 무역, 정보, 학술 등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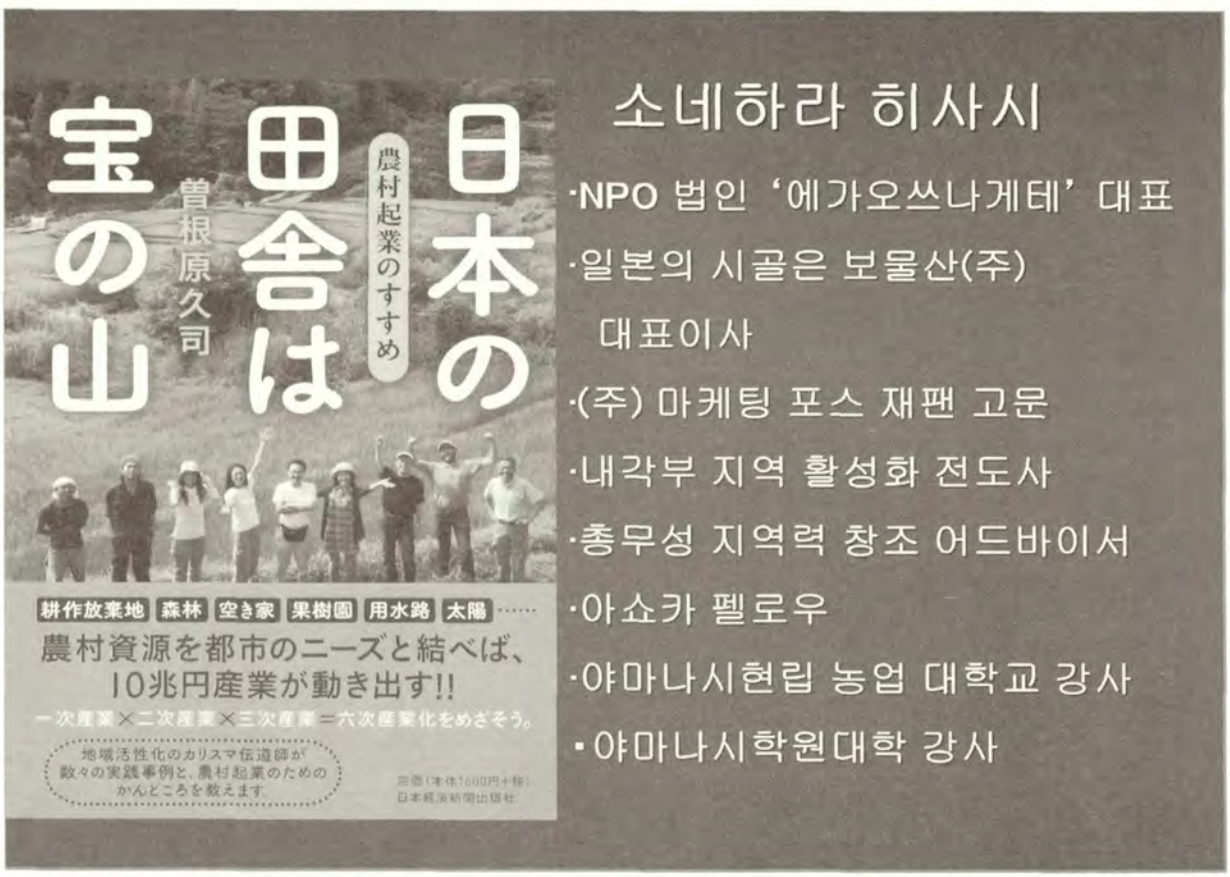


농촌자원을 도시의 수요와 연결하면 10조엔 산업, 100만명 고용이 가능

야마나시 소네하라 히사시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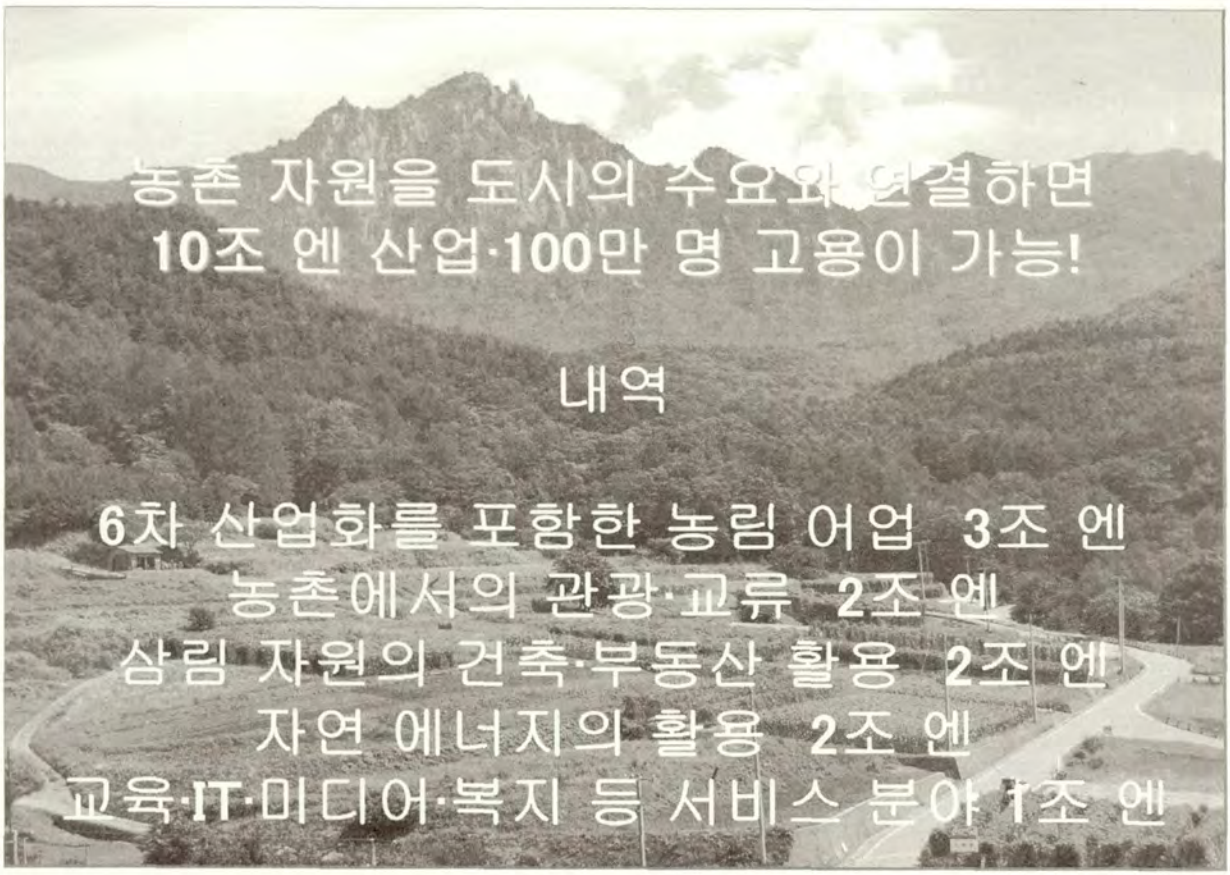
저자: 소네하라 히사시 (曽根原久司)

- **1961**년 나가노현 출생. **NPO**법인 '에가오쓰나게테' 대표이사. 내각부(**内閣府**) 지역활성화전도사. 야마나시현립 농업대학교강사. 야마나시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협의회장. 대학교 졸업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악활동에 열중. 그 후 기획회사, 컨설팅 회사 등에서 근무, **4**년후 독립. 은행 등의 경영지도를 통해 일본의 미래에 위기감을 느끼고 **再生** 모델을 창조하기 위해 도쿄에서 야마나시현으로 이주. **2001**년 **NPO**법인 '에가오쓰나게테' 설립. 대표로서 '마을, 사람, **時代** 만들기'를 컨셉으로 농업을 중심으로한 도시농촌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저서로 '**日本**의 농촌은 보물산'(**日本**경제신문출판사)이 있다.




農村起業家になる
地域資源を宝に変える6つの鉄則
曽根原久司
Sonehara Hisashi
日本経済新聞出版社
思い立ったが起業の日!
『農村起業家になる』
地域資源を宝に変える6つの鉄則
農村起業家になる
地域資源を宝に変える6つの鉄則
曽根原久司
曽根原久司 著
(NPOえがおつなげて代表)
まずは楽しくて小さなビジネスモデルを考えてみよう。おらが村の自慢になるまで3年はがんばれ——。農村ビジネスのカリスマ伝道師が、地域にある資源を集めて事業を立ち上げ、軌道に乗せるまでのコツを教えます。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2年9月刊 四六並製 定価(本体1,600円+税) 212頁
農村起業を成功に導く6つの鉄則
「まず、始めるべし」の鉄則—農村起業の前夜
「楽しくて小さなモデルを作り、アピールし続けるべし」の鉄則—農村起業の仕込み期
「立っているものは親でも使え」の鉄則—農村起業の巻き込み期
「一石二鳥、一挙両得」の鉄則—農村起業の成長期
「腐っても鯛」の鉄則—農村起業の心構え
「地アタマ使って、頭角を現せ」の鉄則—農村起業の思考法
日本経済新聞出版社 担当:桜井(Tel03-5255-2931 yasuyuki.sakurai@nex.nikkei.co.jp)


귀농, 귀촌의 신화!
농촌의 역습
소네하라 히사시 지음
曽根原久司
지역자원활용 산업 구상!
미국 CNN, 영국 BBC 등 해외에서도 소개!!!
농촌 기업가의 탄생
지역자원을 보물로 바꾸는 6가지 철칙
소네하라 히사시
정윤성





활동 영역

야마나시현 내에서도 북쪽 끝에 위치하는 '호쿠토시'를 거점으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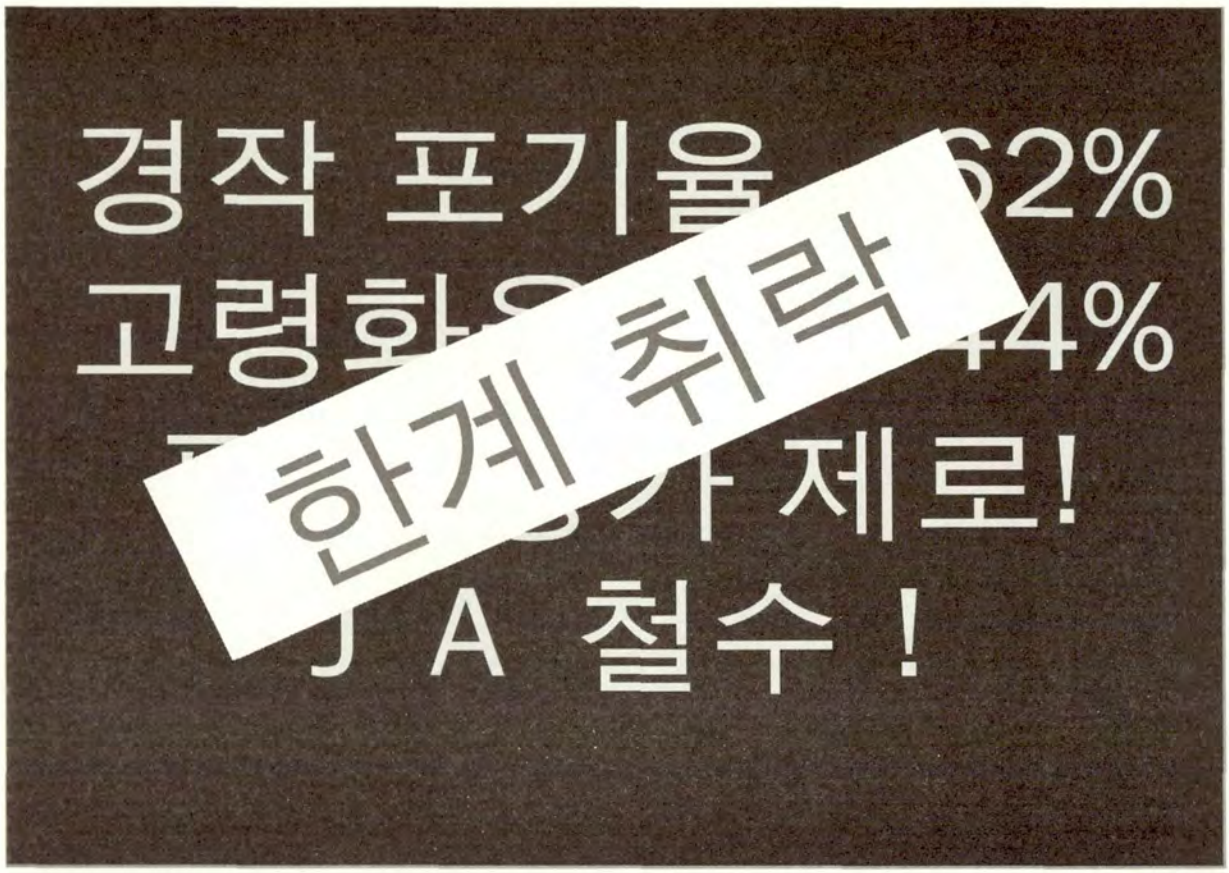
활동의 중심은 호쿠토시 중에서도 북동쪽 끝, 현 경계에 위치한 마스토미 지구

50 년 전에는 2,500 명이었던 인구도 지금은 500명까지 감소. 그 중의 2/3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한계 취락 지역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입지를 살려 도시 농촌 교류 활동의 필드로 활용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스타마초 마스토미 지구

고령화율 62%
경작 포기율 44%
판매 농가 제로!
JA 철수!



구 마쓰토미무라, 공주시

구 마쓰토미무라 면적 100 km² 인구 490명
공주시 면적 940 km² 인구 126, 000명

→ 구 마쓰토미무라는 완전한
한계 취락 마을!

먼저 저희의 활동 성과를 봐 주십시오!

미쓰비시지소와 에가오쓰나게테의

도시와 농산촌을 연결하는

하늘과 땅 프로젝트

미츠비시 지소 그룹 CSR
도시와 농산촌을 연결하는 '하늘과 땅 프로젝트' 2008년 개시



오랜 동안···
무려 20년 이상···

경작을 포기했던 지역의 계단식 논



기업과의 연계 활동으로 · ·

부활한 계단식 논



‘주미(酒米) 히토고코치’



‘순미주(純米酒) 마루노우치’



모내기 투어













벼 베기 투어







새 술・창고 개방 투어







간벌재의 산



야마나시현산 목재의 활용에 관한 사자 협정 체결 Formal agreement



2011년 8월 31일

2×4 주택 건재



구조용 합판(FSC 인증)



92

타이가プライ 山梨県産材

品名 : 構造用合板(低ホル)
寸法 : 15 × 920 × 1820㎜
ホルムアルデヒド放散量 : F☆☆☆☆
板面の品質 : C－D
製造者 : 林ベニヤ産業㈱ 七尾工場



마케팅 포스 재팬 & 닛신 오일리오 그룹

경작 포기지를 개간하여 해바라기로 기름을 만들자!


경작 포기지의 개간


활짝 핀 해바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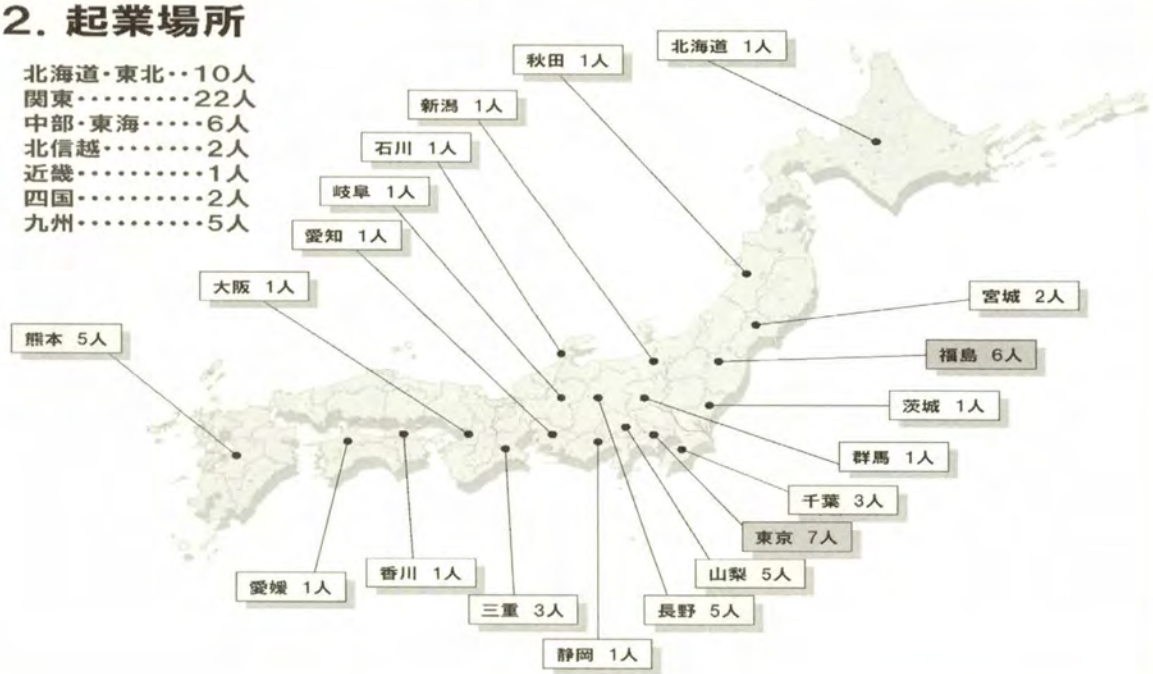

해바라기 오일을 만들자!


농촌 기업가 육성 스쿨
에카오 학교
えがおの学校
修了式

농촌 창업가 육성 전국의 창업가를 지원!

2. 起業場所

北海道·東北‥10人
関東‥‥‥‥‥‥22人
中部·東海‥‥‥6人
北信越‥‥‥‥‥2人
近畿‥‥‥‥‥‥1人
四国‥‥‥‥‥‥2人
九州‥‥‥‥‥‥5人



마지막으로‥

슬로건!


개간 모리모리~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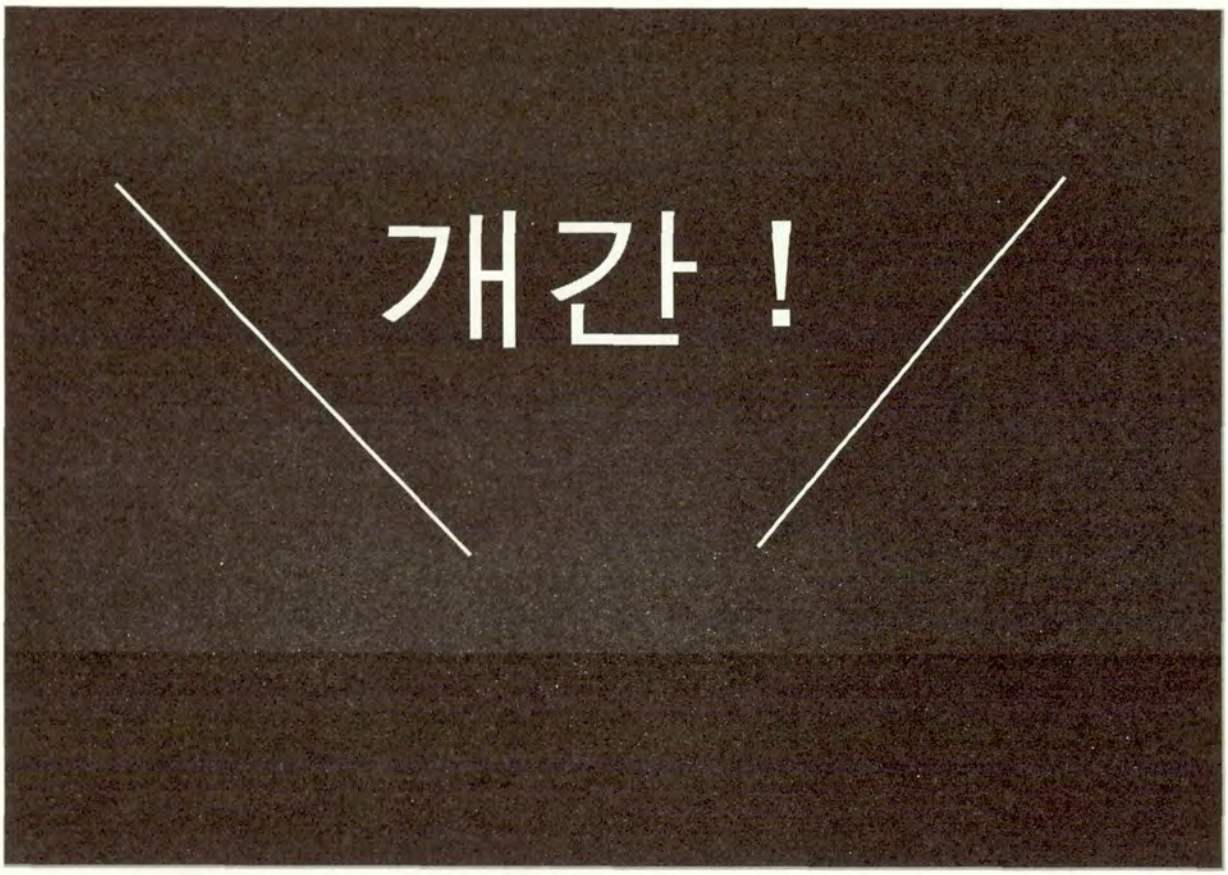

총무성 심포지움에서도
개간 모리모리~!


농수성에서
개간 모리모리~!(^^)!


자민당 국회의원도 함께
개간 모리모리~(^_^)v


고이즈미 지방 창생정무관과
개간 모리모리~!(^^)!


안 저사님과도 개간 모리모리~


개간 !


모리! 모리!

감사합니다!

저자: 소네하라 히사시 (曽根原久司)

- **1961**년 나가노현 출생. **NPO**법인 '에가오쓰나게테' 대표이사. 내각부**(内閣府)** 지역활성화전도사. 야마나시현립 농업대학교강사. 야마나시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협의회장. 대학교 졸업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악활동에 열중. 그 후 기획회사, 컨설팅 회사 등에서 근무, **4**년후 독립. 은행 등의 경영지도를 통해 일본의 미래에 위기감을 느끼고 **再生** 모델을 창조하기 위해 도쿄에서 야마나시현으로 이주. **2001**년 **NPO**법인 '에가오쓰나게테' 설립. 대표로서 '마을, 사람, **時代** 만들기'를 컨셉으로 농업을 중심으로한 도시농촌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저서로 '**日本**의 농촌은 보물산'(**日本**경제신문출판사)이 있다.

소자녀 고령화의 제일선
아키타현 고조메마치의 대처

아키타현 사토 요시히코 의원

소자녀 고령화의 제일선
아키타현 고조메마치의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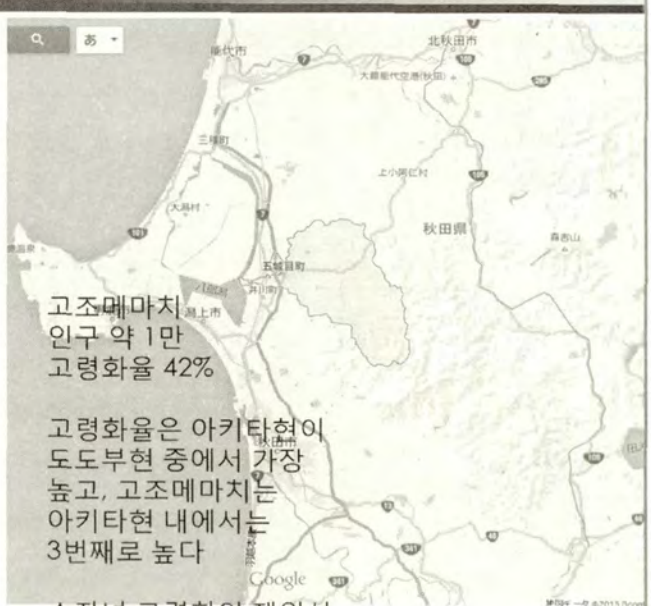
메이지 대학 전문직 대학원 거버넌스 연구과 11.5기
고조메마치 의회 의원 사토 요시히코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1

아키타현 고조메마치는





고조메마치
인구 약 1만
고령화율 42%

고령화율은 아키타현이
도도부현 중에서 가장
높고, 고조메마치는
아키타현 내에서는
3번째로 높다

소자녀 고령화의 제일선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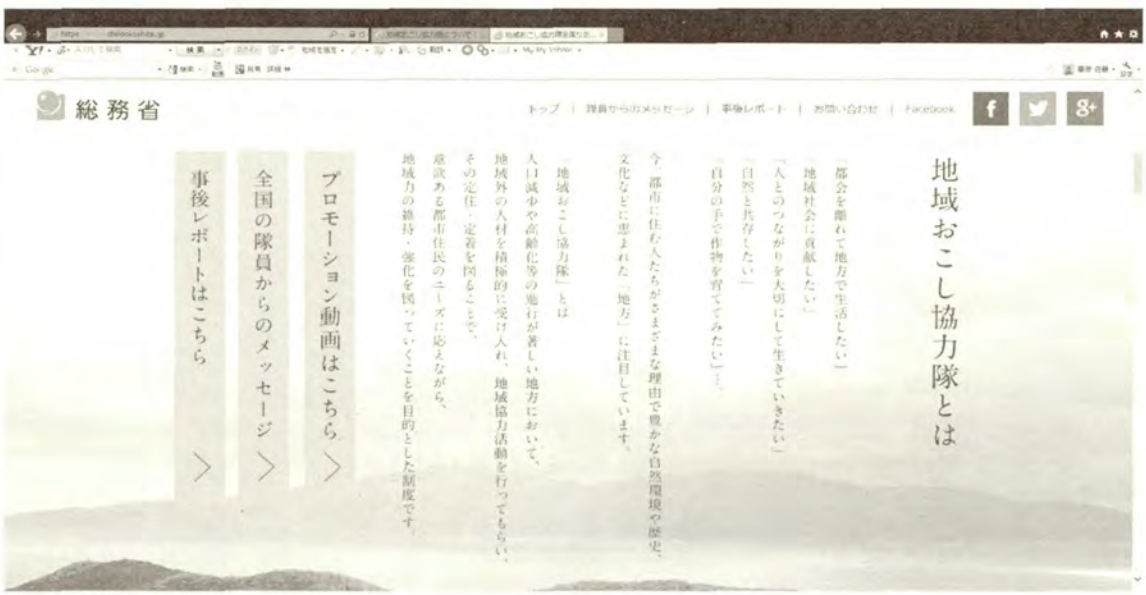
2

5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조메마치 새벽 시장
인구 감소·소자녀 고령화로 산적한 마을의 과제

매월　0, 2, 5, 7이 붙는 날에 개최



총무성의 지역 부흥 협력대 제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가 많아지고 있다



도쿄도 치요다구와 자매 결연을 맺고 도시와 접점이 있던 마을은 지역 부흥 협력대 제도를 활용

地域おこし協力隊について

地域おこし協力隊とは

○**制度概要**：都市地域から過疎地域等の条件不利地域に住民票を移動し、生活の拠点を移した者を、地方公共団体が「地域おこし協力隊員」として委嘱。隊員は、一定期間、地域に居住して、地域ブランドや地場産品の開発・販売・ＰＲ等の地域おこしの支援や、農林水産業への従事、住民の生活支援などの「地域協力活動」を行いながら、その地域への定住・定着を図る取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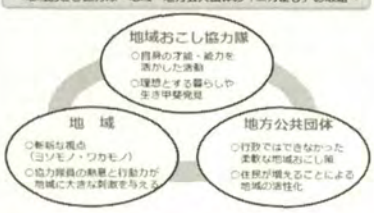


○**実施主体**：地方公共団体

○**活動期間**：概ね１年以上３年以下

○**総務省の支援**：概ね次に掲げる経費について、特別交付税により財政支援
①地域おこし協力隊員の募集等に要する経費：１団体あたり200万円上限
②地域おこし協力隊員の活動に要する経費：隊員１人あたり400万円上限
（報償費等200万円(※)、その他の経費(活動旅費、作業道具等の消耗品費、関係者間の調整などに要する事務的な経費、定住に向けた研修等の経費など) 200万円）
※ 平成27年度から、隊員のスキルや地理的条件等を考慮した上で最大250万円まで支給可能とするよう弾力化することとしている（隊員１人当たり400万円の上限は変更しない。）
③地域おこし協力隊員等の起業に要する経費：最終年次又は任期終了翌年の起業する者１人あたり100万円上限

地域おこし協力隊導入の効果
～地域おこし協力隊・地域・地方公共団体の「三方よし」の取組～



隊員数、取組団体数の推移　⇒隊員数を28年度までに3,000人に！

	21年度	22年度	23年度	24年度	25年度	26年度
隊員数	89名	257名	413名	617名	978名	1,511名 (1,629名)
団体数	31団体	90団体	147団体	207団体	316団体	444団体

※各年度の特別交付税ベース
※26年度の隊員数のカッコ内は、名称を統一する「田舎で働き隊」の隊員数（118名）とあわせた隊員数である。

隊員の約４割は女性

隊員の約８割が20歳代と30歳代

任期終了後、約６割が同じ地域に定住
※H25.6末調査時点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5



설립된 지 12년 만에 폐교, 폐교되기에는 아까운 새 시설
인큐베이션 시설로서 활용
지역 부흥 협력대의 거점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7

장소는 다름아닌 농산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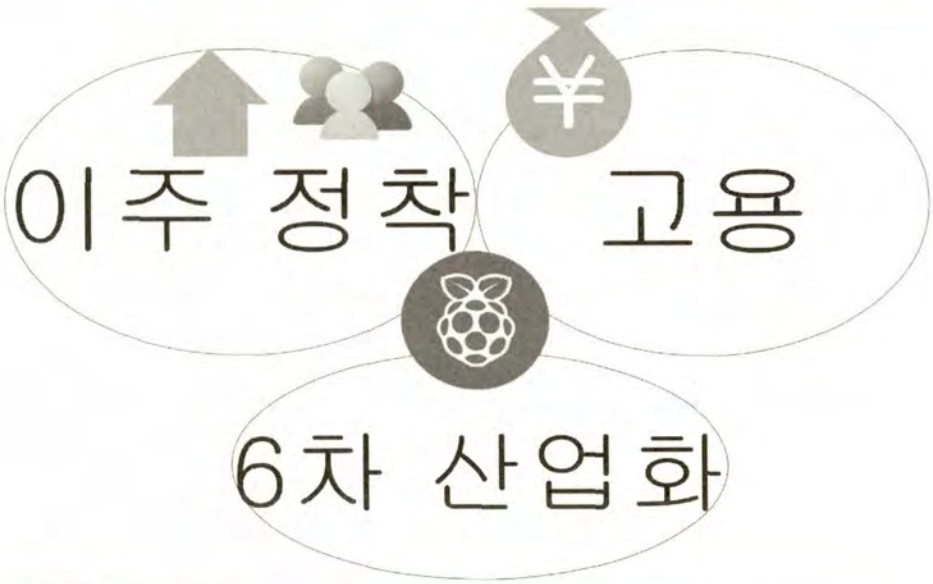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8

협력대의 목적과 활동



마을의 보물・새 지붕의 옛 민가를 발굴

·고조메마치 바바메의 새 지붕 옛 민가. 1882년에 건축되어 132년이 경과했다(현재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상태는 양호. 단, 새 지붕과 상하수도 보수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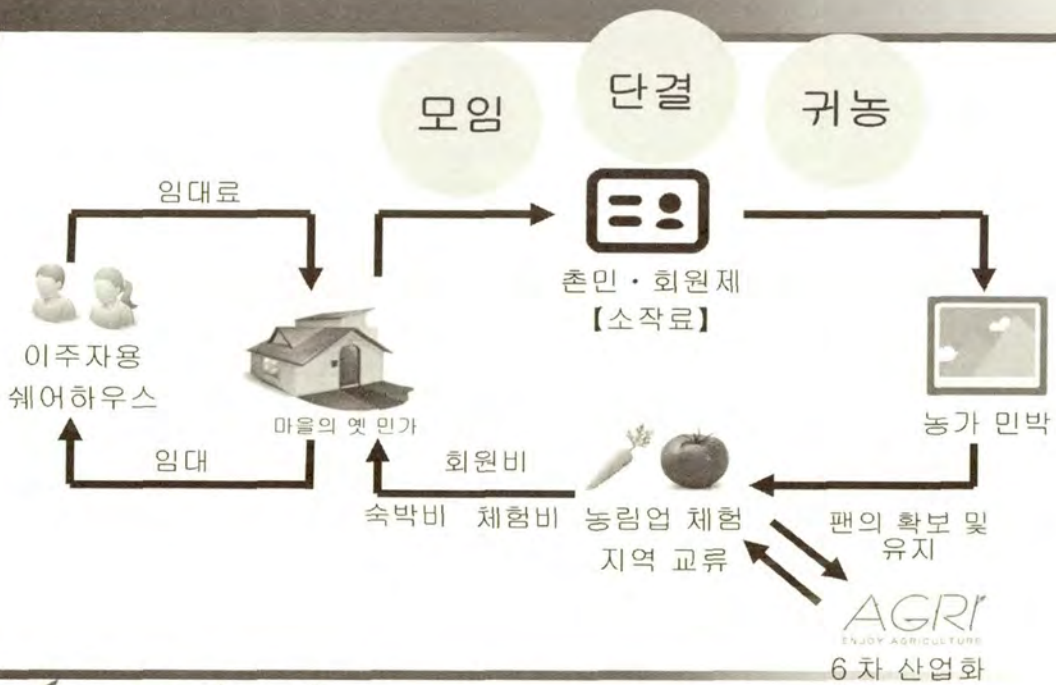
·소유자의 연령도 고령이고 향후의 유지 비용과 수고를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구입자를 찾고 있었다. 구입자가 없는 경우, 해체될 예정이었다.

·아키타가 자랑하는 이 옛 민가를 향후 100년의 미래로 연결하기 위해 유지비를 포함한 지속적인 활용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회원제로 운용<촌민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5,717,000엔)

SHAREVILLAGE 열림 축제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여름 축제에 전국에서 모인 촌민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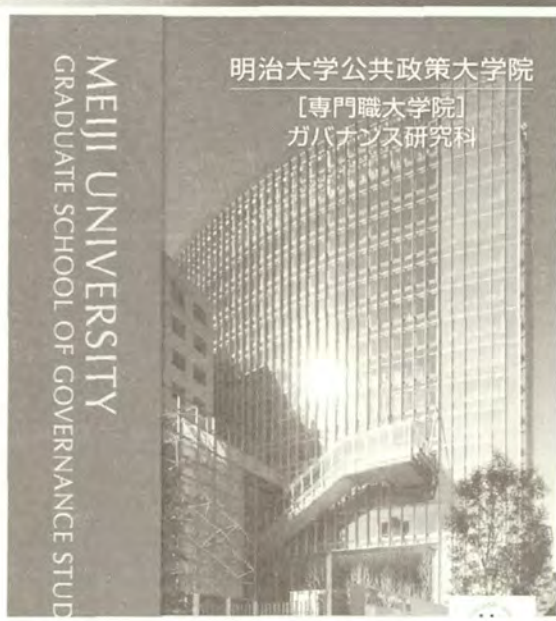
도호쿠 지방의 협력대 관계자가 집결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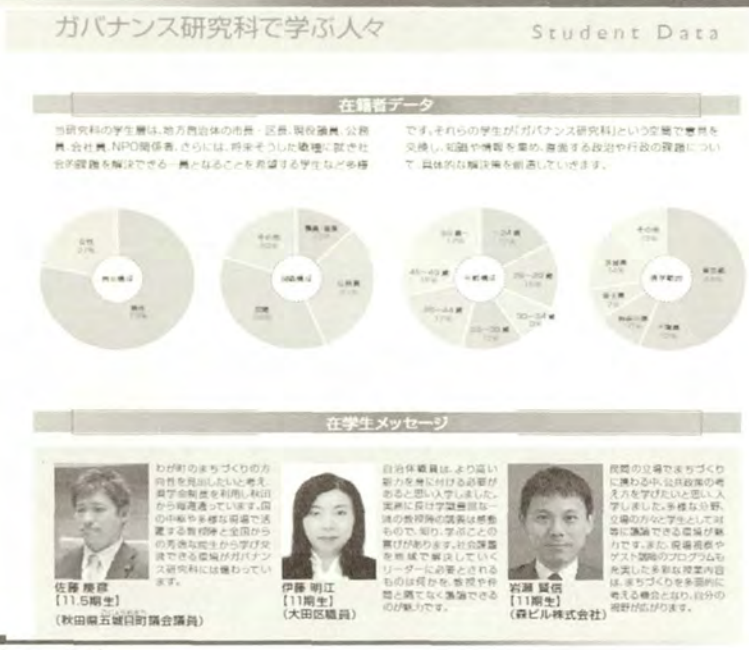
이번 계기가 된 것은 메이지대학 전문직 대학원 거버넌스 연구과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16

현직 정치가가 가장 많이 다니는 대학원



현장 탐방 (도쿄도 아라카와구 내의 초등학교)



현장 탐방 (도쿄도 우미노모리 공원)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19

소자녀 고령화의 제일선 아키타현 고조메마치의 대책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사람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메이지대학 전문직 대학원 거버넌스 연구과 11.5기
고조메마치의회 의원　사토 요시히코



일본주・一白水成



다마고나베(다마고 찌게)

明治大学 MEIJI UNIVERSITY MUGs²

20

일본의 지방 정책 현황과 과제

동경도 후루사토회귀센터 가사미 카즈오 사무국장

일본에서의 농촌 이주 현황과 과제

2015. 9. 15

NPO 후루사토 회귀 지원 센터　　부사무국장
가사미 가즈오(嵩 和雄)

2014.5 일본창생회의 인구 감소 문제 연구회 보고(마스다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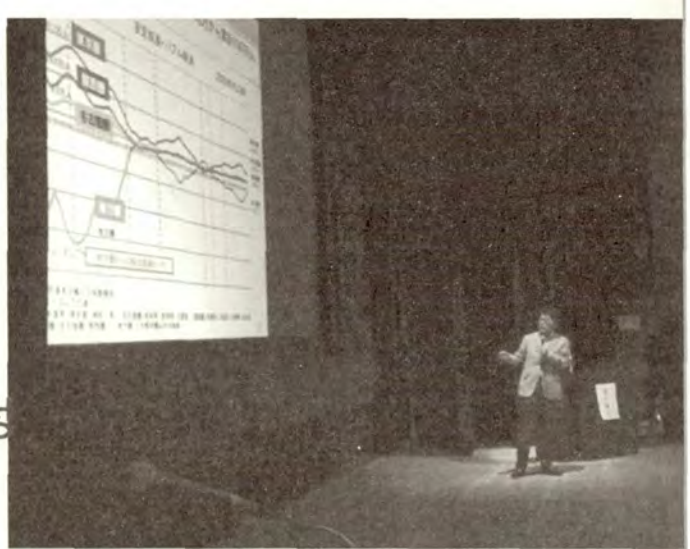
2040년에 전국의 896
지자체가 소멸될 가능성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본부의 기동

↓

지방판 종합 전략의 책정
(교부금과 세트)



2006년 3월의 아사히 신문 기사

'단카이' 700만 명, 쟁탈전 긴축 예산 각 현의 지혜

단카이 세대(1946~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는 2007년을 맞아 대부분의 도도부현이 2006년도 예산에 '유치'를 위한 신 기획을 표명했다.
인구 감소에 고민하는 지자체는 전원생활 체험 투어나 취업 지원책을 내세워 이주를 통한 현지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도시부에서도 기능을 보유한 퇴직자의 재취직 알선에 주력한다.
긴축형 예산이 눈에 띄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약700만 명에 이르는 단카이세대 퇴직자의 쟁탈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중략~>

(아사히 신문 2006년 3월 19일)

이른바 2007년 문제
(단카이의 지방 회귀)

都道府県の新年度予算、団塊世代対策の主な事例

青森	5泊6日の田舎暮らしセミナーや実地体験	1475 (万円)
岩手	移住者と意見交換し、岩手の魅力をネットなどで発信	300
福島	移住や長期滞在希望者への相談窓口を東京に開設	1202
愛知	退職した熟練技能士を登録し、中小企業に派遣	482
島根	移住希望者に無料職業紹介や住居あっせん、就農研修	3850
山口	自治体の定住支援策などを紹介するハンドブック作成	500
香川	団塊世代をターゲットに旅行会社と旅行商品の開発	1000
愛媛	就農希望者への体験イベントや相談会を開催	1160
佐賀	就職移住の窓口設置。県外からの移住者の創業に助成	4745
大分	都市の団塊世代をターゲットに定住希望者に情報提供	565

농촌 이주 지향의 변천

현역 세대 귀농의 흐름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

현역 세대의 전원 생활

정년연장 후의 대량 퇴직

년대	특징	시대 배경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학생 운동이나 히피 운동의 영향으로 의한 농산촌에서의 공동체 형성	■인구 지방 환류·유기 농업 운동
	○지방 출신자의 U턴 동향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	○리조트 등에서의 탈 샐러리맨·펜션 경영	■버블 경제와 리조트 붐
	○전원생활 관련 서적의 발간(『전원생활의 책』 다카라지마사 1987년)	
1990년대 후반	○풍요로운 경제력을 배경으로 '정신적인 풍요'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이주 (Amenity Movers)	■버블 붕괴와 컨트리 라이프
	○'신·농업인 페어'의 개시(1997년)	
	○중노년의 제2의 인생(『정년 귀농』 농문협, 1998년)	
2000년대 전반	○NPO 법인 후루사토 회귀 지원 센터의 설립(2002)	■자연 지향과 로하스 붐
	○단카이세대의 대량 퇴직(2007년 문제)에의 대응 ⇒정년연장으로 문제를 해결	
2000년대 후반	○젊은이의 농촌 회귀(『젊은이는 왜 농산촌으로 향하는가』 농문협, 2005년)	■리먼쇼크/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
	○프런티어로서의 농산촌에 대한 관심(고향 일꾼대(2008년), 지역 부흥 협력대(2009년) 등의 시책 개시)	
2011년 이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동일본 대지진과 그 후의 사회 변화
	○정년 연장 후의 대량 퇴직(2012년 문제)	

- 현역 세대의 이주 과제 : 일자리의 확보
  - ○ 2000년대 후반 : 농산촌의 다면적 기능에 주목.
  - ○ '농업' 지향에서 '전원 생활'지향 현역 세대 이주의 출현

4

후루사토 회귀 지원 센터의 활동

후루사토(고향) 생활 정보 센터(도쿄·오사카)의 설치

'전원 생활 세미나' 등의 이벤트 개최와 함께 상담 코너를 설치하여 내방자의 상담에도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원 지자체의 정보를 폭넓게 소개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센터를 방문하면 일본 전국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루사토 생활 정보 센터·도쿄
유라쿠초 : 도쿄교통회관 내



후루사토 생활 정보 센터·오사카
혼초 : 시티플라자오사카 내

후루사토 회귀 지원 센터에 대해

전원 생활을 희망하는 생활자가 증가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2002년 11월, 전국의 소비자 단체, 노동조합, 농림 어업 단체, 경영 단체, 민간 단체와 뜻있는 사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NPO 법인 '후루사토 회귀 지원 센터'를 설립.



고향 회귀 지원 센터의 안내





유라쿠초 마르셰













【장소】도쿄교통회관 5·6층

·유라쿠초역에서 도보 1분
·역 이용자 수 : 162,252명/일
<주변 환경>
·유라쿠초 마르셰의 실시
·근린 전국 각지의 안테나 숍이 근린에 위치하여 고향·지방의 음식 등에 관심이 있는 층도 모이기 쉽다.

후루사토 회귀 지원 센터의 활동

이주 상담원에 의한 개별 상담 (화요~일요) 2015년 4월~

도쿄(정직원 6명, 현 전속 직원 31명(현 직원 배치 : 와카야마현·히로시마현))
※ 예약 없이 상담 가능.







전원생활 세미나(각 지자체가 주최 : 연간 약136회의 개최)
※ 선배 이주자에 의한 체험담 등의 세미나,
담당 직원에 의한 개별 상담, 그 밖의 귀농·취업·주택 관련 상담도 실시







격화하는 지역 간 경쟁
(이주자 쟁탈전)

2015년 4월부터 후로사토 회귀 지원 센터도 확대

상담 창구 설치 : 12현 1시
전속 상담원 배치 : 27현 1시
전시 패널 부스 설치 : 34현 6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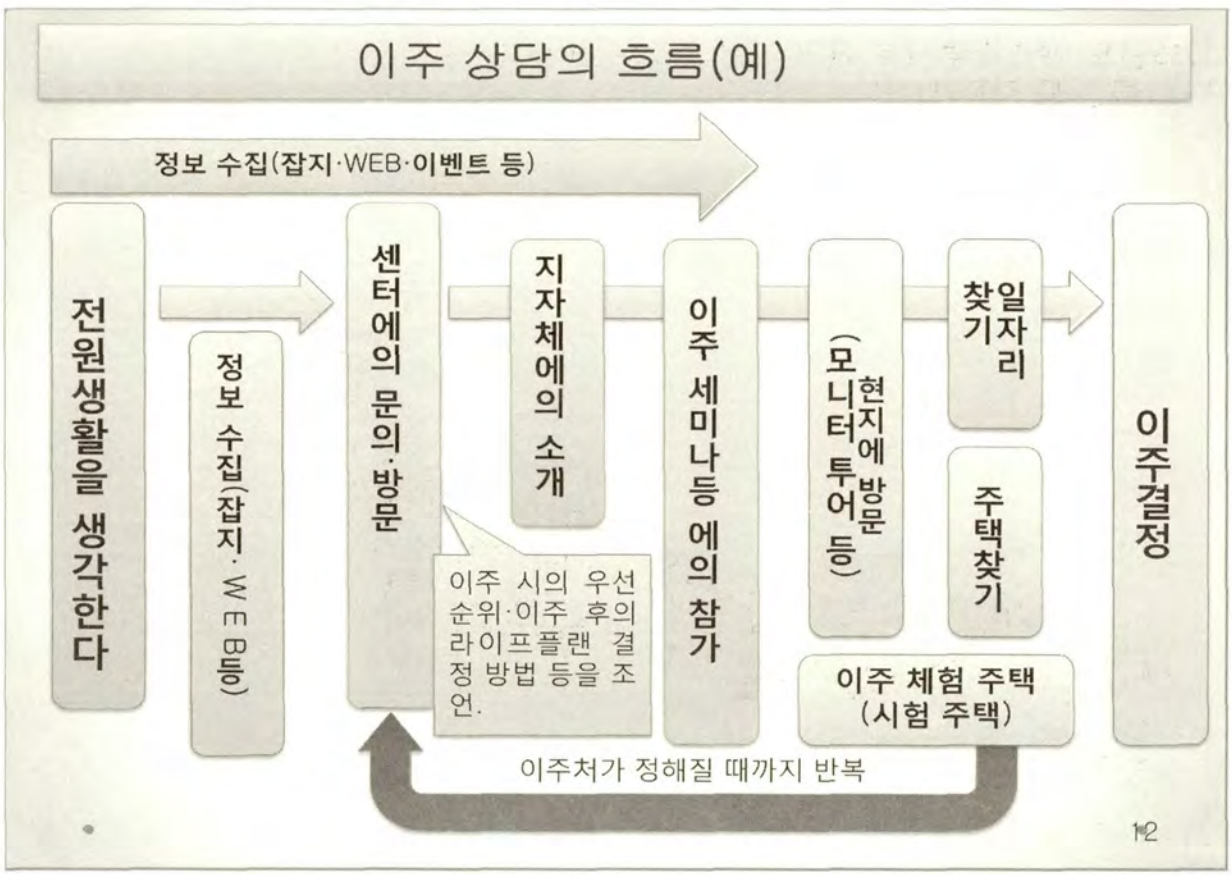
요구되는 생활자 시점의 지역 정보
(생활 정보)
선배 이주자의 생활 모습
(라이프스타일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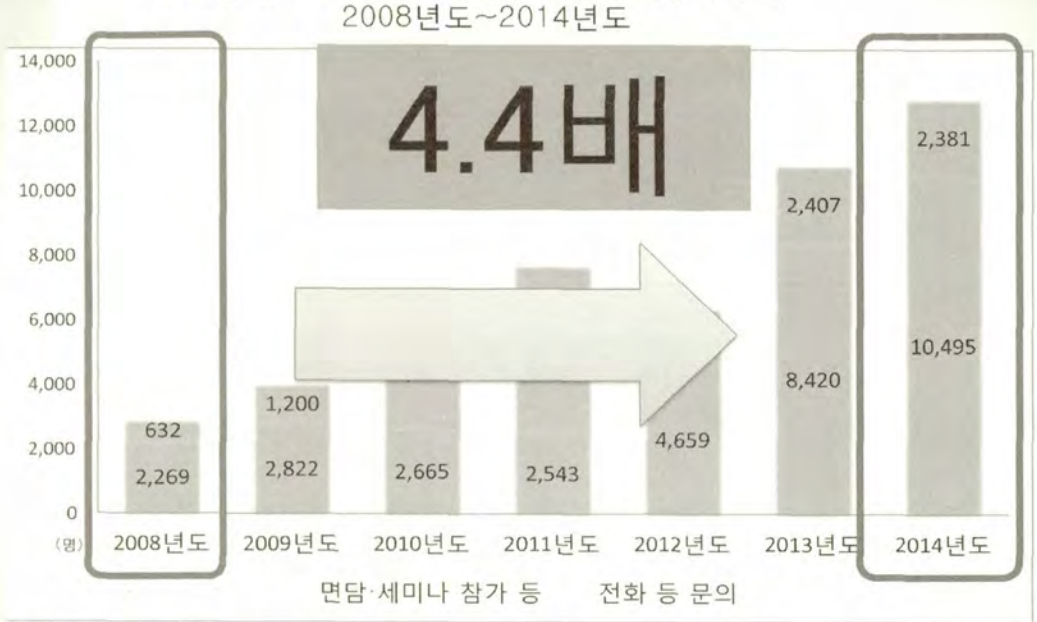
2015년도 NPO 후루사토 회귀 지원 센터(도쿄 오피스)
부스 출전 등 지자체(현)




후루사토 회귀 페어
작년은 220 지자체, 14,000명의 참가
금년도는 9월 13일에 개최(도쿄)
280지자체, 47 도도부현에서 참가
第10回 ふるさと回帰フェア 2014


이주 상담의 흐름(예)
정보 수집(잡지·WEB·이벤트 등)
전원생활을 생각한다
정보 수집(잡지·WEB등)
센터에의 문의·방문
이주 시의 우선 순위·이주 후의 라이프플랜 결정 방법 등을 조언.
지자체에의 소개
이주 세미나등 에의 참가
현지에 방문 (모니터 투어 등)
일자리 찾기
주택찾기
이주 체험 주택 (시험 주택)
이주결정
이주처가 정해질 때까지 반복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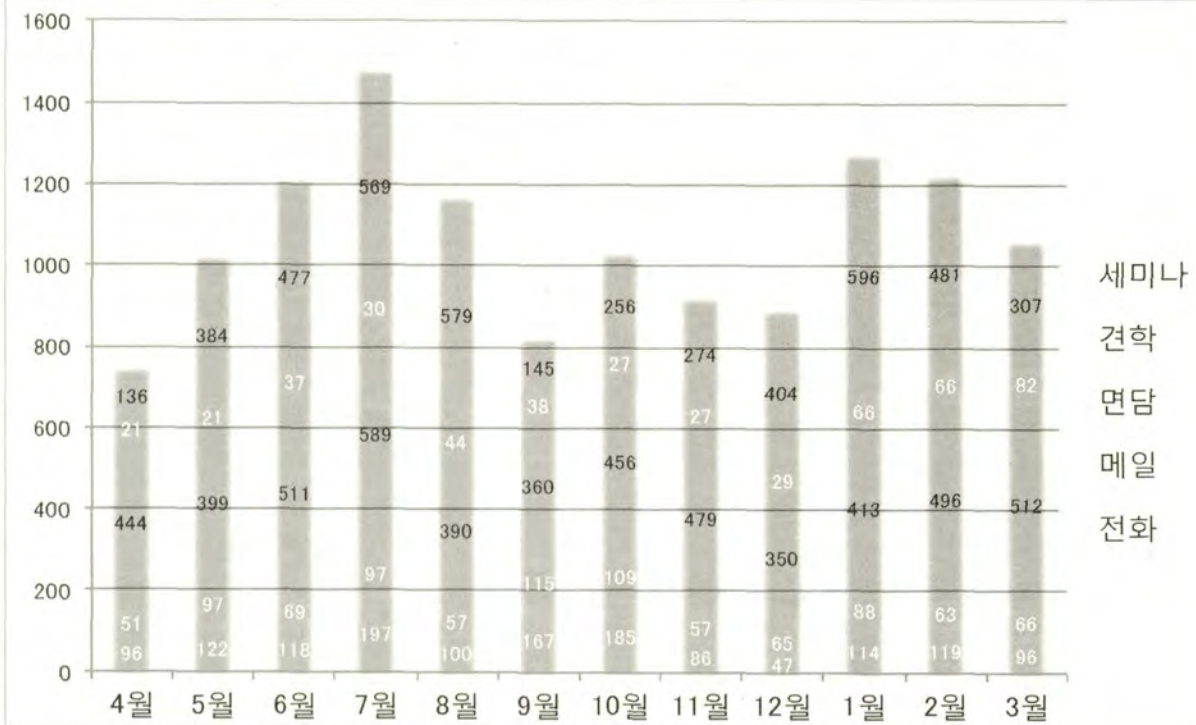
【연도별】후루사토 회귀 지원 센터 문의·내방자 추이
2008년도~201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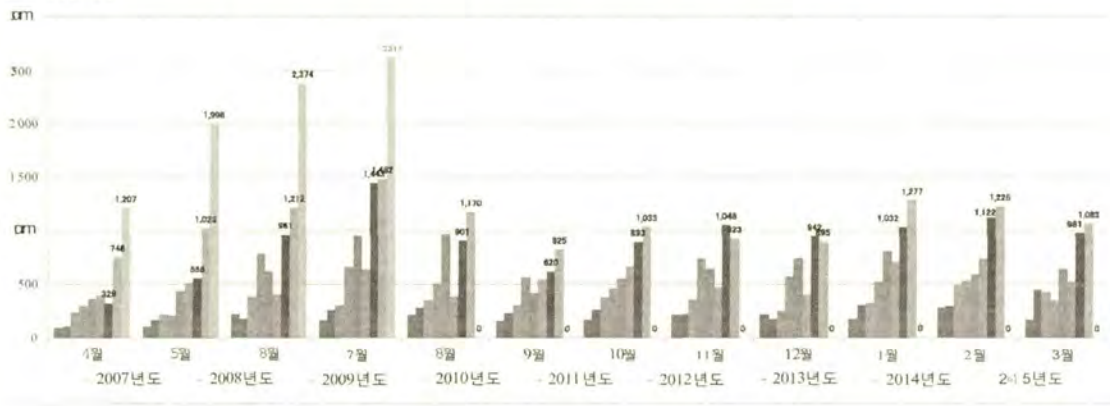
※ 2010년도, 2011년도의 전화 등 문의 증가는 내각부 보조사업
(6차산업 창업 지원 사업)에의 엔트리·문의 수 포함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면담·세미나 참가 등	2,269	2,822	2,665	2,543	4,659	8,420	10,495
전화 등 문의	632	1,200	3,502	5,173	1,706	2,407	2,381
합계	2,901	4,022	6,167	7,716	6,365	10,827	12,876

내방·문의 수 추이(도쿄 : 2014년도/월차)



도쿄 정보 센터 문의 건수 추이[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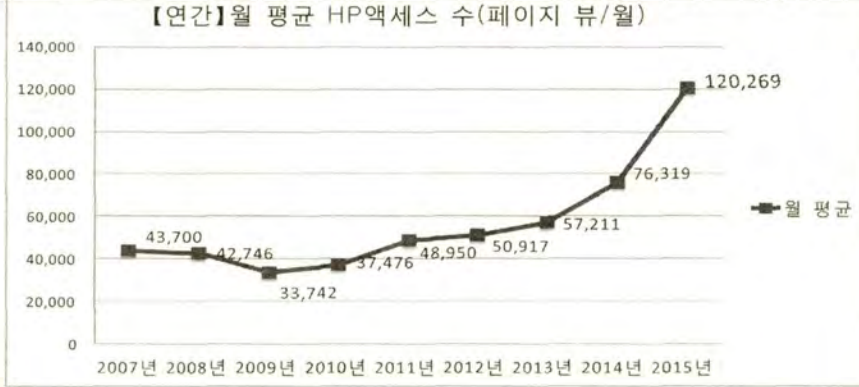


NPO 후루사토 회귀 지원 센터 HP액세스 수 (페이지 뷰)

【2015년은 7월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월	44,095	38,261	カウントエラ	15,652	60,862	30,593	46,933	70,080	84,374
2월	51,773	35,269	33,991	16,758	49,202	29,620	44,798	61,895	118,543
3월	36,029	35,118	133,479	15,796	45,462	26,347	35,631	48,935	108,840
4월	38,010	34,715	26,525	20,298	33,836	48,464	42,750	58,098	111,072
5월	44,645	35,171	24,984	22,927	40,126	44,937	48,627	67,267	128,473
6월	47,214	39,345	22,162	40,672	66,601	50,079	59,797	69,192	144,353
7월	42,542	39,973	34,054	73,157	72,059	63,465	55,312	71,424	146,227
8월	42,453	61,487	22,422	46,842	75,111	72,038	86,190	89,802	
9월	62,166	82,643	28,193	51,785	53,925	99,768	106,116	135,806	
10월	46,100	41,007	17,891	46,118	38,027	59,425	57,829	107,607	
11월	39,308	39,308	14,444	43,140	27,626	48,499	52,985	74,562	
12월	30,070	30,653	13,012	56,565	24,558	37,772	49,563	61,164	
월평균	43,700	42,746	33,742	37,476	48,950	50,917	57,211	76,319	120,269
일평균	1,437	1,405	1,111	1,232	1,609	1,669	1,881	2,509	3,971
연간합계	524,405	512,950	371,157	449,710	587,395	611,007	686,531	915,832	841,882

【연간】월 평균 HP액세스 수(페이지 뷰/월)




NEWS
“地方移住„ 若い世代で高まる関心
HITACHI


Biz SUNDAY
明日のための
経済情報
移住者を呼び込め
高知県の戦略
野村総合研究所 顧問
増田 寛也さん
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 副事務局長
嵩(かさま) 和雄さん
HITACHI

동일본대지진 전까지의 이주 동향

리먼쇼크 이전

· 2007년 문제

○ 단카이세대를 중심의 전원생활(유유자적)

• 2006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의 개정 시행

○ 2007년 대량 퇴직이 5년 연장

리먼쇼크 이후

●젊은 층의 증가

20대 후반부터 30대 독신층의 전원생활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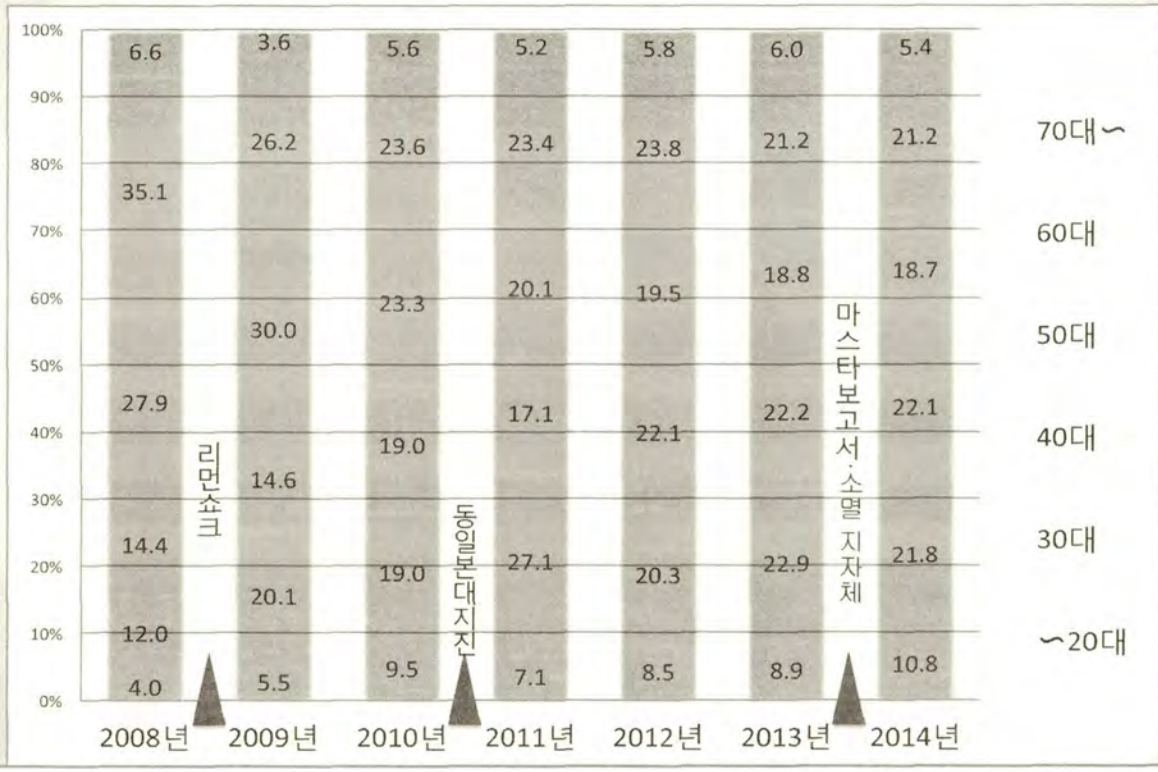
· 소극적 선택과 가치관의 변용

❖정부의 시책…보조금에서 보조인(인적 지원으로)

■고향 일꾼대!(농수성), 지역 부흥 협력대 (총무성) 등(경제 대책의 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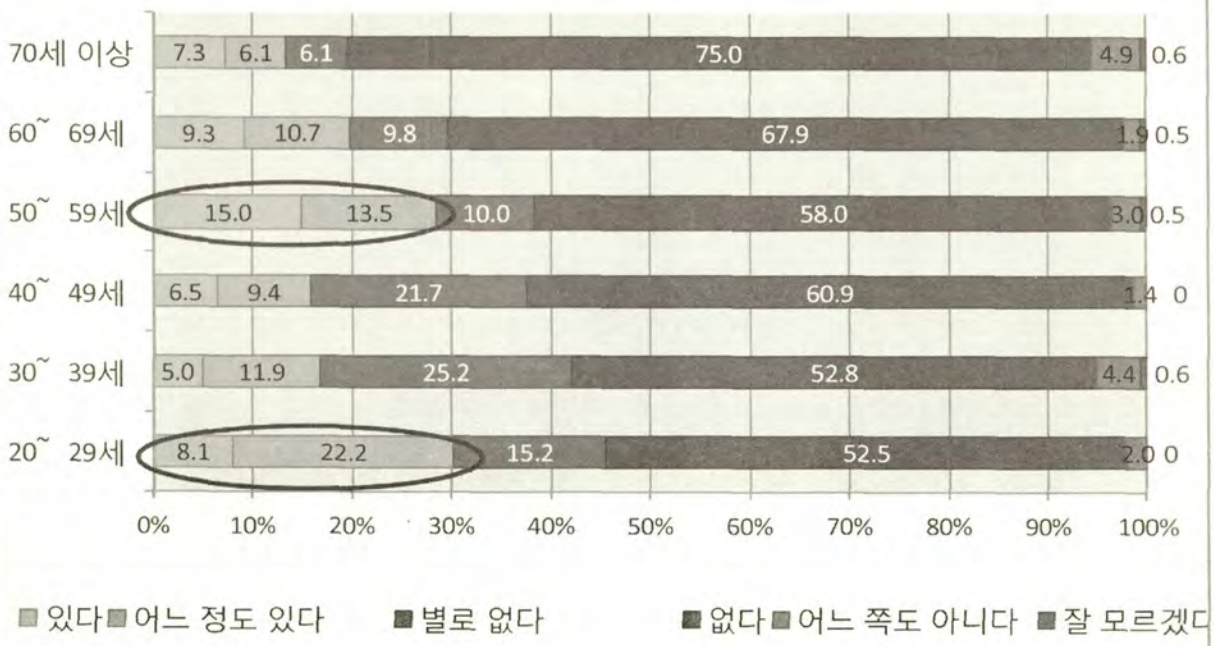
19

【연도별】 센터 이용자의 연대 추이(도쿄 : 2008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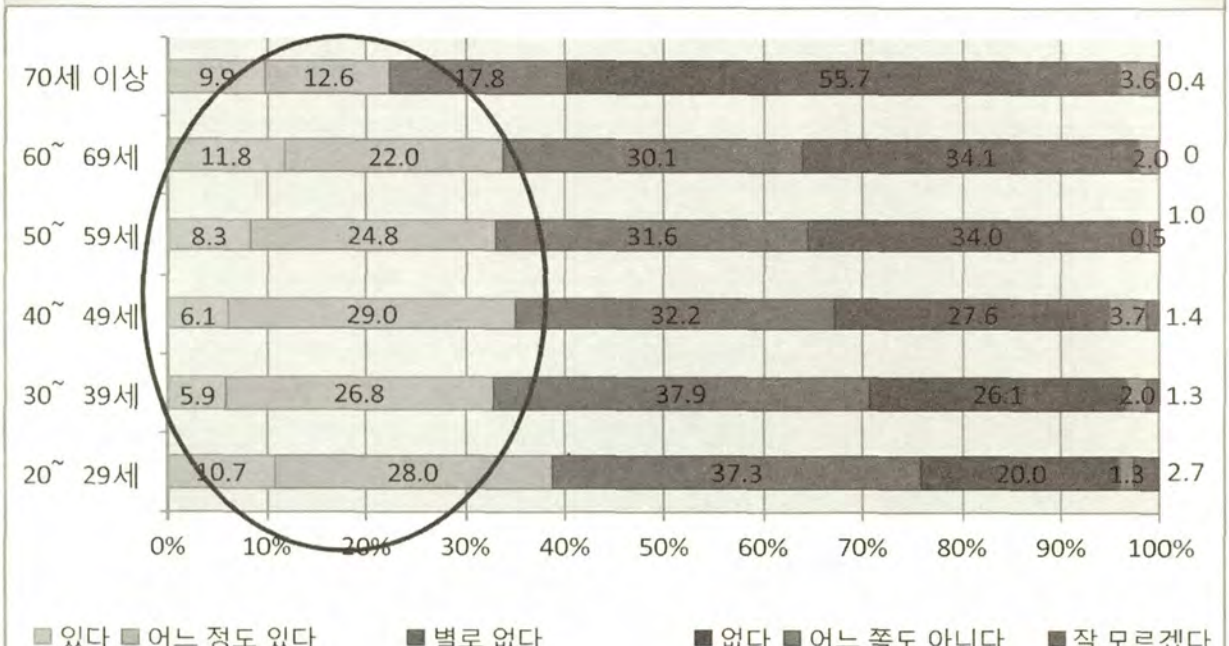
농산어촌에 대한 정주 욕구 유무(세대별 : 2005)

내각부 여론 조사



농산어촌에 대한 정주 욕구 유무(세대별:2014)

내각부 여론 조사




'전문지에서 일반잡지로' 근년은 젊은 층이 대상
2012~
젊은 층
TURNS
住むなら、地方がおもしろい!
ソトコト 12
日本列島移住計画
BRUTUS
あたらしいふるさとを、見つける旅
美しき村へ。
季刊地域
空き家を宝に
전문
일반
1987~
いなか暮らしの本
200万円の売家、年5万円の賃家も!
古民家物件100
北海道・温泉
田園回帰の時代
遊居人
人生を我がままに生きる
自遊人
移住という選択肢
중고년
23


橋本環奈
プレイボーイ weekly
開幕直前「プロ野球記者」覆面座談会
浅田舞
柳ゆり菜
佐藤麗奈
AKB48 チーム8
松岡ちな
会いに行けるAV女優
乃木坂46物語
移住者は4年で2.9倍に!
"田舎で暮らす"という選択の"光と影"を徹底分析!!
2015年、地方移住はアリかナシか!?

3.11 이후의 키워드 '안전·안심'

가족의 상담 증가

- **육아 환경을 중시**
  - ㅇ 야마나시현 하야카와초 : 의무 교육 경비 무상화
  - ㅇ 돗토리현 : '육아 왕국'
    - 치즈초 : '숲 속 유치원'
- **안전한 환경**
  - ㅇ 지진·해일의 불안·원자력 발전의 불
    - 세토우치 지역의 상담이 증가



이런 책까지 편의점에서 발매

25

농산촌 이주·정착의 과제

이주·정착을 저해하는 3가지 과제

- **일자리 문제**
  - 일자리가 적다…희망 직종과의 불일치
  - 수입이 감소…도시부와의 수입 격차
- **주거 문제**
  - 임대 주택이 적다…빈 집이 별로 없다
- **수용 체제의 문제**
  - 지역 주민의 의식…타 지역인에 대한 불안
  - 행정에만 의존…자신과 상관 없는 일

26

다업(복업)에 의한 일자리의 창출



미즈가키 다이치씨(오카야마현 미사쿠시·
전 지역 부흥 협력 대원)

5가지 일 (농업 + 주말 카페 + 고령자 돌봄 + NPO 업무 + 그 밖의 여러 가지(강연 등))을 합하여 한 달에 25만 엔의 수입 확보를 목표로 한다
…리스크 분산과 네트워크 구축



다업(복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타 지역 사람 × 지역 과제 해결

헌터 민박 BA-BAR
돗토리현 돗토리시 우메노 도모코씨

나카야마 간 지역의 과제인
'야생동물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학생 시절에 취득한 수렵 면허를 활용하여 '헌터 민박'으로 일자리 창출.
NPO 직원과 겸업






2012年11月06日 日本海新聞
女性ハンターが民宿開業
河原「BA-BAR」
若手養成に貢献したい

이주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

- **고용에서 창업으로… 지속 가능성**
- **사업 승계를 이주자에게**

예) 시마네현 아마초에 이주한 미야자키씨, 해삼 가공으로 일을 지속, ㈜다지야마를 설립.







➢ 수년의 **도제 수련**이 필수?
・・・지역 부흥 협력대 제도로 운용 가능?

예) 아오모리현 다코마치의 대장간 후계자

정부도 사업 승계를 지원





농촌의 '빈 집' 현황

농촌의 빈 집 증가

	빈 집 수 (만 호)	빈 집 비율 (%)
1980년	130	7
2000년	300	11
2020년	460	18

출처) 주택·토지 조사
2020년은 다마다 '겸업·겸주거의 권유'
(도요경제신보사) 2006년

'빈 집 대책 조례 (적정 관리 조례)' 제정 지자체

2012년 4월···31지자체
↓
2013년 4월···211지자체
↓
2014년 4월···355지자체
(행정 집행을 제정 : 177지자체)

「空き家対策推進議員連盟」設立趣意書

空き家問題は、今日、過疎化、少子高齢化が急速に進む中で、農山漁村ばかりでなく都市地域においても日増しに深刻化している。

何故なら、空き家は、全国で実に７５７万戸（総住宅数の１３%. 総務省調査 平成２０年）に達し、管理不十分な空き家の増大は、地域の健全な発展にとって、防災・防火・防犯・衛生・環境など様々な点で多大な問題を惹起しているからである。

このため、市町村レベルで条例を制定して空き家の撤去など適正な管理確保に取り組む動きも広がっているが、種々制約も多く、今や、国レベルで積極的かつ計画的にこの問題に対処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しかるに、この問題は国交省・総務省・農水省・厚労省・環境省など各省庁にまたがる難しい問題である。

したがって、こうした地域の実情に精通している議員有志が、その情報や知見、経験を結集して総合的な視点から対策を検討し、議員立法を含めて有効・適切な措置を打ち出すべく、「空き家対策推進議員連盟」を結成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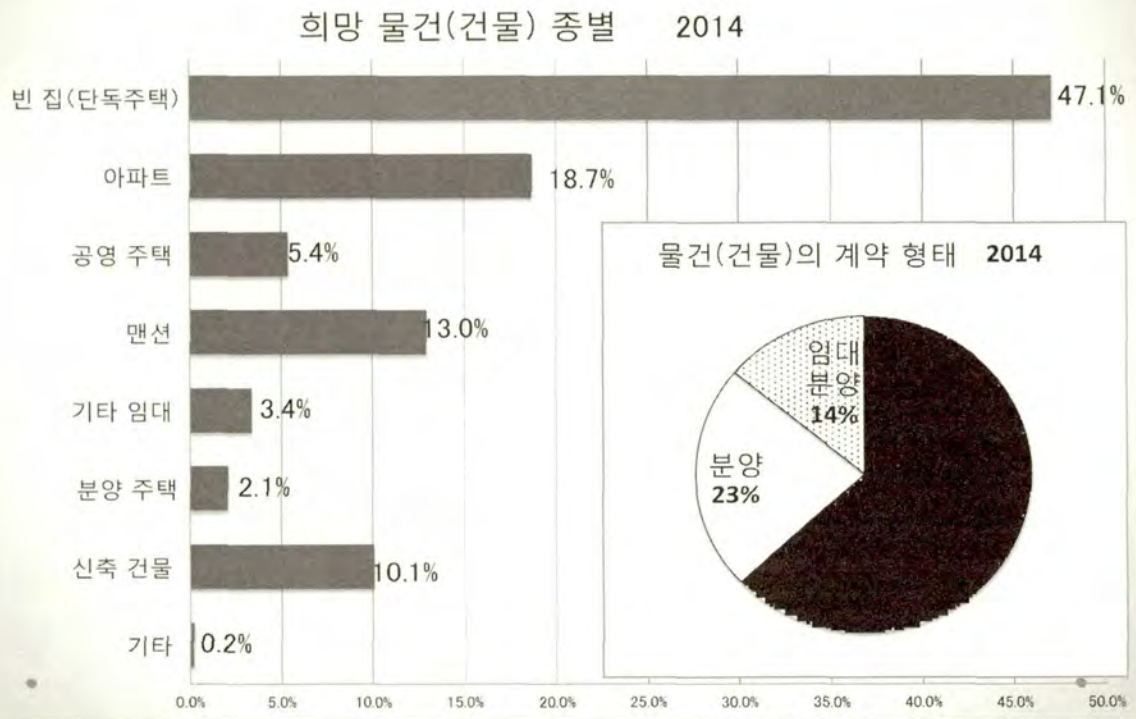
'빈 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11/19성립

- 국가가 기본 지침을 책정.
- 시읍면은 국가의 기본 지침에 따라 빈 집 등 대책 계획을 책정하여 협의회를 설치
- 도도부현은 시읍면에 기술적인 조언, 시읍면 상호간의 연락 조정 등 필요한 원조를 실시한다.
- 시읍면은 법률에 규정된 한도에서 **빈 집 등에 대한 실제 조사가 가능**. 거부 시의 벌칙 :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
- 시읍면은 빈 집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정자산세 정보의 내부 이용이 가능**
- 빈 집을 자주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고정자산세의 경감 조치 도입
- 시읍면은 빈 집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능한 한 정비하고, 빈 집이나 부지 등의 정보 제공과 그 활용에 관한 시책을 실시한다.
- 특히 관리가 불충분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특정 빈 집**'에 대해서는 철거・수리・수목 벌채 등의 조치를 지도・조언・권고・명령이 가능. **거부 시의 벌칙 :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

32

이주자의 니즈는 임대 가능한 빈 단독주택



농촌의 빈 집 과제

이주자의 빈 집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 모르는 사람에게 빈 집을 제공하는데 불안을 느끼는 소유자도 많다.
- 친족의 반대,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
- 리폼 등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지?
- 빌려 주었다가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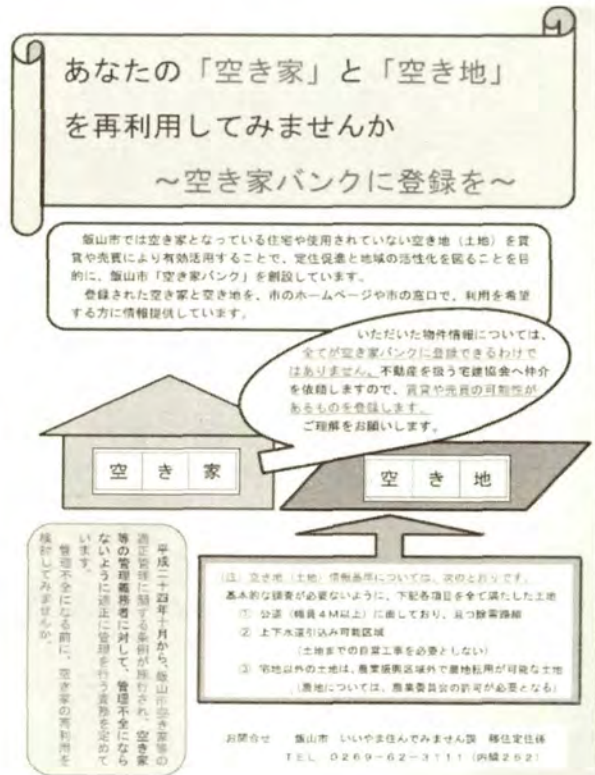
- **농산촌의 빈 집은 택지 건물 거래의 번거로움에 비해 임대료가 낮아 '사업'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지자체에 의한 '빈 집 뱅크'


長野県　移住者向け空き家ポータルサイト
ログイン
楽園信州空き家バンク
402件
公開中
2015.08.19
中古住宅　288物件
貸　家　91物件
貸店舗　23物件
空き家バンクとは（利用者登録）
空き家を提供
補助金・支援制度
市町村・不動産会社を探す
空き家情報を閲覧する 利用者ログイン
ID
パスワード
ログイン
個人情報のお取扱いについて
パスワードを忘れた場合はこちら
空き家情報の閲覧には利用者登録が必要です
売りたい　貸したい
空き家情報を提供・相談する
詳しく見る
詳しくはこちら
補助金 支援制度 について
お知らせ・イベント情報 一覧
2015/8/18 イベント
【飯田市】アグリビジネス起業塾　IIDA農業女子募集中
2015/8/18 イベント 催し
10/24(土)【茅野市】焼き芋会と物件見学ツアー
信州への移住をご検討のみなさまへ
知事からのごあいさつ
こんにちは、長野県知事の阿部守一です。
長野県への移住・定住を検討されている方に住まいの情報をきめ細かく提供するため、県・市町村・（一般社団法人）長野県宅地建物取引業協会が連携協力して「楽園信州空き家バンク」を設置しました。このページでは、「家庭菜園・畑付き」「古民家風」など、皆さんの希望条件で手軽

나가노현 이야마시


【飯山市空き家等の適正管理に関する条例】
平成二十四年十月一日から施行
飯山市では、高齢化や過疎化、景気の低迷などの理由から空き家が増えており、中には倒壊の危険のある空き家も見受けられます。管理が行き届いていない空き家が放置された結果、事故が発生し、他人に損害を与えた場合は、空き家の所有者が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ような中、市では、冬シーズンの豪雪時に空き家が倒壊したことを踏まえ、空き家の所有者に適正な管理を促す「飯山市空き家等の適正管理に関する条例（以下、空き家条例）」を定め10月1日から施行します。
空き家条例は、地域の安全・安心の確保と生活環境を保全を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空き家の所有者に適正に管理する責務を定義するとともに、市民の皆様の協力を得ながら、所有者に適正な管理を促す基本的ルールを定めたものです。
「空き家条例」とは？
空き家条例は、「所有者又は管理者」と「市民」、「行政」が連携して空き家対策に取り組むため、それぞれの義務や役割を以下のように規定しています。
所有者・管理者
空き家が周囲の生活環境に影響を及ぼさないよう適正に管理すること。
市民
管理が行き届かない空き家の情報を市に提供すること。
目的
地域の安全・安心の確保及び生活環境の保全を図るため、空き家等が管理不全な状態になることを防止すること。
これで地域が安心だね！
行政
① 市民からの情報提供により、管理が行き届いていない空き家等を把握した場合は、実態調査を行うこと。
② 実態調査により、空き家等が管理不全な状態にあると認めたときは、危険空き家として認定し、管理義務者に助言・指導を行うことができる。
③ 助言・指導により改善が見られない場合は、管理義務者に対応を促すよう勧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④ 勧告により改善が見られない場合は、管理義務者に対応を促すよう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⑤ 管理義務者が正当な理由なく命令に応じない場合は、氏名・住所等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⑥ 命令を受けた管理義務者が履行しない場合は、行政が代執行を行うことができる。
⑦ 空き家等の危険が切迫している場合は、緊急安全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


あなたの「空き家」と「空き地」を再利用してみませんか
～空き家バンクに登録を～
飯山市では空き家となっている住宅や使用されていない空き地（土地）を賃貸や売買により有効活用することで、定住促進と地域の活性化を図ることを目的に、飯山市「空き家バンク」を創設しています。
登録された空き家と空き地を、市のホームページや市の窓口で、利用を希望する方に情報提供しています。
いただいた物件情報については、全てが空き家バンクに登録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不動産を扱う宅建協会へ仲介を依頼しますので、賃貸や売買の可能性があるものを登録します。
ご理解をお願いします。
空　き　家
空　き　地
平成二十四年十月から、飯山市空き家等の適正管理に関する条例が施行され、空き家等の管理義務者に対して、管理不全にならないように適正に管理を行う義務を定めています。
管理不全になる前に、空き家の有効利用を検討してみませんか。
（注）空き地（土地）情報条件については、次のとおりです。
基本的な調査が必要ないように、下記各項目を全て満たした土地
① 公道（幅員４M以上）に面しており、且つ除雪路線
② 上下水道引込み可能区域
（土地までの自費工事を必要としない）
③ 宅地以外の土地は、農業振興区域外で農地転用が可能な土地
（農地については、農業委員会の許可が必要となる）
お問合せ　飯山市　いいやま住んでみません課　移住定住係
TEL　0269-62-3111（内線262）

농촌의 '빈 집' 현황

농촌의 빈 집 증가

	빈 집 수 (만 호)	빈집 비율 (%)
1980년	130	7
2000년	300	11
2020년	460	18

출처) 주택·토지 조사
2020년은 다마디 '겸업·겸주거의 권유'
(도요경제신보사) 2006년

'빈 집 대책 조례 (적정 관리 조례)' 제정 지자체

2012년 4월···31지자체
↓
2013년 4월···211지자체
↓
2014년 4월···355지자체
(행정 집행을 제정 : 177지자체)

「空き家対策推進議員連盟」設立趣意書

空き家問題は、今日、過疎化、少子高齢化が急速に進む中で、農山漁村ばかりでなく都市地域においても日増しに深刻化している。

何故なら、空き家は、全国で実に７５７万戸（総住宅数の１３%. 総務省調査 平成２０年）に達し、管理不十分な空き家の増大は、地域の健全な発展にとって、防災・防火・防犯・衛生・環境など様々な点で多大な問題を惹起しているからである。

このため、市町村レベルで条例を制定して空き家の撤去など適正な管理確保に取り組む動きも広がっているが、種々制約も多く、今や、国レベルで積極的かつ計画的にこの問題に対処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しかるに、この問題は国交省・総務省・農水省・厚労省・環境省など各省庁にまたがる難しい問題である。

したがって、こうした地域の実情に精通している議員有志が、その情報や知見、経験を結集して総合的な視点から対策を検討し、議員立法を含めて有効・適切な措置を打ち出すべく、「空き家対策推進議員連盟」を結成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빈 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11/19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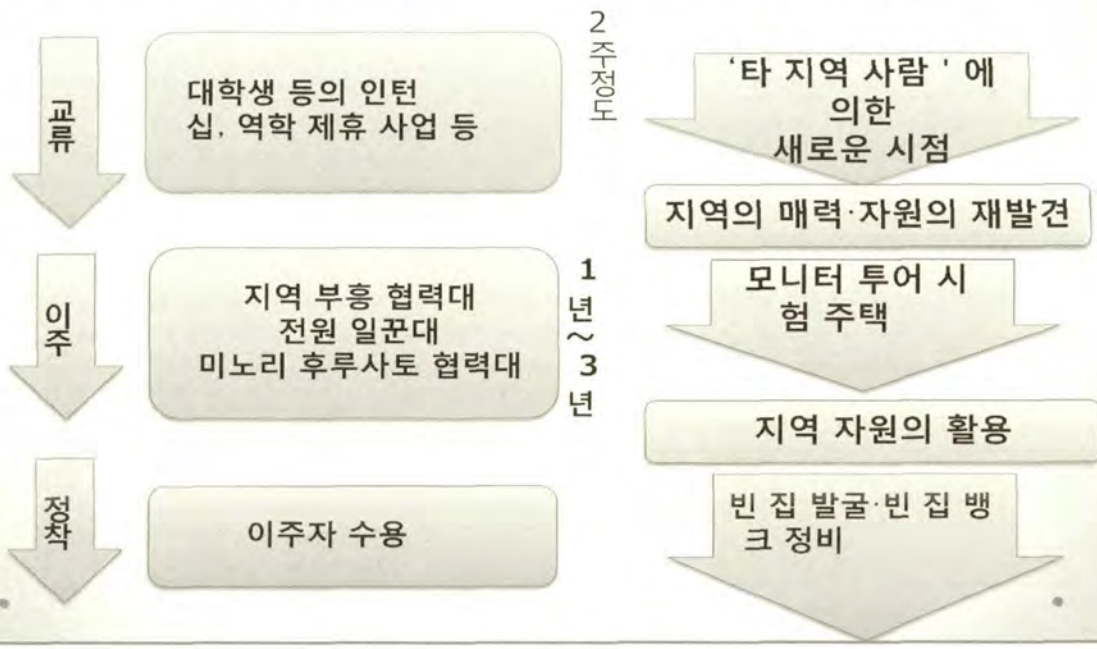
- 국가가 기본 지침을 책정.
- 시읍면은 국가의 기본 지침에 따라 빈 집 등 대책 계획을 책정하여 협의회를 설치
- 도도부현은 시읍면에 기술적인 조언, 시읍면 상호간의 연락 조정 등 필요한 원조를 실시한다.
- 시읍면은 법률에 규정된 한도에서 **빈집 등에 대한 실제 조사가 가능**. 거부 시의 벌칙 **: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
- 시읍면은 빈 집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정자산세 정보의 내부 이용이 가능**
- 빈 집을 자주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고정자산세의 경감 조치 도입
- 시읍면은 빈 집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능한 한 정비하고, 빈 집이나 부지 등의 정보 제공과 그 활용에 관한 시책을 실시한다.
- 특히 관리가 불충분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특정 빈 집**'에 대해서는 철거・수리・수목 벌채 등의 조치를 지도・조언・권고・명령이 가능. **거부 시의 벌칙 :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

32

교류에서 이주·정착으로

지역 조성 활동의 성숙도에 입각하여 필요한 인재상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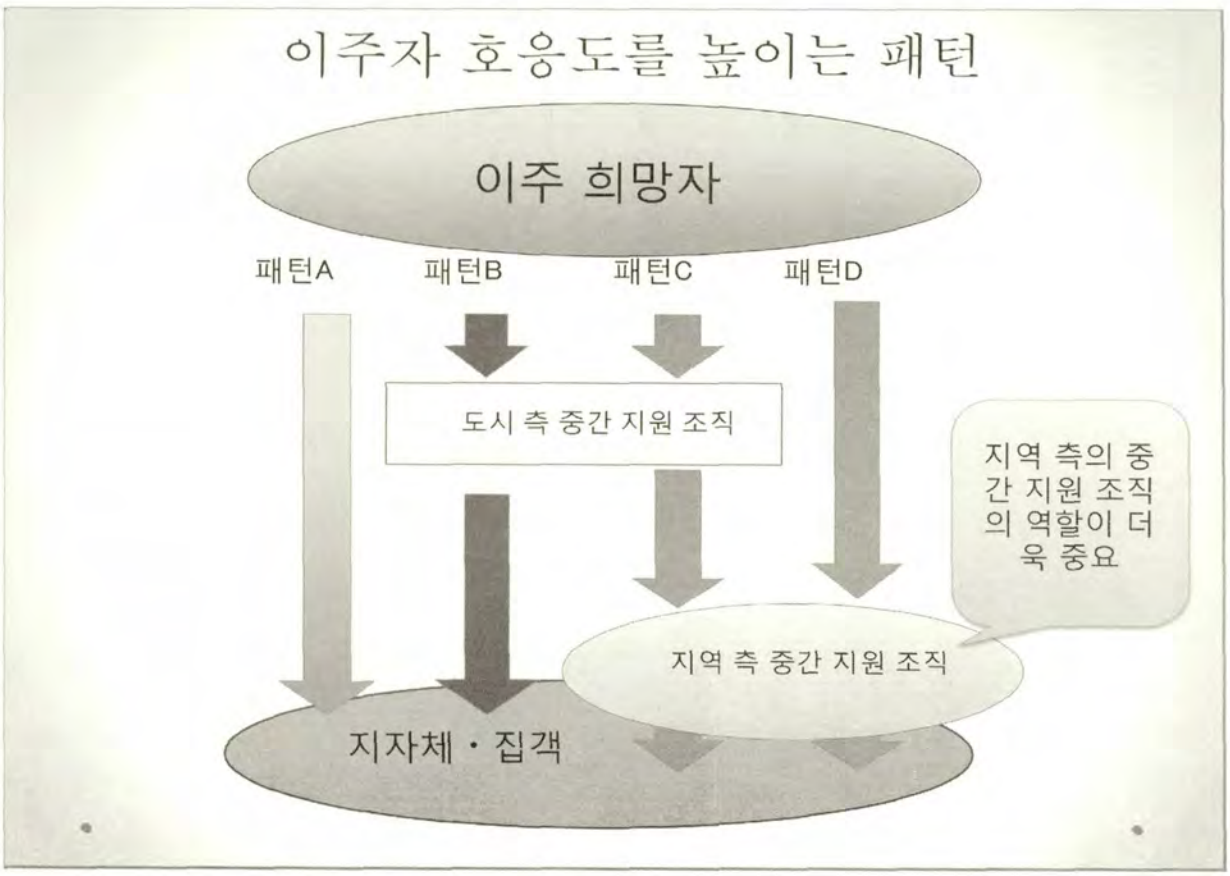
・현시점에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는?…단계에 따라 확보



지역 측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 **지역을 알린다**
  - ○ 관광·그린 투어리즘과의 제휴
- **지역 내 합의 형성　　왜 이주자 수용이 필요한가?**
  - ○ **어떤 사람**に이 오기를 원하는가?
  - ○ 이주자가 올 경우의 시뮬레이션
  - ○ 주택 임대・지역에 타 지역민이 왔을 때의 규칙 정비
    - • 수용하는 경우(암묵적인 규칙→각서, 합의서)
- **관·민의 협동과 역할 분담**
  - ○ JA, 상공회, 선배 이주자, 현지 NPO, 사회복지협의회 등
  - ○ **휴일의 상담 대응** (미치노에키 등의 활용)
  - ○ 원스톱 서비스가 이상적
  - ○ **이주 후의 서포트**가 정착으로

40



고지현의 사례 (산업 정책으로서 자리매김 : 단계에 따라 체제 정비)

컨시어지·전문 상담원·지역 서포터 각각의 역할 분담과 제휴 체제 정비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이주검토자	○지역을 알다, 호감을 가지다 이주에 관심을 가진다 (도도부현→시초촌 검토 단계) ○[활용] 이주상담회나 세미나 참가 등	○이주를 위한 주체적인 행동으로 이행 본격적인 검토 및 결정 (구체적인 이주지역을 검토) ○[활용] 지역 체험(개별현지방문, 체험 투어(인턴십))	○안심할 수 있는 이주지 정착 (이주희망지역검토→ 결정→ 정착) ○[활용] 지역 체험, 체험 체재 (개별 현지 방문, 체험 투어(인턴십)
지원목적	○이주자의 초기 대응에서 정보 제공 ○ 다음 창구로의 적절한 코디네이트를 실시	○이주희망자의 요망에 대응 *시초촌의 후속 조치 태세를 정비 *풍부한 빈집 정보	○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개인이나 NPO 등 민간단체가 이주(희망)자의 친근한 상담원으로써 지원
지원개요	○종합안내원으로써 초기 대응, 상담 내용에 따라 시초촌의 전문상담원과 지역 이주 서포터에게 전달	○이주와 교류 컨시어지, 지역 서포터와 연계 *시초촌의 지원제도와 부동산 정보의 소개 *지역 생활 정보를 제공 등	○ 다양한 불안을 가진 이주(희망)자의 가장 친근한 상담자로써 시초촌 등과 연계하여 상담
지원체제	○이주, 교류 컨시어지 6명 현재 컨시어지(현청, 역앞) *이주상담 대응 *시초촌, 지역의 정보 수집 *이주희망자에게 정보 제공(HP, FB 등) *상담회, 교류회, 투어 기획 및 참가 등 현외 컨시어지 (도내 안테나 숍,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주상담 대응 * 이주촉진협력기업과 단체의 조정, 연계 * 현인회(県人会)에게 협력의뢰	○전문상담원(시초촌) *시초촌의 지원 제도와 부동산 정보를 소개 *지역의 생활 정보를 제공 등	○지역이주 서포터 *이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활동 *이주 후의 후속 조치(상담 등)

연계 ⟷ 제1단계 ⟷ 제2단계

연계 ⟷ 제2단계 ⟷ 제3단계

연계 ⟷ 제1단계 ⟷ 제3단계

성공 사례의 공통점

- 지역 중간 지원 조직의 유무

-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의 지원

- 지역의 '생각'을 이주자에게 전달

이주 희망자가 원하는 정보는 '지원책'에서 '생활 정보(라이프스타일)'로

향후의 가능성과 과제

'손자 턴' 손자가 조부모가 있는 곳으로(부모의 출신지)로 이주






고향이 없는 '신세대'에 고향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도시 생활을 부정하지 않는 전원생활 희망자의 증가
·새로운 2 지역 거주의 움직임…도쿄 근교에서의 전원생활
·기회의 증가…미니 전원생활 강좌, 네오 현민회 등의 다수 개최

소멸 지자체론~지방 창생 활동의 영향

'득'을 찾아 오는 이주자가 지역에 오기를 바라는가?

이주 희망자 쟁탈전?

· 지자체 간 경쟁의 두려움・・・보조금, 이주 지원 제도
· 최우선 과제는 지역 주민의 **'포기'** (이주해도 떠나 버린다)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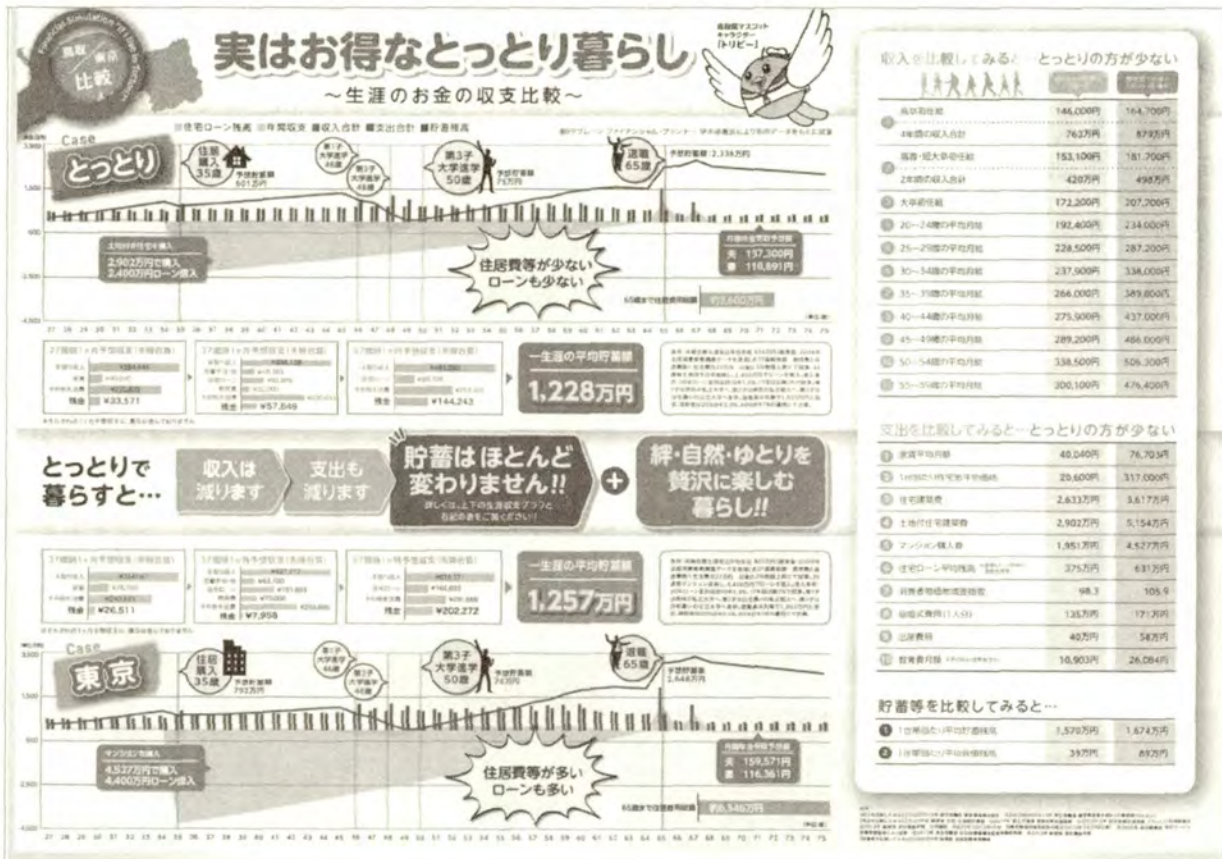
'손자 턴'의 가능성


超高齢化ニッポン救う!
孫ターン
祖父のお墓に入る僕の覚悟が家族の絆を深める好循環を生んだ!
祖父母のメンツはつぶせない。でもお金で買えないものがここにある!


92歳のそばへ32歳は一家3人で移住
孫ターンで幸せになる
祖父母の名前出し、集落に溶け込めた
アジやメバル、バケツで差し入れに感激
週刊朝日
8・28
がん 脳 心臓 いい病院1932 頭日本編
過疎地に医師が来ない
看護師が辞めない
院長が逃げない
オフク過重業務が誘発するPTSD
陛下がお好き「チキン弁当」
がんを消す「ワクワル3毒法」

이주자를 위한 정보도 '지원책 ' 에서 '생활 정보 ' 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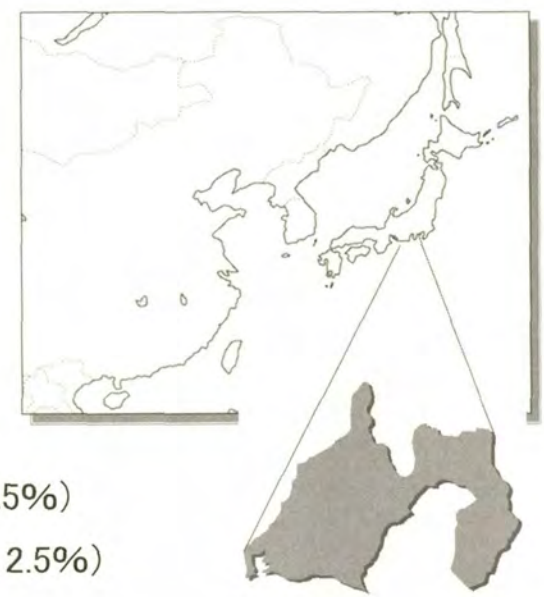
참고자료 1.

동아시아 지방정부 대표로부터 듣는다



동아시아 속의 '후지노쿠니'

<시즈오카현의 모습>
온난한 기후의 해안 지역과 일본에서 제일 높은 후지산, 남알프스 등의 산들은 다채로운 변화의 자연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풍요로운 풍토는 다채롭고 고품질의 농림수산물을 생산합니다.



인 구	3,683천 명
기후(현도)	연평균 기온 16.5℃
	연평균 강수량 2,325㎜
경지면적	68,500ha(전국 점유율 1.5%)
농업산출액	2,138억 엔(전국 점유율 2.5%)
생산품목수	1,143품목(농림수산물)

음식・차・꽃의 도시 만들기

<사람들의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3개의 도시 만들기>

음식의 도시	차의 도시	꽃의 도시
		
일본 제일의 식재	일본 제일의 차 생산	일본 제일의 거베라 생산
농림수산물 생산 품목 수 439품목	차 생산량 전국의 40%	꽃 생산 품목 수 704품목

후지노쿠니 '음식의 도시 시즈오카' 만들기

<음식의 도시 만들기 일꾼 표창・각지에서 활약>






<밀라노 국제박람회>





후지노쿠니 '음식의 도시 시즈오카' 만들기

<현산품의 브랜드화>

시즈오카 음식 셀렉션



맑은 물에서
자라는 와사비



진한 향과
맛있는 과육
온실 메론

후지노쿠니 신상품 셀렉션



과실의 풍미
를 그대로
(말린 과일)



고급 귤 100%
스트레이트
(귤 쥬스)

후지노쿠니 '차의 도시 시즈오카' 만들기



세계 농업 유산
시즈오카의 다초
엽 농법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차



아름다운 차밭



'차의 도시' 의 거점

명차 산지

<산의 후지, 차는 시즈오카 차의 도시>

차를 마시고 건강 수명 일본 제일

<시즈오카현의 건강 수명>

	남녀 합계	여 성	남 성
시즈오카현	전국1위 73.53세	전국1위 75.32세	전국2위 71.68세
전 국	72.13세	73.62세	70.42세

<'후지'의 나라 '차의 현장'>

- 차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합시다.
- 차 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킵시다.
- 차의 효능을 배우고 건강해집시다.
- 차를 통해서 배려의 마음을 키웁시다.
- 차를 통해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후지노쿠니 '꽃의 도시 시즈오카' 만들기

<춘하추동 꽃을 즐길 수 있는 수많은 명소>



후지노쿠니 '꽃의 도시 시즈오카' 만들기

<하마나코 꽃 박람회 2014의 성공>



내방자 악130만 명(100만 명 돌파 기념식)



꽃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꽃과 친해지는 아이들



고품질의 화초 재배

<세계 수준의 지역 자원>

남알프스 에코 파크
2014 세계 에코 파크에 등록



후지산
2013 세계 문화 유산 등록



니라야마 반사로
2015 세계 문화 유산 등록



다초장 농법
2013 세계 농업 유산 등록



하마나코
세계 유산 서호(중국)에 필적



이즈반도
세계 지오파크 인정이 목표





할 것이다. 첫째, 개혁을 심화하여 농촌의 기본 경영제도를 안정화하고, 농촌 토지를 전업농장 등 규모화 경영주체로 전환하여 규모화 비율을 늘리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둘째, '농민을 주체로 하여 농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 할 것이다. 이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전업농장 등 신형 경영주체에 대한 지도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신형 농업 경영주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전업농장 등 신형 농업 경영주체의 경영관리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참고자료 2.

참여 지방정부 농정 사례



헤이룽장성 농업 소개

헤이룽장성 농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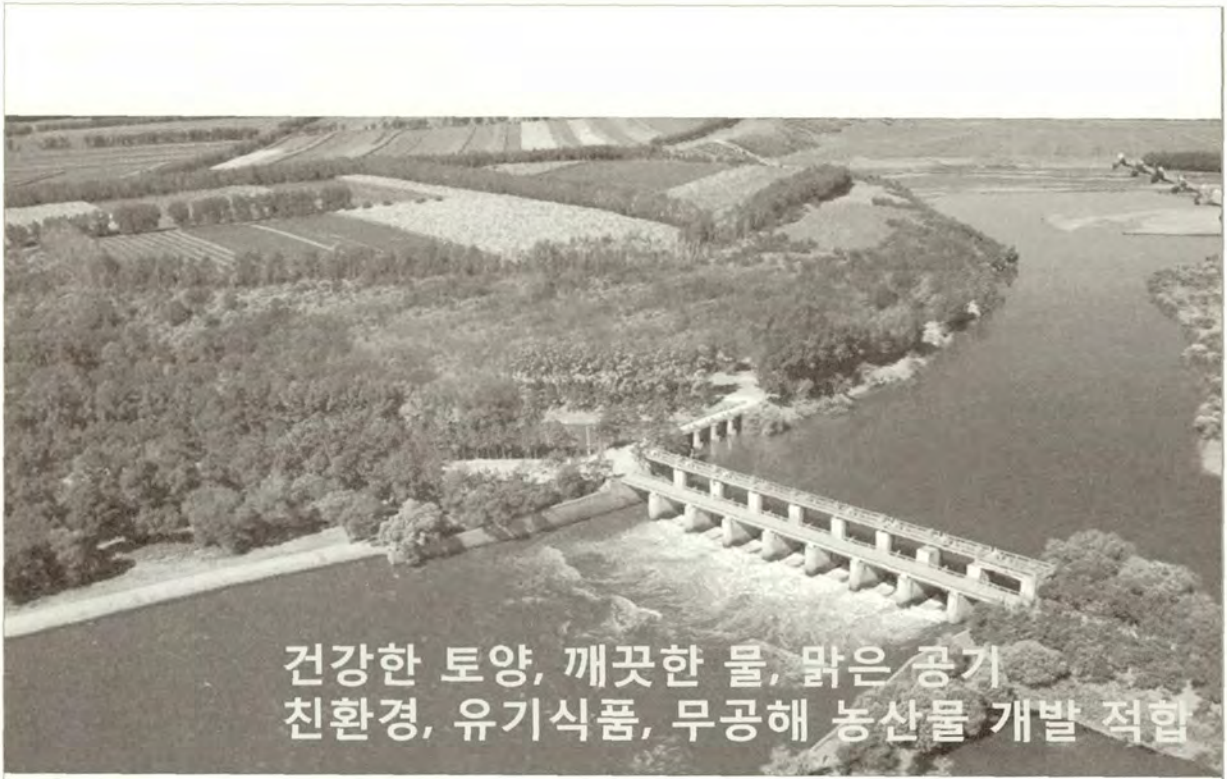
(黑龍江省農業委員會)

2015년 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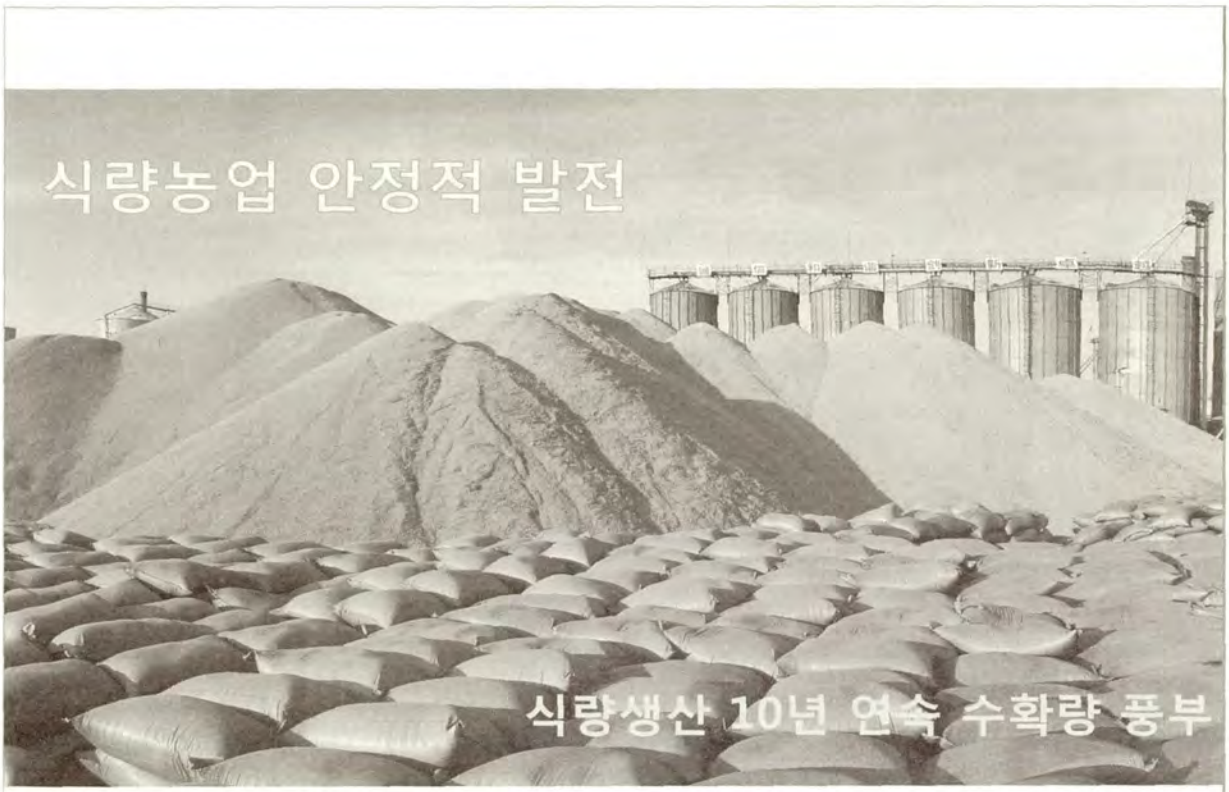

농업자원풍부
세계 3대 흑토지대 중 하나
경작지 면적 1,300만 ha
경작지 총면적과 1인당 경작지 면적 중국 1위
3


생태환경우수
헤이룽장성 개발 건설 늦게 시작
자원이 잘 보존됨
"대삼림, 대초원, 대습지"와 풍부한 수자원이
헤이룽장성의 우수한 생태환경 조성
7


건강한 토양,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친환경, 유기식품, 무공해 농산물 개발 적합


높은 기계화 수준
헤이룽장성 논밭, 종합기계화 91.6%
기계경작, 기계파종, 종합기계화 모두 전국 1위


해어룽장성 농촌토지 규모화 경영 면적 400만ha


식량농업 안정적 발전
식량생산 10년 연속 수확량 풍부


2014年
헤이룽장성 곡물 파종면적 1426.4만ha
총생산량 약 6,300만 톤, 전국의 1/10
전국 곡물생산량 1위


친환경 농산물 빠른 발전
2014년
헤이룽장성 친환경(유기) 인증면적 480만ha,
실물 총생산량 3,650만 톤


친환경 식품 가공 거업 520곳 발전
친환경, 유기식품 표준제품 10,807개 사용
전국의 1/8


러시아 농업 협력 잠재력
경신 길이 3천km, 국가급 항구 25개


러시아에 투자하는 헤이룽장성 농업투자회사 120곳
매년 러시아 노동력 수출 3만 여명
1인당 소득 3만 위안 이상

다롄시(大連市) 농업

다롄은 랴오둥(遼東) 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환보하이경제권(環渤海經濟圈)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있다. 동으로는 황해, 서쪽으로는 보하이(渤海)와 인접해 있고, 남으로는 산둥(山東) 반도와 마주보고 있다. 북쪽으로는 동북3성과 네이멍구(內蒙古) 동부 지대와 인접해 있어 중국 북부 지역의 공업, 항구, 무역, 관광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앙 직속 중점 개발도시이자 부(副) 성급 도시이기도 하다.

다롄 육지면적은 12,574km^{2}이며, 해안선 길이는 1,906km에 달한다. 간징쯔구(甘井子區), 뤼순커우구(旅順口區) · 진저우신구(金州新區) · 와팡뎬시(瓦房店市) · 푸란뎬시(普蘭店市) · 좡허시(莊河市) · 창하이현(長海縣) 등 7개 농촌지역과 다롄 보세구역 · 과학기술 산업단지 · 창싱(長興) 항만지역 산업단지 · 화위안커우(花園口) 경제구역 등 4개 농촌진흥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농촌 향진(鄕鎭)의 농촌 거리 104개, 촌(村) 844개가 있다. 2013년 다롄시 농촌 인구는 263만 6,000명이고, 농민은 133만 2,000명에 이른다.

다롄의 어업, 목축업, 과수, 채소, 화훼 등 5대 산업은 품질이 우수하고 지역적 특색도 짙어 빠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2013년 다롄은 식량 재배 및 경작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벼 · 옥수수 · 독소제거저류 · 콩 등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여 160만 4,100톤의 식량 총 생산량을 달성했다. 아울러, 간석지 패류 · 해삼류 · 피조개 · 큰 가리비를 비롯한 해양, 내만, 육상 양식 등 양식 산업 발전을 촉진해 지역 수산물 생산량이 230만 5,000톤에 달한다. 축산업의 표준화, 규모화, 집약화를 통해 한해 육류와 계란 생산량이 117만 6,000톤을 기록했으며, 과수 생산량은 176만 6,900톤으로 과수 생산 표준화 기지를 구축하여 생산 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켰다. '부식물 생산 · 공급 계획' 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채소 재배 시설을 정비하였고, 이에 생산량 225만 700톤을 달성했다. 2013년 다롄 농업 · 임업 · 축산업 · 어업 및 서비스업의 총 생산규모 872억 4,000만 위안 가운데 농업이 233억 9,000만 위안, 임업이 8억 1,000만 위안, 축산업이 229억 2,000만 위안, 어업이 337억 위안, 농림축어업(農林牧漁業) 관련 서비스업이 64억 3,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어업, 축산업 및 채소, 과일, 화훼 등 다롄의 5대 우수 산업 생산규모가 농림축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서 86%를 차지한다. 농산물 수출규모는 34억 5,000억 달러로 랴오닝성의 67.3%, 중국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농민의 1인당 순소득은 17,717위안이며, 농기구 전력 사용량은 367만 6,000kW에 이른다. 주요 농산물 재배에서 기계화율이 74.1%에 이른다.

도시형 농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도시형 현대 농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의 종합 생산력이 끊임없이 향상되었다. 도시형 현대 농업 단지 및 도시형 현대 농업 시범구역을 설정하여 시설 농업 발전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다롄 시설 농업 면적이 7만ha에 이른다. 가축 · 가금류 사육 및 수산물 양식에서 규모화와 표준화 수준이 전국 상위권 안에 속해 있다. 우량 과수와 화훼 산업 역시 가파른 성장을 구가해 전체 우량 과수 재배면적에서 새로 재배한 과수 면적이 68.6%에 달하고, 화훼 재배면적은 3,062ha에 이른다. 산업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농 · 수산물 품질 안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농촌 개혁이 심화되고 있다. 토지 경영권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토지 승포 경영

권의 등기 시범 사업을 가동하였다. 농업 부흥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65만 농가가 식량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농민 보험 확대로 보험규모가 8억 9,000만 위안에 이르렀고, 농촌 금융제도 개혁을 통해 도시형 현대 농업 및 신 농촌 건설을 지원했으며 전업합작사(專業合作社)를 보급하여 시급 시범사를 56곳으로 확대했다.

신 농촌 건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신 농촌, 즉 '신 지역사회, 신 농촌, 신 촌락' 건설을 추진하여 신 지역사회 10곳, 신 농촌 50곳, 신 촌락 289곳에 '노면정비(硬化), 생태 친환경(綠化), 주변시설 청결(淨化), 가로등 설치(亮化), 환경미화(美化), 탄소배출 감축(氣化)' 등 6개 사업 추진하고 있다. '푸른 산 생태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3억 9,000만 위안을 투입하여 조림 면적이 6만 500ha에 이른다. 수리생태(水利生態) 사업에서 수자원 관련 신규 건설 사업이 1,336건, 저수량 조절시설 추가 규모는 438만m^3 에 이른다.

서비스 체계가 개선되고 있다. 중국 농업 과학원 도시 농업 연구소와 랴오닝성 농업 과학원이 농업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어 농업 과학기술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신 품종 개량, 신 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농업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롄시 농업 지리 정보 시스템을 완비하였다. 향진의 농업 정보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여 농업 정보화 네트워크를 다롄시의 농촌 지역 전체로 확대했다.

현급 지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급 지역의 산업 단지 건설을 가속화하여 농촌 현대화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기능을 확대하여 농촌 체험 등 새로운 관광 사업을 모색했다. 현급 경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다롄시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와팡뎬시, 푸란뎬시, 좡허시, 창하이현 등의 지역별 총생산(GRDP)이 2,571억 위안, 지방재정 예산수익이 131억 위안, 고정 자산투자가 1,778억 위안으로 상기 지표는 모두 다롄시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다. 중국 100대 현(縣)에서 3개 현이 속해 있다.

다롄 농업은 도시형 현대 농업을 발전 방향으로 삼아 도시 서비스, 농촌 번영, 농업 수준 제고, 농민 부자, 생태 보호, 기능 확대 등을 목표로 도시의 과학기술, 인재, 자금, 시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또한 현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현대 산업 체계 및 경영 형태를 도입하고 친환경, 아름다운 경관, 우수 산업, 양질의 제품을 지표로 삼았다. 시장화, 집약화, 산업화, 정보화, 인문화를 토대로 농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제고하였고, 사회 서비스 및 생태계 보호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농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다롄을 중국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생산 기지이자 농업 과학기술 기지, 글로벌 농업 협력 및 교류 기지, 농산물 물류 최적화 기지, 생태계 휴양관광 농업문화 기지로 성장시켰다. 도·농 간 상생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민생 개선, 농림축어업 및 서비스업 성장률 확대, 농민 1인당 순소득의 안정적인 증가 등을 실현하였다.

윈난성 농업·농촌·농민의 혁신적 관리 및 발전 방안 공공서비스시스템 모색

윈난성 농업청

개혁개방 이후 중공중앙은 1982년~1986년까지 농업, 농촌, 농민[이하, '3농(三農)']을 주제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여 농촌개혁, 농업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또한 2004년~2015년까지 '3농'을 주제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여 농업강화, 농민우대, 부농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출범했고, 윈난(云南)성 성 위원회, 성 정부 역시 이에 걸 맞는 실시방안과 《고원의 특색 있는 농업현대화를 전면적이고 착실히 실행하기 위한 의견》, 《산지 목축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의견》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는 농민의 수입증대, 농촌의 안정화, 농업 발전에 중요한 뒷받침이 되었다. 농업강화, 농민우대, 부농 정책은 '3농'에 실질적인 성과와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동등한 권리 향유, 우수한 농촌관리 시스템 구축, 농촌주민의 자산성 수입 증대' 이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윈난성은 홍허저우(紅河州) 카이위안(開遠)에서 '3농' 관리와 공공서비스시스템 강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호적관리제도의 개혁, 도농의 기본적 공공서비스 균등화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농촌 커뮤니티화, 농촌협동조합 및 사회조직 발전, 도농 공무원 배치 및 관리 시스템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3농' 정책 추진 상황, 정책의 부양효과 및 난점을 파악하여 중앙정부가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는 데 참고가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1. 개혁관련 시범사업의 주요 실시방안 및 경험

1) 도농 재정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공공재정제도 제정

첫째, 과거 도시지역에 공공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던 정책을 개선하고, 도농 재정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원칙을 확립했다.

둘째, 농촌에 대한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금 환급 비중을 높였다.

셋째, 농촌 인프라 건설 자금을 농민으로부터 조달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6대 융자루트[시(市)급 재정자금 투입, 상급 정부의 각종 지원 획득, 대출, 농촌 노동력 투입, 각종 기업 투입, 사회 각계의 지원 획득]'를 바탕으로 신농촌 건설 투자시스템을 완비하고, 농촌의 비포장도로, 용수부족 등 '17개 난제'를 해결하는 등 도농 간 오랫동안 존재했던 인프라 수준차이를 좁히거나 없애려고 노력했다.

2) 도농 주민의 동등한 복지 향유를 위한 제도 마련

《중국 공산당 카이위안시 시 위원회 카이위안시 인민정부의 호적관리제도 개혁실시에 대한 의견》 및 세칙의 개혁정신에 따라, 도농 간 통일된 호적등록제도와 도농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호적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및 생활할 수 있는 상주인구의

체계적인 시민화를 촉진하였다. 호적제도 개혁정책은 '1,2,3,4,5,6' 으로 개괄할 수 있다.

- '1개의 호(好) 원칙'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좋은' 현행정책을 바꾸지 않는다.
- '2개의 자유 원칙'
  도시 진출과 자유로운 귀농을 장려하고, 호적을 바꾼 후 도농의 우대정책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누릴 수 있다.
- '3개의 기준원칙'
  도농은 통일된 호적등록, 호적이전, 인구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 '4개의 불변원칙'
  농촌 토지승포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1], 농촌 택지 사용권, 임지 사용권, 농촌 집단 자산권은 변하지 않는다.
- '5개 향유원칙'
  농촌주민이 호적을 바꾼 후 도시에 진출하면 도시주민으로서의 교육, 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 주택보장, 기존 호적지 농촌주민의 출산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 '6개 통일원칙'
  도농의 취업서비스 정책, 기관 및 사업체 직원 사망 후 유가족 생활보조금 혜택 기준, '3대 유가족' [2] 혜택기준, 의료구제 및 임시구제 기준과 방식, 퇴역군인의 사회정착 정책, 직업학교 학생의 자금지원 정책을 통일한다.

카이위안시는 호적제도 개혁에 발맞추어 출산, 위생, 민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교육, 장애인 연합회 등 12개 부처에 등록된 주민의 정보를 '카드 하나' 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신생인구 통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동인구 거주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3) 도농의 기본적 공공서비스 균등화 개혁모델 실시

(1) 도시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농촌으로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첫째, 농촌의 의료 인프라 건설을 강화했다. 2006년부터 촌 위원회 위생소 52개를 건설하고 관련 의료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둘째, 농촌의 의학교육 및 생활보조제도를 실시했다. 즉, 농촌의 중등전문학교 의사교육, 농촌 의사고시 및 임용제를 실시하고, 집업조리의사(執業助理醫師)와 집업의사(執業醫師)[3]를 중심으로 한 농촌 위생서비스단체를 만들었다.

셋째, 도농 의료기관 위탁관리제도 및 모델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

---

[1] 토지승포경영권: 국가로부터 토지를 도급받아 농사를 짓을 수 있는 권리

[2] '3대 유가족' : '혁명열사' , '공무로 사망한 군인' , '병으로 사망한 군인' 의 유가족

[3] 집업조리의사: 위생 직업기술교육과정 혹은 3년제 이상 전문대를 졸업 후 집업조리의사고시에 합격한 의사, 집업의사: 대학본과 졸업 후 집업의사고시에 합격한 의사

상의 도시지역 의료기관은 농촌 위생원 혹은 위생소에 대해 관리, 기술, 설비, 교육 등 방식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관리 기간에는 '6개 불변원칙' 을 지키도록 했다. 즉, 위생원 소유제, 직원의 신분, 재정투입, 위생정책, 비용납입 기준, 직책의 임무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위탁관리는 기술협력, 업무지도, 설비공유, 진료이전, 회진, 정보교류, 학술교류 등에 적용되었다.

(2) 도농 교육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카이위안시에는 총 226개의 학교와 4,006명의 교육자, 52,867명의 학생이 있다. 2006년 농촌의 초·중·고등 학교에 구비된 컴퓨터는 2,268대이며, '대학 및 중·고등학교의 도시 집중, 중·고등학교의 도시 혹은 농촌 집중, 초등학교 및 취학 전 교육의 농촌, 촌 위원회 혹은 농촌 중심가 집중' 의 '3가지 집중방안' 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즉, 교육자원을 농촌, 소외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교육자원 균등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째, 농촌의 취학전 교육 보편화에 힘썼다.

둘째, 교육모델과 교육방법을 개혁했다.

셋째, 유아교육부터 박사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했다.

넷째, 우수교사 장려제도를 마련했다.

다섯째, 도시가 농촌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모델을 모색했다.

(3) 도농 문화사업 통합을 추진했다.

표준화, 균등화를 목표로 세가지 측면의 농촌 문화사업을 강화했다.

첫째, 농촌문화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업을 시행했다.

둘째,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보존사업을 시행했다.

셋째, 주민의 문화생활 보편화 사업을 시행했다.

(4) 농촌주민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했다.

카이위안시는 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양로보장, 주택보장 등 측면에서 도시와 동등한 개혁을 실시했다.

- **의료보장**

신형 농촌협력의료의 추진 및 관련 참여율을 높였다. 즉, 신형 농촌협력의료의 비용납입 제도를 개선하고, 농촌의 차상위 계층, 5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계층[4], 외동자녀, 장애인이 신형 농촌협력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농 주민 중병의료비 지원을 위한 펀드를 개설하여 중병을 얻었을 경우 보상금을 받도록 하였으며, 농민공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실시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료구제, 농촌 임산부와 도시 빈곤 임산부

[4] 의·식·주·의료·장례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계층

에 무료 입원 및 분만 혜택 제공, 모든 주민의 정기적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도농 주민이 동등한 의료보험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저생활보장**

  농촌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 중 고정수입이 없는 노인에게 생활보조 혜택을 주었다.

- **양로보장**

  국가의 신형농촌 사회연금보험 시범사업과 도시주민 양로보장사업을 추진하여, 도농 주민이 모두 양로보장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농민공에게 연금보험금을 제공하는 관할 지역 기업을 위한 장려제도를 마련했다.

- **취업보장**

  도농에서 모두 취업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모든 성(省)에 첫 번째 현(縣)급 '대학생 창업자 양성기관' 을 설립하였다.

- **주택보장**

  주택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 거주자 주택소유' 를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촌 지진 수해민의 주택과 노후주택을 개조하고, 농촌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4) 농촌사회발전 관리시스템 혁신

(1)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삼위일체 구도를 완비하였다.

즉, 농촌의 사회조직 건설에 힘썼다. 예를 들면, '7개 우대' 정책을 통해 농민의 전문적 협동조합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재, 토지, 자금, 사업, 주택, 서비스, 장려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농촌협동조합 발전기금, 교육기금을 마련하고, 협동조합의 운영기준을 세워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도록 이끌었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의 신형사회조직 관리시스템을 완비하였다. 재정지원과 합법적 루트 마련 등의 방식으로 농촌 중개조직, 사회단체 및 각종 조직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2) 농촌의 커뮤니티화에 힘쓰고, 농촌의 자체관리능력을 증대시켰다.

첫째, 농촌조직을 재구성하고 효율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도왔다. 즉, 사회관리부와 경제관리부를 분리시키고, 과학적 관리, 완벽한 기능, 조화로운 문명 형성이 가능한 신형 농촌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둘째, 농촌의 커뮤니티 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커뮤니티 자체운영 기능, 공공서비스 기능, 경제관리 기능을 분리시키고, 공공서비스 제공창구(窓口)를 커뮤니티로 이전시켰다. 즉, 농촌 커뮤니티에 농민서비스센터를 만들어 원스톱 서비스와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3) 촌(村) 간부에 대한 장려제도를 실시하고,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높였다.

첫째, 공무원의 커뮤니티 파견 및 서비스 제공 모델을 마련했다. 시급 기관의 공무원을 농촌 및 커뮤니티에 배치하고, 커뮤니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다.

둘째, 적절한 장려제도를 마련하였다. 촌(커뮤니티) 간부의 직책에 따른 장려시스템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간부에게 '5종의 보험혜택' [5]을 제공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신형 농업협력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셋째,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했다. 촌(커뮤니티) 간부의 직무 및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촌(커뮤니티) 간부의 선발 및 훈련, 교육, 장려제도, 감독 및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넷째, 수소민족 커뮤니티의 간부 훈련 및 선발 시스템을 강화했다.

(4) 소규모 서비스센터를 통합하고, 일선의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켰다.

첫째, 각 농촌에 농업 종합서비스센터, 문화보급 서비스센터, 국토 및 농촌 계획건설 서비스센터, 생활보장 서비스센터 등 4가지 서비스부서로 구성된 '주민 서비스센터'를 설립했다.

둘째, 업무처리 대리제도, 방문서비스 등 새로운 업무모델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5) 전면적 책임제도를 실시하고, 간부와 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했다.

시급 지도자, 부처 지도자, 재정지원 간부의 전면적 책임제도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黨) 위원회 정부와 주민 간의 상호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상황 및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는 동시에, 각급 당 위원회 정부의 정책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힘썼다. 또한 도농 빈곤가정마다 전담간부를 두어 관련주민의 교육, 의료, 주택, 취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5) 효율적인 농촌 금융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 향(鄕), 촌이 상호 연동되는 농촌 금융사업 추진시스템과 농촌 금융장려시스템, 농촌 금융서비스 공급시스템, 농촌 융자담보시스템, 농촌 금융리스크 5대 예방시스템과 농촌 재산권 이전서비스 플랫폼, 소규모 오프라인 융자 플랫폼, 농촌 신용정보 플랫폼, 정부 · 은행 · 금융의 자금정보 4대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아래 5가지 측면에서 농촌금융의 혁신을 모색했다.

첫째, 금융기관의 내 · 외적 발전을 모색했다.

둘째, 금융담보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셋째, 리스크 방지 및 신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넷째, 융자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

다섯째, 정부의 장려제도를 강화했다.

---

[5] 5종 보험혜택: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혜택

6) 농촌의 재산권 제도를 개혁했다.

첫째, 농촌의 집단 재산권 제도 개혁을 실시했다. 그 핵심은 농촌 재산권 이전 플랫폼 구축을 통한 농촌 재산권 이전 장려에 있다.

둘째, 토지 소유권 등록사업을 실시했다. 즉, 농촌의 승포토지, 임지, 택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등록사업을 시행했다.

셋째, 농촌 재산권이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이전을 이끌었다. 즉, 농촌의 부동산, 택지 사용권 이전, 농촌 토지승포경영권 이전, 농촌 임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임지 가격 책정 및 지분참여 등 임업의 산업화에 앞장서는 기업과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장려정책을 실시했다.

넷째, '삼권' 담보대출[6] 제도를 실시했다. 즉, 농촌의 주택담보대출, 임지 소유권 담보대출, 토지승포경영권 담보대출, 농가 주택건설 담보대출 등 새로운 형태의 농촌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하였다.

2. '3농' 개혁이 직면한 난제

1) 정책의 충돌

- **토지제도의 충돌**

  현재, 중국의 도시토지는 국유제, 농촌토지는 집단 소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두 제도가 상호 충돌하면서 도시진출 농민의 토지소유권 기준이 모호해졌다.

- **호적제도의 충돌**

  카이위안시는 '농민의 도시진출, 도시민의 자유로운 귀농' 이라는 창의적인 호적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모든 성에 농민의 도시진출 장려정책은 있지만 도시민의 자유로운 귀농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 **재산권제도의 충돌**

  현재 농촌의 재산권 이전은 국가법률 · 법규차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 재산권 제도개혁 속도 역시 더딘 편이다. 예를 들어, 농촌 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문제가 발생하여 재산권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률이 미비하여 순조로운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실행을 제약하는 요소들 존재

첫째, 도농 우대정책간의 비교적 큰 격차로 인해 도농 통합이 제약을 받고 있다.

개혁 후, 도시주민이 받는 사회적 혜택 수준이 농촌주민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농촌주민의 아이는 무료 아침식사를 제공받고, 빈곤한 가정의 기숙생은 생활보조금을 지원받

---

[6] '삼권' 담보대출: 농촌토지 승포경영권, 농촌주민 주택소유권, 임지 소유권을 담보로 한 대출

지만, 도시주민의 아이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농촌 재산권 제도 개혁이 정체되면서 도농 통합을 제약하고 있다.

도시주민이 농촌으로 이주한 후 어떻게 조합의 회원이 되고, 토지승포경영권을 얻는지에 대한 명확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도시주민의 귀농을 제약하고 있다.

3) 정책 및 재정적 뒷받침 부족

첫째, 호적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농민의 도시민화가 제약받고 있다.

호적관리제도의 개혁이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일부 농민공과 창업에 뛰어든 외지 농민은 관련 도시의 호적에 순조롭게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농민 도시진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분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도시로 나가는 농민이 너무 많아 시급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건설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도시로 나가는 일부 농민은 농촌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사업 및 자원의 균등화 개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 교육 균등화 개혁의 재정적 어려움
  교육개혁 시범사업에 대한 상급 정부의 자금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많은 인프라 건설이 시작된 후 자금부족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 의료보건 균등화 개혁의 재정적 어려움

3. '3농' 개혁 관련대책 건의

1) 호적제도 관련개혁 추진

첫째, 성급 개혁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일선 호적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호적제도 개혁 정책의 요구조건에 맞는 도시민이 농촌에 귀농한 경우, 카이위안시가 구축한 '원카드' 인구관리 시스템에 편입시킨다.

셋째, 도시이주 농민의 도시민화를 위한 분담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농민공, 도시창업 농민의 도시정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2) 도농의 공공서비스 균등화 개혁 지원

첫째, 도농의 공공 서비스 균등화 개혁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도시 노무자, 도시주민, 신형농촌의 의료보험 융합제도를 실시하고, 의료보건의 '네트워크화', 환자의 '의료보험카드'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농촌의 재산권 제도 개혁을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한다. 즉, 농촌의 재산권제도 개혁 가속화, 농촌 토지소유권, 승포권, 경영권을 분리하고, 농민의 재산권 확대, 경영권 규제 완화를 통해 토지 승포제의 자본화를 실현한다.

넷째, 시·향·촌의 토지이전서비스 시스템과 토지이전분쟁 조율 시스템을 완비하고, 토지이전 및 임지·임목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효율적인 농촌 재산권 거래시장을 형성한다.

산시성의 삼농(三農)정책

산시(陝西)성의 농촌 정책은 수확량 증가, 품질 개선, 생산 혁신이라는 목표에 따라 추진되었다. 먼저, 중국 정부의 사화(四化: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 현대화)정책과 함께 농촌 개혁, 농업의 성장방식 전환을 이루었으며 특색 있고 현대적인 농업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로써 농민 소득이 높아지고 도•농간의 격차를 줄었으며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1. 농촌토지 정책

농촌토지 승포경영권

산시성은 농촌토지 집단소유권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농가의 승포권(承包權, 경작권)을 보장했으며 농가의 생산경영권(生産經營權) 의 제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완화해왔다. 농촌토지 승포제는 오랜시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농민의 경작지를 보장하는 제도하에, 농민들에게 승포지의 점유, 사용, 수확, 양도 및 승포경영권, 담보설정 권리 등을 부여하고 농민의 토지승포수익을 보호해왔다

농촌토지 경영권의 양도와 규모의 경영

산시성은 '법적 절차 준수, 자발적인 의사, 유상' 이라는 원칙에 따라 토지경영권을 공개적으로 전문농가, 가정농장, 농민합작사(農民合作社), 농업 관련 기업에 양도하고 농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규모의 경영을 하도록 장려해왔다. 농가가 자발적인 토지 양도를 장려하여 승포지가 분산되어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농민이 승포경영권 확보해 규모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농업경영시스템 구축

농업의 시장화를 위해 농민 중심으로 전문 농가, 가정농장, 농업 기업, 농민합작사, 선두기업, 농업사회화 서비스 기관 등 신형 농업경영 주체를 각각 지원했다. 또한, 가정경영을 기본 경영 방식으로 삼고 신형농업경영주체가 중심이 되며 기타 기관이 기존의 농업 경영시스템을 보완하는 새로운 농업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정경영, 집단경영, 합작경영, 기업경영 등 함께 발전하는 농업경영방식의 혁신을 이루었다.

2. 농업 정책

식량 생산력의 제고

각 성(省)의 성 장이 해당 지역의 식량을 책임지도록 했다. 4대 식량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으며, 곡식과 밭 작물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육성했다. 보리의 생산량을 늘리고 벼의 생산량을 안정시켰으며, 산시성의 북쪽과 남쪽에서 감자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을 육성했다. 또한, 식량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식을 개발하고 친환경 생산방식을 도입했다. 이 밖에도 식량의 대량 생산을 지원했다.

경쟁력 있는 농업 구조 구축

농업의 생산 구조를 재편하여 마을 하나 당 또는 여러 마을이 하나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관련 품종을 집중적을 재배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 구조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산시성 북쪽 산베이(陝北)지방은 육류를 생산하고 웨이베이(渭北)는 사과와 특색 있는 과일, 관중(關中) 지역은 주류 곡식과 채소 및 축산업, 친링베이루(秦嶺北麓)과 친바(秦巴)산 지역은 키위, 한중(漢中)분지와 위에허(月河) 천은 벼와 청경채, 산시성 남쪽인 산난(陝南)은 찻잎과 돼지 등 여섯 지역으로 나누어 육성했다. 재배 농법을 개선하고 과일 품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과일 생산 구조를 개선했다. 표준화되고 규모를 갖춘 축사와 양식장을 짓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우량 종자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원했다. 잡곡, 붉은 대추, 석류, 산초, 구약나무, 누에와 뽕나무, 약재, 수산물 등 지역별 특이 작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했다.

농산품의 품질 개선 및 식품안전 강화

성(省), 시(市), 현(縣)을 아우르는 농산품 품질과 식품안전을 관리•감독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농산품의 품질과 식품안전 정보를 추적•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지 출하부터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 농산품의 정보를 관리하여 식품안전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기지, 도매시장, 중•대형 재래시장, 대형 마트의 식품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농산품 품질을 관리· 감독하고 농업 표준화를 추진하여 농산품 생산 초기부터 판매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생산지 환경 관리도 강화했다.

3. 재정금융지원정책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증가와 농업보조금 효과 제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각 행정단위 재정지출을 매년 꾸준히 늘려 농업과 농촌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시와 현의 재정지출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심사결과와 자금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산시성 농업 자금 통합 시범방안' 을 내놓아 농업에 지원하는 지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농업보조금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조금지원 방식, 지급 대상을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높였다.

농촌금융의 혁신

지방은행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농민합작사의 내부 자금 호환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삼

농(三農: 농촌, 농민 농업)금융 서비스가 필요한 현 단위의 농촌상업은행과 농촌합작은행 상황에 맞추어 지급준비율을 낮췄다. 농촌토지경영권과 농민주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삼농' 금융담보와 재담보 기관을 육성하여 은행담보 협력기관을 설립 및 개선했다. 농업 관련 대형 기업에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회사와 과수업 · 축산업 · 종묘 자금의 역할을 강화했다 농업 보험과 관련된 재정 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농가, 재정, 보험 은행이 결합하여 농가 자금 조달을 돕는 '은보부(银保富)' 등 농업보험상품의 커버리지를 높여 재정보조 보험상품의 종류를 확충했다. 지방 특색의 보험 상품을 늘리고 각 행정단위의 보험보조금 지급을 늘렸다.

농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장려

기업형 경영의 현대 농업, 농산품 가공유통과 농산품 서비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또는 '사황(四荒: 황폐한 토지, 사막, 목초지, 수자원)' 자원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했다. 농업 기업과 농가, 농민합작사간의 긴밀한 이익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해당 지역의 도로, 수자원, 전력망 등 인프라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농산품 가공 기업에는 수자원과 전력 사용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민간기업의 농업용지 양도 심사, 사업 심사, 리스크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 임대 조건과 경영범위,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4. 농업과학 혁신과 전문 농업인의 육성

농업과학의 혁신

핵심 산업의 재편은 현대화 농업의 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산시성은 품종, 선진적인 과수업, 밭작물, 스마트 농업, 농기계 설비, 생태환경, 생물자원개발 등 영역에서 든 성과를 거뒀다. 오늘날 재배품종을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기업이 중심이 되는 재배 품종 연대를 구축하여 품종 재배에서 개량까지 일체화된 시스템을 마련했다. 토지를 비닐로 덮거나 뒤집어 토질을 개선하고, 액비를 뿌리고 좋은 품종을 선택하는 등 농업 기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힘썼다.

전문농업인 육성

전문 농업인 육성을 오늘날 선진 농업의 핵심으로 삼아 육성 목표와 계획을 마련했다. '현실적, 실용적, 효과적인 교육' 을 원칙으로 다양한 방법을 육성 방식을 도입했으며, 생산경영형, 전문기능형, 사회서비스형, 차세대 전문 농업인으로 나누어 육성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전문 농업인 윤성 모델을 모색하고 교육, 관리, 정부지원이 일체화된 교육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기술 및 지식, 생산경영능력을 갖추고 주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 경영인을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농업 서비스 강화

생산형, 기술형, 품질안전보장형 등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농업생산 전 과정에 걸친 혁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농가에 경작과 수확을 대신하고, 위험을 함께 예방하고 해결하며 자연재해와 수확물을 저장하는 서비스를 지원했다. 기초적인 농업 정보를 알리는 등 공익성을 띤 서비스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의 경비를 지원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생활 여건도 개선했다. 농촌의 사정, 시장, 자연재해, 품질감독을 미리 알리는 단일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부의 서비스 구입과 민관협력(PPP)모델을 추진했다.

후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RDA 농촌진흥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충청남도교육청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kr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한국농업경제학회

KAAFP 한국농식품정책학회

KFMA (사)한국식품유통학회

사단법인 한국농촌사회학회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KOA 한국유기농업학회

거버기 한국사회와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

지역재단 Korea Regional Development Foundation

KYOBO 대산농촌재단

中华人民共和国驻大韩民国大使馆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Embassy of Japan in Korea

FAO 한국협회 Korea FAO Association

CLAIR 日本自治體國際化協會

(사)한중문화우호협회 (社)韓中文化友好協會

경향신문

100년 친구 대전MBC

중도일보 joongdo.co.kr

농민신문 The Farmers Newspaper

한국농어민신문

해외 특별협력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3농혁신 위원회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